

하북정전관광명소 한국어관광사

河北经典旅游景点 韩国语导游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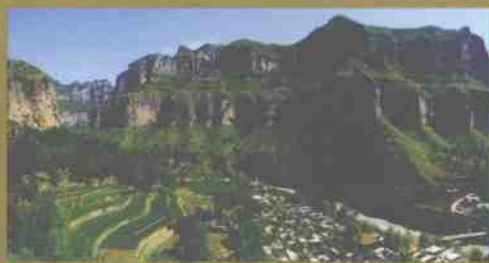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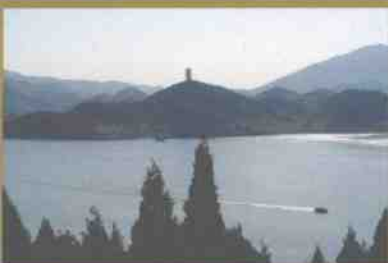
● 本书编写组



中国旅游出版社

하북경전 관광명소 한국어 관광사

河北经典旅游景点韩国语导游词



ISBN 978-7-5032-3541-2



9 787503 235412 >

定 价：40.00 元

河北经典旅游景点韩国语导游词
하북경전관광명소한국어관광사

本书编写组

中国旅游出版社

责任编辑：殷 钰

装帧设计：赵 芳

责任印制：闫立中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河北经典旅游景点韩国语导游词：汉朝对照/本书编写组.
—北京：中国旅游出版社，2008.9
ISBN 978-7-5032-3541-2

I. 河… II. 本… III. 导游-解说词-河北省-
汉、朝 IV. K928.922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8) 第 139372 号

书 名：河北经典旅游景点韩国语导游词

主 编：本书编写组

出版发行：中国旅游出版社

(北京建国门内大街甲9号 邮编：100005)

http://www.cttp.net.cn E-mail: cttp@ccta.gov.cn

发行部电话：010-85166507 85166517

排 版：北京中文天地文化艺术有限公司

经 销：全国各地新华书店

印 刷：北京新魏印刷厂

版 次：2008年9月第1版 2008年9月第1次印刷

开 本：720毫米×970毫米 1/16

印 张：14

印 数：1-3000册

字 数：280千

定 价：40.00元

I S B N 978-7-5032-3541-2

版权所有 翻印必究

如发现质量问题，请直接与发行部联系调换

编委会成员名单

主 任：王新勇

副 主 任：纪保平

委 员：郭 平 舒 艳 温学军 金 迪 杨瑞杰

主 编：刘启亮 赵 非

主 译：李英善

主 审：申惠娟

编写说明

《河北经典旅游景点韩国语导游词》是河北省旅游局为加大导游队伍建设力度，加速培养外语导游，配合韩语导游资格考试而编写的一本韩语导游培训教材，也是河北省旅游局奉献给世界各地的海外游客的一份礼物。

《河北经典旅游景点韩国语导游词》是在中文版《河北导游词精粹》一书的基础上编写而成。本书的出版既为来河北旅游的海外游客提供一本具有实用性的旅游指南，同时也为各地的韩语导游，旅游从业人员提供了河北旅游的韩文资料。本书的出版，对宣传河北旅游资源，提高河北名胜古迹的知名度，促进河北旅游业发展将起到积极作用。

我们衷心希望这本书能够成为广大读者的得力助手，衷心地祝愿河北旅游业有更大的发展。

编者

2008年5月

目 录

수도주변지역——하북·····	1	京畿重地——河北·····	128
피서산장·····	7	避暑山庄·····	131
보타종승지묘·····	14	普陀宗乘·····	136
보녕사·····	20	普宁寺·····	140
조주교·····	27	赵州桥·····	144
맹강녀묘·····	32	孟姜女庙·····	148
총대공원·····	35	从台公园·····	150
승예스키·····	36	崇礼滑雪·····	151
목란위장·····	39	木兰围场·····	153
융흥사·····	45	隆兴寺·····	157
북대하·····	56	北戴河·····	165
탁록삼조문화·····	59	涿鹿三祖文化·····	168
무장년화박물관·····	63	武强年画博物馆·····	171
홍수삼절·····	66	衡水三绝·····	173
직여총독서·····	72	直隶总督署·····	177
천하제일관·····	78	天下第一关·····	181
청동릉·····	82	清东陵·····	184
만성한묘·····	85	满城汉墓·····	186
공산백운동·····	90	崆山白云洞·····	189
향하제일성·····	94	香河第一城·····	192
금산령장성·····	102	金山岭长城·····	199
청서릉·····	107	清西陵·····	203
섭현와황궁·····	113	涉县娲皇宫·····	207
향당산석굴·····	116	响堂山石窟·····	209
오교서커스대세계·····	119	吴桥杂技大世界·····	211

머리말

수도주변지역—하북

하북성은 중국의 북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연산, 남쪽으로는 황하, 서쪽으로는 태항산, 동쪽으로는 발해에 면하였고 총 면적은 18.8만 평방킬로미터이며 인구가 6700만명이고 성소재지는 석가장입니다.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수려한 산과 하천으로 인해 하북은 중국의 중요한 관광 도시로 되었습니다. 목전, 하북은 많은 역사와 문화, 유적을 가지고 있어서 규모면에서 전국의 1/9을 차지하고, 국보급문화재가 88개로서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습니다. 또한 성급 이상의 문화재가 680개로서 전국에서 첫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 국가급문화명승지5곳, 중국 우수관광도시 6곳, 전국 10대풍경명승지 2곳, 국가급풍경명승지 7곳, 국가급산림공원11곳, 국가급자연보호구 7곳이며 국가AAAAA관광풍경구도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2007년 진황도시 산해관 풍경구, 보정시 안신백양전 풍경구, 승덕시 피서산장 및 그 주변 사묘풍경구는 전국 관광풍경구질량등급평정위원회에서 국가AAAAA급 풍경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하북성 역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변, 평원, 호수, 구룡, 산지, 고원이 모두 있는 성으로서 온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에 속합니다. 완벽한 지형과 지세를 가진 하북성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천태만상을 이루며 그 자연풍경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높은 하늘과 끝없는 구름바다가 떠있는 폐상초원에서는 일단 바람이 불어오면 숲속에 잠겨있던 소와 양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골짜기와 봉우리의 높낮이가 비슷한 아름다운 태항풍광, 연산준령, 새하얀 백설이 뒤덮여 은단장을 한 산지 립해설원, 일망무제하게 아득히 뻗은 옥야, 부드러운 모래와 조수, 고른 하늘과 하천이 잇닿아 있는 발해 해변, 그리고 도랑과 골짜기가 가로세로 뻗어 있고 푸른 버들과 연분홍 연꽃이 피어 있는 해변과 못, 호수는 관광객들이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휴식터로 되고 있습니다.

하북성은 중화 민족 발상지의 하나입니다. 5천년 전에 중화 민족의 3대시조인 황제, 염제, 치우는 <싸움은 탁록의 평야에서 하고 국가는 탁록의 언덕에 세우며>란 중국문명사를 창립하였습니다. 제일 오래된 중국 지리지작 <우공>에서는 하북은 아홉개 주 가운데서 익주기지에 속하므로 간단히 <익>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춘추전국시기, 하북은 연나라와 조나라에 속하고 근 백년간의 영예와 치욕, 흥망과 성쇠를 거쳐 무수한 눈물겨운 이야기를 엮었고 역사적으로 <연조>란 호칭이 있습니다. 천고의 황제 진시황은 한단에서 태어나 형태에서 사망했습니다. 진시황은 여러 차례 창주와 진황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장생불로약을 찾았으며 대부분 일생을 하북에서 보냈습니다. 위진 남북조시기, 하북은 각 제후국이 정권을 탈취하는 주요한 전장이었습니다. “유, 관, 장”은 탁주에서 의형제를 맺고 천하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패권을 잡고 좌지우지하였는데 그 성과가 대단하였습니다. 조조는 업성을 차지하고 현능한 인재를 주도면밀하게 등용하였고 시인들의 흥취조 불러 일으켰는데 건안문학이 이 시기에 흥기했습니다. 북제 때에는 불교신앙이 융성하였습니다. 고양황제는 향당산에서 굴을 파고 사당을 세웠는데 규모가 방대한 석굴은 예술적이었습니다. 당, 송 두 조대에는 불교의 선학이 이름을 날렸고 현장은 백림사, 제음사에서 다년간 도를 닦으면서 후에 인도로 불경을 구하러 떠났습니다. 원, 명, 청 삼조는 북경을 수도로 정하였기에 하북은 북경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주요한 곳으로 되었습니다.

자고로 연나라와 조나라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동시에 눈물겨운 비장한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보기, 듣기, 묻기, 베기” 4대 진찰 방법을 연구해 낸 전국시기 명의 편작, “인간은 승천할 수 있다”를 주장한 순자, 연나라 자객형가, 서한의 철화가 동중서, 원주율을 가장 정확하게 계산해 낸 남조시기 수학자 조충지, 때를 맞추어 군대를 일으켜 북벌해 주원을 수복한 조적, 당조의 저명한 시인 가도, 원대의 저명한 천문학자 곽수경, 대희곡가 관한경, 명작 “홍루몽”을 써낸 청조의 저명한 작가 조설근, 현대사에서 장엄하게 죽음을 맞이한 혁명의 선구자 이대소, 진리와 정의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남아산 다섯용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동존서……한세대 또 한세대의 연조의 아들딸들은 하북의 영웅이고 수재이며 그들이 엮은 무수한 이야기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노래로 불러져 인민들에게 전해지었고 또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빛냈습니다.

하북의 역사는 다채롭고 화려한 민속문화와 민간예술을 낳았습니다. 정요, 형요, 와주요와 당산 도자기는 중국 역사상 북방도자기예술의 전형적인 대표입니다. 위현의 종이오름, 무강의 년화, 량방의 경태란, 곡양의 석조, 형수의 내화비연호, 익수의 벼루는 중외에 이름을 날렸고 하북의 딱따기, 보정의 지방극, 당산의 인형극, 정형의

랍화는 그 독특한 운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창주의 무술, 오교의 서커스, 영년의 태극, 보정의 건강장수지도는 그 매력이 널리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북성에 완벽한 관광자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관광업의 발전을 둘러싸고 하북성은 과감히 국내외시장에 진출하여 관광자원을 발굴해 내고 8갈래의 독특한 관광코스를 내놓았습니다.

첫번째 갈래: 의동해변휴가관광코스

북경에서 출발하여 경-심 고속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준화시, 옥전현, 노용현, 무녕현을 거쳐 진황도에 도착하는데 그 거리가 280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준화시의 청동릉은 청왕조의 황릉군 두 개 중의 하나입니다. 규모가 방대하고 건축설계가 아름답고 기세가 도도한 이 곳에는 5명의 황제, 15명의 황후, 136명의 왕비들이 묻혀 있으며 강희제, 건륭제, 자희태후 등 청조의 유명한 제후들이 여기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당산은 지진 후의 폐허로부터 다시 건설한 새 도시로서 지금까지도 1976년의 대지진으로 인한 유적들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산은 '북방의 도자기도시'로서 해마다 이곳에서 열리는 도자기박람회는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을 모여들게 합니다.

진황도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해변관광도시로서 '여름의 도시'란 호칭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리장성의 시발점인 산해관노용두가 있고 유명한 관광피서지인 북대하, 남대하, 창려황금해안도 있습니다.

두번째 갈래: 승덕활실풍경관광코스

북경에서 출발하여 경-승 관광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회유, 밀운, 난평현을 경과하면 역사문화명승지인 승덕시에 도착합니다. 그 총 노정은 230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노선은 전에 청조의 황제들이 국경밖에 나가 순찰하던 노선이기도 합니다. 주요한 경관은 승덕의 피서산장과 외팔묘, 북부의 위장현 삼림초원입니다.

승덕의 피서산장은 세계에서 제일 큰 고전활실원림입니다. 피서산장은 자연적인 산수지세를 이용하였으며 또한 중국 전통원림건축의 북웅남수의 특징을 살렸는데 <천하의 풍경을 한데 모은 곳>이라는 아름다운 칭호도 가졌다고 합니다. 산장 주위에 있는 외팔묘는 전국에서 제일 큰 황살사묘건축군입니다. 외팔묘는 금빛과 푸른 빛의 광채가 눈부시게 빛나고 장관적이며 늠름한 풍채로 보위병마냥 산장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별이 달을 에워싸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외팔요는 몽, 장, 위, 한, 만 등 여러 민족의 건축풍격을 종합하여 지었고 중국 고대건축예술의 정화들을 모았으며 각 민족문화예술의 매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는 중화 민족이 단결되고 통일된 역사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위장삼림초원은 청왕조의 황실수렵장이면서 군사훈련기지이기도 합니다. 몇 백년의 정치, 군사활동은 무수한 역사문화유적을 남겼습니다. 풍경이 독특한 산과 하천, 가없이 넓게 뻗은 삼림초원, 풍부한 야생동식물자원은 인류가 진정으로 순수한 대자연의 풍치를 만끽할 수 있는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세번째 갈래:경북초원유람관광코스

북경에서 출발하여 고등급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떠나 회유현을 지나면 풍녕현에 도착합니다. 그 총 노정은 190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풍녕은 경북의 제일초원이고 북경까지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천연대초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파란 하늘, 하얀 구름, 맑은 물, 가없는 초원, 짐승들의 울부짖음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곳은 “경북의 관광명주”로 불리웁니다.

네번째 갈래:새외관광코스

북경에서 출발하여 정-장 고속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창평구, 연경, 선화를 경유하면 새외명승지인 장가구에 도착합니다. 그 총 노정의 길이는 200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장가구관광은 장성, 초원과 시조문화로 구성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탁록현의 황제성은 중국에서 가장 빨리 건립된 도시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천고의 문명은 탁록에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곳에는 아직까지 황제성, 염제성, 치우성 등 많은 문물고적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신흥의 온천욕장, 탐험표류, 관광농업, 산지스키 등은 장가구로 하여금 경서북의 한가로운 휴양지로 되게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갈래:경교태항풍경관광코스

북경에서 90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내수현, 야삼파, 내원현, 백석산은 국내외에 명성을 떨치는 풍경관광구로서 태항풍경명승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백리협, 거마하, 불동담, 용문협, 금화산, 백초반 등 많은 풍경구도 천태만상을 이루고 우아한 매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근래에 이 곳들은 북경과 천진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었으며 한가한 요양을 즐기고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되었습니다.

여섯번째 갈래: 연조문화관광코스

북경에서 출발하여 경-광 철도와 경-심 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행하여 보정, 석가장, 형태, 한단 네 개 중심도시를 지납니다. 총 노정은 450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도시들은 서쪽으로는 태항산맥, 동쪽으로 화북평원에 면해 있으며 문화침적이 농후하고 문물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탁주는 “삼국연의” 저작이 시작된 곳이며 청서령은 청왕조 두 개 룡묘 중의 하나입니다. 만성한묘는 “금루옥의” 고향이고 보정의 직예총독서는 전국의 유일한 청대성급총독관청입니다. 백양전은 화북의 제일 큰 담수호이고, 염장의 갯도전기기념관은 중국인민의 두려움 모르는 불굴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제국주의를 타격한 비장한 역사는 정정홍용사를 “경남의 제일사찰”로 되게 하였습니다. 조현의 조주교는 세계 교량의 시조이고 평산의 서백파는 중국 혁명의 마지막 농촌지휘소입니다. 한단은 전국시기 조나라의 수도이고 저명한 성어의 전고이며 아직까지 향당산석굴, 와황궁, 무령총대와 황당물려선사 등 문물고적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령수오악채, 평산천계산, 찬황장석암, 정형함암산, 임성공산백운동, 섭현와황궁 등 태항산 승경은 수려한 자연풍치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호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일곱번째 갈래: 익동남민속풍경관광코스

북경에서 출발하여 경-진-당 고속도로, 경-호 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행하여 향하현, 랑방시, 천진시, 창주시, 오교현을 가로 지나 형수현에 이르는데 총 노정은 410 킬로미터입니다.

향하현의 제일 성은 외부는 명, 청 시대의 고성 북경을 모방하여 건축하였고 그 안에는 중국의 고급문화들을 수집하여 이채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방대한 인조경관 중의 하나입니다.

랑방, 형수는 하북성의 관광상품기지이며 이 곳에서 생산하는 몽양, 경태랍, 비연호 등 상품은 종류가 많고 공예가 아름답습니다. 창주의 오교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서커스 고향입니다.

여덟번째 갈래: 장성관광코스

장성은 중국관광의 상징으로서 하북관광의 주요한 상품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만리장성은 전반 하북성을 가로 지났는데 그 길이가 2000여 킬로미터나 되어 하북성으로 장성이 지나간 길이가 제일 길고 제일 완벽하게 보존된, 건축풍격이 독특한 성으로

되게 하였습니다. 만리정성의 첫 시작인 노용두, 천하제일관인 산해관, 벼랑에 거꾸로 달린 각산장성, 산개울을 뛰어넘은 구문구장성, 물속에 잠입해 들어간 반가구장성, 험준한 금산령장성, 장성의 요새 대경문, 장성의 역사적인 전설에 의해 지은 맹강녀묘 등은 모두 하북성내에 있습니다.

编译: 李英善

피서산장

피서산장

피서산장은 승덕시 중심 북부에 위치해 있는데 중국에서 제일 큰 황실원림으로서 부지면적이 564헥타르이며 이화원의 2배, 북해공원의 8배입니다. 10 리 되는 궁벽은 마치 만리장성과도 같이 높은 산과 평원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피서산장은 산세를 따라 지었는데 구조가 합리적이며 새복 산들의 기묘하고 웅대한 기백, 강남수향의 청수한 미로 수 천년 중화원림건축의 예술풍채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 120여개의 건축은 물과 산세를 따랐으며 그 높고 낮음은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가 있어 마치 천연적인 한 폭의 산수화를 방불케 합니다. 여기에는 원림 창조자의 지혜와 재능이 안받침되어 있습니다. 피서산장의 72개 풍경 중 무릇 네 글자로 명명한 것은 강희황제가 쓴 것이고 세 글자로 명명한 것은 건륭황제가 쓴 것입니다. 이런 편액의 호칭들은 어떤 것은 성어에서 온 것이고 어떤 것은 경구에서 온 것입니다. 참신하면서도 소박한 호칭들은 피서산장의 하나 하나의 풍경에 시적 이미지를 더해 주고 나아가 산장으로 하여금 더욱 문화적 색채를 풍기게 합니다.

승덕——제왕의 후화원

창조초기 승덕은 <열하상영>이란 작은 촌락이었습니다. 그 후에 조금씩 발전하여 청조 통치자들의 후화원이 되면서 귀족들이 모여 사는 도시로 되었고 청조의 두번째 정치중심으로 되었습니다. 가경기간(1723년~1735년) 선제의 은택을 그린다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승덕이라고 고쳤습니다.

다민족국가통일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강희황제는 자주 북으로 순찰하면서 북경으로부터 350킬로미터 떨어진 몽고족들의 유목지에다가 목란위장을 건설하여 대규모적인 수렵활동을 벌리고 군사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을 “추미성전”(가을사냥)이라고 합니다. 매번 황제가 북으로 순찰하거나 목란으로 가을사냥을 떠나면 장성 이북

에서 3-5개월 동안 체류했습니다. 그리하여 도중에서 숙식, 물자운송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또 휴양하거나 조정문제를 처리하는 장소가 필요했기에 가는 곳마다 20여개의 행궁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강희황제는 몇번의 고찰을 거쳐 비교해 본 결과 승덕이 별원을 짓는데 가장 이상적인 장소라 생각했습니다. 승덕은 풍경이 수려하고 기후가 적합하고 지세가 험한 산에 쌓여 있어 한 여름 평균기온이 24섭씨도이고 북경과도 가까웠기 때문에 말을 타면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왕조의 발상지인 북방도 바로 갈 수 있었고 관내를 직접 내려다 볼 수도 있었기에 몽고 각부의 진공도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원교에다 별장을 짓는 것은 만족인들의 습관으로서 북옹남수, 자연미를 겸비한 승덕은 만족인의 고향과도 같습니다. 승덕은 휴식을 하고 조정을 처리하는 좋은 곳일 뿐만 아니라 만족인들이 피서를 즐기고 천연두를 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강희황제는 난하지판에 행궁을 짓고 친필로 <피서산장>이라 명명하였고 이곳은 빠른 시일내 청왕조가 북경 이외에 군정과 민족문제를 처리하는 정치중심으로 되었습니다. 서방인들이 <로마는 더 이상은 로마가 아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로마다.>라고 말하듯이 피서산장은 청왕조의 두번째 정치중심으로 되었습니다.

피서산장의 수건

열하행궁은 강희 42년(1703년)에 건설하기 시작하여 강희 1711년에 초보적인 건설을 끝마쳤습니다. 열하행궁이 군 행궁의 중추이기에 그 규모는 보통 행궁을 초과했습니다. “피서산장”은 강희황제가 명명한 것입니다. 건륭시기에 조부인 강희황제의 “동심협력하에 통치를 강화하고 다시 정수하는 정신”을 계승하여 산장을 대규모적으로 확장건설하였습니다. 산장공정은 건륭57년(1792년)에 끝마쳤는데 모두 8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피서산장은 자금성 버금가는 두번째 정치중심일 뿐만 아니라 중국4대원림 중의 하나이며 세계상에서 보존되고 있는 가장 완벽한 황실원림이며 피서산장역시 <강건성세>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1984년 유네스코는 피서산장과 외팔묘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였습니다.

피서산장의 풍경과 관광명소

산장은 공능에 근거하여 궁전구, 원경구로 나뉩니다. 궁정구는 산장의 남부에 위치해 있고 정궁, 송학재, 만학송풍과 동궁 등 네 개 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청조 황제의 후비들이 일상생활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조정을 관리하고 정사를 행사하

며 경전을 거행하고 잔치를 벌이는 오락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동궁이 이미 불타 버렸다는 것입니다. 파란색 벽들과 회색 기와로 된 궁전은 우아하면서도 소박하며 봉건제도의 법칙을 엄격히 준수하였습니다. 원경구는 또 호수구, 평원구와 산구로 나뉘는데 지형이 복잡하고 서북부는 봉우리가 겹겹이 둘러싸여 있으며 수목이 무성합니다. 동남부 호수와 높은 우리 나라 강남수향의 아름다운 정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산과 호수사이에 넓은 평원이 있어 북국의 망망한 초원의 풍경을 연상시킵니다. 전반 원경구의 배치는 청왕조판도의 축도이기도 합니다.

피서산장의 궁전구는 강희52년에 건설하여 건륭19년에 다시 수건했는데 부지 면적이 1만평방미터입니다. 중국전통음양학에 의하면 고대 중국인은 우수를 음으로, 기수를 양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음은 여자를 대표하고 음침하고 소극적이며 양은 남자를 대표하며 명랑하고 적극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수자 9는 우수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서 대부분 황제가 사용하는 궁전은 아홉 개의 원을 가졌고 9는 황제의 숫자로서 고대천자는 <신거구중>이라 했습니다. 정궁 중축선 위에 있는 건축은 담박경성전, 사지서우, 연파치상전, 연우루를 포함합니다. 정궁은 전조와 후궁으로 조성되었는데 황제가 거주하고 국가대사를 처리하고 경축의식을 거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타 건축도 모두 중축선 위에 대칭적으로 분포되었는데 양측은 장엄한 황실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려정문은 피서산장의 정문으로서 궁전구 제일문이기도 합니다. 려정문은 면적이 크고 상하 두 층으로 나뉩니다. 아래층 벽에는 세계의 사각형 통로가 있고 위에는 성대와 절루가 있습니다. 중간 통로 위에는 편액이 걸려 있는데 건륭황제가 만, 한, 몽, 장, 위5종 문자로 쓴 <려정문>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려정>은 <역경>에서 나오는데 <역, 리괘>에서는 <해와 달의 아름다움은 하늘에 있고, 백곡 초목의 아름다움은 땅에 있고 중명의 빛남은 바른 것에 있으며 바로 천하를 따르는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려>는 따르다는 뜻으로, <려정>은 방위가 바르고 공명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려정문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의 영원한 흥성발전을 상징합니다.

피서산장은 대궁문, 이궁문을 포함합니다. 강희황제가 친필로 쓰신 <피서산장> 편액은 금으로 도금한 것으로 이궁문내에 있으며 이를 <피서산장문>이라 합니다. 세심한 관광객들은 편액 위의 중국어로 된 <피>자가 한 획 더 그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무를 겸비한 강희황제가 글자를 잘못 썼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청조에서는 이 두 글자를 다 사용했는데 어느 글자를 사용하든지 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서법상에서 볼 때 한 획 더 그은 <피>자가 더 아름답고 대범하고 미묘하지 않을까요?

궁전구는 규모가 방대한 황실원림의 남부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10만 평방미터이고 사할원 건축풍격을 채택하였으며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궁의 주전-담박경성전은 북경 자금성의 태화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청조황제가 중대한 정전을 성행하거나 백관을 만나고 소수민족 수령, 외국 사절들을 접대하고 조정을 처리하는 장소였습니다. 이는 6세 벤첸이 라마 2000명을 거느리고 만리길을 걸어서 500일간 천신만고 끝에 승덕에 와서 황제를 회견하는 원인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담박경성전은 강희년간에 건설되어 건륭년간에 남목으로 다시 개건하였는데 <남목전>이라고도 합니다. 담박경성전은 남목, 청색 벽돌과 회색 기와, 본색 기둥으로 조성되었으며 단아하면서도 정중하고 소박한 이미지를 겸비한 건축풍격은 고궁의 황색 기와, 홍색 담벽, 금빛찬란한 건축풍격과는 현저한 대비를 이룹니다. 건륭황제는 전에 <자고로 한, 당조시기를 거치면서 황제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수도 이외에도 토목공사를 벌려 많은 자원을 낭비하였고 심지어 한 개 국가도 궤멸시켰는데 우리는 마땅히 이런 것을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받아들여 그는 궁전을 건축할 때 소박함을 주장하였으며 따라서 담박경성전은 황제의 이런 사상을 구체적으로 체현하고 있습니다.

담박경성전은 은7,200냥을 소모했고 일꾼이 19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궁전은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았고 기둥, 칸막이, 천장판은 남목으로 만들어졌으며 질량이 단단하고 색채가 고풍스러우며 청향이 담담하게 풍겼습니다. 천장판, 칸막이 위에는 정교하게 복숭아, 박쥐, 풀 등을 조각했고 <오복봉수>와 <만복만수>도안이 있습니다. <고금도서집성> 만권이 북부의 책꽂이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황제의 보좌 양견에는 선학이 놓여있고 뒤에는 단행목 병풍이 있으며 위에는 163개의 형태가 다른 사람들의 <경직도>가 살아있는 듯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백성에 대한 황제의 배려를 보여줍니다. 담박경성전의 앞 처마에는 금목에 검은 글자로 된 편액이 세 개 있는데 건륭황제가 제사한 것으로서 고대 천자의 화노에락을 나타내며, 당시 황제의 심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지서우는 황제가 가까운 대신을 접견하거나 휴식하는 곳으로서 황제가 중요한 손님을 접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기 전에 황제는 일반적으로 이곳에서 옷을 바꿔 입습니다.

예를 들면 황제는 벤첸라마와 영국대신 조지, 마알얼을 이 곳에서 접견하였습니다. 당시 황제는 차와 과일로 벤첸라마를 접견하였는데 연회가 끝난 후 황제는 규례를 타파하고 친히 벤첸라마를 모시고 자기의 후궁침궁을 참관하게 하였습니다.

연파치상전은 청황제 침궁인데 가경제와 함풍제가 병으로 돌아간 곳이기도 합니다. <사면이 봉우리에 둘러싸여 있고 심리 호수로 인하여 상쾌한 기분이 든다.> 따라서 강희황제는 이 곳을 <연파치상전>이라 명명하였습니다. 1860년 팔국연합군에 의해 북경이 점령된 후 함풍황제는 모친과 귀비들을 데리고 이 곳으로 피난왔다고 합니다.

함풍황제는 이 곳에서 상주문을 수정하였고 그의 동생 공친왕은 영국과 프랑스와

<북경조약>을 체결하였고 러시아와는 <에훈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런 조약은 중국으로 하여금 주권을 상실하고 능욕을 당하게 했으며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하였습니다. 건륭황제는 시에 조예가 깊었고 아름다운 서법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많은 편액, 비문, 조각작품으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건륭황제는 나중에 그의 자손들이 똑같은 아름다운 문자로 홍콩을 영국에 빼앗기는 <북경조약>을 체결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서난각은 함풍황제의 귀비 즉 후세에 유명했던 자희태후의 거실입니다. 방에는 자희태후의 일상용품이 있고 <자희>는 함풍제가 하사한 이름으로서 <성모>라는 뜻입니다. 1861년 함풍황제가 돌아간후 자희태후는 자기가 정권을 잡고 중국에 대한 통치를 시작했는데 48년이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산장의 원경구 면적은 북경 이화원의 6배로서 호수구, 평원구, 산구로 나눕니다. 호수구는 산장의 동남부에 자리잡고 있는데 모두 9개 호수와 열개 섬이 있습니다. 호수구의 아름다운 경치는 모두 중국 남방원림을 모방하여 지은 것으로서 산장의 호수를 총칭하여 새호라 합니다. 관광객들은 호수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청련도, 여의주도, 월색강성도가 있습니다. 호수면 위에는 녹수가 드리워져 있고 가끔 작은 물보라가 이는데 바람이 불면 향기가 풍겨와서 이런 가경은 남방원림중의 풍경을 연상케 합니다.

호수구

산장은 산으로 의해서 이름지어졌지만 물로 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호수구를 천천히 걷노라면 우선 먼저 눈에 다가오는 것은 수심사입니다. 수심사는 하나의 석교위에 자리잡고 있는데 세 개의 정각이 있습니다. 수심사는 긴 제방으로 이어졌으며 제방을 통해서 환벽도, 청련도와 월색강성도를 지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면 마치 구름과도 같으며 여의를 되풀이한 것과도 같습니다. 이 잇닿아 있는 세 개의 제방은 옛적부터 “지경은제” 라는 호칭이 있었으며 강희황제가 명명한 32경 중의 제2경입니다. 강희년간, 음력7월15일 중원절이면 향을 피웠는데 이 곳에서 자주 맹란분회를 거행했습니다. 청련도주전은 황제가 공부하던 곳입니다. 월색강성은 전형적인 사합원 건축을 채용한 것으로서 왕실성원이 밤 늦게 달구경을 하거나 가무를 즐기던 곳이기도 합니다. 청련도위의 주체 건물은 연우루인데 면적이 넓고 상하 두 층으로 나뉘고 루 위에는 회랑이 둘러져 있습니다. 연우루는 절강 가흥의 연우루를 모방하여 지은 것으로 비의 자태와 연기의 미묘한 연계를 감상할수 있으며 1780년(건륭45년)에 세웠습니다. 매년 비가 올 때면 연

우루 내는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는 느낌을 주어 관객들로 하여금 몽롱한 안개 속에 잠기게 합니다. 멀리 내다 보면 가짜산으로 이루어진 작은 섬 위에는 작은 탑루가 있는데 이것을 금산정이라고 합니다. 절강에는 웅위하면서고 장려한 칠층 사찰이 있는데 그것은 장강과 강소성의 중냉천외와 그올리는 것으로 금산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륭제는 그곳을 감상하기 즐겼는데 산장의 내부에 금산사를 모방하여 금산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금산정은 상, 중, 하 삼 층으로 나뉘며 멀리 앉은 곳에 있는 무열하, 열하와 조합을 이루어 금산사의 건축구조에 부합되었습니다. 금산정의 꼭대기에는 황궁우가 있습니다. 청황제는 이곳에서 귀비와 궁녀들을 거느리고 제를 지내면서 국가의 안정과 인민의 행복을 빌고 번영창성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탑의 꼭대기에 서면 산장의 전반 경치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산장의 동북 모퉁이에 있는 열하는 물의 온도가 전년 온정하고 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으며 전반 산장을 흘러 지납니다. 열하의 총 길이는 14.7천미터로서 세계상에서 제일 짧은 하류라고 합니다.

평원구

북쪽으로 계속 가면 평원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평원구는 호수구의 북쪽에 있고 부지면적이 53헥타르이며 주요하게 만수원, 시마태, 영우사, 육합탑과 같은 유명한 풍경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원의 경치는 소박하면서도 안정되고 부드러운 색채를 더해 주어서 신비로움을 줍니다. 평원구의 서부는 넓은 평원으로서 수림이 우거지고 풀들이 무성하여 일망무제한 내몽고초원의 풍경을 연상하게 하며 관객들은 이 곳에서 말타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만수원에는 하늘을 찌르는 고목들이 많고 동부지구에 28개의 몽고포가 있습니다. 제일 큰 몽고포가 어악몽고포인데 직경이 칠장이척에 달하고 제일 작은 몽고포는 비채몽고포로서 직경이 이장이척에 달합니다. 이 곳은 피서산장의 정치활동중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건륭황제는 정상적으로 이 곳에서 잔치를 벌리고 몽고 등 소수민족 왕공귀족 및 외국사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황제는 잔치를 벌리는 동시에 그들에게 벼슬도 봉하고 상도 주었으며 그들과 함께 꽃불구경도 하고 곡에도 관람도하였습니다. 건륭제는 전에 이 곳에서 몽고부락의 족장과 영국사절을 만났으며 당시 불꽃이 휘황했고 가무로 뒤덮어진 초원 위에선 용사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문진각은 당시 중국 북방 사대장서루중의 하나입니다. 문진각은 두가지 의미가 있는데 <문>은 지식을 의미하고 <진>은 운반하고 전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문진>

은 지식을 전파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청조시기 네 개의 저명한 황가장서루로는 문진각, 북경 자금성내의 문연각, 원명원의 문원각 심양고궁의 문소각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내정사각” 이라고 합니다. 문진각에는 대량의 자, 사, 경, 집 등 저작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고전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책은 500명학자들이 공동으로 써낸 것으로서 7,9070묶음이나 된다고 합니다. 문진각은 1774년에 건설하기 시작해 1782년에 준공하였으며 절강 녕파의 천일각을 모방하여 지은 것입니다. 외관은 처마가 두터운 2층으로 되었고 내부구조는 3층으로 되었으며 상, 하층사이에 겹층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설계는 누각내의 장서들이 햇빛을 피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원내를 감싸안은 가짜산은 형태가 각양각색인데 승덕 십대 명산을 축소시킨 것과 같습니다. 동쪽의 가짜산 위에는 작은 통로가 있는데 마치 신월과도 같습니다. 높이의 작은 구멍위치에 서 있으면 수면에서 신월을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햇빛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수면에다가 달의 모양을 형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명한 <일월동휘>라 합니다.

산구

피서산장의 산구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면서 개암욕, 송림욕, 이수욕, 용운협 네 갈래 계곡으로 나눕니다. 제일 높은 봉우리는 사면운산으로서 해발이 510미터이고 평원보다 180미터 더 높으며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피서산장내의 산구에는 장희제와 건륭제가 지은 누각, 정대가 40여 개 있고 또한 협곡에 매달려 있는 정자가 있는가 하면, 산에 현을 건설하였고 절벽에 사당을 짓고 골짜기에 집도 지었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자연지세에 따라 지었는데 인공미를 보여주며 그 자태 또한 다양합니다. 산구의 산세는 웅위하고 봉우리는 잇달아 있으며 수림이 무성하여 그야말로 아름다운 정경이라 하겠습니다.

피서산장은 황가원림 중 규모가 방대하고 유일한 절적으로서 중국 고대건축사의 고귀한 유산이며 자연에 되돌아온다는 것은 산장설계자의 건축구상의 주제였습니다. 건축자 역시 고명한 건축기예를 운용하였기에 설계자의 구상이 최고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전반 피서산장은 자연산수의 본색이고 강남새복의 풍광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피서산장은 중국 황절원림예술을 립대성한 전범이며 중국 건축학의 예술형식을 풍부히 했습니다.

编译: 李英善

보타중승지묘

보타중승지묘

보타중승지묘는 1767년에 건축하기 시작하여 177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총 면적이 22만 평방미터로 외팔묘 중에서 제일 큽니다. 또한 중요한 종교활동을 진행하거나 관리와 소수민족 귀족들을 집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타중승”이란 티베트어로 “포탈라”라는 뜻입니다. 사원은 티베트의 포탈라궁을 모방한 것인데 포탈라궁은 당시 달라이라마5세의 주택으로 티베트 정치와 종교권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역사

1770년은 건륭황제의 60세 탄신이 되는 해이고 이듬해는 황태후 80세 탄신이 되는 해였습니다. 당시 내외몽골과 칭해, 신강 등지의 각 소수민족 수령들이 승덕으로 황제와 태후의 생일을 축하하러 와 황제에게 천 개의 장수불을 올렸습니다. 황제는 아주 기뻐하며 축제에 온 소수민족과 중앙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또한 국력의 강성과 그들의 종교신앙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기 위하여 승덕에 티베트포탈라궁을 모방하여 이 사원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보타중승지묘를 소포탈라궁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원건축 및 형식

보타중승지묘는 장식 건축풍격을 취하면서도 또 일부분은 한식 건축풍격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원은 장식창문과 탑, 대홍대의 건축법을 채택하는 동시에 한식의 중추선과 대칭되는 건축기법도 채택하였습니다. 황제는 이런 절충식 건축기법의 채택은 백성들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건축기법은 또한 중국 여러 민족의 대단결과 각 소수민족들의 건축예술과 기법의 문화융합이기도 합니다.

전경도 앞에 서면 여러분들은 소포탈라궁과 그의 웅위하고 높은 홍색건축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 아랫부분에는 망창이 있고 윗부분은 능형장식창문이 있습니다. 이런 설계특징을 채택한 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티베트고원에 위치하여 평균 해발이 4000미터 이상이고 기온이 변화무쌍하며 풍사가 많습니다. 이러한 풍사를 막으려고 건축물 아랫부분에 진짜 창문을 설치하지 않고 망창을 장식의 도안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건물 내의 라마들이 불경을 읽을 때와 기복할 때 궁 내의 조용함이 외부세계에 의하여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불전에는 많은 불상들이 있는데 햇빛이 윗 창문에서 비추어 들어오면 불상을 더 빛나게 한다고 합니다. 이는 천하는 어두운 것이며 다만 부처만이 광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타중승지묘의 대문은 고대 성문처럼 높고 웅위합니다.

산문을 지나 우리는 비정에 도착하였습니다.

비정에는 석비 세 개가 서 있고 위에는 4가지 문자가 있습니다. 정면은 만문인데 그것은 청나라 황족이 만족이기 때문이며 뒷면은 한자고 왼쪽면은 티베트문이고 오른쪽면은 몽골문입니다. 가운데 석비에는 건륭황제의 《보타중승지묘비기》라는 글이 새겨져 있으며 여기에는 사원의 건축 연유를 서술하였습니다.

좌우측의 석비에는 《토이호특전부귀순기》와 《우홀토이하특부중기》가 있으며 비문은 몽골족 토이호터 부락이 반 세기 조국에서 분리되었다가 다시 조국에 돌아온 역사와 당시 청정부가 토이호특 부락에 안치한 사실을 서술하였습니다.

토이호터 부족은 예전에 지금의 신강위글자치구에서 생활한 몽골부락이었습니다. 17세기 초에 부락 두령이 다른 부락들과 충돌하여 부락 사람들을 데리고 명나라 승전 3년(1630년) 불가강 유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정 러시아는 부락으로부터 과중한 세금을 징수하였으며 부락의 젊은이들을 군대에 입대시켰는데 부락은 제정 러시아의 치욕과 압박을 이기지 못하여 두령 워바시마한의 통솔하에 1771년 17만의 부족을 이끌고 5000킬로미터의 노정을 거쳐 8달 후에 10만이라는 생명의 대가를 치르고 조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신강 이리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명나라 영동황제가 하사한 옥인을 올려 귀순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19세기 영국학자 토마덕 덕 콘서의 《달단인들의 반항》이란 저작에서 “최초의 역사 기록에서 그 어떤 장거도 달단족이 민족정신의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 광활한 아시아 초원을 지나간 사실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의 달단인은 바로 토이호터 부락을 말합니다.

《우홀토이하특부중기》는 청정부에서 어떻게 토이호터 부락에 20만 냥의 백은과 소양, 곡물, 옷, 장막을 주고 적합한 토지를 선택하여 부락을 안착시켰는가 하는 과정을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귀국한 부족은 모든 이리분지에서 방목할 수 있는 권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오답문

비정을 지나 우리는 오답문에 이르렀습니다. 문의 매개 탐은 라마교의 유파 중 하나를 대표하는데 홍색은 홍교(녕마파), 녹색은 화교(사가파), 백색은 백교(걸저파), 검은 탐은 흑교(걸당파), 가운데 있는 황탐은 황교(격로파)라 하는데 황교를 중심으로 합니다. 오답은 또한 오조불을 상징합니다. 이 문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는데 다수 장민들은 불교를 믿었으며 그들은 참배의 길에서 서로 오체투지하며 한걸음한걸음씩 앞으로 향합니다. 황제도 부처에게 예를 올려야 하는데 황제는 머리로 부처의 발을 맞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부처발을 높이거나” 혹은 두 팔굽이나 두 무릎, 머리로 “오체투지” 한다는 뜻으로 문 위에 부처를 공양하는 형식을 채택하였습니다. 황제가 중문을 지날 때는 황교—라마교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어 부처에 대해 경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불교와 라마교

불교는 기원전 6세기 인도의 석가모니가 창설한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입적한 후 그의 제자들이 여러 번 집회를 가지고 불교의 교의와 계율들을 성양하였는데 후에 불교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나뉘어졌습니다.

대략 1세기 때, 대승불교가 중국에 전해졌습니다. 서기 68년 동한 명제년간에 낙양에 건조된 백마사는 중국에서 최초로 지은 불교 절당입니다. 수나라와 당나라 때 대승불교가 광범하게 성행하였고 소승불교는 기원 9세기에 중국의 운남 등 남방 변방도시에 전해졌습니다.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주요 구별은:

대승불교는 부처는 어디나 다 존재하며 어떤 사람이나 모두 부처로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승불교는 석가모니만이 유일한 부처라고 인정하면서 중생평등을 선양합니다. 대승불교는 중생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인도하여 성불이나 부처가 되게 하여 최종적으로 열반에 오르게 하는데 소승불교는 그와 달리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며 나중에 나한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라마교는 대승불교 중의 밀종과 티베트 본교가 결합되어 탄생한 종교로서 또한 티베트불교라고도 합니다. 실은 티베트의 각 부동한 라마교들은 모두 밀종이라고 자칭하

고 있습니다. 라마교란 외인들이 티베트밀종에 대한 칭호뿐입니다. 현재 주로 유행하고 있는 라마교를 황교라고 합니다. 념마파는 11-12세기에 형성하였는데 제일 오래된 장전 불교입니다. 승인들이 붉은 옷에 붉은 모자를 쓰고 다녀 “홍교” 라고도 합니다.

“념마”란 티베트어로 “오래된다”는 뜻인데 목전 티베트, 신강, 칭해, 부단, 시킵, 네팔, 미국과 유럽 등지에 절당과 신도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가”란 티베트문으로 “먼지”라는 뜻인데 가사과절당은 벽에 홍, 백, 남색으로 세 갈래 줄무늬가 있으며 “화교”라고도 합니다. 겐저과 승인들은 흰 옷을 입고 다녀 “백파”라고 합니다. 중카바는 1409년, 겐저과를 창설하였으며 예전의 “홍교”에 대하여 개진하여 계율을 강조하고 진심으로 선교하며 승인들로 하여금 결혼을 금지하고 농사일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홍교와 구별하기 위하여 승인들을 황색옷을 입게 하였는데 이로 하여 “황교”라고 불리었습니다. 겐저과는 종교와 정치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중카바가 어릴 때 홍교가 티베트에서 아주 유행되었는데 그 당시 홍교 고승들은 결혼할 수 있었으며 지위를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을 마치고 난 후 황색 모자를 썼습니다. 황색 모자는 지율자들이 쓰는 모자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황모파가 탄생되었습니다. 중카바는 253개의 계율을 고치고 승인들의 결혼과 세습을 금지하여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명나라 정부의 지지를 얻었기에 황교는 급속히 발전하여 광범히 유행되었습니다.

매 교파는 모두 한 명의 췌불(살아있는 부처)이 자기의 교파를 관리하며 황교의 췌불은 달라이라마와 벤첸얼더니라고 하는데 그들은 중카바의 훌륭한 제자들입니다. “달라이”란 몽고어로 “바다”라는 뜻이고 “라마”란 티베트어에서는 선생을 가리키며 “벤첸”이란 티베트어에서는 “주지” 혹은 “상사”라는 뜻입니다.

오답문 앞에 들사자 두 마리가 있는데 사자는 불교 중의 대승불교를 대표하며 평화를 상징합니다. 오답문을 지나 우리는 유리패방 앞에 왔습니다. 유리패방은 한식 건축형식으로 건륭시기의 “세칸사기등칠루”의 건축형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유리패방 중문 위에는 편액을 걸어 놓았고 위에는 네 가지 문자가 있습니다. 좌측으로부터 만문, 티베트문, 한문, 몽골문입니다. 한문으로는 “보문웅현”으로 중생을 인도한다는 뜻으로 관세음보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해석은 문 앞에서 소원을 빌면 사원을 구경한 후 소원이 실현된다고도 합니다. 유리패방 뒤의 편액에는 “연계장엄”이라는 네 글자가 있으며 뜻인즉 관세음보살이 살고 있는 곳은 아주 장엄하다는 것입니다. 청나라에서는 이 문 출입에 대해 아주 엄격한 등급제도가 있었습니다. 오직 황제만이 중간 문으로 드나

들 수 있고 고승과 문무관원, 각 소수민족의 수령, 왕공귀족들은 옆 문으로 드나들며 대길과 오편 이하 관원들은 문 아래에서 기다려야 하며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리패방 앞의 우측 돌사자는 한 발을 구(불) 위에 놓았으며 좌측의 돌사자는 앞발로 어린 사자를 어루만지는데 사자는 문을 지키는 짐승으로 황권과 위엄의 상징으로 황가궁전과 황가사원 앞에 놓아 정중함과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주체건축물

대홍대는 암홍색의 장방형건축물로서 17미터 높이의 백색토대 위에 높이 세워져 있으며 주위 백색건축물과 서로 잘 어울립니다. 건축자재는 주로 벽돌과 화강암입니다. 대홍대의 중부로부터 아래로 여섯 개의 불단이 있는데 안에 여섯 개의 무량수불이 상감해 있습니다. 매 불상은 10년을 대표하며 여섯 개의 불상은 건륭황제의 60세 환갑을 대표합니다. 대홍대 정상의 외연을 회돌면 80개의 작은 불단이 있고 안에는 80개의 무량수불이 상감해 있는데 이는 건륭황제 모친의 80세 둔갑을 대표합니다.

대홍대의 내부는 세 조의 부동한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체건축물은 만법규일전, 회랑형군루, 회랑형군루정상의 정전입니다.

만법규일전의 대홍대중부는 중침사각찬침유금기와정입니다. 중요한 종교의식이나 청나라 황제가 중요한 소수민족수령이나 왕공대신을 만나는 곳입니다. 건륭황제는 전에서 70세 진갑을 맞았으며 당년에 토이호터 부락의 수령인 위바시를 이 전에서 접견하였습니다. 만법규일의 정부는 유금기와로 하였고 햇빛 아래에서 빛을 뿌리는데 이에 황금만 하여도 삼만 냥을 사용하였습니다. 만법규일전의 네 개 옥척은 동유금의 문수로서 장식건축의 하나입니다. 장식은 또한 건축을 견고히 하는 작용을 합니다. 봉건사회의 궁전식 건축물의 지붕은 중척과 수척을 크기와 모양이 다른 문수로 장식하였는데 이것은 전의 등급을 나타냅니다. 침각 제일 앞의 것을 “기봉선인”, 또 한 “선인기담” 이라고 하는데 수천기와장을 고정하는 첫기와장입니다.

만법규일전내에 보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건륭황제가 달라이 라마8세 백가취를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보타종승지묘가 착공될 때 8세 달래는 겨우 13살이어서 순례하러 오지 못하자 건륭황제가 대신 허좌를 마련하고 접대하여 황실의 장전불교에 대한 존중과 성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길상천모

이 층의 권형삼계정내에는 동유금의 길상천모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길상천모를 또 길상천녀라고도 하는데 길상천녀에 대해서는 많은 전설이 있습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길상천녀는 소용녀이며 젊었을 때 아주 예뻐으나 행위가 방탕하여 여러 명의 정부가 있었고 이에 아버지는 너무 분노하여 그를 쇠사슬로 가두었습니다. 딸을 아끼는 어머니는 쇠사슬을 풀어 노새 한 마리를 주어 그녀를 도망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부친은 딸을 타고 쫓았으나 끝내 따라잡지 못하였습니다. 후에 소용녀는 악마 나찰과 결혼하였습니다. 그와 결혼한 까닭은 동해가 욕심이 많은 악마 나찰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혼 후 소용녀는 악마 나찰과 같은 짐승의 머리를 가진 자식을 낳았답니다. 어머니가 된 그녀는 동정심이 생겼고 부친의 감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되돌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성대한 파티에서 나찰을 술 취하게 하고 부친의 도움으로 태양을 삼키고 어둠 속에서 나찰과 싸워 끝내 나찰과 요괴들을 죽였습니다. 소용녀가 모든 요괴들을 전부 죽였기 때문에 요괴들이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 사람들은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후 그 곳 사람들은 소용녀를 진요제해의 여신으로 봉하였으며 그를 길상천녀라고 불렀습니다. 길상천녀는 티베트에서 아주 큰 명성이 있는데 명절날 때마다 그의 소상을 길거리에 들고 나와 사람들로 하여금 참배하게 합니다.

编译: 李国福

보녕사

외팔묘

피서산장의 동북부에는 산장의 주위를 에워싼 금빛과 푸른빛 광채가 눈부시게 빛나는 라마묘 건축군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늘 말하는 외팔묘입니다.

당년에 청조황제는 승덕에 12개의 사원은 지었는데 그 중 8개의 사원에 라마가 살았고 이 라원들이 청정리변원라마인무소에서 관할하고 매월마다 리변원에서 봉급을 받습니다. 또 이런 사묘들은 경성밖에 있기에 승덕의 “외팔묘”라 합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것은 일곱 개입니다. 이런 사원은 강희52년(1713년)~ 건륭45년(1780년)에 건조되었습니다. 이 사묘들은 중국 최대의 고대건축군으로서 피서산장을 향하고 있으며 반원형으로 분포되어 있어 마치 달을 에워싼 별들과도 같습니다. 이것들은 당시 종교, 정책과 황권의 지고무상의 정치의식형태를 상징하며 외팔묘 역시 국가와 민족의 통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승덕의 외팔묘는 건축풍격상 고풍스럽고 우아하여 피서산장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외팔묘는 금빛과 푸른빛의 광채를 뿌리고 기세가 드높으며 많은 별들이 달을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산장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건조는 청왕조가 <강건성세>에서 다민족을 통일한 국가의 내외의 마음을 합하여 대업을 공고히 하려는 사상과 동일한 것입니다.

보녕사

보녕사의 주전에는 높이가 22.28미터인 천수천안 관음보살이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보녕사를 대불사라고 하였습니다.

보녕사는 건륭황제가 승덕에 건축한 첫번째 사원입니다.

보녕사는 승덕 외팔묘중 유일하게 라마가 있는 곳이고 종교활동을 벌리는 사원입니다. 보녕사는 '서장 삼마야묘를 모방하여 지은 것으로서 <보천안녕>을 의미합니다.

그의 중심은 수미산을 상징하고 나아가서 세계의 중심을 상징합니다.

주위의 네 개의 사원은 불교세계의 네 개 부주를 상징하고 사원은 만, 장, 한, 위, 몽 등 다민족의 전통적인 문화와 예술을 상징합니다

산문전은 또 삼문전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사원의 세 개 반원형 큰 문을 상징합니다. 이것들은 세 개의 해탈을 상징하는데 무상, 무작, 열반을 의미합니다.

모두 좌우 양쪽에 있는 두 위엄스러운 신상을 보십시오.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 늘 말하는 ‘홍-하’ 두 장군입니다.

‘홍-하’ 두 장군이란 말은 중국사람들의 설법으로서 ‘봉신연의’ 에서 나왔습니다. ‘봉신연의’ 중 정륜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워낙 상주왕의 장군이었는데 도액진인을 스승으로 모시고 무예를 연마하였고 스승한테서 기를 전수 받아 적들을 만나면 코로 “홍” 해서 기를 내뿜어 영혼을 빨아들입니다. 그 소리가 마치 큰 종이 울리는것 같고 내 뿜은 두 줄기의 기는 백색을 뿜습니다. 그래서 그를 “홍” 장군이라고 합니다. 상주왕의 장군 중 또 한 명의 진기라고 불리우는 장군이 있는데 그도 이인한테서 밀술을 전수받아 폐부로부터 황기를 내뿜어 영혼들을 혼비백산하게 합니다. 그를 “하” 장군이라고 합니다. 주조가 상조를 멸망시킨 후 신을 봉하고 두 장군은 사원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는 입을 다물고 다른 하나는 입을 벌린 “홍-하” 장군이 사원옆에 있게 되었습니다.

보녕사는 건륭20년(그레고리력으로 1755년)에 건설된 것으로서 부지면적이 3.3만 평방미터이고 전형적인 한-장 건축을 조합시킨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42개의 계단과 금강담장을 계선으로 하여 앞뒤 두 개 부분으로 나뉩니다. 사원의 전반부분은 전형적인 한식 불교사원 “가란칠당” 식 건축구조입니다. “가란”이란 범어음역으로서 의미는 “원정”으로 본 뜻은 승려군체가 살고 있는 지방, 일반적으로 뜰을 사원이라 합니다.

“칠당”은 사원 중의 일곱 개 건축으로서 일반적으로 한식 건축은 중축대칭을 강구하는데 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중축선을 기준으로 하여 보녕사는 앞으로서부터 뒤로 가면서 산문전, 천왕전, 대웅보전을 지었습니다.

중축선의 양측에는 또 종루, 고루와 동서배전이 있습니다. 이 산문전, 천왕전, 대웅보전, 동배전, 서배전과 종루, 고루는 이미 전형적인 한식 불교사원 “가란칠당”의 건축격조를 이루었습니다. 보녕사의 후반부는 불교이념에 근거하여 만다라의 건축풍격을 모방하였습니다.

이 사원은 한, 장문화의 교류와 융합을 재현하였고 다원문화의 중국의 단결과 통일을 재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보녕사의 비정입니다. 이 세 개의 석비 위에는 모두

건륭황제가 만, 몽, 한, 장 네 가지 언어로 쓴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운데는 건륭20년에 쓴 “보녕사비기”가 있고 비문에는 사원건축의 정치적 목표와 역사적 의의를 서술하였습니다. 동쪽에는 “쥘거얼리밍이리를 평정하며”라고 쓴 비석이 있는데 역시 건륭20년에 쓴 것입니다. 따와치가 반란을 일으킨 것을 평정시킨 경과와 의의를 서술하였습니다. 서쪽에는 건륭23년에 “쥘거얼후리밍이리를 평정하며”라고 쓴 비석이 있는데 아무얼싸나의 반란을 평정시킨 정황을 기술했습니다. 건륭 20년, 청정부는 병사를 출동해 어루터몽고쥘거얼부따와치의 반란을 토벌하였습니다. 청군은 직접적으로 따와치가 차지하고 있는 이리를 공격하였습니다. 따와치는 천산의 남쪽으로 도망쳤다가 위글족수령 휘지쏘에게 체포되어 청군대영에 압송되었습니다.

건륭황제는 이번 반란의 평정승리를 위하여 피서산장에서 어루터몽골사부의 상층 귀족들에게 높은 벼슬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라마교를 신봉하였기 때문에 건륭황제는 당년에 강희황제가 거얼거몽고반란을 평정시킨 후 튀룬닐에서 회종사를 건축한 방법에 따라 티베트 최초의 라마묘-삼마야묘를 모방하여 보녕사를 수건하여 “보천안녕”의 염원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고루입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종루가 있습니다. 두 개 건축은 외형이 같은 것입니다. 고루 위에는 높이가 2.5미터, 직경이 1.6미터인 큰 북이 있습니다. 종루내에는 옹정년에 만든 동종이 있습니다. “신종모고”는 불교문화의 신비롭고 독특한 상징입니다. 아침이면 종을 울리는데 승려는 “빠르게 18번, 느리게 18번,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18번” 처서 모두 54번 울립니다. 저녁에는 북을 치는데 승려들은 같은 방식으로 54번 처서 아침 저녁으로 종소리와 북소리를 모두 108번 울립니다. 불교는 사람들에게는 108가지 고통과 번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모고”라고 108번 울려 번뇌를 없애고 평온한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불교에는 “종소리를 들으면 번뇌가 사라진다”는 설법이 있습니다. 사원에서는 종을 마음대로 칠 수 있지만 북은 마음대로 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원에서 평일에 종을 치면 좋은 뜻을 상징하지만 북을 치면 재난을 상징하므로 많은 승려들이 집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북을 치는 것은 승려들이 저녁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대천왕전

지금 우리는 천왕전에 왔습니다. 전에서는 대두미륵을 모시고 있으며 전의 양측은 각답팔피입니다. 거대하고 준엄합니다. 모두 사대천왕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대천왕은 인도의 네 형제로서 나중에 인민들이 숭배하는 네 명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손에 부동한 법기를 쥐고 있는데 보검, 비파, 뱀과 우산입니다. 보검은 날카롭고 비파는 악기소리를 조절하고 우산은 비를 막을 수 있고 뱀은 작은 용입니다. 용은 사방을 훑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대천왕은 “때를 맞추어 비가 오고 바람이 고르게 분다,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적이다.” 는 우의를 나타냅니다.

남방의 증장 천왕은 손에 보검을 쥐고 남방을 관리하는데 보검은 흑구름을 휘몰아 수 많은 악마들을 궤멸시키며 동방 지국천왕은 손에 비파를 쥐고 동방을 관리하는데 비파를 타면서 악마와 악세력을 제거하며 북방 다문천왕은 손에 우산을 쥐고 북방을 관리하면서 우산으로 전장을 흔들어 놓습니다. 서방 광목천왕은 손에 뱀을 쥐고 서방을 관리하고 악세력을 삼켜버립니다. 이 사대천왕은 불교율법을 보호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두미륵불

평평한 가슴에 젓가슴을 들어내고 문을 향해 앉아서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있는 부처가 바로 <대두미륵>이고 대두불 혹은 웃음불이라 합니다. “미륵”은 범어의 음역으로 의미는 “자씨”로서 그의 성이고 이름은 아이뒤입니다. 불교의 설법에 의하면 그는 보살로서 앞으로 부처로 되게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석가모니의 계승자이며 그를 미래불이라 합니다.

미륵부처 병풍 뒤에는 호법신 위타가 있습니다. 불교는 그를 귀신과 요괴들을 쫓아내고, 그는 불법을 보호하는 천신으로 하였습니다. 위타가 손에 쥐고 있는 법기는 금강방패입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위타가 쥐고 있는 금강방패 자세의 움직임의 여부에 따라 우의의 깊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금강방패가 위로 솟아 있는 황실사원으로서 떠돌이 승려를 안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만약 금강방패가 아래로 내리 드리웠다면 민간사원으로서 떠돌이 승려를 머무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서배전에는 세 개의 큰 보살을 공양하고 있는데 중간에 “조천후”를 타고 있는 것은 관세음보살이고 왼쪽에 청사자를 타고 있는 것이 문수보살, 오른쪽에 흰 코끼리를 타고 있는 것이 보현보살입니다. 이 세 부처는 죽은 이의 영혼을 제도하고 태평을 위하는 불조 석가모니의 중생을 구하는 대업을 기원했습니다. 보도는 마치 하나의 큰 배와 같이 중생을 생사차안에서 열반에 오르게 합니다.

대웅보전

대웅보전은 사원의 전반부에서 제일 웅위한 건축입니다. 전내에는 삼세불을 공양

하고 있는데 삼불동전입니다. 불교의 사원 중 삼불동전은 종삼세와 횡삼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간은 현세불 석가모니, 왼쪽은 과거불 가엽, 오른쪽은 미래불 미륵입니다. 이 세 존의 불상들은 자태가 장엄하면서도 자애롭습니다. 불상 앞의 기름 칠한 나무 결상 위에는 오공과 팔보가 놓여 있습니다. 대전 양측엔 18존라한이 있는데 라한은 석가모니의 제자로서 부처의 부탁을 받고 열반에 오르지 않고 민간에 남아서 불법을 전달합니다. 그들은 각각각색의 초능력을 대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웅>은 석가모니의 존칭으로서 대웅사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양측의 벽에는 불교의 원류도가 그려져 있으며 도모와 라한, 승락천녀등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웅보전은 너비가 칠간이고 깊이가 오간이며 높은 처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곳은 불교전래와 라마가 경을 읽는 곳입니다.

대승대각

6층 높이의 대승지각은 보녕사의 후반부의 주체건물로서 본 사원의 제일 웅위한 건축인데 대불전이라고 합니다. 대승지각의 높이가 36.75미터이고 원형으로 된 지붕 꼭대기는 도금하였으며 정면은 옥층지붕이고 양측은 오층지붕입니다. 그의 북편은 사층지붕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6층은 불교에서 “공”을 의미하며 “육합”과 대칭되고 오층은 불교의 뜻에 따르면 5대(지, 수, 화, 풍, 공), 4층은 “사만” 다시 말해서 사처가 “만타라”라는 뜻입니다. 역사기재에 의하면 이 건축은 티베트 최초의 건축물인 삼마야묘의 풍격에 근거하여 지은 것입니다. 또 불교 우주관에 따라 꾸며졌습니다. 불경에 의하면 세계는 수미산을 위주로 하여 망망한 합수해를 에워 돌고 있습니다. 대승대각은 건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풍스럽게 서 있는 대승대각은 우주의 중심 수미산을 의미합니다. 대각의 양측에는 일전, 월전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각각 전우동승신주, 서우하주, 남침부주와 북구고주가 있습니다. 각각 사대부주를 나타냅니다. 사대부주 좌우에는 각각 두 개의 백색 직사각형 건축이 있는데 이것은 8개의 작은 부주를 상징합니다. 이외에 대승대각의 사각과 대응되는 네 개의 라마탑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의 “사지”를 상징하는데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를 나타냅니다. 다른 설법에 의하면 이 네 개의 탑은 부처의 탄생, 법륜의 전수, 성도, 열반을 가리킵니다.

대승지각의 배전은 전에 황제가 휴식하고 고승한테서 불경사상을 들던 곳이기도 합니다.

관세음보살

손님 여러분, 대승내각에 들어 오면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은 큰 불상들입니다. 그가 바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입니다. 불상의 높이는 22.28미터이고 허리 둘레는 15미터, 무게가 110톤인데 머리 무게만 해도 5.4톤이고 사용한 목재가 120립방미터입니다. 불상은 높이가 2.22미터인 연꽃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 큰 부처는 마주하고 있는 두 손 외에 또 양견에 모두 20개의 팔뚝이 있는데 손바닥마다 하나의 눈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불교는 그 각각의 손과 눈마다 25종의 인과보응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25에 40을 승하면 천으로, 그러므로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이라 합니다. 보살의 얼굴에는 눈이 세 개 있는데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불경에 의하면 관세음은 불조의 명령에 의하여 웅대한 서원을 내리고 중생을 구하는 길에 나섰습니다. 중생을 구하기 전에는 부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무가내인 중생들이 많았고 또 아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관세음은 자기의 법력이 이 중대한 임무를 완성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그의 몸뚱이가 삼시에 40토막으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관세음의 스승 무량광부처는 제 시간에 당도해 흠어져 있는 신체 조각들을 한데 모아 어루만져 주면서 권고했습니다. “중생을 구원하는 일이 어찌 그리 쉬우랴. 용기와 신심이 있다면 부처의 지혜와 법력으로 꼭 이루어 낼 것이다.” 말을 끝내자 분열되었던 신체 조각들이 한데 모여 붙었는데 본래 체구보다 더 커지고 동시에 40개의 팔뚝들이 더 자라났다고 합니다.

큰 부처의 머리 위에는 또 높이가 1.53미터인 불상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늘 말하는 아미타불이고 범어의 음역으로 하면 무량광불, 무량수불이라는 말입니다. 관세음이 그를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은 스승에 대한 끝없는 존경을 의미합니다.

큰 부처의 양견에는 또 두존의 불상이 있는데 왼쪽은 선재, 오른쪽은 용녀입니다. 불경에 의하면 선재는 복성장자의 작은 아들로서 그가 태어났을 때 재물들이 집안에 넘치게 굴러 들어왔지만 그는 천성적으로 재물에 관심이 없었고 만물은 공허한 것이라 생각했으며 부처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법을 구하러 가는 도중에 승려, 국왕, 연장자, 상인, 선부, 신선 등 53명의 명사들을 만났으며 천신만고를 겪었습니다. 그는 정성스러운 마음과 불요불굴의 행동으로 고난과 역경을 받아들였고 나중에 보현보살을 감동시켜 부처가 되는 염원을 이루었습니다. 대승내각 중에 있는 선재는 이미 귀여운 동자가 아니라 노인의 형상이며 그것으로부터 그가 온갖 풍상고초를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재의 행위는 일종의 상징인데, 교화로서 부처가 되는 것

은 간고한 시련이며 반드시 항심이 있고 불요불굴의 정신이 있어야 부처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용녀는 파갈라용왕의 딸로서 총명하고 여덟 살 때 석가불시조의 점화를 거쳐 빠른 시기내에 부처로 되었으며 용녀의 이야기는 “묘법연화경”에 생생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용녀가 부처로 된 것은 여자는 부처로 될 수 없다는 옛 관념을 타파하였습니다. 동시에 다만 중생을 구하려는 선의만 있다면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시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부처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줍니다. 선계와 용녀의 이야기는 부처로 되는 길은 간고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부처는 빠른 시간내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내의 산벽에는 작은 불단들이 많은데 모두 10090개입니다. 각각의 불단에는 장니침금부처가 설치되어 있으며 만불단이라 합니다. 이런 작은 금부처들은 별이 달을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큰 부처의 위엄, 정중함을 뒤받쳐주며 농후한 종교적 색채가 감돌게 합니다.

编译: 李英善

조주교

조주교역사

조주교공원은 조주교를 중심으로 지은 것입니다. 조주교공원의 정문 문미 위에 있는 <침기양이>라고 쓴 액자는 청조 순치년간 조주 지사 손홍훈이 쓴 것으로서 이 액자의 제사는 이미 <중화명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림벽 위에 새겨진 것은 중국의 저명한 교량가 모이승선생의 <중국석공교>란 문장입니다. 모 선생의 이 문장은 제일 처음 1962년 3월 4일<인민일보>에 발표되었으며 원 문장은 비교적 길었지만 본 단락의 글은 주로 조주교정황에 대해 개괄한 것입니다.

모 선생은 글에서 <중국의 석공교는 거의 모든 곳에 있다. 이런 다리들은 크기가 다르고 형태가 각이하여 많은 것들이 걸작이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하북성 조현의 조주교이다.>라고 썼습니다. 모 선생은 조주교의 몇가지 특점을 개괄하면서 조주교의 과학적가치, 역사적가치, 예술적가치 및 세계교량건축사에 대한 특별한 공헌과 중요한 직위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이 길은 역사상에 있었던 것으로서 지난 날 사람들은 이것을 <황도>라 하였습니다. 수조시기 조주교의 이 남북 대통로는 남쪽으로는 동도낙양에 닿았고 북쪽으로는 탁군을 거쳐 북경으로 통했으며 지금의 107국도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건륭황제가 강남을 다녀왔을 때 세 번 지나온 길도 바로 조주교를 이용하였습니다. 1984년 공원을 건설하기까지 조주교는 정상적인 교통운수교량의 작용을 발휘하였습니다. 때문에 조주교는 천년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상에서도 보기 드문 것입니다.

여기에 우뚝 솟아있는 실리곤 청동으로 만들어진 소상의 주인공은 조주교의 설계 건조사-이춘입니다. 이 동상은 중앙미술학원 전소무 교수가 설계하고 감독하여 만든 것입니다. 역사상에서 이춘에 대한 기록은 아주 적지만 한마디 말만은 아주 확실하고 유력합니다. 당현종 개원년간 장가정은 <당문수>에서 <조군의 쇼오허의 석교는 수나라 석공 이춘의 흔적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조주교의 건설자는 조나라 이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주교의 총 길이는 64.4미터이고 수조시기에 건립된 것으로서 1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주교는 현존하고 있는 석공다리의 전범으로서 처음으로 국보급 중점문화재보호단위로 선정되었고 성급애국주의 교육기지로 이미 세계문화유산에 수록되었습니다. 또한 세계12번째 국제토목공정역사교적이기도 합니다.

고대공정의 성과

이 동질의 표지판은 조주교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표지 중의 하나입니다. 아래의 낙판엔 <미국토목공정사학회정립>이라고 써어져 있습니다. 학회는 국제성토목공정의 권위조직을 대표하고 있으며 전 세계 범위내에서 역사토목공정상의 걸출한 성적들을 정선하여 역사 기록부에 넣고 동제기념판을 기념으로 내줍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의 복제품으로서 진품은 저장고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1991년9월4일 오후 <미국 귀빈들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표어와 의장대의 복소리, 주악속에서 학위의 명예주석 벤. 거위 커 교수 일행 세 사람이 현장에 와서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당시 표어는 자색바탕에 흰 글자를 수놓은 것으로 중국어와 영어로 <국제토목공정역사교적이념비제막의식>이라는 글자가 써여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와 같은 것은 프랑스의 에펠탑과 이집트의 피라미르, 영국의 런던탑 그리고 수에즈 운하입니다. 이 기념패는 세계적으로 12개밖에 없는 국제토목공정역사교적이념동패 중의 하나로서 중국에서 유일한 기념패입니다.

그 곳 주민들은 조주교를 <신교>라고도 합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조주교 위를 거닐면 천당과 신의 영혼을 느낄 수 있으며 행운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조주교의 너비는 9미터, 현재 국가2급도로의 표준입니다. 당시 조주교는 사람이 많이 지나고 마차도 많았다고 합니다. 다리 밑에는 배들이 즐지어 지났고 각각각색의 돛배들이 지나갈 때면 그 정경이 가관이었습니다. 구비구비 흐르는 물줄기는 백성들의 웃음소리를 싣고 바다에 흘러 갔습니다.

<안제교>는 조주교의 정식 이름입니다. 그것은 북송 시기 철종황제가 북쪽으로 순찰 가던도중 이 곳을 지나다가 명명한 것으로서 조주교의 정식 이름은 안제교입니다. <대석교>는 그 곳 주민들의 조주교에 대한 속칭으로 그의 아명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그 곳의 촌락도 <대석교촌>이라고 합니다. 이 곳에 서는 조주교의 신운을 감상할 수 있고 조주교의 웅위함과 방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주교의 한 개 구멍의 경간은 37.02미터로서 당시 세계상에서 제일위, 석공교의 단공경간을 극치에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그럼 무엇때문에 세계상의 많은 고대건축들이 모두 무너져버렸지만 유독 조주교는 천여 년을 내려오면서 폭풍우를 이겨내고 우뚝 서 있을까요?

장수건축의 비밀

우선 조주교의 독특한 건축방법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교각으로 이루어진 아치의 뒤에서 우리는 다리의 상,하 방향이 뺀 곳으로 각각의 아치형을 볼 수 있으며 마치 우리의 손가락이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는 감을 줍니다. 이것을 종향병렬체축법이라고 합니다

1933년11월 우리 나라의 저명한 건축전문가 양사성 선생(양기조의 아들)은 조주교에 와서 고찰을 진행하면서 다리 건축법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고금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횡향병렬법건조법으로 아치형 다리를 지었는데 이춘은 무엇 때문에 종향법으로 만들었을까요?

종향으로 아치형 다리를 만든 것은 인력, 물력을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치형으로 다리를 쌓아올리고 그 쌓아올려진 다리는 독립적으로 고정되어 완성되었습니다. 각각의 아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가 파손된다 해서 다른 아치들도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니었기에 수리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이런 건교법은 건조시에도 아주 편리했고 나중에 복원할 때도 편리했습니다.

석재지간의 횡향연계를 가강하기 위하여 고대의 석공들은 창조법에서 요철, 구석, 철라간 등 일련의 과학적조치와 기술을 사용하여 마치 오늘날의 철근, 시멘트 등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조주교는 대규모 지진의 영향도 많이 받았는데 그중 1966년3월에 발생한 현대의 7.2급 대지진도 포함됩니다. 당시 조주교는 지진구의 거리와 40킬로미터였지만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 조주교는 또 홍수의 습격도 여러 번 받았는데 1963년과 1996년8월의 특대 홍수의 충격하에서도 조주교는 위기를 겪었지만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주교가 어떻게 되어 이렇게 견고한 항진력을 지닐 수 있을까 하고 의문스러울 테지요? 그러면 조주교의 하부 기초부터 말해야겠습니다.

천백 년 동안 조주교의 기초는 일종 수수계끼와 같이 여러 가지 가설법이 있었습니다. 1979년 중국 사회과학원 자연과학사 연구소조는 조주교의 교대기초에 대해 깊은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모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대는 아주 짧았고 기초 역시 낮았는데 그야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대는 다섯 층으로

쌓아올렸고 높이 1.549미터, 길이 5미터이고 교대의 면적은 100평방미터였습니다. 교대 아래의 토질도 네 겹으로 층적된 아찰흙과 경아찰흙으로 구성되어 우리가 밟고 있는 발밑의 흙과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화학적인 분석에 따르면 이런 토층은 온정성이 강하고 조질이 균일하고 기본적인 재력이 34톤/평방미터이며 점토층의 압축성이 작아서 지진이 일어나도 사토가 액화되는 현상이 생기지 않는 양호한 천연기지라고 합니다.

토양구조를 과학적으로 이용하고 합리적인 설계를 진행하였기에 다리의 양측 수력이 균형적이고 진동을 받아도 극복력이 강해서 지진이나 홍수피해도 견디어 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천연택지와 작은 교대위에 이렇듯 거대한 석공교를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은 중의건교사에서도 보기 드문 것입니다.

총적으로 말하면 조주교가 천 년 동안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조주교의 독특한 건조방법과 천연택지에 대한 과학적 추산과 이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주교가 천 년 동안 불변한 이유는 모두 이춘의 시대를 뛰어넘은 시도-창견원호공식교형(간단히 창견공)의 발명과 응용에 있습니다.

창견원호공식교형이란 바로 조주교를 대표로 하는 다리 유형을 말하는데 중앙 주공의 양측의 다리 부위에 각기 작은 아치를 두 개씩 구멍을 네 개로 내는 것으로 이것을 “공당권”이라 합니다. 그가 어떤 우월성을 가졌을까요? 우선 누설양을 가감했는데 네 개 작은 아치는 수면적을 16.5% 증강할 수 있었고 수류가 다리에 대한 충격력을 감소시키고 다리보호를 가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당권의 건축형식은 다리 어깨 부분을 꿰뚫어서 석재를 절약하고 인력, 물력을 절약했을 뿐더러 다리의 체중도 감소하여 다리가 교대택지에 대한 수직압력을 분산시켜 조주교의 교대가 쉽게 사용될 수 있었고 또한 천연택지 위에 직접 세워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이춘의 이런 설계를 보면 다리 어깨에 쌓아올린 네 개 소형아치의 외부에 한층의 16-30밀리미터 되게 돌을 쌓아올려 재료역학탄성공원리에 부합되게 하였습니다. 탄성공원리는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문자이론에 쓰이게 되었고 세계상에선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에선 이미 1400년전에 이춘이 성공적으로 이 원리를 실천에 옮겨서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속적으로 말해서 재료역학의 탄성공원리로 다리를 만드는 것은 이런 구조가 능히 수력침의 역도를 횡단면 위에 분산시켜 놓기 때문에 조주교가 천년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춘이 이런 창견공식교형설계의 고도과학성과 합리성을 이용했기 때문이며 또한 세계 교량건축사에 대한 조주교학파의 가장 중대한 공헌으로 됩니다.

조주교는 창견공식교형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런 다리가. 서방에서 처음으로 나

타난 것은 1883년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아가하에 안돈니터철도석공교를 건축하였는데 조주교보다 1200년 뒤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영국의 이요이슬박사는 <이춘이 설계한 창견석공교는 유럽의 같은 유형의 다리에 비해 천여 년을 앞섰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중국의 저명한 교량전문가 모이승선생은 <조주교는 하나의 단공석공교이다. 중국에서 석공교의 출현은 수조 시기에 나타났는데 조주교는 창신평성과 중대한 기술성과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주교의 돌을 쌓아 올리는 건축법과 궁형으로 아치를 만든 수법은 아주 독특하며 또한 큰 아치에 작은 아치를 설계한 것은 “창견” 식구조의 개척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천여 년 동안의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조주교의 건축전통은 중의 석공교의 부단한 계승이며 또한 철근과 시멘트를 응용하여 다리를 쌓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기초를 닦았습니다.

창견공의 응용은 다리모형을 더욱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재료를 절약하고 자체의 체중을 감소시키고 기초를 절약하고 홍수를 방지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설계와 건축구조는 과학적으로 합리하고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백 년 동안 조주교의 구조기술은 교묘하고 예술풍격이 뛰어나 세계 교량사에 거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교량지조로 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조주교는 우리 나라 고대 노동 인민이 남겨놓은 진귀한 문화유산으로서 중화 민족의 총명과 지혜를 보여주며 세계문명고국역사문화의 찬란함과 휘황함을 견증하고 전 인류의 문명과 역량을 견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주교는 전 세계의 존중과 칭송을 받고있으며 또한 우리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혜와 재질을 발휘하여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 기여하도록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编译: 李英善

맹강녀묘

강녀원

강녀원은 맹강녀묘의 경관을 풍부히 하기 위하여 1992년 강남원림을 모방하여 재건한 것입니다.

이 묘는 우리에게 장성에 대한 맹강녀의 설음을 전해줍니다.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6국을 통일한 후 외래침략을 방지하기 위하여 6국을 연결한 장성을 재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50만명이란 백성을 강제적으로 붙잡아서 장성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한 사람이 진시황에게 민간에 번기량이란 서생이 있는데 힘이 무진장하여 혼자서 만 명의 힘을 감당한다면서 그 한 사람만 붙잡아 오면 만 사람이 일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진시황은 명을 내려 기량을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기량은 서생으로서 만 사람의 힘을 가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관병이 뒤쫓아오자 기량은 이곳저곳 피해 도망쳤지만 하루는 더는 갈 곳이 없어서 맹가네 화원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곳에서 맹강녀와 기량이 처음 만났습니다. 준수하고 단아한 두 선남선녀는 첫눈에 서로 정이 들었습니다. 기량이 맹강녀에게 자기의 슬픈 사연을 하소연하자 맹강녀는 그를 동정하여 아버지한테 부탁하여 그를 잠깐 동안 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게 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맹씨 아버지는 기량이 예의가 바르고 재능이 뛰어난 젊은이임을 발견하였고 또 자신의 딸도 기량을 마음 들어 하고 있는 터라 두 사람한테 혼인을 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조화는 예측키 어렵다고 바로 두 사람이 결혼하는 날 기량은 관병 들한테 붙잡혀갔습니다. 기량이 붙잡혀 간 후 맹강녀는 무시로 기량을 그리워합니다.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맹강녀는 꿈에서 기량이 엄동설한에 홑옷을 입고 관병들의 채찍 밑에서 장성을 건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맹강녀는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가슴앓이를 합니다. 더는 참을 길 없어 그녀는 밤을 새워가면서 겨울 옷을 만들어서 천리길을 걸어 남편한테 옷을 가져다주려 하였습니다.

장성에 닿은 맹강녀는 이곳저곳에서 남편의 행적을 수소문하였습니다. 마침 한 사람이 알려주기를 기량은 벌써 반 년 전에 일에 지쳐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맹강녀는 그만 기절하였습니다. 깨어난 후에도 맹강녀는 사흘 동안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800리나 되는 장성이 무너지면서 땅 밑에서 수 없이 많은 백골들이 나왔습니다.

진시황은 한 사람의 울음소리에 800리 장성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시켜 맹강녀를 붙잡아다 친히 신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시황은 맹강녀를 보자 또 한번 놀랍니다. 세상에 이렇듯 아름다운 여자도 있단 말인가? 나한테 3궁6원에 72명 귀비가 있고 또 3천 명 궁녀가 있다지만 그 누가 맹강녀의 미모를 따를쏘나?

진시황은 맹강녀한테 말합니다. <네가 우는 바람에 나의 800리 장성이 무너져 황금 2만냥을 버렸고 수천 명의 민부가 없어졌다. 이 죄로 말할 것 같으면 마땅히 너의 목을 베어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가 그것을 승낙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을지이다.>

누구나 이 말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맹강녀가 단호히 거절했을 것이라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맹강녀는 기량의 유골도 안장하지 못하였는데 반항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진시황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녀는 진시황을 보고 <소인은 황제의 귀비가 되려 하나이다. 그러나 세 가지 조건이 있사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진시황은 그 말을 듣자 이미 손에 쥔 떡이라 세 가지 조건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맹강녀는 첫번째 조건으로 자신은 육지에서 살아서 바다를 구경 못했으니 길이와 너비가 십리인 큰 다리를 만들어 바다와 통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진시황은 만리장성도 쌓았으니 그까짓 다리는 문제가 없다고 흔연히 승낙합니다. 맹강녀는 두번째 조건으로 자신의 남편 기량을 호화로운 묘지에 안장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진시황은 이 말을 듣고 조금은 화가 났지만 맹강녀를 위하여 또 승낙합니다. 세번째 조건은 황제와 황제의 문무백관이 함께 기량을 안장 시켜 줄 것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황제는 세 가지 조건을 다 받아줍니다.

기량을 매장한 후 맹강녀는 십리 대교의 끝머리에 달려가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우뢰가 울고 파도가 노호하면서 교묘하던 수면에서 두 개의 돌바위가 솟아나는데 높은 것은 비석, 낮은 것은 묘와 흡사했습니다.

전국에 맹강녀묘가 모두 20 여 개 있지만 산해관에 있는 맹강녀묘는 봉황산 위의 망부석촌에 자리잡고 있으며 또 바다와 5km 떨어져 있어 해면에 솟아 있는 <맹녀분>의

암초와 흡사함으로 비교적 진실하다고 추측합니다.

맹강녀 이야기는 중국명작 <사대 사랑이야기> 중의 하나로서 민간에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108개 계단

묘지 문 앞에는 108개 계단이 있으며 여기에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전설 속의 맹강녀는 남편을 찾기 위하여 많은 곤난을 겪었습니다. 108개 계단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당시 맹강녀의 천신만고를 다시 한 번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전전

전내에 들어가면 소복을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녀가 바로 맹강녀입니다. 그녀 옆에는 그녀를 수호하는 동남동녀가 있습니다. 조각상 뒤에 있는 이 한 폭의 그림은 <강분안진>입니다. 우리가 본 바다 위에 있던 두 개의 돌바위가 바로 비석과 묘를 말해 줍니다. 여기가 바로 전설 속에서 나오는 맹강녀묘지입니다. 전전의 오른쪽에는 <천하제일관>이란 석편이 있습니다.

망부석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돌이 바로 <망부석>입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맹강녀가 남편을 찾아 장성 밑까지 왔는데 이미 밤이 깊었는지라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돌 위에 올라가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남편을 볼 수 있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급했는지라 강녀는 돌 위에서 분주히 왔다갔다 했는데 하룻밤 새에 돌 위에는 많은 구멍들이 생겼고 나중에 이를 <망부석>이라 하였습니다. 이 망부석은 순수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 곳에서 기념촬영을 하는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编译: 李英善

총대공원

총대공원은 1953년 조나라 문화유적인 무령총대를 중심으로 개설한 공원입니다. 이 공원에서는 고적들을 유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꽃구경, 동물구경도 할 수 있으며 놀이동산까지 겸비한 종합적인 레저 오락장소입니다.

이 문은 총대공원의 정문이고, 1997년 원래의 유적을 재건하여 만든 것입니다. 정문 양편에는 목단원, 월계원, 분경원이 있습니다.

총대공원은 고성 한단의 상징으로서 성급 중점문화재보호단위입니다. 총대는 기원전 325년부터 기원전 299년 전국시기를 거쳐 건설하였는데 건축의 목적은 가무와 군사 체조를 관람하기 위해서입니다. 총대는 상, 중, 하로 구분하며 구조가 특이하고 장식이 미묘하며 규모가 방대해서 줄곧 증원지구의 승경이라 불리웠습니다.

총대공원 일층 남북에는 각기 문 하나가 있으며 북문 높은 곳에 걸려있는 큰 돌비석에는 청조 건륭황제가 강남을 유람하면서 한단의 총대를 지날 때 친히 쓴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층 총대는 지상과 7미터라는 거리를 두고 있으며 동서로 59미터, 남북으로 80미터입니다. 총대의 북쪽편에는 5개 큰 방이 있는데 <무령구관>이라 부르며 무령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건축한 것입니다. 방앞의 소정은 1931년에 건축한 것입니다.

총대의 제일 윗층 문미 윗 부분에는 <무령총대>라는 네 개의 큰 글자가 있으며 총대 위는 원형을 나타내며 직경이 19미터이고 지표와 13.5미터 사이를 두고 있으며 무령왕이 가무를 구경하는 곳입니다.

칠현사는 조나라 일곱 명의 현인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축한 것입니다. 사중에는 7개의 채색 소상을 정중히 모시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나라 충신들의 혁혁한 공적들을 기억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비림(비석이 많이 서있는 곳)은 칠현사의 서쪽 편에 자리 잡고 있고 1987년부터 재건한 것으로서 1991년에 정식으로 외부에 공개했다고 합니다. 부지면적은 2767 평방미터이며 44개 비석이 있습니다. 비림을 건축한 목적은 주로 한단의 비지와 석조를 수집하고 보존하여 후세인들이 한단의 어체에 대해 더욱 깊은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编译: 李英善

승예스키

눈은 대자연이 인류에게 준 선물입니다. 겨울철 스키운동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고 신체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화북의 겨울철은 스키장으로 장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승예스키가 제일 유명합니다.

승예는 5만 헥타르의 삼림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면적이 원시적이고 5개 풍경구가 널리 알려졌으며 따라서 관광객들이 이 곳에 와서 수렵도 하고 낚시걸도 하고 야생과일도 따면서 휴식의 한 때를 보냅니다. 대면적의 삼림은 승예로 하여금 좋은 기후와 독특한 환경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승예의 설기는 대체로 3개월간인데 최근 몇 년 동안 승예의 적설량은 평년보다 많아 1미터 이상에 달했는데 이것은 같은 위도에 있는 화북의 기타 지방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인공 강설 설비가 있으므로 승예의 스키기간은 11월에서 3월까지 5개월입니다. 선진적인 설비, 합리적 조작성 인공 강설과 자연 강설이 별다른 차이가 없게 하였으며, 심지어 처리를 거친 인공 강설이 자연 강설에 비해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스키는 서방사람들부터 <신사운동>이라 하였습니다. 구라파에서는 매년 2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매년 200만 명의 사람들이 스키운동을 즐깁니다.

역사기록에 따르면 스키운동은 북유럽의 노르웨이에서 기원했다는 설도 있고 또 그 발원지가 중국과 러시아가 이웃해 있는 아륙태라는 설도 있는데 4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스키와 스키 스텝을 이용하여 망망한 설원을 달리었고 사냥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스키는 경기와 관광운동 항목이 되었습니다.

승예스키 관광자원의 개발은 199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의 건설을 거쳐서 웨운산스키장, 새외스키장, 장성령스키장, 만용스키장과 같은 몇 개의 스키장은 이미 대외에 알려졌습니다.

웨운산스키장휴가촌

대량의 자금을 들여서 건설한 웨운산 스키장은 장가구에서 최고급수준에 속하는

휴가촌입니다. 휴가촌은 승예현성의 동북 11.6킬로미터 떨어진 전성에서 가장 큰 삼림 공원 내에 있는데 부지면적이 4000헥타르입니다. 삼림은 스키장에 독특한 환경을 제공 해주었습니다. 공원에는 백양나무, 자작나무, 대추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삼림 내에는 교목이 13여 종, 관목이 20여 종 있습니다. 이 곳의 평균기온은 섭씨5도이고 여름철 최고 기온이 섭씨20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겨울철 최저 기온은 섭씨 영하 25도를 초과하지 않으며 눈 저장기가 150일입니다.

혜운산 스키장 휴가촌은 눈을 끌어 올기는 길이 세 갈래로서 길이가 3000여 미터, 총 스키장의 길이는 8000미터입니다. 선진적인 스키도구도 2000여 개 들여 왔습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서비스센터와 강락궁에서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스키도구를 대여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스키지도도 해줍니다.

혜운산 풍경구는 20여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졌으며 제일 높은 봉우리는 1800미터에 달합니다. 이 곳은 화북지대의 가장 작은 바람구로서 겨울철 풍력이 2급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키를 타는 것 이외에 관광객들은 높은 곳에서 풍경을 감상하고 눈을 밟으면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새외스키장

승예현성에서 13.5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새외스키장은 화북의 제일 큰 스키장 중의 하나입니다. 1996년에 시공하여 지금 일차적으로 초, 중, 고위급 수준의 설도가 7000미터나 되는데 초보자와 중등수준자 혹은 스키선수들이 모두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천여 개 스키도구와 기재들이 있으며 스키계절은 11월 하순부터 매년 3월 하순까지 120여 일입니다.

장성령스키장

장성령 스키장도 삼림공원 내에 있는데 현성에서 18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15헥타르이고 설도도 이미 2000미터 건설되었고 1000여개 스키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객들은 이 곳에서 능히 스키도 탈 수 있고 눈 위에서 모터와 썰매도 탈 수 있습니다.

만용승예스키장

만용 스키장은 승예현 홍화량에 있으며 장가구시에서 50킬로미터, 북경시와는 249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총 면적이 30평방킬로미터이며, 승예 스키장의 하나입니다. 매년 강설기간은 130일 정도이고 스키장의 제일 높은 곳은 해발이 2110.3미터이고 9갈래의 부동한 설도가 있으며 초, 중, 고급자들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설도의 총 길이는 1만미터나 됩니다. 설도는 금용설도, 은용설도, 옥룡설도를 포함합니다. 스키장에는 1600개의 최신형 스키도구가 있고 그 중 200여 가지는 수준급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타는 의자식 삭도도 3개 있습니다.

중국 승예 국제스키절은 매년 만용스키장에서 거행하고 따라서 이 곳은 일본, 한국국제스키팀과 중국스키팀의 훈련기지가이기도 합니다.

编译: 李英善

목란위장

수렵의 천당

목란위장은 청나라 황실의 수렵장으로 황제가 수렵순무하는 곳입니다. 목란황실 수렵장은 오늘의 승덕시 위장만족몽골자치현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위장기후는 북한대-중온대, 반습윤, 반건조의 대륙성 계절 고원산지 기후로서 기후유형이 복잡하고 연평균 기온은 영하4℃-5℃입니다. 연강수량은 450밀리미터이며 전년 무상기가 89일 됩니다. 목란위장의 기후가 독특하여 이 곳을 “삼경무서, 육월생풍” 이라고 하며 무더운 여름날의 최고 기온이 25℃를 초과하지 않으며 공기가 맑고 신선합니다. 팔월의 가을은 붉은 나뭇잎으로 산을 붉게 물들이고 겨울이면 빙설의 세계가 되어 대지가 온통 흰색을 띠고, 사람들에게 도시를 떠난 즐거움을 만끽하게 하는 스키장소도 제공하여 줍니다.

위장은 예전부터 나무와 풀이 무성하고 야생동물이 많은 야생초원이었습니다. 역사상의 “천리송림”은 요나라 황제가 사냥하는 곳이었으며 목란위장은 또한 청나라 황제가 가을사냥을 하는 황실사냥터로 되었습니다. 지금의 위장은 여전히 자연적이고 간결함과 소박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이 광활한 초원이 없었다면 선비, 산유, 동호, 거란등 많은 소수민족들이 수많은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초록군훈

어떤 사람은 중국의 고대역사는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이 생존공간을 두고 쟁탈하는 전쟁사라고 합니다. 중국북부에서 사냥을 하여 생계를 유지해 온 청나라 통치자들은 사냥을 통하여 행군과 작전을 하였습니다. 초록위렵은 중국 북방의 다수 소수민족이 오래전부터 전하여 내려온 일종의 사냥방식입니다. 청군은 만리장성을 넘어 중원을 점령하였으나 통치자들은 여전히 위렵의 전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강희황제 (1662-1723년)는 전통에 따라 열하에 황실수렵장을 건립하였습니다. 열

하는 지금의 하북성, 요녕성과 일부 내몽골지구를 포함됩니다. 청나라 황제는 여기에서 북으로 몽고를 통제하고 남으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청나라 강희황제(1726-1796)는 교지를 내어 문무관리들로 하여금 수렵방식으로 군대를 연습시키고 체력을 훈련하는 큰 의의를 깨달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목란가을수렵”은 일종 대규모의 군사훈련입니다. 매년 청나라 황제는 이곳에 오며 황가기병과 팔기군은 음력 칠, 팔월에 수렵의 방식으로 이 곳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사냥도 하면서 무력을 자랑합니다.

민족대단결

1690년 강희황제는 친히 청군을 영솔하여 목란위장에서 러시아와 결탁한 몽골 분열세력인 거르단부의 반란을 평정하였습니다. 다음해부터 몽골 각부는 다론노을초원(몽고어로 “칠성호”)에 모여 강희황제를 공동의 황제, 구세주로 모시었습니다. 또한 “몽고과 청나라는 영원히 싸우지 않는다”는 맹약을 체결했습니다. 목란위장을 건립한 목적이 바로 “내외의 힘을 모아 천하를 굳건히 한다.”는 것입니다.

위장소개

위장현은 하북성 제일 북부에 위치하여 있으며 남으로 승덕과 153킬로미터, 베이징과 350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총 면적이 9219.7평방킬로미터로 하북성에서 제일 큰 현입니다. 현은 동으로 적봉, 북으로는 내몽골과 접해있습니다.

목란위장은 승덕시 위장현에 위치하여 있으며 총 면적이 2324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 중 유명한 새한패가 1685평방킬로미터를 차지하며 산림커버률이 75.2%에 달합니다. 이 곳에는 81과, 312속, 659종의 고원식물이 27과, 88종의 조류와 11과, 25종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총 인구는 500,000명으로 인구 밀도는 평방킬로미터이53명당 53명이고 회족, 티베트족, 조선족, 만족, 몽골족을 포함한 소수민족이 300,000명에 달합니다. 그 중 만족과 몽골족이 24,500명에 달합니다.

청왕조의 매년 한 번씩 진행되는 대규모의 군사훈련과 정치성회는 민족단결을 유력하게 유지하였으며 또한 여러 민족의 풍속과 문화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중국은 1950년 현제를 건립한 후, 위장은 열하특별행정구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목전 위장현은 하북성에 속하며 현재 이름은 위장만족몽골족자치현이라고 합니다.

풍경구

많은 풍경구는 목란위장으로 향하는 고속도에 분산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고속도와 고석비에서 당시 황실수렵의 상황을 훑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몽고수령들이 110번이나 머리 숙여 무릎을 꿇고 황제를 맞이하는 “성가”의 거석에서 한 왕조의 강대함과 휘황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목란기》비석에는 한 천자가 목란위장에 대한 성찬을 기록하였으며 동시에 “목란가을수렵”의 과정과 건륭황후에 대한 경위의 정을 기록하였습니다. 황실은 목란위장을 수렵하고 여기에서 군사력을 키웠기에 국가가 통일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묘궁은 고어도에서 제일 유명한 풍경구입니다. 이곳은 전묘와 후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제가 예전에 이 곳에서 휴식하고 소수민족 수령들을 접견하던 곳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대부분 행궁건물이 이미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풍경구는 1860년대 초기에 건축한 묘궁저수지입니다. 저수지는 홍수 방지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하류의 용화현의 농업생산에도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사합영진은 위장현에서 제일 큰 진입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청나라 말년 산해관으로부터 네 가족이 이사 와서 “사합영”이라는 창고를 세웠는데 네 가족이 협력하여 영원히 흥성하라는 의미로 사합영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장현 성에 들어가기 전, 먼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곳은 바로 나무가 무성한 동산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장의 10대 경관의 하나인 “봉황령상와기린”입니다. 위장현성은 사면이 산에 둘러 싸여 있습니다. 예전에 봉황령의 백사가 세세대대 해를 끼쳤지만 지금은 보물로 되었습니다. 그 곳 주민들은 백사로 인해 부를 축적할 뿐만 아니라 백사로 갖은 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목란의 함의”

“목란”이란 이름은 꽃 이름이나 중국 고대 영웅인 화목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어로 “초록”이라는 뜻입니다. “초록”이란 고대의 일종 사냥 방식입니다.

역사배경

오래전부터 이 곳은 나무가 무성하고 수초가 많으며 기후가 습윤하여, 우월한 생태 환경은 동식물들의 생활에 적합하였습니다. 1702년 강희황제는 평민차림으로 북행하여

관하가의 한 찾집에 갔습니다. 그 때 열하의 상위에 한 몽고초원이 있었는데 그 곳은 사람이 드물고 모기와 전갈같은 해충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강희황제는 곧 말을 타고 열하를 따라 북으로 향하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강희 황제는 산과 물이 아름답고 백조가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고 야생사슴들이 마음껏 뛰어다니는 아름다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이를 본 강희황제는 그 해 이 비옥한 땅에 면적이 만 4천여 평방미터 되는 목란위장을 세웠습니다. 또한 72개의 작은 위장도 설치하였습니다. 해마다 목란수렵을 하였는데 강희 20년부터 가경 25년까지의 140여 년 동안에 강희, 건륭, 가경황제는 모두 105차례 수렵하였습니다.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황실은 매년마다 자리를 옮겨 수렵하였으며 수렵할 때는 어린 사슴이나 새끼를 가진 암사슴들은 관례에 따라 방생하여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수렵에 적합한 지형

목란위장은 새한고원에 자리잡고 있어 이를 새한패라고 하는데 몽고어로 “아름다운 고원”이라는 뜻입니다. 위장현 북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1200미터이고 고원의 동북부는 대흥안령과 접하고 서부는 연산산맥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새한패는 천연적인 병풍으로 겨울에는 북방으로부터 불어오는 한류를 막고 여름에는 바다로부터 오는 습기를 모아 풍부한 강수량을 형성하는데 이로 인하여 패상과 패하의 자연풍경이 다릅니다.

북부고원구는 수초가 무성하여 야수들이 많아 말을 타고 수렵하기에 적합한 천연 수렵장이며 그의 중남부는 해발고도가 500미터 좌우의 연산대지입니다.

락원의 득과 실

이 아름다운 땅은 300년전 몽골귀족이 황족의 수렵을 위해 황제에게 바친 것입니다.

목란위장이 건립된 1677년부터 이후의 오랜 세월에 위장내 백성들의 수렵과 벌목은 금지되어 있었는데 가경년간에야 백성들로 하여금 밭을 일구고 농사짓게 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목란위장의 금령이 폐기되는 그 때로부터 이 곳의 자연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황사가 점점 이 비옥한 땅을 점령하여 새 중국 건립시기에 이 곳에는 다만 100만무의 산림만 보존되어 있었으며 위장의 대부분은 광활한 사막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1960년대 초 임업 일꾼들이 100만여 헥타르의 인공산림을 조성하고 나서야 옛적의

산림을 다시 형성하여 태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망망한 임해는 다시 진귀한 야수들의 천당이 되었으며 사슴, 노루, 학, 황새 등이 다시 고향을 찾았습니다. 현재 3000여 마리의 장야크들이 정부의 도움으로 새로운 해발고도에서 서식하여, 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자연보호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망망한 임해는 다시 수도에 물을 제공하는 근원지가 되었고 바람을 막고 사막을 고정하는 북부병풍으로 되었습니다.

수지원

“이순”은 몽골어로 “구곡”이라는 뜻이며 다시 말하면 구불구불한 하천이라는 뜻입니다. 이순은 란하의 지류로서 료하와 란하의 물이 목란위장을 흘러 형성한 강인데 이로 인하여 목란위장은 또 “물의 수원, 구름의 고향, 꽃의 세계, 수림의 바다, 진귀한 야수들의 천당”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기반산

기반산은 위장 10대 풍경 중의 하나입니다. 기반산은 산정이 장기관처럼 평탄하여 강희황제가 가을 수렵할 때 산 위에서 대신과 장기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기반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반산은 길이가 백리로 새한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제는 령을 내려 산 앞에 사당을 짓게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대각입니다. 대각은 전후 5층 대전과 한 채의 3층 목각, 두 채의 2층 석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목전은 이미 철거되었으며 대전은 오랫동안 수리하지 않아 지금은 다만 비교적 완전한 석정 두 채만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곳에서 집집마다 소를 기르는데 기반산은 이로 하여 “중국북방 제일 큰 가축 무역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내몽고의 많은 가축을 남으로 운반하는 필경지이면서도 외지상인들이 북에 소를 사고 파는 “화북 제일시장”입니다.

취화궁

취화궁의 유래는 한 민간전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취화공주는 부친 강희황제를 따라 위장에 수렵하러 왔는데 “문도아노” 행궁밖의 산에서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취화공주가 여러 번 활을 쏘았지만 호랑이를 맞지 못하여 생명이 위협받고 있을 때 몽고왕공의 아들이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취화공주와 목숨을 구해 준 왕공 아들

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후에 공주는 상사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희황제는 그 후 “문도아노” 행궁을 “취화궁”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위장풍경구와 오락

지금의 목란위장에는 사당, 석각, 석비 등 청나라 황제들이 위장수렵할 때와 복순할 때의 문화유적이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점장대, 새한탑장군, 십이좌연영 등 고대 전쟁유적과 월호, 태풍호, 심리화랑 등 자연환경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군포자가 제일 유명한 풍경구입니다. “포자”란 몽고어로 호수라는 뜻인데 이곳은 고대 전쟁 유적지입니다. 이 곳의 독특한 지리적 위치로 목란위장은 여름에는 경치를 감상하고 가을에는 붉게 물든 단풍을 감상하고 겨울에는 수렵, 스키의 이상적인 장소이기도 하며 또한 말 타고, 산보하고, 등산하고, 휴가를 보내는 이상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编译: 李国福

융흥사

융흥사 역사

세계에서 유명한 융흥사는 석가장시 정정현 성내에 있는데 총 면적이 82500평방미터로 중국에서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불교 건축물의 하나로서 건축이 정연하고 형식이 다양한 사원입니다.

융흥사는 수나라 개황6년(기원586년)에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사원 내의 용장사비의 기록에 의하면 최초로 융흥사는 의연금으로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사원은 후연 모용회의 용등원유지 위에 건축되었다고 하여 이름을 “용장사”라고 지었습니다.

송나라 때 건축규모가 점차 커졌는데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에는 융흥사에 대한 재건축이 있었으며 청나라 강희황제와 건륭황제 년간에 두 번 건축을 하여 사원의 양측에 제왕행궁을 건조하였습니다. 청나라 강희황제 48년(기원1709년) 재건 후에 이름을 “융흥사”라고 고쳤습니다. 융흥사의 주요 건축물은 모두 송나라의 건축풍격과 특징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전통건축구조에 의하여 이 건축물들은 남으로부터 북으로 모두 한 중추선의 양측에 배열되었습니다.

조벽

이 조벽의 총칭은 “이용희주유리조벽”입니다. 중국의 전통에 따르면 사원과 신분이 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모두 대문에 이런 영벽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영벽도 중국 전통에 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이 큰 영벽 중심에는 유리로 조각한 “이용희주”의 도안이 장식되었는데 용이 하늘을 날 듯한 기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안들은 조각이 정밀하고 설계가 합리하여 구조와 장식이 완미한 통일체를 이룬 중국 노동인민들이 창조한 우수한 작품입니다.

북쪽의 돌다리는 세 갈래로 나뉘는데 단공으로 감쪽하고 정교하여 뒷면의 건축물과 아주 조화롭게 통일되어 사람들에게 미적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송나라 황제 조광의는 예전에 여러 차례 이 다리를 건너면서 용흥사를 유람하였다고 합니다.

천왕전

천왕전은 안쪽으로 삼간이고 넓이가 삼간인 중국 북송 때의 건축물입니다. 청나라 때 한번 대수리하였는데 “천왕전”이라는 3개의 큰 금빛 글글짜와 “칙건용흥사”이라는 다섯개 글자가 씌여진 편액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청나라 건륭황제와 강희황제의 친필로 되어 있습니다.

천왕전은 용흥사의 산문인데 문과 전이 일체로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용흥사는 “왜 산문이 없는가?”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원은 모두 산문이 있으며 또한 산문을 지나야 전이 있는데 이 사원은 왜 산문이 없는가고 물을 것입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당태종 이세민이 위치경덕을 파견하여 용흥사 수리를 감독하게 하였는데 공정이 곧 끝날 때 당나라 무장인 진홍이 법을 위반하여 이세민은 진홍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위치경덕과 진홍은 친한 친구였습니다. 위치경덕은 공사를 두고 친구를 구하려 중국 하남으로 급히 갔습니다. 공사를 하던 공예가들은 문을 어디에 정할지 몰라 위치경덕을 쫓아 하남으로 가서 위치경덕에게 산문은 어디에 정할까 하고 물었는데 마음이 급한 위치경덕은 말 채찍으로 생각없이 가리키면서 이 곳에 지으라고 하여 산문을 하남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정 민간에는 “사원이 크고 산문이 멀리 있어 산문이 하남에 있다.”라는 전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역사상 위치경덕은 정정에 전혀 오지 않았으며 또한 이세민도 진홍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고 천왕전이 용흥사의 산문으로 된 것도 용흥사 하나뿐이 아닙니다.

미륵부처

대전 중심의 이 불상은 미륵부처입니다. 이것은 나무로 된 조각상으로 중국 금나라 작품입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불경에서는 미륵은 그의 성이고 인도 브라만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아주 이름 있는 귀족이라고 합니다. 미륵이 손에 쥐고 있는 포대는 건곤포대라고 하는데 일종의 범기로서 전설에 따르면 대천 세계를 넣을 수 있다고 하여 불법의 무한함을 상징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있는, 큰 배에 웃음을 터뜨리고 있는 미륵의 형상은 이미 중국화로 된 미륵입니다.

4대천왕

4대천왕은 양측에 분립되어 있습니다. 이 4대천왕 상은 표정이 세밀하게 조각되어 천왕의 힘은 산을 뽑을 수 있을 듯한 기개를 보여 주고있습니다. 전하는 데 따르면 4대 천왕은 고대 인도 신화 중의 네 전신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탄생은 불교보다 앞섰고 불교가 탄생한 후 그들을 불교의 전신으로 하였는데 그들로 하여금 불법을 호위하고 동서남북 4대주를 지키게 하였답니다.

이쪽에 있는 흰 갑주를 입은 다라토가 동방지국천왕으로서 그는 손에 법기인 비파를 잡고 있습니다. “지국”이란 바로 자비란 뜻으로 음악으로 중생을 감화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불문에 귀의할 것을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청색갑주를 입은 비유리는 손에 보검을 쥐었는데 남방증장 천왕이라고 합니다. “증장”의 뜻은 중생들로 하여금 선량한 행동을 많이 하라는 뜻이며 보검을 잡은 것은 불법이 침범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서쪽의 것은 광목천왕으로서 이름은 비유박차이라고 합니다. 붉은 갑주에 손에 용한마리를 휘감았습니다. 관목이란 정천안으로 세계를 관찰하고 중생을 보호한다는 뜻이며 손에 용을 휘감은 것은 용은 밧줄의 의미로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밧줄로 묶어 그들로 하여금 불교를 믿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녹색조각상은 비사문으로서 북방다문천왕입니다. 그는 오른손에 우산을 쥐고 왼손에는 은서를 쥐었는데 뜻은 이 두 가지 법기로 마귀를 물리친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중생의 재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문”이란 그의 복덕이 사방에 유명하다는 뜻입니다.

4대천왕은 인도에서는 검, 공이, 창, 긴창을 쥐고 있었지만 불교가 중국에 전하여 온 후 중국 전통문화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손에 쥔 법기가 변화를 가져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바로 풍, 조, 우, 순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민속 심리에 부합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잘 납득할 수 있게 합니다.

대각육사전

천왕전에서 나와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는 이 큰 공지는 바로 대각육사전의 유적입니다. 유적에는 원내 규모가 제일 큰 불전이 있었는데 추산에 따르면 너비가 53미터, 깊이가 35미터, 높이가 18.3미터인데 안에는 오색현산과 금신조각이 있었으며 아주 호화롭고 장관이었습니다. 이 전의 건축년대는 송나라이고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

모두 수리한 적이 있으며 중화 민국시기 전란으로 하여 관리 미흡으로 무너졌습니다.

대각육사전의 “대각”이란 불경에 의하면 불타는 “각자”라고 하며 “자각”, “각타”, “각행원만” 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대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육사란 무엇일까요? 소승불교에서는 육사가 석가모니 부처전의 여섯 스승이라고 합니다.

마니전

마니전은 중국에 현존하고 있는 제일 오래된 벽들과 목조 건축물입니다. 이 전은 사원의 중추선 위에 건축되었으며 송나라 인종황우 4년(기원 1052년)에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건축의 너비와 깊이는 모두 7간이며 총 면적은 1400평방미터입니다.

대전의 구조가 특이하여 전의 중심은 처마가 겹친 산정입니다. 세심히 보면 이 수평기둥의 양쪽은 높고 가운데는 낮으며 수직 기둥은 아래가 굽고 위가 약한데 이런 건축구조는 송나라 《영조법칙》에 포함되어 당나라, 송나라 때 늘 볼 수 있는 건축형식입니다. 이런 건축형식은 명나라, 청나라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마니전은 중국 고대건축물의 고품으로 되었습니다.

전내의 소장 중 중심에 위치하여 있는 상은 석가모니상이고 좌우 양측에 있는 상은 가섭과 아난다입니다. 석가모니는 불교의 창시인으로서 약 기원전 565-기원전 485년 기간에 생활한 사람으로 보고 있으며 공자와 동일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석가모니 양측에 서 있는 협사의 소상은 그의 두 제자입니다. 오른쪽에 주먹을 쥐고 있는 것은 가섭이고 왼쪽에 두 손을 합장하고 있는 것은 아난다입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아난다는 출가하여 석가모니를 20여 년 따랐고 기억력이 아주 뛰어나고 지혜가 출중했다고 합니다. 이로 하여 그를 “다문 제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집결할 때 그는 경장을 복술하고 불법을 외웠는데 불경의 첫마디는 “내가 들은 것과 같다”는 뜻인 즉 “이는 아난다가 친히 부처가 말한 후 기억하여 외웠다.”는 것입니다. 가섭이 열반에 오른 후 그는 계속 불교 신자들을 영솔하여 전교하였다고 하여 중국에서는 그를 “이조”로 모십니다.

이 두 소상은 모두 송나라 때의 작품입니다. 아주 진귀한 문물들입니다. 이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로 명나라 승화년대에 만들었습니다. 문수는 범문 “문수이샤”의 간략어로 “묘길상”의 뜻입니다. 대승불교의 부처의 하나로 지혜가 최고로 뛰어났습니다. 소상은 다의사자로서 민간에서는 그의 현성지를 오대산이라고 합니다. 보현보살은 “행원제일”로 유명하며 연명의 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타는 짐승은 이가 여섯

개인 흰 코끼리이며 중국에서의 그의 도장은 사천의 아미산이라고 합니다.

이 벽화들은 명나라 승화년간에 회화된 것으로 주요 주제는 불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벽화는 선이 유창하고 색채가 선연한 중국회화의 정품입니다. 원래 화면 면적은 528평방미터인데 지금은 422평방미터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니전에는 또 용흥사의 예술의 보물인-오색현소가 있습니다. 이는 영롱하고 단아한 현상입니다. 봉연이 천중하고 상운이 감돌며 내용이 아주 풍부합니다. 나한이 호법하고 천신이 산을 순찰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물을 뿜는 짐승과 물을 흡수하는 짐승도 있는데 바닷물이 끝없이 거슬러 오르는 것처럼 불교도 뒤를 이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세음보살

정중에 있는 소상이 바로 관세음부처입니다. 소상은 높이가 3.4미터이고 머리에 관을 쓰고 목에 영락을 장식하고 숲은 어깨부터 아래로 내렸고 두 팔을 휘감아 아래로 날리었습니다. 머리는 조금 오른쪽으로 기울리고 몸은 앞으로 기울렸으며 왼발은 한 연꽃을 딛고 있는데 이는 진창에 오염되지 않는다는 뜻을 말합니다. 오른발이 구부러진 것은 길상여의를 표시합니다. 모든 모습들은 사람들에게 한적하고 태연한 모습과 단정한 느낌을 줍니다. 그의 두 눈은 우리와 감정교류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사람들에게 그의 아름다움을 더 잘 표현하며 따뜻하고 친근한 인성을 보여줍니다. 사원의 비문 기록에 의하면 이 소상은 명나라 가정황제 년간에 재소상한 것으로 아주 큰 예술적 가치가 있습니다.

계담

이 계담은 평면이 정방형인 건축물입니다. 건축은 청나라 건륭황제 년간(1736-1795년)에 건축하였으며 승려들이 불교의 계율을 받는 담장입니다. 이 담장은 중국 북방3대 수계지방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3대 수계지방은 베이징의 용화궁과 산서 오대산의 청양사, 정정현의 용흥사입니다. 오직 이 3곳만이 승려들에게 수계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담에 공양하는 것은 명나라 홍치6년(1493년)에 제조한 양면 동불상인데 불상은 몸과 몸이 붙었으며 서로 동지고 앉아 있습니다. 양측은 서방 극락교주인 아미타불과 동방 경유리 세계교주인 약사불입니다. 이 세 불상은 공간상의 "홍삼세불"을 형성하였으며 그들은 중, 동, 서 세 방향의 영원한 세계의 부처를 대표하였는데 그 중 아미타불은 중국

에서 영향력이 좀 큼니다.

이 전은 중국에서 역사가 제일 오래되고 규모가 제일 큰 전문장입니다. 건축물은 평면이 정방형으로 너비와 깊이가 세 간인 2층 누각입니다. 이 전은 중국 북송 때에 건축하였고 산서의 진사대전과 아주 비슷하며, 송나라의 건축풍격으로 되었습니다. 1956년 때 국가에 의하여 복원식 개수를 하였습니다.

전에는 직경이 7미터인 팔각형 목계전란장을 놓았습니다. 이는 무슨 작용을 할까요? 이는 승려들이 법일을 할 때 미는 법륜입니다. “륜”이란 고인도 병기의 일종으로서 형태가 륜과 비슷합니다. 당시 륜은 아주 위력이 있는 병기면서도 후에는 권리의 상징으로 되었습니다. 불교의 법륜은 불법을 비유하고 전은 선법을 비유하며 불법의 선양을 제시합니다. 이로 인하여 승려들은 독경할 때도 륜을 돌립니다. 이는 법륜이 자주 돌면 자강불식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목계 전문장은 가운데에 수직축이 하나가 있어 주위에 대한 힘의 분포가 아주 균형합니다. 이로 인하여 보기에는 무거워 보이지만 실제 돌리면 아주 원활합니다.

자씨각

우리앞에 서 있는 이 건축물은 자씨각입니다. 자씨란 미륵의 음역으로 미륵을 또한 자씨라고도 합니다. 자씨각은 북송 때에 건축하였으며 밖에서 보면 전륜각과 비슷하고 모두 지붕이 하나인 산정건축물입니다.

트러스구조는 감축구조를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간단명료한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처마는 영정기둥조법을 사용하였으며 바로 뒤의 두 기둥이 위부의 중량을 지탱하게 하였고 앞부분의 두 기둥은 이층각루의 중량을 지탱하게 하여 주기둥의 압력을 줄였습니다. 이런 건축방법은 중국 현존하고 있는 송나라 건축물 중에서 하나뿐입니다.

전내의 불상은 미륵불상이고 높이는 7.4미터인 독목으로 조각한 것입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나무는 산서 오대산의 고목으로서 “영험나무”라고 합니다.

강희옥비정

용흥사내 강희황제 옥정비의 건축형식은 기타 건축물과 다릅니다. 이 정의 옥상의 기와는 황색인데 이는 제왕이 특유하는 표시입니다. 비정은 청나라 건축물이며 평면이 정방형이고 정의 옥상은 지붕이 겹친 산정입니다. 정내의 석비는 강희황제 52년(1713년)에 세웠습니다. 이름은 《옥제용흥사비》입니다. 서쪽의 저 석비는 건륭황제 45년(1780년)에 세

있는데 《개수정정용흥사비》 라고 합니다. 비문은 건륭황제가 친히 쓴 글입니다.

용장사비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있는 석비는 중국 수나라의 용장사비입니다. 이 비는 수나라 개원6년(586년)에 세웠습니다. 비수는 반원으로 위에 여섯마리의 반응이 서로 교차되어 있으며 비 높이는 1.64미터이고 정면에 음문해서1447글자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위에 수나라 흥주사주 왕효영의 “봉척권장주내인사일만인등” 이라는, 용장사를 수건할 때의 정황을 썼습니다. 비 뒷면 왼쪽에는 흥주 각 현의 관직명과 승려들의 이름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비는 중국의 명비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수나라의 세 개의 완전한 석비 중의 하나입니다. 이로 인하여 “수비제일” 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비문의 서법은 무척 예술가치가 있는데 서체가 방정하고 구조가 엄밀하며 소박하면서 연서로 만칭수를 잃지 않았으며 정중하나 딱딱하지 않습니다. 글체는 예서에서 해서에로 과도하는 글체의 전범입니다.

맞은 편이 높은 건축물이 바로 용흥사의 주체 건축물인 대비각입니다. 대비각은 외면으로 보면 오전삼층의 건축물에 속하며 높이가 33미터 입니다. 건물은 중추선 후반부에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각전은 송나라 개보년간(968-976년)에 건축하였습니다. 원래 동서양측의 옥서루와 지칭각과 연결되었으며 앞의 동서로 대치되는 전륜각과 자씨각과도 서로 비추어 웅위한 건축군을 형성하였습니다. 1944년 보수할 때 양측의 각루를 제거하여 대비각의 면적이 삼분의 일이 감소되었습니다.

대비각

이 작은 각내에 관세음부처를 공양하여 이름을 떨쳤기 때문에 대비각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부처의 범문 진명은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부처” 입니다. “관음” 이란 중국어 이름으로 또 자비의 화신이라고도 합니다. 불경에 따르면 관세음부처는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자” 이고 중생을 동정하는 것은 “비” 라고 합니다. 즉 대자는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며 대비는 중생의 고통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천수천안관세음

수미좌에 서있는 이 동보살이 바로 대비보살로 한편 천수천안관세음이라고도 합니

다. 동상은 높이가 21.3미터이고 팔이 모두 42개인데 이 보살은 “하복사보”의 하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연대가 제일 오래되고 높이가 제일 높은 동보살상입니다. 이 보살은 송태조 조광은의 명에 따라 만든 것입니다. 보살은 장엄하고 엄숙한 느낌을 줍니다. 보살은 몸집이 크고 비례가 맞으며 넓은 이마와 큰 귀 때문에 아주 자상하게 보입니다. 보살의 42개 팔 중에서 2개는 가슴 앞에서 합장하고 기타 손은 일, 월, 정병, 보거울, 보검, 금강대 등 법기를 쥐고 있습니다. 이런 법기는 보살의 공덕과 모든 중생들의 고난을 구해줄 수 있는 위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보살은 팔이 단지 42개뿐인데 왜 천수천안보살이라고 하는지 궁금한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살은, 가운데의 합장하고 있는 두 손과 좌우에 각각 20개 손이 있으며 각 손마다 모두 눈이 하나씩 있어 40개 손과 40개 눈이 있습니다. 눈과 손은 또 “25유”를 배치하였습니다. 25유란 무엇인가? 바로 불교삼계의 사주, 사악취, 육천옥 등 감정이 존재하는 환경을 말합니다. 25에 40을 승하면 천수천안이 됩니다. 천수천안관세음의 매 손에는 모두 전문적인 법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은 아래로 향하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는 것은 무위손인데 이는 모든 중생을 구할 때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손에 석장수를 권 것은 모든 중생을 호위한다는 것이며 손에 방패를 든 것은 모든 악짐승을 막고, 손에 검을 권 것은 모든 귀신을 항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합장한 것은 모든 중생들을 경에한다는 뜻이며 손에 보발을 권 것은 몸을 온정하게 하는 것이며 손에 금강륜을 권 것은 부처될 것을 추구하며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는 등을 의미합니다.

관세음머리 위의 두 손은 또 작은 부처를 받들고 있는데 이 두 부처는 관세음의 스승인 “무량광불”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예전에 보도중생을 다 못하면 영원히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처럼 큰 동부처는 어떻게 구조되었을까요? 부처의 제조에 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용흥사에는 송나라 경우년간의 석비를 보존하고 있는데 비 중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제조공정이 아주 복잡하여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대체적으로 기초를 제조한 후 여덟차례로 제조하는데 첫 절차는 아래 부분의 연꽃좌를 먼저 제조하고 두번째로는 무릎까지, 세번째로는 배꼽까지, 네번째로는 가슴까지, 다섯번째로는 겨드랑이까지, 여섯번째로는 어깨까지, 일곱번째는 머리부분을 제조하고 마지막으로 42개 팔을 제조했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보시고 있는 40개 좌우 팔은 목조로 된 것인데 왜냐하면 당시 제조할 때 다 제조하고 보니 윗부분이 너무 무거워 부처상이 지탱하지 못할까봐 또한 나아가 이 부처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목재 팔을 사용하였다고 추측하는데 이런 추측이 맞는가 봅니다.

미륵전

미륵전은 명나라 정통5년(1510년)에 건축하였으며 이 전의 건축특징은 송나라 건축형식과 좀 다릅니다. 건축은 송나라 건축형식에서 청나라 건축형식으로 과도하는 과정입니다. 건축은 송나라 건축형식의 높고 크고 산뜻하며 채색화를 그리지 않는 특징이 있는가 하면 청나라의 색채가 화려하고 작고 감쪽한 풍경도 있습니다.

아미타불

전에 들어서서 먼저 보이는 것은 오색흙소부처입니다. 이는 서방 극락세계의 교주인 아미타불입니다. 앞에 있는 아미타불은 삼세불중의 “미래불”이라고 하였습니다. 불경에서 아미타불은 예전에 “만약 어느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열 번 부르면 난 그를 극락세계에 가게 하겠다.”고 맹세한 적이 있어 많은 신도들은 입에 “아미타불”하고 외우는데 의미는 자신은 아미타불을 스승으로 모시며 각 방면에서 아미타불의 모습을 따라 배우며 아미타불로 하여금 자신들을 극락세계로 가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상 아래의 연꽃좌를 보세요. 이 연꽃좌에는 천 개의 연꽃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방 극락세계를 상징하는데 대천세계는 사람이 통치한다는 뜻으로 불법이 모든 것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에는 원래 18나한이 있었습니다. 전란으로 파괴되어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각석을 보십시오. 여러분들께 우아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계귀” 두 글자는 전하는 바에 의하면 수나라 서법가 지영선사의 글이라고 합니다. 지영스님은 속성이 왕씨인데 동진대서법가 왕희지의 7세손이라고 합니다. 스님은 절강소흥 영신사에서 수행이 많았는데 서법에 능하고 행초를 겸병하였고 서법이 유명하였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문턱이 파손되어 그는 집 문턱을 첩편으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첩문턱”이라는 아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타보살

북쪽벽에 위타보살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높이가 1미터, 사원의 호법신입니다. 불경에서는 그는 불교의 천신으로 걸음이 빨라 이름이 낫습니다. 불주가 열반에 오른 후 악마가 석가모니의 사리를 도적질하였는데 이를 안 위타는 꾸준히 뒤쫓아 서리를 빼앗아다 악마를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을 호위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위타

는 젊고 영준하며 위풍당당하며 몸에 갑옷을 입고 손에 금강대를 쥐었는데 그의 불뿔을 호위한다는 적담충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위타가 손에 금강대를 권모습을 주의하여 보셨지요? 이는 사원이 외래 스님들을 받아들이는가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만약 금강대가 팔을 기준으로 가로 하면 본 사원은 손님들을 접대한다는 뜻이고 금강대를 아래로 수직으로 쥐면 외래스님들을 접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융흥사원이 외래스님들을 접대하는가 아니하는가는 이를 보면 알 것입니다.

비로전

비로전은 융흥사의 북쪽에 있습니다. 이 전은 원래 본 사원의 전이 아니었습니다. 전은 1959년에 정정현 북문 승인사에서 옮겨 온 것입니다. 당나라때 승인사는 워낙 작은 절이었습니다. 명나라 만력년간에 무의가 절의 주지가 되면서 사처를 다니며 화원하여 작은 절의 면모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또한 화원하여 무량전과 비로전을 세웠습니다. 무량전이란 이름대로 전에 들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목적은 황제한테 “무량”(양식이 없다.)으로 세금을 면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명나라 만력황제는 비로전에 온 적이 있으며 정말로 절의 세금을 면제하였다고 합니다. 비로의 범문전칭은 “비로서나”로서 뜻은 “광명보도”, “편조일체”라고 하며 또 “대일여래”라고도 하는데 실은 석가모니의 다른 한 존칭입니다.

불상은 동으로 제조하였으며 높이가 6.27미터이고 제조 수준으로 보면 동상은 아주 큰 예술가치가 있는 정품입니다. 소상은 비례가 합리하고 설계가 정밀하며 모양이 독특한데 중국에서도 수량이 적은 보물입니다. 여러분, 불상을 보십시오. 불상은 아래로부터 위까지 점차 작아지며 마치 하나의 보탑 같아 보입니다. 전체는 삼층으로 제조되었으며 삼층에 총 천 개의 연꽃잎이 있습니다. 이는 대천세계를 상징하며 각 연꽃잎 위에 작은 불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작은 불상의 얼굴은 다 다릅니다. 이 연불좌는 대천세계는 부처가 모두 통치한다는 것을 상징하며 이런 조형을 “천블로비로”라고 합니다.

이 삼층 작은 불사 외에 각 층마다 큰 불상이 4개 있으며 모두 삼층입니다. 각 불상은 또 각자로 “오불관”을 쓰고 있으며 불도에는 모두 1072개의 불상이 있습니다.

유리정

팔각유리정에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홍주사적인 악국공인 완효령의 제의에 의

하여 건축하였다고 하는데 비준을 거친 후에 목재가 없어 고민할 때 먼 곳에서 한 승려가 와서 우물에 목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들은 왕사직은 즉시로 유리정 옆에 와 보았는데 정말로 우물에 목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로 사람을 시켜 목재를 건졌으며 하나를 건지니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이렇게 반복으로 98417대의 목재를 건져냈습니다. 왕사직이 이렇게 많은 목재를 보고 “됐다” 라고 말하자마자 마지막 목재는 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전설일 따름이지요.

또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용흥사건축의 목재는 모두 오대산 보현보살께서 도왔다고 합니다. 후에 사람들이 이 전설을 분석했는데 전설속에는 진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은 용흥사의 목재는 주로 오대산에서 채벌한 것이며 낙타하로 물에 띄어 운반해 온 것입니다. 당연히 물에서 건진 것이지요.

编译: 李国福

북대하

북대하

북대하는 하북성 진황도시 서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곳은 기후가 좋고 20리의 평탄한 해변이 있으며 나무가 무성한 연봉산을 등지고 있어 자연환경이 아름답습니다. 이 곳은 또한 중국 북방에서 이상적인 피서성지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북대하 피서구는 서쪽의 대하구로부터 동으로 응각정까지 동서길이가 약 20리, 남북 넓이가 약 3리에 달합니다. 북대하 서남20여리 되는 창리에는 아름다운 해변이 한 곳 있는데 1985년부터 해수욕장으로 개발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해변 피서구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하여 북대하를 중심으로 하는 해변 피서요양구가 부단히 확대될 전망입니다. 북대하 해변의 진주모래는 질이 좋고 경사도가 비교적 평탄하여 훌륭한 천연 해수욕장입니다. 청나라 광서황제년간 북경에 살고 있던 외국인들이 이 피서지를 발견하여 이 곳에 별장을 지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광서24년(1898년), 청정부는 이곳을 정식으로 “각국인사 피서지”로 개발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제국주의자, 외국인사, 군벌, 관리, 자본가들이 분분히 이 곳에 와 별장을 지었습니다. 1938년 이 곳에는 별장만 해도 700여채가 있었으며 또한 호텔, 술집, 무도장 등 오락시설들이 건축되어 있어 식민지 색채를 띤 피서지로 되었습니다. 건국 후 북대하에는 많은 휴양소, 요양원, 호텔 등이 건축되었고 규모가 이전보다 더 커졌으며 중국에서 규모가 비교적 크고 시설이 비교적 완벽한 해변 피서성지로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년 여름 휴가철에만 해도 백 만 이상의 관광객과 휴가손님들이 이 곳을 찾고 있습니다.

북대하 주위의 환경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해변은 연봉산을 등지고 있으며 연봉산은 동서 두 봉으로 나뉘는데 서로 약3리 떨어져 있습니다. 산 위나 산 아래는 모두 무성한 송백나무로 산림을 이루었습니다. 동연봉산은 해발이 130미터이며 산간길로 위로 천천히 올라 약 반시간 오르면 산봉우리의 망해정에 이릅니다. 이 곳에서 녹색의 산림, 황색의 해변, 파란바다를 내려다 보면 가슴이 탁 트이고 기분이 유쾌해질 것입니다. 북대하는 신주 9대 관일처의 하나입니다. 북대하 관일처는 북대하 해변가에 위치

하여 있는데 동북부의 응각정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해가 솟을 때는 만물이 조용하고 하늘과 바닷물이 서로 연결되어 색채 변화가 많습니다. 붉은 해가 솟을 때면 수상수화의 붉은 해님이 서로 연접하고 또한 순식간에 물위에 솟아올라 아침노을이 모든 해변에 비치는데 마치 바다 위에 금색 비단을 덮은 듯 합니다. 만약 기차를 타고 관상하면 또 다른 정취가 느껴질 것입니다.

연봉산

동연봉산 산기슭에는 연꽃석이 하나 있고 원중에는 커다란 소나무와 연꽃으로 생긴 산돌이 있습니다. 이로하여 연꽃석공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꽃석공원 북측에는 우아하고 조용한 관세음절당이 있습니다. 동측에는 묘지건축이 호화롭고 화려한 주가분도 있습니다. 해변길 옆에는 또 고리끼공원과 노신공원이 있습니다. 동쪽의 응각석은 북대하의 한 성령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 채의 해변에 서 있는 고봉으로 높고 가파로와 형태가 마치 매가 서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응각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야생 비둘기들이 돌틈에서 살고 있어 또한 비둘기우리라는 이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산봉에는 응각정이 건축되어 있으며 봉우리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면 만경창과에 흰 물결이 출렁이는데 그 기세 도도합니다.

응각석

동쪽의 응각석은 북대하의 유명한 풍경구입니다. 이 거석들은 바다에까지 뻗었으며 날개를 펴고 날고자 하는 독수리와 같아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이를 응각석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비둘기들이 돌틈에서 서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를 또 비둘기우리 공원이라고도 합니다. 응각석은 해돋이를 구경하기 제일 좋은 곳입니다. 매번 관광 성수기만 되면 새벽4-5시에는 이 곳에 해돋이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바다의 해돋이는 실로 아름답고 장관입니다. 매 번 태양이 바다 위에서 솟아 세계에 채색장을 펼칠 때에는 장관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매우 설레이게 됩니다. 태양은 항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비둘기우리대초평

공원 북측은 유명한 비둘기우리대초평입니다. 하루 한 번인 만조와 낙조는 이 곳

의 천백 년 변하지 않는 풍경입니다. 동시에 이 곳은 국가보호지역으로서 조개류, 고기, 새우, 게 등 해양생물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는 또 조류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였습니다.

연산

진황도 북측에는 연산이 있습니다. 동남측은 발해이고 산과 바다는 새들의 방향 식별에 유리합니다. 위의 이런 원인으로 인하여 이 곳은 조류들이 이동 중 서식지로 되었습니다. 매년 봄, 가을에는 국내외 수많은 조류 전문가와 조류 애호가들이 이곳에 와서 새를 관상합니다. 그리하여 북대하는 “세계관조메카” 라는 아름다운 이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망해장랑

망해장랑에서 여러분께서는 북대하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장랑내에는 채화로 북대하24경, 민간이야기와 전설, 화조충어 등 전통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만약 날씨가 좋으면 높은 연산지맥도 볼 수 있습니다. 장랑끝은 옥일정입니다. 장랑의 오른쪽에 서각이 건축되어 있으며 비랑과 비정도 있습니다. 안에는 역대 진황도를 묘회하고 찬송하는 시구절을 적은 것이 있습니다.

공원 서측에는 인공호수가 하나 있는데 1985년 해제방둑을 쌓을 때 건축한 것입니다. 인공호수는 하나의 작은 섬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로 하여 호수와 섬은 “원앙호와 연인도” 라는 아주 로맨틱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둘기우리공원

저녁에 비둘기우리 공원으로 친구들과 같이 오셔서 수막영화를 감상하는 것은 실로 로맨틱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비둘기우리공원 수막영화는 원앙호수 위에 설치하였는데 고압펌프와 특제 수막발생기로 물을 아래로부터 위로 뿜어 안개화하여 투명한 수막을 이루는데 말하자면 “영사막” 을 이룬 것입니다. 수막영화의 독특한 입체감, 음성효과 그리고 호수물의 진동으로 인한 소리는 여러분에게 진한 감동을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

编译: 李国福

탁록삼조문화

탁록

탁록삼조문화관광구는 중화 민족과 중화 문명의 발원지입니다.

삼조성지인 탁록은 문화 삼조인 염제, 황제, 치우로 이름났습니다. 그리하여 중국 백여 년의 역사를 알려면 상해를 가 보고 중국의 오백년 역사를 알려면 베이징에 가 보고 중국 2천년 역사를 알려면 서안에 가 보고 중국 5천년 역사를 알려면 우리 고성인 탁록에 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곳은 염황자손이 위대한 선조 신령을 모시는 성지입니다. 또한 중화 5천년 문화원류를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화삼조당

탁록은 염황자손의 고향입니다. 5천년 전의 이 곳은 중국의 정치, 군사,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당시 제일 큰 부락수령들이 모두 여기에서 살았고 이 곳에서 일했으며 또한 이 곳에서 땅에 묻혔습니다. 삼조당은 싱가포르의 저명한 화교 학자인 주응남 선생께서 1984년 백만원을 기부하여 지은 것입니다. 1988년에 완공하였으며 매년 수만에 달하는 홍콩과 대만의 동포들이 조상을 찾아 이곳에 와 조상에 대한 무한한 존경의 마음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삼조당은 황제성 동쪽에 위치하여 있으며 면적이 3.5평방킬로미터이며 건축물이 웅위하고, 소박하고 정밀합니다. 대전의 정문 위에는 “중화삼조당”이라는 다섯 개 유금글자로 새긴 편액이 있습니다.

황제

대전 내의 세 시조 소상은 모습이 준엄하며 표정이 단정합니다. 대전 정중에 있는 소상은 현원황제의 소상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황제는 중화 민족의 공동 선조라고 합

니다. 또한 황제는 소전의 아들이로서 그가 황색대지의 미덕을 지니고 있다 하여 이름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으며 지수가에 살고 있었기에 그의 성은 지씨라고 합니다. 황제 부락은 처음으로 전차를 발명하였으며 이런 전차는 현(차바퀴)과 원이 있어 황제를 또 현원씨라고도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2697년~기원전2599년간 그는 황하 유역에서 살고 있었으며 부락 연맹 수령이었습니다. 그는 일련의 전쟁을 통하여 무력으로 다른 북방 부락을 통일하여 중국 최초의 국가를 건립하였습니다.

위대한 발명가로서 그는 많은 유익한 개혁과 창조를 하여 세인들은 그를 인류문화의 시조라고 부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역법, 문자, 병법, 누에 기르기, 건축, 조선, 전차, 기계를 발명하고 농사 짓는 방법을 배워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중화 민족의 시조로 되었습니다. 모든 중국 사람들은 자신을 염황자손이라고 합니다. 이는 황제가 다만 국가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중화 문명과 민족 혈맥의 시조이기 때문입니다.

염제

염제는 중화 민족의 다른 하나의 시조입니다. 그의 소상은 대전의 동쪽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중화 민족의 발전역사에서 염제는 위대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염제의 어머니이신 인니는 화산으로 도주하는 도중에 신용을 만나 임신하여 돌아오는 길에 염제를 낳았다고 합니다. 염제가 강구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와 그의 부락의 성을 모두 강씨라고 합니다. 염제는 농업 발전을 중시했는데 친히 쟁기, 보습 등 농기구를 발명하였고 사람들에게 경작을 가르쳐주어 사람들은 그를 신농씨라고 존칭하였습니다. 염제는 또 친히 백초를 맛보고 그것들의 효능을 알고 그것으로 병을 치료하는 약을 만드는 데에 몸을 바쳤다 하여 사람들은 그를 또 농신, 태양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또한 황제와 함께 화하의 선조라고도 불립니다.

치우

대전 서쪽의 소상이 바로 중화 민족의 다른 한 시조인 치우입니다. 치우는 당시 강대 한 부락인 구리족의 수령이었습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그는 동광을 발견하였으며 칼, 창, 활, 쇠뇌를 제조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주 용맹스러웠는데 매번 교전할 때마다 몸에 반점 호랑이 가죽을 입고, 머리에 양각 동투구를 쓰고, 손에 동칼을 쥐고 적진으로 돌진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용맹함으로 인해 그를 중국 고대전신으로 봉하게 되었습니다.

부락역사

중화 삼조당내의 벽에는 중화삼조의 사적이 적혀 있는 사건들을 기록한 긴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주로 “탁록의 전”, “반천의 전”, “부락연맹”, “과종오곡”, “의약발면” 등 이야기가 있는데 총 길이가 80여 미터에 달합니다.

이 벽화들은 황제, 염제, 치우가 탁록 전쟁에서 전투하는 장면들을 생동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황제부락의 원 거주지는 중국 서부였습니다. 황하가 범람하는 바람에 황제는 부락을 이끌고 동으로 이사하여 탁록 일대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염제부락도 뒤를 이어 동으로 이사하여 위하를 따라 아래로 황하일대에 거주하였고 치우부락은 중국동부 즉 현재의 산둥, 하남경내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여러 부락은 장년의 교류에서 여러 차례의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염제부락은 위하를 따라 아래로, 또한 황하남안을 따라 동진하여 지금의 산둥일대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치우부락과 충돌이 생기었는데 염제가 치우부락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탁록으로 도망하여 황제의 도움을 받으러 갔습니다. 황제는 염제의 청을 받아들여 기타 부락과 연합하여 탁록지야에서 치우와 오랜 시간의 전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우가 전패하여 황제부락에 의해 목숨을 잃었는데 이번 전쟁을 “탁록의 전”이라고 합니다. 전쟁 후 황제는 치우부락을 위로하였으며 치우의 옛 부하들이 치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황제부락에 복속하였으며 황제를 자신들의 제로 모시었습니다. 이로부터 황제는 탁록에 수도를 정하였답니다.

벽화 중의 “반천의 전”은 “탁록의 전”의 전에 패권을 쟁탈하기 위하여 염제부락이 황제부락에 대해 일으킨 대규모의 전쟁입니다. 전쟁지점이 반천이어서 이번 전쟁을 “반천의 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염제가 패배하여 황제에게 귀속하였습니다. 그 후 그들의 자손들이 하북으로부터 남으로 이사하여 황하유역에 도착하여 중원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교류와 융합을 거쳐 중원의 초기주민이 되었는데 이로부터 중화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황제성

황제성은 중화의 첫 도성입니다. 장방형 모양으로 되었는데 규칙적이고 정연하지 않습니다. 남쪽성벽은 길이가 510미터로 북성벽보다 30미터 더 길며 동쪽성벽은 길이가 500미터이고 서성벽보다 50미터 더 깁니다. 비록 5000년의 역사를 겪었지만 황토벽은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데 다만 동성벽의 한 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황제성은 면적

이 20헥타르에 달하며 성내에 팔괴전법으로 거리를 건축하였는데 내사전 이름은 “용호조사” 라고 하며 외사전은 “천지풍운” 이라고 합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당시 성내에 원 주민 300호가 있었는데 명나라 도광년간에만 해도 주민 4호와 십여간의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5000년 전 우리의 선조는 여기에서 흙으로 도성을 쌓고 농사를 지었으며 문자를 발명하고 배를 만들고 악기를 발명하고 누에를 길렀습니다. 이 곳은 예전에는 중화문명의 원천이었으나 지금은 선인들의 유적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렇듯 역사가 유구한 도성에서는 많은 문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1957년 처음으로 돌칼과 돌도끼, 도자기 등 생활도구들이 출토되었으며 1987년에는 한 촌민이 두 개의 청동검과 두 개의 청동창, 두 개의 청동석돈, 여러 매의 석바둑을 발견하였으며 또 하나의 도관도 출토되었습니다.

황제천

황제천을 또 “탁용지”, “반천”, “흑용지” 라고도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샘수는 현원황제의 보말이 파낸 것이랍니다. 황제가 세상을 뜬 후, 이 말은 샘에 돌아왔는데 경상적으로 샘에서 현령되었다고 합니다. 황제샘물의 상년 온도는 12℃-13.4℃간이며 종년 얼음이 얼지 않습니다. 샘수는 물이 아주 맑은데 인체에 유익한 스트론튬, 중탄산, 칼슘과 마그네슘 등이 들어 있습니다.

황제릉

황제성으로부터 20킬로미터 떨어진 교산정의 황제릉은 현원황제의 육체를 매장한 곳으로 사람들이 처음 현원황제의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산 위에는 현원황제의 무덤이 있는 외에 또 황제사, 제묘, 제순묘가 있습니다. 당지 사지의 기록에 의하면 기원 1333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 교산절이 파괴되어 지금은 단지 패허만 남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대총” 혹은 “제상” 이라 합니다. 사적의 기록에 의하면 오대에 일곱황제가 십여 번 교산을 등산하여 황제릉에서 황제에게 제사를 올렸답니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였지만 선조의 유적은 이 땅에 깊이 뚫어 있으며 황제, 염제, 치우 세 시조의 위업은 영원히 세상에 빛을 뿌릴 것입니다.

编译: 李国福

무강년화박물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강년화박물관 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985년 무강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년화를 소재로 하는 전문적인 박물관을 설립하였습니다. 화북평원의 무강현에 자리잡고 있는 무강년화박물관은 국가 AA급 풍경구로서 환경이 소박하고 우아하며 강한 민족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 박물관은 년화의 특징과 전통문화, 전통예술을 그대로 전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방면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예술의 전당이기도 합니다. 본 박물관은 하북성 정부에서 지정한 청소년 애국주의 교육기지이며 1993년에는 문화부로부터 “중국목판년화의 고향”으로 명명되었으며 “중국민간목판년화출판연구회” 회지가 이 곳에 설치되었습니다.

총 면적이 25100평방미터, 전시 면적이 3500평방미터이고 여덟 개의 전시청과 전통공예 복원전시장과 민간공예품복무부도 가지고 있는 무강년화박물관은 현재 중국에서 규모가 제일 크고 수장품이 제일 풍부하고 진열형식이 제일 유명한 전문 박물관입니다. 본 박물관에는 명청시대로부터의 역대 년화정품 3738점이 수장되어 있습니다.

진열장은 모두 5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곳은 첫번째 부분입니다. 이 곳에서 우리는 주로 무강년화의 역사원류와 탄생된 환경을 요해할 수 있으며 왜 이렇게 빈곤한 무강에 이처럼 우아한 예술이 탄생했는가 하는 의문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부분은 무강현 년화의 휘황한 역사적 성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년화”가 얼마나 위대하고 정교로운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며 년화의 도안으로부터 “동방성경”의 내포된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 부분에는 혁명전통으로 된 근현대 년화를 전시하였습니다. 이 곳에서 여러분은 깊은 산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골예술가들이 어떻게 년화의 형식으로 그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추구하고 그리움을 읽을 수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국가 운명에 관심을 가졌고 추악한 형상에 대해 채찍질 하였는지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번째 부분에서는 개혁개방이래 무강현 년화업 발전의 역사를 전시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무강현의 년화가 어떻게 기타 예술형식과 같이 시대의 맥박을 잡고 시대의 발전과 같이 발전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부분에서는 각 지방의 다양한 민간년화를 전시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전국각지의 년화와 세계 일부나라와 지구의 년화를 감상할 수 있는 동시에 무강년화가 민간예술중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민간예술에 끼친 화풍의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열장에서는 수장품의 우세를 충분히 응용하여 전시품을 진열함으로써 지식성, 사상성, 참여성과 취미성을 일체로 하여 사회각계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사대년화의 하나인 무강년화는 중국의 보귀한 문화유산으로 애국주의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그 중 반제, 반봉건, 항일구국, 해방전쟁, 정권건설 등 애국주의 주제의 작품들은 다른 년화산지가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우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곳의 풍부한 공예품은 계통적이고 생동하며 현상적이고도 직관적으로 중화 민족의 백여년의 자강의 굴함없는 정신과 치욕을 잊어버리고 분발하여 강성을 도모하는 애국정신과 혁명투쟁사를 반영합니다. 특히 항일전쟁시기와 해방전쟁시기의 무강예술가들은 강풍, 고원, 오농, 막보, 연합, 풍진 등 혁명적 인물들과 연합하여 신지에서 “익중년화연구회”를 창건하여 현실생활과 전쟁장면을 위주로 한 그 당시 시대적 정신을 반영한 다양한 전투형 년화를 창조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혁명전쟁과 정치투쟁을 잘 배합한 것으로서 주양으로부터 “미술운동가의 창조”라고 칭찬받았습니다.

이런 진귀한 년화예술 보물은 국내의 문화교류에 이바지했으며 많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역사를 이해하고 현재를 인식하고 애국주의 열정을 불러 일으키며 분발도강하는 정신을 배양하는 살아 있는 교과서로 되었습니다.

건국이래 년화예술가들은 민족문화발양과 두개 문명건설 방면에서 거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동남아 40여개 국가의 전문가들과 국내의 관중을 38여만명을 접대하였는데 60여개의 신문사와 방송국에서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매년 이 곳으로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이 점점 많아 작은 무강현성은 차로 길이 막힐 정도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변화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1994년에는 27개 국가의 36명 대사들이 이 곳을 찾아 참관, 고찰하였으며 1995년에는 초청을 받아 고궁에서 전시되었는데 노 장군인 이덕생선생께서 친히 개막식에 참가하시고 테이프를 끊으셨습니다. 또한 1997년 일본의 민간예술연구회에 전시되었으며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 스페인, 싱가포르, 대만에서 전시되었고 일본이 출판한 《중국박물관》이라는 책에서 중국의 박물관 56곳을 소개했는데 년화편에서는 다만 무강년화박물관만 소개하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진열품을 본 후 감탄을 표하면서 “무강년화박물관참관은 돈황성조의 참관에 못지 않다.”고 하였고 일부 서방학자들은 박물관을

참관한 후 무강년화를 “동방성경도해”에 비유하였습니다. 다섯번이나 박물관을 참관, 고찰한 일본 민간예술인 三山陵여사는 “무강년화는 중국년속, 민속문화의 대표이며 중국전통문화의 보물인 동시에 세계의 보귀한 문화유산이다.” 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박물관에서는 민간수장품을 증시하여 수집 정리하였으며 최근 몇 년 간 그들은 민간과 국내외로부터 천 점 이상의 고반년화를 수집하였습니다. 2003년10월, 그들은 또 현구성촌유적에서 성공적으로 155개의 화반을 구하여 박물관의 수장품을 한층 더 풍부하게 하였습니다. 무강현은 문화부로부터 제1기 “전국문화유적급조시범단위”로 명명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박물관 전시청을 나온 후 년화를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여서 유감스러운 마음이 있으시면 오른쪽으로 돌아 서쪽의 단층집으로 가 보십시오. 그곳은 전통공예복원전시직장과 민간공예품복무부로서 당지 년화예술인들이 전통공예로 년화를 제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친히 제작할 수 있으며 마음에 드는 년화를 선택하여 기념으로 집에 걸어놓고 무강년화예술의 무궁한 매력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编译: 李国福

홍수삼절

여러분은 “홍수삼절”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1990년대 초반에 중국 국가 선전부와 하북성 성당위 선전부에서는 “홍수삼절”이라는 제목으로 “내화코담배통”, “후점붓”, “서씨궁전금어” 등 선전편을 만들어 해외에 방송하였습니다. 따라서 “홍수삼절”은 “내화코담배통”, “후점붓”과 “서씨궁전금어”의 별칭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홍수 중국 내화예술고향전람관과 홍수 후점붓공장, 홍수 래순궁전금어양식장을 참관하면서 왜 “홍수삼절”이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내화예술고향전람관

여러분이 지금 참관하시는 곳이 바로 홍수 중국 내화예술고향전람관입니다.

현재 연세가 되는 분들 외에는 코담배와 코담배 통의 기능에 대해 알고 계실 분들이 아주 적을 것입니다. 코담배란 고급유분을 함유한 향기가 나는 말린 담배 잎을 진귀한 약재와 함께 가루를 내어 밀봉한 용기에 넣어 한동안 두었다가 손가락에 담배가루를 묻혀 코로 흡연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담배 제품인데 정신을 차리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코담배 통은바로 이런 담배를 담아두는 용기입니다. 코담배는 제일 처음 중국의 만족, 몽고족, 티베트족 등 유목민들 속에서 성행하였는데 신분과 재산소유의 정도에 따라 코담배 통의 재질도 은, 동, 사기로 나뉘어집니다. 명나라 후기 코담배가 내지에 들어오면서 코담배 통의 품종도 많아졌고 청나라 건륭황제 시기에는 옥, 비취, 수정, 보석, 마노, 범랑 등 다양한 재질의 꽃조각과 내화로 장식한 코담배 통이 나타났습니다. 내화코담배 통은 조형이 특이하여 사회 각 계층의 담배애호가들의 호감을 얻었습니다. 청나라 가정황제 시기 이후에는 내화예술이 신속히 발전하여 다양한 예술 풍격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내화예술 대표인물들이 나타났는데 청나라 함풍황제시기의 주락원, 청나라 말기 민국초기의 엽중삼, 민국시기의 마소선 등이 대표적 인물들입니다.

내화코담배 통은 마노, 수정, 호박을 주요 재료로 합니다. 예술가들은 통의 모양에 따라 자신의 상상력과 기교를 동원하여 만필이라는 특제한 필로서 새, 물고기, 꽃, 인물초상화 등을 생동하게 그려 넣었을 뿐만 아니라 기세당당한 산수풍경까지 그대로

재현하였습니다. 그 후 권연이 전해 들어와 코담배는 점차 사라졌으나 코담배 통의 예술적 가치는 도리어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원래의 사용가치를 훨씬 능가하여 수장품이나 선물용 진품이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내화계는 경파, 익파, 노파, 월파 등 4개파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 익파의 발전이 제일 신속하고 성과도 뚜렷합니다. 현재 홍수 내화계에는 국가 공예미술가 2명(유네스코상 수상자 공예미술가1명 포함), 성급 공예미술가 12명이 있습니다. 내화 정품의 연간 생산량이 2000여 건에 달하며 내화 정품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스위스, 이라크, 홍콩 등 수십 개 나라와 지역에 팔리고 있는데 국제시장에서 명성이 높습니다. 이밖에도 수십만 개에 달하는 일반 화품이 생산됩니다.

홍수의 내화담배 통은 익파 내화계의 창시자인 전국 공예미술가인 왕시삼에 의해 세상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유명한 공예인인 엽중삼의 셋째 아들 엽소봉과 넷째 아들 엽봉기를 스승으로 모시고 북경 공예미술연구원에서 내화공부를 하였습니다. 원래 머리가 비상한 그는 열심히 공부한 끝에 내화공예기능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어 1958년 북경시의 공예품, 전래품회보전람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덕위원장께서 그의 작품을 본 후 아주 흡족해하면서 그에게 “서두르지 말고 배우고 또 배워 더 큰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 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는 주덕위원장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는 한편 자신의 왕단성이라는 이름을 사조인 엽중삼을 따라 배운다는 뜻으로 왕시삼으로 고쳤습니다. 1977년 홍수에 온 후 그는 내화예술 연구에 몰두하고 선배들의 내화 화풍을 계승하는 한편 자기 유파를 형성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송원시기 작품에 내포된 뜻과 당시 명화가들의 기교 등을 받아들여 마침내 모습이 우아하고 기운이 생동하며 소박하고도 구상이 특이하고, 구조가 엄격한 화풍을 형성하여 국제 코담배 통계에서 “익파” 라는 이름을 수여받았습니다.

“익파” 내화는 산수, 화채, 동물, 풀, 곤충, 인물소상 등을 특징으로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인물소상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들은 작품에서 실물을 생동하게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왕시삼과 그의 제자들의 작품들은 여러 차례 국내외에서 큰 상을 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작품이 “국보” 로 선정되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왕시삼의 작품을 “희한한 보물”, “구하기 힘든 걸작” 이라고도 합니다. 그가 만든 미국 40 명 역대 대통령인물소상계열 코담배 통은 중국공예미술백화상인 “금잔진품상” 을 수여받았고 그가 APEC 상해회의를 위하여 창조한 6개국 지도자인물소상계열 코담배 통은 국가 예물로 선정되어 국제손님들에게 선물되었습니다.

왕시삼은 내화예술을 더 한층 빛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삼화원이라는 내화예술 중등전문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개교 몇년이래 학교에서는 내화예술인재 1200여 명을

양성하여 내화예술 후계인 양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내화예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금 600여 만원을 투자하여 홍수시 중심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내화를 전문으로 하는 전람관인 “중국내화예술고향전람관”을 건설하였고 전람관은 이미 연구, 감상, 평가, 쇼핑이 일체화된 내화예술명소로 되었습니다. 전람관에는 명칭이래의 내화예술진품이 수장되었는데 여러분은 여기에서 내화예술발전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아름답고 교묘한 내화예술정품들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화에 담긴 여러 예술인들의 내면세계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거세찬 시장경제의 격류에 발 맞추어 내화예술인들은 부단히 새로운 창조를 하여 내화예술로 하여금 이미 코담배 통의 단일한 캐릭터를 벗어나 장식영역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목전 익파의 내화예술품은 이미 내화수정구, 내화꽃병, 내화주기, 내화필통, 내화병풍, 내화장식품, 내화진열품 등 눈부시게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내화예술에 애착을 가지거나 내화예술 작품을 소장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홍수에 관광을 오실 때에 가족 사진이나 개인 사진을 잊지 말고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예술가들이 손님들께서 좋아하는 형식으로 내화예술품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홍수후점붓공장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참관하고 있는 곳이 바로 후점붓공장입니다.

한자와 붓은 모두 중화 민족의 발명창조입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어떻게 붓으로 글을 쓰게 되었을까요? 전하는 데 의하면 2000여년전 진나라의 몽념에 의해 붓이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역사 문헌에는 “진나라 몽념이 토끼털을 죽통에 꽂아 필로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후점촌 일대에서는 집집마다 모두 붓의 시조로 불리우는 몽념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붓의 시조를 공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음력 삼월 초사흘이면 이 곳의 예술인들은 설을 쇠는 것처럼 만두를 빚고 폭죽을 터트리고 연회를 마련하고 연극을 공연하는 등의 형식으로 붓의 시조를 기념한다고 합니다. 이런 풍습은 이미 수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붓의 출현은 칼로 글자를 새기던 역사를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의 전파를 촉진하여 한자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주 많은 서법가들을 양성하였는데, 서법가들의 작품은 중화 민족 전통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붓의 출현으로 한자의 글자체는 오랜 변화를 거쳐 전서, 한여, 위비, 해서, 행서, 초서와 송체 등 많은 여러 가지 글자체를 형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글 쓰는 도구인 붓의 종류

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붓의 생산도 상대로 집중되어 일정한 생산기지를 형성하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붓의 생산기지에 대하여 “남양복랑”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남양”이란 절강성 호주 선련을 가리키는데 주로 “양털붓”을 생산하고 “복랑”이란 화북대지의 홍수 후점촌을 가리키는데 주로 “족제비털 붓”을 생산합니다.

후점촌의 붓 제조업은 명나라 영락2년에 시작되어 청나라 때 흥성하였습니다. 《홍수지명지》에는 “청나라 초기 이 지방의 붓이 정교하여 세상에 이름을 날리었다. 강희황제년간 홍수의 현장은 붓을 황실에 공물로 진상하였는데 강희황제는 당장 붓을 휘두르며 글을 쓰면서 붓이 손에 잘 잡히고 무르기와 굳기가 적당하다고 칭찬하였다. 이로 인하여 후점붓은 더욱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라고 써어 있습니다. 광서황제 연간, 서법을 즐기는 한 환관이 이문규라고 하는 붓 제조인이 꾸리는 붓 가게에 자주 다녔다고 합니다. 후에 이문규가 만든 붓은 환관의 추천으로 “궁전어붓”이 되었으며 이문규가 죽은 후 광서황제는 범용비를 세워 그를 기념하였습니다. (높이가 6~7미터나 되는 범용비는 광활한 초원에 세워졌는데 하늘 높이 치솟아 아주 장관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범용비는 1958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 후점촌의 붓 제조업은 더 큰 발전을 가져와 “붓의 성지”, “붓의 고향”이라는 이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건국전 후점촌은 집집이 붓 공장이었었는데 이렇게 만든 붓은 북방의 여러 성에서 잘 팔렸습니다. 또한 북경, 천진의 붓 점과 붓 공장들에서는 모두 후점촌의 공예가들을 청해서 붓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후점촌 공예가들의 영향하에 주변의 마을에서도 붓 공장을 꾸렸는데 건국후에 정부의 지지하에 합병하여 후점붓 공장을 세웠고 1983년에는 홍수붓 공장으로 이름을 고치고 홍수붓 제조업의 선두로 되었습니다.

후점촌 붓 제조의 원자재를 붓대 원자재와 붓털 원자재 두가지로 나눕니다. 붓대 원자재에는 주로 짐승의 뿔과 백골, 상아, 참대, 홍목, 유기유리와 불수강 등이 있고 붓털의 원자재에는 주로 족제비 꼬리, 사향고양이 꼬리, 말 털, 산양 수염, 돼지 털, 소귀 털, 태발 등이 있습니다. 붓은 공예가들의 정성과 수분, 간작, 영활, 각자, 포장 등 300여개의 과정을 거쳐 일정한 규격, 일정한 형상, 일정한 용도의 붓이 됩니다.

후점붓은 정도가 합리적이고 먹의 함유량이 많지만 먹물이 떨어지지 않고 절도가 유창할 뿐만 아니라 품종이 다양하며 형태가 아름다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 지금까지 많은 서법가들의 사랑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후점”(원래는 “고봉”)이라는 자신의 브랜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부단히 발전하는 시장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붓 제조자들은 전통공예를 보존하면서도 부단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사용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장식에도 신경을 써서 포장을 더 정교하게 함으로써 상품의 수장가

치와 선물가치를 높였습니다.

현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그 종류가 처음의 몇 십종밖에 안 되던 것이 지금은 약 270여 종으로 발전하여 붓 하나의 무게가 35킬로그램이 되는 “거봉”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몇 십그램밖에 안 되는 태모 붓도 있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붓의 연간 최고생산량이 350만 자루인데 그 중 120만 자루가 일본, 동남아, 유럽 등 11개나라와 국가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5년부터는 천진항구의 검사면제 제품으로 선정되어 매년 나라에 60여만 달러의 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홍수래순궁전양식장

여러분, 이 곳은 래순궁전금붕어 양식장입니다.

세계 유명한 관상어류 브랜드로 부상한 “궁전” 금붕어는 중국의 국보 중의 하나입니다. “금린선녀”, “수중모란”, “동방성어”라고도 하는 이 금붕어는 색채가 영롱하고 자태가 아름다우며 기질이 우아하여 세상에 널리 이름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미의 화신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금붕어의 조상은 야생 참둥으로서 1700여 년의 번식과 변화를 거쳐 지금은 초유, 문유, 용유, 알유 등의 유형에 162개의 품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남송시기에 사람들은 처음으로 금붕어를 인공적으로 양식하기 시작하여 명나라 정덕년간에는 북경황궁에서도 금붕어를 양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청나라 때에는 황궁에서 금붕어를 양식하는 것이 성행하였다고 합니다. 건륭년간, 건륭황제는 남방을 순찰한 후 북경에 강남원림을 모방하여 원명원을 세울 것을 명하였습니다. 원명원이 준공된 후 건륭황제께서 원명원을 순찰하다가 호수에 십여 마리의 금붕어밖에 없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아 옆에 있던 환관에게 “짐이 남방을 순찰할 때 색채도 좋고 모양도 아름다운 물고기를 보았는데 왜 그것을 여기에 옮기지 않았나?”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환관은 무릎 꿇고 “제남에는 전문 물고기를 양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옵니다. 저희에게도 성이 서씨인 이종 사촌이 있사운데 제남에서 이름난 양식 전문가입니다. 그가 물고기를 잘 양식함으로 사람들은 그에게 ‘금붕어 서씨’라는 별명을 달아주었다고 하옵니다. 만약 폐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곧 불러들이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황제는 환관의 제의를 비준하고자 그 성이 서씨인 사람을 원명원에 불러들여 전문 금붕어를 양식하게 하였는데 이 때부터 북경에는 전문 물고기만 양식하는 전문직업이 새롭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서씨와 그의 후대들은 금붕어를 양식하면서 풍부한 경험을 모색해내었는데 그들이

양식한 금붕어는 유난히 아름답고 빛 났다고 합니다. 건륭황제는 머리에 붉은 관모를 쓴 것처럼 위풍당당하게 생긴 놈, 머리에 공을 인 것처럼 서로 뛰노는 놈, 비단처럼 얇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금붕어들을 본 후 아주 흡족해하면서 친히 서씨일가에게 “금붕어 서씨”라는 아호를 지어 하사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서씨 일가는 당시 북경에 이름있는 금어서가가 되어 오랫동안 그 명성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금붕어서씨”의 제18대 후계자인 서입제는 어릴 때부터 금붕어와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1982년에 그는 초빙되어 래순금어양식장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는 조상의 경험을 계승발전하여 새로운 품종의 개발에 몰두하였습니다. 조상들의 “수컷은 머리가 나오고 암컷은 꼬리가 나온다”는 교잡원리에 근거하여 그는 서로 다른 품종의 우량종을 서로 교잡하여 유전인자가 온정하고 관상가치가 더욱 높은 새로운 품종을 배양하였습니다. 십여년래 그는 60여종에 달하는 금붕어를 양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10여 종에 달하는 새로운 품종을 배육해냈습니다. 그가 배육해낸 “홍두망천”, “호두수포안”, “까치화용안구”, “십이홍용정”, “마노안”, “백옥관”, “학정홍”, “왕자호두”, “주칠수포안”, “글조각사자두”, “적토끼안로두” 등 품종은 1986년10월, 심수해상오락센터에서 거행한 “중국화회전람회”에 전람되어 내외 전문가들에 의하여 “각대가품”으로 칭호받았습니다. 1994년4월 “상해제4회 중국화회박람회 및 제 1차 중국화회교역회”에서 홍수서씨금붕어는 4개의 국가대상을 수여받았으며 같은해 10월에 열린 하북 농업박람회에서 또 8개의 영예를 수여받았습니다.

홍수래순궁전금붕어양식장은 건립 이래 규모를 부단히 확대하여 지금은 온실 하나와 100여평방미터에 달하는 양식수면을 갖고 있으며 연간 금붕어 생산량이 20여만 마리에 달합니다. 1986년 이후 금붕어는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 미국 등 나라와 지역에 팔렸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 국가의 참관단체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선년, 왕인중, 유란토 등의 국가 지도자들도 양식장을 참관하고 높은 평가를 주었습니다.

编译: 李国福

직여총독서

유일한 아문

하북성 보정시에 중국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보존되어 내려온 청나라 성급아문인 직여총독서가 있습니다.

직여총독서는 청나라 옹정7년(1729년)에 건축되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6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비록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원시적이고 소박한 역사 모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총독서는 청나라 직여성의 최고군정장관이 공무를 집행하던 곳입니다. 현존하고 있는 총독서는 옹정 초년 건축시기의 면적과 분포상태가 기본적으로 비슷한데 동, 중, 서 세 갈래로 나뉘며 동서의 너비는 약130미터 남북의 깊이는 약220미터이고 총 면적은 3만여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정문내외

총독서의 가운데에는 흰 색바탕에 검은 글자로, 세로 씌여진 편액이 걸려 있고 위에 “직여총독봉원”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총독은 관직이 정삼품입니다.

대문 밖에는 건축물들이 있으며 즉 동서잡역부, 동서원문, 조벽, 기와중루, 고루가 하나의 봉인한 원락을 형성하였습니다. 지금 보정시 옥화로 중앙에 장엄하게 서 있는 이 두 큰 건축물이 바로 대기인데 이는 고성 보정의 상징입니다. 원내는 나무로 제조한 것인데 높이가 약 20미터였으며 중화민국 초년 조곤이 직예 순열사로 있을 때 나무를 철과 콘크리트 기로 바꾸고 높이를 33.6미터로 더 높이 하여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대로 되었습니다. 1994년10월에 당시 조곤이 세운 모양대로 다시 복원하였습니다.

대문에 들어선 후 북으로 향하면 의문인데 “우의가상”의 뜻으로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보내는 곳입니다. 《명회전·관원예》에서는 “새로운 관원이 임명되는 날

—의문 앞에서 말에서 내린다” 라고 하였습니다. 봉건시대의 높은 관직의 관원들이 서로 만날 때는 복잡한 예의법칙이 있어 보통 총독과 관직이 비슷한 문무관원이 올 때에는 주인과 손님은 의문의 정문으로 들어오며, 같이 정청에 들어갑니다. 관직이 낮은 관원이 총독을 만나려면 의문 양측의 동, 서문으로 드나들며 문관은 동문으로 무관은 서문으로 드나듭니다.

양측의 명나라 기둥에는 청나라 이홍장이 적은 영련이 있습니다.

의문을 들어선 후 여러분께서 보는 높고 수려하며 잎이 무성한 이 측백나무들은 이미 400여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측백나무들은 총독서의 장엄한 기세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많은 부엉이들이 원내의 고목에 나타나는데 많을 때에는 약200마리 정도 됩니다. 신기한 것은 부엉이들은 총독서 원내에서만 내리지 다른 곳에서는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백군웅”의 기관은 많은 국내의 관광객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생물학자들과 언론계들의 흥미도 불러 일으켰다고 합니다.

의문전의 이 계석방을 “공생명” 이라고 하는데 목조에 4기둥 3정의 구조입니다. 패방 남측에 복송 서법가 황정건이 쓴 글 “공생명” 이라는 세 글자는 붉은 바탕에 금으로 새긴 글자입니다. “공생명”은 관계의 잠규로서 공정해야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공생명, 편생암”이라는 말입니다. 북측에 또 황정건의 “이붕이록, 민고민지, 하민이학, 상천난기”란 16글자가 있는데 매번 관리가 관청에 나갈 때마다 이 패방을 보고 계명을 명심하여 자신을 단속한다는 것으로 만약 사리를 도모하고 법을 어기면 하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세워졌습니다.

정청 남측의 건축물은 과방입니다. 동, 서로 9방이 있는데 리, 호, 예, 병, 형, 공 6과 서기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매 과마다 세 칸이 있고 서과방 남측에는 다섯 칸의 승발사 방이 있는데 승발사 방은 외부문서를 받고 문서를 발급하는 사무를 보던 기구입니다.

정청(정관)

정청은 총독서의 주체 건축물입니다. 정청은 청나라 동치황제 말년 이홍장이 총독으로 있을 때를 배경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안에는 병풍 하나가 있고 병풍 가운데에 두루미와 해조, 아침 햇살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정일품의 관직을 표시합니다. 관직이 일품이어야만 이런 도안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병풍 앞에는 약 일자 높이의 장방형 지평이 있으며, 지평 위에는 태사좌와 공안상이 있고 공안상 오른쪽에는 목재 고봉각을 놓

있습니다. 이 위에는 황제의 성지를 황색비단으로 쓴 관문함이 있는데 이는 권력을 상징합니다. 총독의 관문은 은제로 길이가 삼촌이분이고 너비는 이촌입니다.

정청병풍 위에 걸려있고 위에는 “락공수목”이라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뜻은 공손하고 신중하며 직무에 충성한다는 지방 최고장관으로 융정황제 9년 황제가 직여총독 당직옥을 위하여 쓴 글입니다. 황제는 글로써 당직옥의 근면함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로부터 역대 총독은 모두 이 편액을 정청의 중앙에 걸어 놓았습니다. 북쪽 벽측에는 총독의 관직명이 있으며 관직명은 장방형의 목패로 되어 있으며 붉은 바탕에 검은 글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각 총독마다 하나의 패가 있습니다. 총독께서 매년 순회할 때가마 앞에 배열하는 것으로 크게 이름이 났습니다.

주현의 기층정권의 정당은 민, 형사 사건을 심리하는 곳이고 지방 최고정권인 총독서의 정청은 기층 사건을 직접 수리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중대한 경축 활동이나 성지를 받을 때나 제를 지낼 때만이 쓰고 평시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공막입” 합니다. 직여총독서는 중국군대사의 비바람속에서 갖은 고난을 겪었으며 열강들에게 짓밟히기도 하였습니다. 청나라 광서황제 26년(1900년), 팔국연합군이 북경을 침범하였는데 당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연합군은 보정에서 당시 직여총독인 정웅을 사리를 도모하였다는 죄와 단체적으로 정당에서 공개 심리하였으며 또한 목잘라 대중 앞에 공개했습니다. 정웅은 당시 팔국연합군이 중국침략 때 살해한 관직이 제일 높은 청나라 지방관원이었습니다.

차관

정청에서 동서측 문을 향해 북으로 들어가면 차관에 이릅니다. 이는 원나라 “선화당” 으로부터 변천하여 내려온 것입니다. 아직도 목조구조로 송원시기의 고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관은 총독이 외지관리와 사건을 제심하는 곳입니다. 중국변이 동치황제년간 총독으로 있을 때의 일기에는 아문내에는 5일에 한 번씩 공무를 처리하였고 모두 차관에서 처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관에는 “정숙풍청”이라는 편액을 높이 걸었고 좌병 양측에 각각 한 마리의 학을 조각하여 문직 관직을 표시하였습니다. 총독은 군사와 민정을 모두 관리하기 때문에 문무관직을 병용합니다. 좌병 앞 지평에는 공안좌와 태사좌 등을 놓았고 공안좌 위에는 문방사우 등 사건처리 공구를 놓았습니다. 공안좌 양측에 좌석을 세 개씩 배열하였는데 범, 열 두 사와 상관 관원들이 앉게 배열한 것입니다. 차관 동측 방은 의사청으로 총독이 당에 오르기 전 막료들과 대화하고 총독이 옷을 갈아입고 휴식하는 곳입니다. 차관 서측 방은 기사청으

로 아문내의 막료들이나 서기들이 총독이 사건 처리를 위하여 안건을 정리하고 찾는 곳입니다. 또한 보통 총독이 평소 일반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문을 대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삼당

차관을 가로지나 내택문으로 나오면 됩니다. 내택문은 아문 내택의 분계선입니다. 여기에는 삼당과 안채가 있습니다. 삼당은 또 관저라고 하는데 서재와 내서명실이 있습니다. 동측 방은 내서명실인데 총독이 평상시에 문서를 읽고 공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서측방에는 두 칸이 있는데 총독의 서재입니다. 평상시에 총독이 경서를 읽고 글을 쓰며 책을 보고 수신양성하며 자식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총독의 서재는 보통 재명이 있는데 용정 9년 당직옥이 총독으로 있을 때 서재를 “탁수재”라고 하였습니다.

사당

또 안채라고 하는데 총독과 자녀들이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화목이 무성하고 생활미가 아주 농후합니다. 평상시에는 외계인들이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당의 서북구석에 옆문이 하나 있는데 강도를 지나면 뒤 화원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총독과 가족이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면적은 비록 작지만 정과 나무를 모두 갖추었으며 화목이 무성하고 새소리와 꽃향기 더욱이 푸른 참대가 무성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청나라 총독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전문 모종 사무를 관리하는 총독인데 예를 들면 하도총독, 청운총독 등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군정을 통솔하는 총독으로 예를 들면 직여총독입니다. 총독의 직무는 《청조통전》의 기록에 의하면 “군민을 관리하고 문무를 통솔하며 관리를 심사하고 지방을 관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총독은 관할하는 지방의 모든 군민정무를 모두 관리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총독은 아래 여덟 가지 권력이 있습니다. 즉 상소신청권, 성제도 확립권, 문무관원 임명권, 문무관원 감독권, 군대 통솔권, 세계 심사권, 소송심판권, 외교처리권입니다.

직여는 총독 한 명을 두며 다른 보좌관이 없습니다. 전칭은 “총독직여 등 지방 군무, 양식처리, 하도관리겸순무사”입니다.

청나라 합풍황제 후 겸직의 증가로 총독의 관직이름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광서시기 이홍장이 직여에 있을 때의 전칭은 바로 “총독직여등지방, 군무, 양식 처리, 하도관리겸장로염정, 겸임복양삼구통상대신 겸순무사” 라 했습니다

군사작용

직여성의 군사 조직기구는 총독이 통솔하는 것으로 병사들은 모두 한병입니다. 녹색기를 쥐기 때문에 녹색병이라고도 부릅니다. 녹색병의 영제는 명나라의 제도를 쓰는데 성을 나누어 설치하여 경기와 성청(도청)을 호위합니다.

직여총독 관직은 용정2년 설립한 후 청나라 멸망할 때까지 선후로 74명이 99임차로 이 직위에 올랐는데 187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직여총독은 청나라 각 성의 총독에서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데 특별히 청나라 후기 직여총독 이홍장 등이 복양대신을 겸하면서 청나라 내정, 외교, 양무창설과 신정의 보급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직여총독서는 또한 직여 발전의 역사이며 나아가서는 청나라 흥망역사의 증명입니다. “하나의 총독서는 반부의 청나라 역사이다.” 라는 말은 총독서에 대한 제일 좋은 평가입니다.

청황제가 순위한 후 성청이 천진으로 옮겨지면서 1916년 원 직여총독서는 직여독군서로 되었으며 1920년8월에는 직노예순열사서로 되어 직계군벌 조곤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진환전쟁과 제1차 직봉전쟁의 준비도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33년초 보정행영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평, 진, 하북 혁명활동을 진압하는 사령부가 되었습니다. 1935년6월, 성청이 천진으로부터 보정으로 돌아온 후에도 하북성 정부는 이 곳에 남았습니다. 1939년 일본은 하북성 성청을 천진으로부터 이 곳으로 정하게 하였으며, 1945년8월 일본이 투항 후 국민당 제11전구사령부가 이 곳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46년6월 국민당 정부도 이 곳에 있었습니다. 1947년11월 하북성 성청이 북평으로 옮겨진 후 국민당 군보정 경비사령부 등이 모두 총독서에 있었으며 1948년11월 보정이 해방할 때까지였습니다.

대사기

1949년8월, 하북성 인민정부가 여기에 있으면서 1958년 성회가 천진에 옮겨진 후의 기타 중대한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1968년8월, 보정시혁명위원회지회부.

1970년, 보정시혁명위원회.

1979년, 중공보정시위기관기지.

1990년11월, 시위기관이 옮겨진 후 박물관이 되어 정식으로 개방.

1988년1월, 국무원의 비준으로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확정.

1999년, 하북성 성청으로부터 애국주의 교육기지 영예수여.

2003년, 국가관광국으로부터 국가AAA급 관광풍경구 평구.

박물관이 건립되면서부터 국내의 관광객200여만 명을 접대하여 사회요익, 경제요익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당과 국가 영도자인 호금도, 이장춘, 유운산, 이봉, 교석, 위건행, 오방국, 왕병곤, 양성무, 전기침 등이 박물관을 시찰하면서 지도하였으며 높은 평가를 주었습니다. 직여총독서의 명성은 지금 세계 각지에 널리 펼쳐지고 있습니다.

编译: 金顺花

천하제일관

동라성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성문이 바로 동라성 성문입니다. 맹강녀가 진시황의 장성을 울어 넘어뜨린 이야기가 있어서인지 대다수 사람들이 장성을 보면 진시황을 연상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성이 진시황이 구축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장성은 진시황과 아무런 관계없는 명나라 장성입니다. 이는 명나라 개국황제 주원장이 외부침략을 막기 위해 대장군 서달을 파견하여 홍무14년(1381년)부터 건축한 장성입니다.

지금 저의 왼쪽에 있는 성벽은 아주 넓고 오래된 것으로 명나라 성벽 그대로이고 비교적 새로운 것이라면 1984년에 “우리 중화를 사랑하면 장성부터 수리하자”라는 등소평의 구호에 호응하여 다시 건설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동라성인데 “라”는 라렬이라는 뜻이고 “라성”은 성 안에 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웅성

이 성문이 바로 웅성의 성문인데 또 “귀문관”이라고 합니다. 1932년에 일본제국 주위가 부의황제를 내세워 위만주국을 세울 때 입구에 모두 일본군이 지키고 있어 백성들이 마음껏 드나들지 못하였습니다. 일본군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문을 형상적으로 “귀문관”이라 합니다. 이 문을 지나면 웅성에 들어서는데 비록 작은 성이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관성문

이 곳이 바로 천하제일성의 동문으로 높이는 7.5미터이고 너비는 5.8미터입니다. “관동으로 떠돌이한다”는 말은 동에서 서로 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서에서 동으로

가기에 지금 우리가 관 밖에서 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곳은 북으로 연산을 끼고 남으로 발해에 가까워 이 부분의 장성은 산세에 따라 지은 것으로 북이 높고 남이 낮습니다. 이 후에 세운 성루가 모두 수평으로 성벽이 구불구불하여 시각적인 오차가 있어 성루도 비틀어 보입니다.

성루에 놓인 “천하제일관” 편액은 길이가 5.9미터, 너비가 1.55미터입니다. 이 편액의 가장 큰 특징은 뒤면에 편액을 쓴 년, 월과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림여현진”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서예가가 이름을 남겨놓지 않았기에 이 편액에 관하여 여러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명조 성화 8년의 진사인 우리 산해관의 사람 소현이 적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성루에 모두 세 개의 “천하제일관”이라는 편액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소현이 직접 쓴 원래의 편액이 아니라 민국 9년 림우현 부생의 양보청이 모방하여 만든 것입니다. 성루의 2층에 걸어놓은 것은 위왕지가 청조 광서 5년에 새긴 것입니다.

말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이 말도입니다. 이는 고대의 성을 지키는 병사들이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거나 관안을 순찰하러 다니는 길입니다. 앞으로 보면 성루에 하나 하나의 빨간 바탕과 흰 변두리에 까만 고삐가 중심으로 된 창문을 볼수 있는데 이는 “화살창”이라고 합니다. 저 창문들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데 전쟁에서 화살을 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천하제일관 성루의 동남쪽 삼면에 68개 “화살창”이 있어 이를 또 “화살루”라고 합니다.

성루안

우리 앞에 보이는 편액이 바로 소현이 쓴 원래의 편액입니다. 편액 아래 있는 그림이 바로 “산해관 고전복원도”로서 산해관 고성의 원모를 그대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평상시 볼 수 있는 지도와 다릅니다. 일반 지도의 지리좌표는 위가 북이고 아래가 남이고 왼쪽이 서고 오른쪽이 동이지만 이 그림은 위가 동이고 아래가 서쪽이며 왼쪽이 북이고 오른쪽이 남인 것입니다. 동쪽은 아주 넓은 동북평원, 서쪽은 아주 넓은 화북평원, 북쪽은 산들이 겹겹이 이어져 있는 산맥, 남쪽은 넓은 발해입니다. 연산과 발해의 거리가 8킬로미터로 장성이 끝까지 쌓여져 있고 중간에 오직 하나의 천

하제일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관도 있다 하여 산해관이라고 합니다. 연산과 발해가 큰 문처럼 동북, 화북 평원을 갈라 놓았고 천하제일관이 큰 자물쇠처럼 이 문을 잠겨 놓았다 하여 이 곳에 “양경열쇠무쌍지, 만리장성제일관” 이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명조의 여러 장성의 관 중에서 산해관, 거용관, 가옥관이 3대명관으로 불리우고 여러 관중에서 제일 첫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밖에서 천하제일관 성무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가 거육관 가육관처럼 웅위하지 않다고 하지만 천하제일관은 완벽한 군사방위시스템입니다. 이는 4개의 성문과 8개의 성이 있습니다.

4개의 성문은 바로 동서남북 4개 문인데 동문을 “진동문” 이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으로 명조말년에 동쪽에서 오는 위협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동문에 의거하여 강산을 진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수문” 이라 했습니다. 서문은 “영은문” 으로 황제의 상이 북경으로부터 오고 또한 북경이 산해관의 서쪽 방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상들이 “황은이 망극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하여 “영은문” 이라 했습니다. 발해가 산해관의 남쪽에 있어 “왕양문” 이라 하고 북쪽은 “위원문” 입니다. 장성의 북쪽은 옛 전쟁터로서 군사들이 산해관의 명성이 멀리 떨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위원문” 이라 합니다. 또한 8성을 보면 중간에 발 <전>자 모형으로 된 것이 산해관의 중심 산해관관성으로 이는 8성 중에서 제일 큰 성입니다. 산해관 아래 이 작은 성이 바로 용성이고 밖의 비교적 큰 성이 동라성인데 우리가 방금 지나온 곳입니다. 동라성과 호응되는 서쪽의 성이 서라성입니다. 관성의 남북 양쪽에 두 개의 익성이 있는데 각각 남익성 북익성이라 합니다. 남쪽으로 계속 보면 장성 끝에 있는 성이 냉해성입니다. 그 곳이 바로 우리의 노음두풍경구입니다. 동쪽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성이 위원성입니다. 그 곳이 바로 오삼계가 다울군을 무릎 꿇고 영접하고 머리를 짚아 청나라 신하가 되어 청나라 병사를 관내로 들어오게 한 곳입니다.

장성의 제일 중요한 위치에 남으로부터 북으로 각각 정변루, 목영루, 잔동문, 린여각, 위원당 5개의 적루가 있는데 “오호진동” 이라 합니다

그럼 아래 진열된 청용연월도라고 하는 이 큰 칼은 무게가 83킬로그램입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고대에 무관시험을 볼 때 이 칼을 들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그 자격을 가능하였습니다. 오직 이 칼을 들 수 있는 사람만이 다음의 시험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양쪽에 진열된 것은 명청시기의 병기와 만족의 8기 복장입니다. 천천히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대포

진동루의 남북쪽 양편에 각각 하나의 승정16(1643)년에 만들어진 대포가 있습니다. 각각 길이가 2.7미터 무게가 5000근이 됩니다. 이 대포는 그 당시 위력이 아주 강해 사병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 붉은 비단을 달아 주고 신위대장군이라 했습니다.

编译: 金顺花

청동릉

청동릉

청동릉은 준화현에 위치하여 있는 청나라 황제 후궁들의 묘지입니다.

이것은 중국에 현존하는 황가묘지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것으로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청나라는 중국의 제일 마지막 봉건왕조로서 1644년에 세워져서 1911년에 멸망될 때까지 중국을 268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청동릉의 15개의 묘지는 각각 창서산 동서 48킬로미터 범위 내에 있으며 모두 5명의 황제, 15명의 왕후 (청나라를 48년이나 통치한 자희태후도 포함) 136명의 후궁, 3명의 왕자, 2명의 공주 총 161명이 있습니다.

풍수보지

청나라 통치기간에 능구는 남북으로 125킬로미터, 동서로 20킬로미터, 면적이 25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 때 청정부에서 능구에 군사를 주둔시켜 화재와 가뭄을 방지하였다고도 합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순치황제가 이 곳에 사냥을 나왔다가 이 곳의 경치가 아름답고 환경이 우아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물이 있고 뒤엔 산이 있어 풍수가 좋다 하여 이 곳을 자기의 능지로 정하였는데 그 때로부터 이 곳이 청나라의 만년길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문으로 서쪽을 향해 20킬로미터의 “풍수벽”을 만들어 능지를 에워싸게 하여 “전권” 과 “후용” 이 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왕릉구역

왕릉지역에는 수많은 나무가 하늘 높이 치솟아 있습니다. 건축풍격은 붉은 벽에 푸른 기와입니다. 기둥에 새긴 그림 조각 중에서 건륭황제의 원주석 조각이 제일 정묘하고 아름다워 돌조각 중에 제일이라고 합니다. 자희태후의 누각도 봉황이 우에 있

고 용이 아래에 있는 독특한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람객들에게 개방한 구역이 62.7평방미터이고 그 중 8개의 무덤과 4개의 궁전, 3개의 박물관과 절간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여행 프로그램 중에는 건륭황제의 옥릉과 지하궁전, 자희태후의 능묘와 궁전 및 건륭황제 후궁능묘를 관람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능묘군 중의 중심에는 순치황제의 능묘가 창서산 주봉아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일 남쪽에 있는 석문에서 보정까지 길이가 5600미터이고 너비가 12미터되는 신도가 벽돌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갈래의 청색도로가 있는데 왼쪽에 군주가 다니고 오른쪽에 신하들이 다니며 중간에는 신도들이 다녔습니다. 신도에 차례로 대홍문, 갱의문, 정문이 있고 또 18쌍의 형태가 서로 다른 석상들이 있는데 그 중 12쌍은 돌에 조각된 짐승들이고 문관 무관 석상이 각각 6개 있습니다. 이외에 무지개 같은 용봉문, 일공교, 칠공교와 오공교가 있습니다. 이외에 또 하마비, 비정, 동서조방이 있고 서주문, 명루 및 기타 건축들이 있습니다. 교루는 현존하고 있는 궁전 건축 중에서 제일 높은 건축입니다. 매 능묘내에 모두 석비가 있는데 이 위에 만어, 몽골어, 한어 등 세 가지 문자로 황제의 이름, 년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명루뒤에 있는 보정은 아주 큰 밀폐된 묘구입니다.

건륭황제의 능침

건륭황제는 청나라의 제 4대 임금입니다. 25세에 왕위에 올라 60년 집정하였고 아들이 황위를 계승한 후에도 3년간 태상황을 하였습니다. 승하할 때 89세로서 중국 역사상 수명이 제일 긴 황제입니다. 옥릉은 건륭8년에 건축하기 시작하여 57년 지었는데 청조의 제일 번영기를 거쳤기에 옥릉은 아주 호화롭습니다. 옥릉지하궁전은 정묘하기 그지없는 지하불당으로 중국에서 더는 볼 수 없는 “석조예술보물고”라 합니다. 지상의 건축 외에 지하궁전의 석문이나 주변의 석벽에도 불상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중 8대 보살, 4대 천왕, 8보, 티베트문과 법문 정주가 있습니다 이 조각들은 형상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듯 하여 중국에서 제일이라 해도 과찬이 아닙니다.

자희태후 동릉

자희태후 동릉은 건축 디자인과 뛰어난 건축예술이 남다른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자희태후와 자안태후의 두 능을 합쳐 동릉이라하는데 두 능은 1873년부터 건축하기 시작하여 1879년에 완공되어서 여러 왕후들 능 중에서 제일 으뜸입니다. 그러나 자희태

후는 만족하지 않아 동태후 자안태후가 죽은 후에 권력을 독점하여 대전을 뜯고 다시 건축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다시 건축한 3개의 전당은 규모가 엄청나고 그 건축예술 또한 훌륭하여 청나라 여러 조상들의 능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성도 그와 견주지 못할 정도로 훌륭합니다. 기둥이나 창문이나 모두 최고급의 목재로 만들어졌고 안팎 채색화만 하여도 2400마리의 금용이 있고 원주에는 용이 봉황을 둘러싼 그림이 있습니다. 봉황이 위에 있고 용이 아래에 그려진 것으로 매우 보기드문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자희태후의 권력에 대한 욕망과 생활의 사치 정도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编译：金顺花

만성한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여러분이 만성한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즐겁게 유람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곳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서한 중산정왕 유승의 묘는 1968년 5월 해방군 구분대가 만성현의 영산에서 국방공정 건설을 할 때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중국정부에 이 소식을 전하자 주총리가 허락하여 발굴하기 시작하였는데 중국 저명한 역사학자 광말약선생이 고증하였습니다. 이는 한조의 장례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유승 묘 북쪽에 있는 유승의 처 두완의 묘도 발굴되었습니다.

유승은 서한 경제의 8번째 아들로서 석출이기에 기원전 154년에 중산국의 제일대왕으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는 42년간 즉위하였고 기원전 113년에 승하하여 영산에 묻혔습니다. 그의 호가 정이었기에 중산정왕이라고도 합니다. 그 묘는 벼랑전당 형식을 취하였고 규모가 방대하고 체적이 2700립방미터입니다. 서한 시기에 폭약이 없어 이러한 규모의 벼랑묘를 건축하자면 그 당시의 생산력으로는 해마다 만 명 이상의 사람이 30여 년을 노동해야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옛날 사람들의 심혈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1988년에 두 무덤이 중국국가급중점문화보호단위로 결정되었고 유승묘 내의 주요한 문물은 글실옥의, 착금박산로 등이 있습니다.

유승의 묘는 길이가 51.7미터, 너비가 37.5미터, 최고 높이가 6.8미터로서 묘도, 용도, 남북귀실, 중실, 후실 등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북이실

남이실은 묘내의 상징적인 마차창고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묻혀있는 것이 모두 진짜 차, 진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1968년에 출토될 때 동으로 만들어진 차의 부채와 말의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이실 제일 앞의 윗부분이 유승묘가 최초로 발견된 곳입니다. 공교롭게도 폭발된 부분이 바로 남이실 남쪽 윗부분이어서 유승묘가 발견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묘의 안정성도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북이실은 묘내의 양식과 술, 그리고 도자기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에 유성이 술과 고기를 좋아한다고 기록되었는데 아나나 다름까 이 곳에서 16개의 정방형의 큰 독이 발견되었으여 각 독마다 300근 좌우의 술을 담을 수 있어 매우 놀랍습니다. 아쉽게도 발견되었을 때 독 안의 술이 다 증발되어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계단을 따라 내려갑시다. 중간의 이 우물은 묘 안의 물이 스며들 수 있는 우물입니다. 주로 장마철에 산정에서 묘 안에 스며드는 빗물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주위를 살펴보시면 그 당시 만들어진 배수구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2천여 년 전의 사람들이 묘 속의 배수문제를 매우 중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유승 묘 안에서 제일 높은 곳으로 높이가 6.8미터입니다. 이 곳은 유성이 여러 손님들을접대하던 응접실입니다

방 안에는 대부분 식기와 취사도구가 부장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수공이 정교한 동으로 된 정을 보세요. 그 뚜껑에는 네 마리의 작은 야수가 대칭되어 있습니다. 양쪽에는 각각 고리 하나가 야수의 앞부분에 붙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때 뚜껑과 정이 긴밀히 결합되어 음식을 만들 때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는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압력솥과 아주 비슷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많은 도구들은 고인의 경험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2천여 년 전부터 이미 이처럼 선진적인 취사도구를 제조해낸 것을 보아 여러분도 호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간층 참관이 끝났습니다. 저와 함께 계속 뒤쪽에 있는 유승묘의 후실을 참관합시다. 후실은 묘지 주인의 침실이기도 한데 여기에는 관이 놓여 있습니다. 발견됐을 때 관은 이미 부식되었지만 금루옥의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유승의 금루옥의의 길이는 1.88미터이고 옥편을 도합 2498쪽을 사용하였으며 금실은 1100그램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옥편과 옥편 사이의 틈새는 아주 긴밀하였으며 옷 전체의 조예가 아주 깊다고 합니다. 추측에 의하면 서한 시기에 이런 옥의 한전지를 만들려면 옥공 한 명이 십여 년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노력과 기술의 결정체라 아닐 수 없습니다. 《금옥재구규즉사인불후》(구규는[눈·코·귀·입·항문·요도 등 인체에 있는 아홉 개의 구멍])라는 말이 한조 때에 유전되었기에 왕후귀족들은 죽은 뒤에 옥의 로써 장복으로 하여 사신이 부식되지 않기를 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금루옥의에서 유승의 사신은 보지 못하고 그저 낡은 이빨만 볼 수 있었습니다. 보다시피 옥의가 부식을 방지한다는 말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전시되어 있는 갑옷은 서한 시기의 몸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이것은

갑신, 두 소매, 추위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도합2859편의 첩편으로 만들어졌고 그 무게는 16.85킬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옷을 입고 전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이 가지만 그 시대에 그 조건하에서 이런 갑옷을 입는 것만으로 자신이 칼과 검에 상하지 않게 하는 데서 크나큰 영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갑옷의 출토는 우리가 서한 시기의 군사방어 장비에 대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은 저명한 착금박산로인데 옥실이나 위생실 같은 작은 방에서 출토하였습니다. 이는 향로인데 높이는 26미리미터이고 그 모양이 박산과 흡사하여 박산로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향로는 조형이 아름답고 수공이 정밀하며 기복을 이룬 산맥은 향로의 뚜껑입니다. 뚜껑에는 사냥꾼이 사냥하는 것, 벌과 표범이 출몰하는 것, 원숭이가 재롱을 피우는 도안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도안에는 금실이 사용되었는데 어떤 금실은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생동감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향로의 아래쪽은 교통이 해면을 솟아나오는 모양인데 그 의미인 즉 바다 속의 선산을 말합니다. 착금박산로는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감상용으로도 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후실의 주위는 회랑입니다. 이는 습기를 막고 배수하는데 사용되었는데 후실의 건조도를 유지하는 류승묘지 안의 배수시설 중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면 유승묘 참관은 끝납니다. 자, 그럼 유승의 부인 두완의 묘를 구경하겠습니다. 그 당시 장례제도에 의하면 부부가 죽은 후에 묘는 같이 쓰지만, 같은 굴에는 묻지 않는다 하여 합장하지 않았습니다.

유승과 두완의 묘는 120미터 떨어져 있는데 걸어오는 도중에 여러분들은 영산이 높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이 곳은 해발고도가 235.8미터밖에 안되며 세계의 산봉우리가 연결되어 서쪽에 자리잡고 동쪽을 향한 태사의자 같습니다. 묘굴은 주봉에 자리잡고 작은 두 개의 산봉우리가 각각 주봉의 양편에 자리잡고 있어 의자의 손잡이 같습니다. 산앞에는 일망무제한 평원이고 산 뒤엔 태항산맥으로 이곳의 병풍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용맥으로 이후에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동쪽을 보면 만성현성이 보이는데 총 면적이 658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가 37.5만 명입니다. 서한 시기에는 북평현으로 불리다가 후엔 만성으로 불리었습니다 이에 관한 하나의 전설이 있는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 유승이 바깥 순찰 할 때 북평현을 지나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관원들과 함께 북평현 사람들의 민풍과 생활수준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관원들에게 “이 곳에 사람들이 모두 어떤 성씨가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지방관리가 장씨, 왕씨, 이씨, 조씨 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승이 듣고 나서 낮빛이 흐려지더니 “왜 유씨가 없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지방관원들이 다급히 웃으면

서 “있습니다. 바닥에 깔린 것이 유씨성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장, 왕, 이, 조, 깔린 유” 라는 전설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성이 유씨성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을 듣고 또 “복평성에 나와 같이 유씨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그들의 세금을 면제해 주리라” 라고 하자 지방관리들이 사전에 준비가 없었기에 유성의 환심을 사려고 “지금은 온 성안에 사람이 모두 유씨이고 임금님의 충실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승이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 하더니 “좋소. 만성이 모두 유씨성이고 유씨성이 만성이구나!” 하여 복평이 만성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곳이 바로 두완의 묘입니다. 두완과 유승의 묘의 구조는 비슷한데 단지 두완의 관이 놓여있는 방향이 남쪽으로 유승의 묘실을 향하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두완이 유승보다 10년 정도 늦게 사망하였고 묘는 유승의 묘보다 훨씬 큰 것으로 체적이 3000립방미터로서 고대 묘장 중에서도 매우 드문 것입니다.

묘도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 두완묘의 남북귀실에 놓여진 물품의 위치가 유승의 묘와 정반대 된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주로 대청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1968년 창고를 정리할 때 놀랍게도 이 안에 놓여진 술독이 유승보다 하나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승부부가 술 마시는 데서 여자가 남자 못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두완의 금실옥의가 출토될 때 아주 완정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관람하기 편리하게 우리는 그것을 묘실의 중앙에 놓았는데 여러분 마음껏 관람하십시오. 두완의 옥의는 길이가 1.72미터 이고 옥편을 모두 2160편을 사용하였고 금사가 700그램 사용되었습니다. 옥의를 청소할 때 옥의 안에 8개의 이빨과 분골, 갈비의 뼈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유승과 두완 두 사람은 천상지하 영원히 함께 하고 싶었지만 결국에 남은 것은 몇 개의 이빨과 뼈뿐이었습니다. 만성한묘에서 두벌의 보존이 완정한 금루옥의가 출토되었기에 만성은 딸기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또한 금루옥의의 고향이라고도 합니다.

이외에 두완묘에서 또 한가지 아주 귀중한 문물이 출토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장신궁등입니다. 이는 후궁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이 등은 길이가 48센치이고 등으로 만들어진 유금입니다. 궁녀가 꿰어앉아 손으로 등반을 받들고 있습니다. 아래로 처져있는 소매에 “장신궁” 이라는 글자가 새겨있어 장신궁등이라고 합니다. 이 등잔의 예술적 가치와 과학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의 전체 선조가 유창하고 궁녀의 오른팔이 높게 들리고 소매가 아래로 내려오고 왼손에 원형의 밀부분을 받들고 밀부분에 또한 짧은 손잡이가 있는 원형등반입니다. 손잡이를 잡고 등을 들릴 수 있는데 양쪽에 들어간 부분이 없이 원호형의 철판을 꼽아 놓아 등을 사용할 때 철판을 움직여서 조명도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초불의 연기는 설계의 교묘성에 의해 궁녀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일정하게 사용한 후 궁녀의 머리, 몸, 동조, 동반 등 여러 부분을 뜯어서 씻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후 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신궁등은 진귀한 문물로서 여러 번 바다를 건너 외국에서 전시되었는데 미국에서 전시될 때 미국 대통령 닉슨은 중국에서는 2천여 년 전부터 오염문제를 해결하였다고 감탄을 금치못했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보다시피 우리는 중국의 고대 노동인민의 총명과 지혜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장신궁등을 관람한 후에 이 두 개의 묘를 나설 때 이 묘가 비록 산을 깎아 만들어졌지만 묘실의 벽이 아주 매끈한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추호의 파고 깎은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왜 이럴까요? 고고학자들이 그 때 묘실 안에 남겨진 대량의 짚재, 돌조각을 벽에 있는 까만색으로 고정하여 벽을 깎을 때 암석의 성질에 근거하여 더우면 팽창하고 추우면 줄어드는 원리를 응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석벽의 파열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석벽을 캐서 묘를 만드는 진동을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이 두 묘를 파는 방법에서 고대 사람의 심혈과 지혜의 결정체를 다시 한번 체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한묘는 지금까지 발견된 벼랑묘 중에서 산꼭대기와 제일 가깝고 규모가 제일 큼니다. 그리고 출토된 문물이 10633가지 입니다.

만성한묘에 대한 참관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안내를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또 기회가 있으시면 만성한묘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세요!

编译: 金顺花

공산백운동

공산백운동은 백운산 남쪽에 있는 공산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립성과 6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중국 북방에서 가장 큰 카르스트 용동입니다. 대략 5억년 전에 이 곳은 따뜻한 열은 바다였는데 바다 밑에 많은 석회암이 가라앉아 지하수가 석회암을 용식시켜 북방의 보기 드문 용동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는 동체가 깊숙하고 고요할 뿐만 아니라 풍경구가 밀집하고 조형이 기묘하고 정교하여 전문가들로 하여금 “북방의 기관”, “지하카르스트박물관” 이라고 불리웁니다.

공산백운동은 1988년 7월 그 곳 촌민들이 산에서 돌을 캐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관광객들에게 5개의 동굴을 개방하였는데 총 면적이 4000여 평방미터이고 길이가 2000킬로미터로서 주요한 풍경구가 150여 개이고 보기 드문 절경이 6곳 있습니다. 동 내에는 일년 내내 섭씨 17도입니다. 풍경구의 구조 특성에 근거하여 전문가들은 이 다섯 개의 동굴을 각각 “인간”, “천당”, “미궁”, “지부” 와 “용궁” 이란 이름들을 지어주었습니다.

제1동이 “소서호” 로 또 “인간동청” 이라고 불리웁니다. 동 내가 비교적 넓고 밝아 “소서호”, “만가동화” 등과 같은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어 사람들이 그 곳을 “인간동청” 이라 부릅니다. 동청은 남북으로 길이가 70미터, 너비가 35미터, 높이가 1.8미터입니다. 천여 년 동안 이 곳은 지하수면 이하에 있고 이산화탄소 성분이 있는 지하수가 지금 우리 머리 위에 파열된 테로 흐르기 시작하여 이만큼 큰 공간이 용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각이 위로 올라가고 지하수면이 내려오기 시작하여 용청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석순이라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처진 것은 석중유입니다. 위의 종유석과 아래의 석순이 대응되어 자라나서 하나의 연체로 되었는데 이를 석주라고 합니다. 저 석순은 고대의 전쟁 때 쓰는 채찍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위로 보시면 수세미오이살과 같은 침적물이 있는데요, 지질학자들은 이를 “왕장권구석” 이라 부릅니다. 이는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용동에서도 매우 보기 드문 공산 백운동의 첫번째의 절경으로 오늘 우리가 다행히도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하나의 꽃양배추 같은 것은 “석화” 로서 조금 더 큰것은 “석덩어리”

라고 하고 조금 작은 것을 “석진주”, “석포도” 라고 합니다. 이런 석화는 용동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는 벌써 편 지 천년만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일 첫번째 청의 증앙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곳에 청산백운동의 제일 큰 석주가 있습니다 그 높이는 8.5미터이고 둘레길이가 4.3미터입니다. 지질학자들의 고증에 의하면 이런 석주는 500년을 지나도 1밀리미터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서호단교” 아래에 못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 서로 의지한 석순이 어떤 사람들은 허선과 백당자가 만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한 쌍의 석중유와 석순이 이어져서 형성된 석주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한쌍의 석순은 지진으로 인하여 이동되어 정상적인 법칙을 떠나 이루어진 기이한 경관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음차양착” 이라 합니다. 이렇게 기이한 것이 우리를 또 하나의 세계 -제2동청, “천당” 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제2동 “천당” 은 동벽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 많아 비교적 습합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석회화 현상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형상적인 이름을 달아주었는데 주로 “삼차신전”, “천봉원수”, “경천옥주”, “선학욕비” 와 “유장경” 등이 있습니다.

이 곳은 천당대청 안에 있는 하나의 작은 동청으로 여러 개의 뿔진한 석순이 있고 또한 고요하기에 “극락세계” 라고 합니다. 만약 손으로 석순을 약간 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기에 “석금” 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백운동만 가지고 있는 경치로서 매우 보기 드뭅니다.

제3동청은 “천당” 동청의 최고점으로서 여기서 전체 대청 안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저기에 한 갈래 하늘을 나는 폭포가 있는데 높이가 8.5미터이고 너비가 6미터로 전체 용동 내에서 제일 큰 석폭포입니다. “옥잠대경병” 이라고 하는 이 경관은 백운동의 세번째가 되는 절경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물이 맑고 일년 내내 마르지 않으며 물위에 하얀 연꽃이 피어 있어 사람들이 천당의 “연꽃늪” 이라 합니다. 저수지 옆에 또 한무리의 작은 괴수들이 있는데 사자, 바다표범 같은 것들이 헤엄치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두 갈래 길중 하나는 신선들이 걷는 길이고 하나는 인간들의 길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가든지 우리는 모두 “횡천일지” 의 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석중유 위에 가로 자란 나무가지 같은 권곡석은 다른 용동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는 아직 하나의 수수께끼로 되고 있습니다.

천당동청의 제일 낮은 곳은 “미궁동” 으로 저명한 “조천일주향” 입니다. 이는 하나의 선형 “석관” 인데 보기에 아주 가늘지만 속이 빈 것입니다. 원래 이 석관은 꼭

대기에서 내려와서 지면과 이은 것인데 누가 실수로 절반을 끊는 바람에 절반밖에 남지 않아 “조천일주향”이 되었습니다. 미궁의 특징이라면 동 내에 길이 비교적 좁고 습하고 굴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록관”을 지나 “월궁옥주”를 건너 “다색석만”과 “별상도”를 지나면 우리는 미궁의 제일 큰 동청 “진주궁”에 이릅니다. 사면의 벽과 궁 꼭대기 어디나 막론하고 크고 작은 석진주가 있어 눈부십니다. 앞의 “선인경”을 지나면 우리는 매우 크고 만년이나 되는 신기한 거부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거부기는 이미 신선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며 두번째 동 안에 있는 활개를 치는 거부기는 여래불의 강의를 열심히 훑쳐들으면서 수련하고 있습니다.

제4동청 “지부”는 면적이 비교적 작고 동체도 비교적 건조하여 기묘한 돌이 아주 많습니다. 그 색깔이 어둡고 칙칙하여 감각이 아주 공포스럽다 하여 우리는 이곳을 “지부”라고 하였습니다. 저기 아주 이상한 돌은 “염라왕”이 “독안괴수”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상한 돌은 마치 “판관”이 붓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은 편에 있는 석탑은 “삼라탑”이라 부릅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될 수 있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탑 아래 깔려서 영원히 소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작은 석순은 지부에 있는 “귀둥”과도 저기 대머리 독수리 같은 것은 “초혼기”입니다. 지부동청은 음침하고 공포스러워서 오래 있기에 좀 불편합니다.

다섯번째 동은 “용궁”으로 공산백운동의 다섯 개 동중의 제일 새롭고 기이하고 험하고 고요한 동청입니다. 용궁의 길이가 500미터, 아래위 낙차가 50미터로써 동 속의 길이 구불구불하고 변화가 많아 용갈기도 합니다. 동 안에 여러 개의 저수지가 있어 비교적 습합니다. 여기에 이름 지은 경관이 모두 50여 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하나의 “해저선산”인데 바다 선호와 같은 경관입니다. 저기 큰 바다 소라 같은 것은 “소라왕”이고 저기 형태가 아름다운 “큰 금붕어”는 부끄러워 큰 꼬리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전형적인 돌색폭포로 폭포가 아주 깨끗하고 티 하나 없어 불빛이 비추면 높은 정자와 루각 같답니다. 뒤편의 위에 있는 석주는 얼음 혹은 옥 같기도 한데 빛이 나고 투명하기도 하여 용궁의 보배라고도 합니다.

이 경관 조합을 “옥용잠파”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색깔이 다른 석침, 석화가 벽을 따라 자라나서 흰 용이 동안에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 쌍의 거북이가 연애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을 “이귀대문”이라 합니다. 여기 큰 돌 위에 있는 원형의 구멍을 지질학자는 “해안”이라 합니다. 이런 구멍은 암석을 통하였기에 천동이라고도 함

니다. 이 조의 경관은 “해저삼림”이라고 하는데 바다밑 협곡이 험하고 좁아 탐색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용궁 내에 제일 아름다운 예술품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용녀가 수를 놓는 것과 같아 또 “용녀자수”라고 합니다.

여기는 용궁의 제일 큰 동청으로 “군용집회”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늙은 용왕, 토왕, 옥왕, 황왕, 창왕, 변색왕 등 여러 가지 조형이 보입니다.

선산경각

두번째 천국계단에 오르면 우리는 용궁의 절경 선산경각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는 인간, 천당, 지부의 여러 경관의 결정체가 결합된 곳입니다. 여기는 풍경구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석화, 석순, 석관, 석증유, 석회막, 석폭포, 채색석만 등 없는 것이 없어 밀도나 변화면에서 모두 전형성과 대표성을 갖고 있어 전문가들로부터 우리 나라 북방에서 보기 드문 카르스트용동 박물관과 지하미궁으로 불리웁니다.

이 곳 모든 벽에 있는 바늘같은 석화도 다른 용동에서는 보기 힘든 것입니다. 이곳에는 죽림평풍이 있고 저 곳에는 선인장간은 “천년선장”이 있습니다.

编译：金顺花

향하제일성

향하제일성에 관한 역사

제일성은 향하현 평안경제개발구에 위치하여 있고 여행업의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진, 중국의 으뜸가는 대형 현대화 종합 여행 승지로서 국가 AAAA급에 속하는 유람구역입니다. 향하 제일성의 역사는 명조로부터 시작됩니다. 명태조 주원장이 원나라를 멸망시킨 후에 내몽골초원으로 도망간 원나라 병사들이 늘 변경을 침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원장이 넷째 왕자 주제를 연왕으로 봉하고 유백은을 책사로 하여 북방으로 출정시켰다고 합니다. 연왕은 신속하게 원병을 전승한 후에 자신을 왕으로 봉하고 유백은을 시켜 좋은 곳을 찾아 도움으로 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하루 연왕과 부하들이 향하 속양진에 도착하였습니다. 시절이 유월이라 속양 전에 시냇물이 흐르고 강에는 연꽃이 만발하여 경치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 향기 또한 사람을 도취시키게 하여 연왕이 감탄을 아끼지 못하다가 "이 곳이 바로 향하로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유백은은 연왕이 여기에다 도움을 정할 의사가 있다고 보고 속히 여기에 도움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에 목재가 부족하여 큰 도성으로 지을 계획을 고쳐 작은 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도성의 동서남북의 길이를 한 리로 정해서 북경의 면적의 십분의 일로 하였습니다. 성의 네 성문은 북경성과 마찬가지로 직접 드나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회피벽을 만들지 않았고 관원을 맞이하는 정자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향하성을 작은 북경이라고도 합니다. 명조부터 청조까지 향하현은 조정에서 직접 관할하게 하고 어떤 관리가 오더라도 향하현 관리는 영접하러 나서지 않아 향하 직할구라고도 하였습니다. 지금의 제일성은 중신국안그룹이 1992년 10월 18일에 투자개발한 것으로 전체 면적은 3600무로 투자액이 34억원(인민폐)이라 합니다.

이는 역사와 현실이 일체가 되고 고전미와 현대미가 하나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궁궐과 민간의 기술이 일체가 된 전시회관과 음식점 등이 갖추어진 공능이 다양한 중국에서도 으뜸가는 대형 현대화 종합여행장소입니다. 제일성은 명청 시기 북경성의 모식으로 건축한 것으로 성벽과 성루의 높이와 너비의 비례가 1:1로 되었습니다. 모두

가 알다시피 명청 시기 북경성은 세계가 인정하는 역사명성으로 중국 도성의 대표지만 세월의 흐름과 역사의 변천으로 지금은 옛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유감스러운 일로서 중신국안 제일성이 역사의 흔적을 따라 다시 십리 성벽을 이루어 옛 북경성의 기초우에서 원상태대로 건설하였습니다.

현시대 항하제일성의 모습

1998년 4월 28일 제일성의 처음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팔방으로 손님들을 맞이하였는데 성의 앞 광장과 외성 성벽 성루와 외성문앞 상업거리 풍경구, 동부원명원 풍경구, 서부고성풍경구 삼대풍경구를 개방하였습니다.

북쪽은 외성의 7대성루로 각각 용정문, 우안문, 좌안문, 과구문, 광안문, 동변문, 서변문으로 옛 북경성의 내구의외의 구조를 체현하였습니다. 또한 두 채의 각루, 하나의 전루, 10개의 성루가 비례되게 건설되어 하나의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옛 북경성이 다시 체현되고 중신국안이 제일 처음으로 역사를 체현하였습니다. 매일 오전 9시에 제일성에 상대한 개성의식을 하여 황제와 여러 대신들이 여러 유람객을 맞이하는데 이 영접식에 청조 강희, 건륭황제시기 귀빈을 영접하는 전 과정을 체현하였습니다. 유람객들이 황제의 행차를 따라 금수교를 건너 웅위로운 여정문을 건너 제일성에 들어갑니다.

제일성의 외성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전문상업거리 풍경구입니다. 전문 상업거리 풍경구는 옛 북경의 저자문화에 의거하여 그 당시 시대에 알맞는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옛 모습대로 된 상점, 북경 향토맛이 진한 말로 장사하는 상업자들, 천교에서 벌어지는 서커스 공연들을 보면 옛날 생활로 돌아간 듯 합니다.

원명원 경관구

북경 서북쪽에 자리잡은 원명원 유적지는 원래 북경지구에서 경치가 제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원명원을 건축한 황제는 강희황제로 옹정, 건륭, 가정, 도광, 함풍황제를 거쳐 150여년간 수천수만의 기술자들을 사용하고 수만 냥의 은전을 투입하여 웅위한 궁궐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노동인민들의 피나는 노력과 지혜의 결정체로써 외국사람들로부터 “천상지원”, “만원지원” 등으로 불리웠고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원명원으로 가면 하늘나라에 온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그 곳을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명원은 함풍10년(1860년)과 광서26년(1900년)에 영-불연합군, 팔국연합국의 약탈과 파괴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원명원은 국무원에서 유적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원상태로 회복될 수 없어 애국주의 기지로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제일성에서는 원명원의 몇 개 대표적인 풍경구를 다시 건설하였습니다.

이 건축물을 “정대광명”이라 합니다. 이 곳은 정대광명전, 동서편전, 출입현량문, 동이방, 서이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대광명전은 원래 원명원의 대전으로 청나라 황제를 배알하고 큰 의식을 진행하는 중요한 활동장소가 되어 고궁의 태화전과 비슷합니다. 황제의 생일 때마다 이 곳에서 조정관리들의 배알을 받았습니다. 세해에 왕공 대신들을 청하여 연회를 하고 정월 심오 연회도 모두 이 곳에서 열었습니다. 이 곳은 또 전시가 진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1860년 10월, 정대광명전은 영-불연합군의 침략 지휘부로 되었습니다. 연합군이 떠날 때 이 엄연하고 화려한 궁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중신국안 제일성에서 다시 정대광명전을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원래의 웅위하고 화려한 모습을 체현하기 위하여 청기와를 노란색 유리기와를 사용하고 또 금용과 고급적인 화채화를 그려 원래의 광명정대전이 더욱 휘황찬란하게 하였습니다. 손님들이 이 곳에 오면 그 당시와 같이 장엄하고 화려함을 구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황제가 조회하고 혼례하는 것과 궁정음악과 춤을 감상할 수 있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황제의 위엄에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동쪽의 “만방안화” 경관구

이 곳에는 청나라의 순치, 강희, 옹정 등 삼 대 황제부터 건륭까지의 전국통일과 태평성대의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원명원 중의 “만방안화”는 국가의 통일과 천하의 태평을 보여주는 풍경구입니다. 이는 만자형의 대형 전당으로 우리 나라 건축사의 특별한 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석으로 기지를 하고 33칸의 방으로 이루어지고 각 방마다 창문을 크게 하고 물위에 건축되어 있어 겨울엔 햇빛이 충족하고 여름에는 서늘한 바람이 서서히 불어 오기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서늘하였습니다.

“상하천광” 경관구

만방안화와 연결된 건축물이 “상하천광”입니다. 이는 물을 가까이 한 두 층의 루

각과 구불한 다리 위에 놓인 “기상” 과 “음화” 두 정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상하천광” 은 건륭황제가 범중암의 《구양루기》에서 “상하천광, 일필만경” 의 시구를 따서 지은 것입니다. 위에서 경치를 보면 모든 경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금은 여기에 차도연출을 안배해 놓아 손님들로 하여금 한쪽으로 차를 마시고 한쪽으로 연출을 보게 하였습니다.

대수법, 원영경관구

이는 원명원 안에서 중국 전통 특색의 원림 중에서의 서양건축입니다.

“대수법” 은 옛날의 서양루 삼대 분수 중에서 가장 장엄하고 화려한 것입니다. 이는 이탈리아 전교사 랑시닝과 프랑스 전교사 장우인이 설계하고 중국의 공예가들이 14년을 거쳐 건축한 것입니다. 해당식 분수지 가운데에 “십건축록” 이라는 분수가 있고 양옆에 13급 정방형의 분수타워가 동시에 분수할 수 있으며 방배 앞에 놓인 원형 칠급 수반도 층층이 분수할 수 있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옛날 이 곳에 분수를 하면 물소리가 너무 커서 몇 리 밖에서도 들을 수 있고 두 사람이 담화를 나누어도 잘 들리지 않아 손시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중신국안 제일성은 소리, 빛, 전기 등 과학기술로 이를 더 장엄하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뒤에 있는 원영관은 유럽 18세기에 유행한 바로크 풍격의 궁전양식의 건축풍격을 이루었지만 천반 기둥에는 중국의 물고기, 새, 혹은 꽃병 같은 장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와는 중국의 전통적인 유리기와를 사용하여 동서의 완벽한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궁전은 그 때 당시 향비의 궁전이었습니다. 향비는 건륭황제의 많은 정실과 소실 중에서 유일한 신강 여자로서 이슬람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머리에 사막보리꽃 달기를 좋아했고 몸에서는 지극한 사막보리꽃 냄새가 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향비” 라고 불리웠다고 합니다. 그는 건륭 25년에 특사로부터 먼 길을 떠나 북경에 와서 궁에서 28년 생활하였는데 건륭황제의 총애를 받았으며 그 민속풍습도 황제의 존중을 받았다고 합니다. 향비는 궁에서 위급족 옷을 계속 입었는데 건륭 33년 6월에 비로 책봉될 때에야 조복, 조관, 길복 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시대 드라마 속의 향비에 관한 묘사는 모두 후세 사람들이 예술적으로 가공한 것입니다.

“만화진” 경관구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미궁 “만화진” 은 유럽 황실공원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 미궁이라는 것은 푸르고 낮은 나무로 벽을 이루고 사이에 무수한 통로를 만들어 놓아 사람들로 하여금 구불구불하고 서로 얽힌 길에 출구를 찾기 힘들게 하여 얻은 이름입니다. 만화진의 구조 특징은 진이 정방형이고 정자가 원형으로 사람들이 굴곡적인 인생길을 통과해야만 천당의 중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륭시기 추석날 밤에는 정실과 소실들이 노란 비단으로 만든 연꽃 등의 중심에 촛불을 켜고 동서남북 네 개 문으로 미궁에 들어 가서 중심을 향하는데 황제가 진 중심의 팔각정에 올라 아래로 보면서 제일 먼저 중심에 도착한 사람이 황제의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미궁이 제2차 아편전쟁 때 불태워졌습니다. 현시대에 원래의 모양을 모방하여 진의 성벽과 루각을 다시 만들어서 옛날의 원모양을 회복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유럽식의 미궁입니다.

“평호추월” 경관구

평호추월은 원명원에서 함주 서호를 모방하여 만들어진 풍경구입니다.

제일성의 평호추월풍경구는 평호추월, 유수음, 하음정, 심추월교와 복해파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원래 황제의 휴식장소입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고급별장으로 안의 시설이 고급스럽고 우아하며 환경이 아름답고 통로와 수면이 이어져서 원명원의 물에서 떨어진 평호추월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구주청연” 경관구

원명원 경관구의 마지막 건축은 구주청연입니다. 이는 원명원전, 구주청연전, 천지일가춘과 승은당으로 구성되어 원명원에서 규모가 제일 크고 의미가 가장 풍부한 건축군입니다. 이는 천하태평을 상징하고 또한 하늘 아래 모두 왕의 땅이라는 제왕사상과 정치적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천지일가춘은 한동안 자희태후의 침소였고 또 그가 왕비로 되는 기초를 마련해준 곳입니다. 그는 여기서 황제의 총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불 연합군이 원명원을 불태워 버린 후에도 그가 이 곳을 잊지 못하여 원명원을 재건설하려 했는데 경비가 모자라서 그만 두었다고 합니다.

구주청연은 아담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안의 물건도 아주 풍부하였습니다. 영-불 연합군이 원명원을 약탈할 때 그 속의 물건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부 빼앗아가지 못해 한스러울 정도였으며 가져갈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은 봉땅 불태워버려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일청은 구주청연의 원명원전, 구주청연전, 천지일가춘과 승은당을 회복하고 또한 원래의 모습대로 유람객들을 위해 궁정 수락과 청조 무용을 안배해 놓았습니다. 여러 유람객들이 점심에 이 곳의 궁정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전문 상업거리를 지나면 성밖 서부에 있는 고성풍경구를 참관할 수 있습니다. 이 곳을 고성풍경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건축이 고성을 모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을 대표하는 사합원, 왕부, 차예관과 고대 제왕궁전을 모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옛 베이징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대특색의 나이트와 대형 음악 분수도 볼 수 있습니다.

대안사, 군왕부 경관구

대안사는 하나의 웅위한 절간입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는 당태종 이세민이 백성들이 잘 사는 태평성대를 기원하여 만들어진 절간으로서 매우 흥성하고 지금까지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제일성에서 대안사를 다시 건설하여 하남 불교회장 시용수대사가 절간의 사무를 돌보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이 곳에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또한 중국 불교문화예술박물관에서 값진 불교예술품을 관람할 수도 있습니다.

대안사 서쪽의 건물이 군왕부인데 또 풍청수원이라고 합니다. 이 곳은 풍격이 우아하고 환경이 조용하고 아름답습니다. 안에는 레스토랑이 있는가 하면 또 회의실과 16칸의 고급 객실이 있습니다. 이 곳에서 26명의 손님이 투숙하고 식사도 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어가서 물 맑고 꽃향기 그윽한 왕부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영안궁과 대안궁 경관구

여기 구성이 기이한 건축이 영안궁입니다. 또한 공중 사합원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모두 3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층은 엄격하게 말하면 두 뜰을 가진 사합원입니다. 그러므로 공중사합원이라는 말에 부합되었습니다. 각 층마다 풍격이 다양하고 상업, 투숙, 회의 등 많은 부대시설이 갖추어진 구역입니다.

영안궁을 이어 지은 건축이 대안궁입니다. 이 곳의 건축풍격은 송대의 거축화책 《영조화책》에서 나온 것인데 이는 송대의 《수궁》에 기초하여 설계된 것입니다. 삼면에 물에 둘러싸여 있고 물에 연꽃을 심어 온 건축물이 연꽃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궁수전》이라고도 합니다. 대안궁의 건축 구조는 교묘하게도 외형은 고귀하고 우아하면서 내부시설은 현대적이어서 고전미와 현대미가 조화롭게 결부되어 화려하면서도 장엄함

과 우아미를 잃지 않았답니다. 이것은 서구의 대표적인 건축으로 모두 5층으로 되었는데 휴식청, 식당, 다공능청, 객실, 고급객실로 구성되었습니다. 대안궁 앞 광장에는 또 대형 음악분수가 있는데 음악에 따라 각 분수 양식이 변합니다.

친왕부 정관구

이 곳이 친왕부 정관구입니다. 이는 명청 시기 친왕부 저택의 건축풍격에 따라 지었는데 구조가 선명한 것으로 저택과 화원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전체 건축물이 6개의 구조와 18개의 건축물로 이루어져서 또한 18왕부라고도 합니다. 왕부에는 여러 가지 원림예술을 사용하였는데 보시다시피 가산과 구불구불한 통로 정자, 연꽃늪, 또한 선진적인 회의실과 다공능실과 회양 특색의 식당과 주방이 있습니다. 친왕부에는 모두 28개의 객실이 있으며 45명 좌우의 손님을 접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부대 시설이 갖추어져서 조용하고 아담한 휴가장소일 뿐만 아니라 좋은 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화원에서 산책할 때 또는 식사할 때 명청 시기 왕족들의 고귀한 생활 감수를 느껴보거나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화합다방 정관구

친왕부 남쪽에 자리잡은 건축군이 화합다방으로 또 다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전》에서 나온 이름으로서 중-일 화합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홉척사파의 산정유랑과 늪으로 둘러싸여 이루어졌습니다. 다방의 행랑에 대형의 열대어 어항이 있고 어항 안에 기이한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다방 가운데와 밖의 늪에도 여러 가지 물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방의 전체 설계가 조리있고 또한 여러 중식과 일식의 차도연출이 있습니다. 손님들은 여기서 차를 마시면서 낚시의 재미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침 7월에 제일성에 오셨기에 지금 여기 한창 연꽃이 만발하여 마음껏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연꽃늪은 화합다방과 영주사이에 있고 모두 150여종의 연꽃이 있는데 모두 중국의 남방이나 구라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영주 정관구

이 곳을 우선원 또는 지하나이트라고 합니다. 지하에는 200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하 나이트가 있습니다. 지상부분은 용선형으로 된 사층건축으로 일층은 주방과 영접

로비가 되고 이층은 240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회양채식당이 있습니다. 삼, 사층은 십여 개의 고급 객실이 있습니다. 큰 배는 12개의 작은 배들이 배치되었는데 작은 배마다 하나의 식당이나 객실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선도마두구국 통로가 있고 물의 중심에 오각으로 된 무도청이 있으며 배 주변에는 물로 가득차 있어 물 속의 연꽃과 잘 조화되었습니다. 밤이면 모든 불빛이 하나의 절경을 이룹니다.

사합원 경관구

이 부분의 사합원은 명청시기의 표준적인 북경주민들이 사는 집을 모방하여 지은 것으로 규모와 공능도 남북 두 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북에 각각 4개 있고 그 각각마다 12명이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사합원에 식당과 주방 그리고 작은 회의실이 갖추어졌습니다. 사합원은 환경이 우아하고 설비가 모두 갖추어져서 휴식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요즘 북경에서 사합원을 보기 쉽지 않지만 여기서는 원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고 또한 골목마다 옛날처럼 박이 달려 여름이면 산책하면서 밖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내성은 개방하지 않습니다. 제일성의 내성은 9개문(안정문, 덕승문, 서직문, 복성문, 현무문, 정양문, 숭문문, 조양문, 동직문) 해빛장랑, 정안궁호텔, 골프장, 안정문호텔 등 건축들이 있습니다.

해빛장랑은 외성과 내성 경계선에 있는 동직문으로부터 내직문까지의 성벽단에 있는데 총 길이는 1000미터, 북쪽은 유리로 된 벽이고 채광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내부에는 국제회의센터, 헬스센터, 불교예술박물관, 중국옥기수장관과 회수양성센터 등이 있습니다.

정안궁호텔은 오성급호텔로 대만의 상글리라호텔의 풍격을 모방하여 건축한 것으로 모두 12층이며 그 중 일층은 중국불교예술박물관과 중국국무예물박물관 그리고 중국옥기수장관 등이 되었습니다. 11층은 관람대이고 9층과 10층은 고급객방이고 이 밖에 정안궁에는 또 헬스장과 수영장, 식당이 있습니다.

제일성 밖에 있는 큰 풀밭은 환성 18동과 내성 9동 등광운동장으로 구성된 화원식 골프장입니다. 이는 호주의 유명한 디자이너가 설계한 국제적 표준에 도달한 세계적인 골프장입니다. 옛 성벽, 성루 그리고 현대화된 골프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독특한 풍격을 가진 휴식 운동장소입니다.

안정문호텔은 스위트룸, 골프식복식아파트, 안정문, 사천식당, 덕성문회장 및 식당으로 구성된 4성급의 현대식 대형 종합호텔입니다.

编译: 金顺花

금산령장성

불후의 상징

위대한 수령 모주석은 전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장성에 오르지 않으면 대장부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에는 또 다른 유행어가 있는데 바로 “장성을 좋아하지 않으면 대장부가 아니다.” 는 말입니다.

웅위롭고 장엄하며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만리장성은 인류역사의 위대한 기적 중의 하나입니다. 만리장성은 중화 민족의 자랑이며 중국의 상징입니다. 이는 중국 인민의 위대한 정신과 찬란한 문화, 중화문명의 유구한 역사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부터 건설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장성은 중국 2천년이나 넘는 역사적인 시간을 거쳐 부단히 건설되고 재건되어 총 길이가 5000여 킬로미터에 달해, 중국 북부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대한 중국의 상징이며 중국 인민들의 지혜로움과 찬란한 성과의 상징입니다.

장성의 역사

만리장성은 고대 건축 중에서 하나의 위대한 방위공사입니다. 기원전 7세기 즉 춘추전국시기부터 건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동주시기의 통치하에 있던 북부지구의 각 제후국은 성벽을 쌓음으로써 자신의 영토를 방어했으며 나아가서 각 지역에서 대규모적으로 장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선진장성” 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후, 진시황은 진, 연, 조 삼국을 연합하여 담벽을 쌓음으로써 흉노의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나라를 공고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쌓은 담벽은 사람들이 잘 알고있는 장성으로 되었습니다. 한나라 (기원전206년~기원전220년)부터 명나라(1368~1644)까지의 각 조대에서도 계속하여 장성을 다시 쌓고 수리하여 천여 공리나 뻗어서 오늘의 규모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은 서쪽으로 중국의 서부 감숙성의 가욕관으로부터, 동으로 중국 동북 요

녕성의 압록강변에 이르기까지, 총 길이가 6천 7백킬로미터입니다.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용처럼 사막, 초원, 삼천, 하천을 가로 지나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이 경과하는 지방으로는 요녕, 하북, 천진, 북경, 섬서, 내몽골, 녕하, 감국성의 직할시와 자치구 등이 있습니다. 1987년에 만리장성은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되었습니다.

금산령

금산령장성은 만리장성의 정화입니다. 하북성 연평현 경내에 자리잡고 있는데 동으로는 망경루, 서로는 역사상 저명한 관익룡곡구까지 총 길이가 10여킬로미터 달하며 면적이 32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금산령장성은 북경에서 136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승덕에서는 91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연산 제1봉-무령봉과 고북구, 효령사이의 크고 작은 금산 위에 건축되어 있기에 금산령장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1천 년전에 고대의 저명한 지리학자 여도원은 조국의 좋은 강산을 여행다니면서 무령산의 폭포와 맑은샘, 수려한 산령과 여름에 날리는 눈의 아름다운 경치에 깊이 도취되어 령무산의 풍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금산”이라는 이름에는 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장성을 쌓은 사람은 바로 외척을 물리쳤던 영웅 척계광의 강철사병이라고 합니다.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진강의 크고 작은 금산섬의 이름으로 명명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달랬던 것입니다. 1988년, 금산령장성은 제3 중점문화보호단위로 되었습니다. 1991년, 금산령장성은 국가급 풍경구와 1급 여행관광지로 되었습니다. 지금의 금산령장성은 국가적인 중점 역사문화보호구이고 방위능력과 우아한 자연적인 자연경관으로 조합된 것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산령의 역사

자료에 의하면 15세기 중엽, 명나라의 국력은 강성시기로부터 쇠퇴해가는 시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북방의 몽고족, 토만 등 각 부족이 남쪽으로 여러 번 침범해 왔기에 명나라의 통치에 엄중한 위협을 주고 있었습니다. 북방의 방어능력을 가강하기 위하여 저명한 명나라 장령 서달은 1368년부터 1389년 사이에 금산령장성을 건설했습니다. 통정원년(공원 1567년), 명나라의 통치자는 척계광과 담론은 남방에서 북방으로 움직여서 서달이 건축한 장성의 기초상에서 재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척계광은 명을 받들고 조정의 동의를 거쳐 1200여 킬로미터의 장성에 대하여 대규모적인 재건축을 실시했습

니다. 성벽을 더 높이고 넓혀 방어능력을 최대한으로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금산령장성은 만리장성중에 구조가 제일 복잡하고 방어능력이 제일 강한 한 구간의 장성이 되었습니다.

금산령 장성의 구조, 공능과 유적

20여공리의 금산령장성 위에는 100여좌의 적루가 건축되어 있고 크고 작은 관의 5개, 봉화대 2개, 요새지와 관망대, 그리고 양식과 무기를 저장하고 군사정보를 추리하는 독립적인 승루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탑루는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 외관적으로도 같은 모습입니다. 적루와 적루간의 간격이 50미터에서 150미터이고 지형에 맞게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밀집된 정도는 우리 나라 만리장성에서 보기 드문 것입니다. 이는 금산령장성의 하나의 독특한 특징으로 되었습니다. 금산령의 보루가 밀집되어 있기에 군사적인 정보는 고, 라, 군호, 신호기 혹은 봉화대 등의 방식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장성을 쌓을 때는 대부분 그 지방의 재료를 썼고 주로 흙과 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구간의 장성은 돌덩이와 벽돌로서 나쁜 돌과 진흙을 대체했습니다. 장성의 밑부분은 석조로 기초를 대고 위는 청벽돌로 쌓았으며 중간에는 흙, 돌, 모래로 채웠습니다. 성벽은 높이가 약 7.8미터, 밑부분의 넓이가 약 5.6미터, 각종의 불균형한 분포적인 건축은 금산령장성의 형성으로 하여금 완미한 방어체계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적루로 통하는 곳에는 높이가 3미터 되는 여러 개의 장애벽을 세워 적루를 보위하였습니다. 장애벽에는 여러 개의 높이가 다른 3-4개의 구멍을 내고 병사가 서거나 앉거나 엎드린 자세로 적들의 상태를 살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장애벽은 우리 나라 만리장성에서는 아주 드문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금산령장성의 또 하나의 독특한 특점으로서 팔달령장성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휘부의 보루는 보통 깊은 산골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항상 부속 건축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고, 잠자는 곳, 담벽과 보루 등입니다. 관망대는 대부분 요새지에 건축되어 있으며 그 형태가 각이하고 일반적으로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층은 방어에 사용하고 위층은 평대입니다. 벽에는 물을 뿜 수 있는 구멍이 있고 투격에 쓰이는 구멍이 있습니다. 제일 큰 관망대는 양식의 저축과 풀, 무기 등의 저축에 쓰입니다. 게다가 70여명의 병사들의 거주도 가능합니다. 기타 건축물이며 야간 관망대와 창고는 완전한 만리장성에서도 아주 드문 것입니다.

여러 저명한 장성 전문가이며 문물전문가들인 나문철과 주의원을 포함해서 모두

1980년에 금산령장성을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금산령장성은 요새지이며 기세가 웅장하고 조형이 우아하여 우리 나라 만리장성의 정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산령장성은 5개 부분 즉 도춘구, 벽두구, 사령구, 후천구와 고북구 등 중요한 관구로 나뉩니다. 고북구는 일명 “호북구” 라고도 합니다. 서부에서 내륙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동시에 북경과 내몽고초원을 연계하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이 곳은 병사들이 일편단심 생명으로 방어해왔던 요새지이며 병사들이 반드시 차지하고 싶었던 군사요지였습니다. 저명한 아세아 <비인> 하수량은 1992년11월11일에 오토바이를 타고 이 구간의 장성을 지나갔습니다.

금산령장성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하늘 높이 솟아있는 탑루를 볼 수 있는데 금산령동쪽에 웅위하게 서있는 호랑이산 정봉과 연산 산맥의 제1봉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바로 망경루입니다. 망경루는 벽돌로 건축된 2층 적루입니다. 위는 벽돌로 만든 작은 방으로 되었고 아래 층은 석조로 하나의 길을 만들었으며 각각의 석조는 한 톤도 넘습니다. 장성의 문자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망경루의 윗층은 주로 먼 곳에 있는 적들의 상황을 관찰하는 데 있습니다. 일단 적의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불을 피워 신호를 보내서 성을 지키는 병사들로 하여금 전투에 몰두하게 합니다. 아래층은 양식이나 사료, 군사장비, 화약 등을 저장하는 데 쓰입니다. 동시에 병사들의 처소로도 쓰입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망경루에 오르면 저녁무렵에도 북경성의 대체적 윤곽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경루” 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북경 교외의 제일 높은 경관으로 해발고가 986미터나 됩니다. 그러나 망경루에 오르려면 반드시 “하늘을 오르는 계단”, “여원 당나귀의 척추”, “호랑이아가리” 등 험한 구간을 지나야만 합니다. 망경루에 올라 주위를 보면 끝없는 기묘하고 아름다운 경치가 한 눈에 안겨와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하늘을 오르는 계단”은 선녀루와 망경루의 필수적인 곳입니다. 이는 양변에 모두 100미터 깊은 절벽에 서있는 산기슭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계단의 너비는 1미터도 안 되기에 등산을 잘하는 운동선수일지라도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장애벽”은 이 계단에서 멀지 않은 금산령장성 동쪽의 호랑이산 척추 위에 있습니다. 약 50미터 길이로 적군을 방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벽에는 각 종의 구멍이 있어 각 가지 자세로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금산령장성의 수많은 적루 중에서 건축이 제일 아름다운 것은 “선녀루”입니다. 문앞의 석추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신선한 복숭아가 아름다운 꽃송이에 포위되어 조각처럼 정교롭고 세밀하고 우아함을 느끼게 하기에 이것은 적루가 아닌 한 곳의 선경에 이른 듯한 감을 줍니다.

금산령장성에 올랐을 때 저 멀리 보이는 2층 적루는 멀리에서 보면 적루의 정점이 마치 여우의 머리마냥 기우뚱하게 서 있기에 큰 여우 정루와 작은 여우 정루로 불리웁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두 적루는 모두 명나라 때 건축된 것으로서 지금까지 400여년간의 역사를 거쳐서 아주 잘 보존된 적루라고 합니다.

세심한 관광객들은 만리장성에서 많은 문자가 새겨진 벽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쌓은 벽들에는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만리장성에서 극소수의 문자가 새겨진 청벽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금산령장성의 큰 여우 적루 일대는 500미터 길이의 장성에 거의 전부가 문자가 새겨진 청벽이었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이 구간의 장성은 “문자벽”으로 불리웠고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많은 문자와 비문의 기록에서 알다시피 금산령장성은 첩계광이 책임지고 건설한 것이 확실합니다. 동시에 지방관리들의 큰 지지를 받아 각지에서 많은 병사들의 지원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첩계광이 건축한 후에도 명나라에서는 또 병사들을 동원해 금산령장성을 재건축했던 것입니다.

금산령장성 아래에는 하나의 온천 호수가 있으며 온천호수에는 온천과 시원한 샘이 있습니다. 엄동설한에도 호수면에는 의연히 서리가 내려앉고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해서 호수의 바닥까지 뻗히 들여다 보입니다.

금산령장성의 적루는 양식이 다양합니다. 외형에서 볼 때 장방형 루, 납작한 루, 정방형 루, 원형 루, 삼각형 루, 2공루, 3공루 4공루, 5공루, 16공루로 되어 있으며 단층도 있고 2층짜리도 있습니다. 적루 내에서 보면 천정이 평평하고 구부정하며, 배같은 것과 팔각이며 사각으로 된 적루들이 있습니다. 용도에서 보면 전쟁에 쓰이는 루와 창고루, 초소루 등이 있습니다. 적루의 사격 구멍도 2~5개로 크기가 같습니다. 어떤 탑 내에는 우물도 있어 물을 저장할 수 있고, 어떤 탑은 벽들로 쌓아서 나쁜 날씨의 침해를 막기도 합니다.

그 규모도 다릅니다. 큰 곳은 100여 명의 병사들을 용납할 수 있고 작은 곳은 10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금산령장성은 명나라 장성 중에서 구조가 제일 복잡하고 보존이 잘 된 제일 대표적인 구간이며 건축예술은 물론 건축 풍격과 건축 질량에서도 모두 독특한 곳입니다. 이는 명대의 원시적인 풍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시대의 정신적 풍모를 충분히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닉슨대통령은 “하나의 위대한 민족만이 이토록 위대한 장성을 창조해낼 수 있으며 이렇게 위대한 장성을 소유하고 있는 위대한 민족은 반드시 위대한 미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编译: 朴 虹

청서릉

꿈의 영역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청대황실능침건축군인 청서릉은 하북성 역현 영녕산 아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수하는 이곳으로부터 동으로 서서히 흐르며 동북쪽으로 북경과 120킬로미터 상거하고 있습니다. 청서릉은 옹정8년(1730년)부터 태릉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1915년 숭릉의 준공에 이르기까지 185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는 제릉 4개, 후릉3개, 비원침소, 왕실귀족원침소 등 능 건축이 14개 있습니다. 옹정, 가경, 도광, 광서 네 황제는 기타 여러 80여 명의 왕실종친들과 함께 청산록수중에 깊이 묻혀있습니다. 능원의 총 면적이 8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건축면적이 50만평방미터이며 다양각색의 건축물 432개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조각이 정밀하고 기세가 웅위로우며 풍부한 역사, 건축, 생태문화를 가지고 있는 능원입니다.

조대우선권

능묘의 수진은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후세에 대해 은혜를 베풀기를 선조에 바라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역대의 황제들은 능원의 지리적 위치를 선택할 때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청왕조는 소수의 민족을 이끌고 중원에 들어섰습니다. 방대한 중원을 더욱 잘 통치하기 위하여 그들은 전력을 다해 학습하며 한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능침제도와 건축규정상에서도 역대의 전통을 최선을 다해 존중했으며, 뿐만 아니라 한문화 속에 존재하는 풍수학설은 그들의 능침의 위치 선택과 건조에 강렬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청왕조의 효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를 본받아 옹정황제는 일찍 청동릉 구봉 조양산에 능원지를 택하고 선황을 따라 자식을 묻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탐측학자들의 다방면의 고찰을 거쳐 옹정황제는 구봉 조양산을 폐기하고 13번째 동생 윤상과 풍토대사 고기좌를 파견하여 좋은 땅을 찾아내게 하여 드디어 역현

경내의 천평곡에서 아주 좋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북쪽에는 영녕산이 있어 거룡이 증원에 이르렀던 것마냥 하나의 천연적인 병풍이 되어주고 남쪽에는 단정하게 보이는 원보산이 있고 동서 양면에는 구룡산, 구봉산이 좌우로 보위하고 있어서 참으로 적절한 자리였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동, 서 화개산도 안개가 자욱하고 산 봉우리가 우뚝 솟아 북쪽에서 역수하가 능원구를 은은히 흘러 지납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천인합일이라는 이념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천인합일이야말로 역대 황제들이 꿈에서도 얻고 싶어하던 장소였습니다.

자기의 강산을 영원히 공고히 하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웅정황제의 아들 건륭도 아버지를 따라 서릉에 몸을 묻지 않고 청동릉의 승수곡에서 자신을 위한 좋은 보화지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건륭은 후세자손들이 제각기 능원을 선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세자손에게 동, 서 능원에 매장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청동릉의 유훈에서 할아버지인 강희와 지내게 되었고 서자 가경은 서릉에서 조부 웅정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청동릉, 청서릉이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륭황제의 하명을 후세 자손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도광황제는 청동릉의 보화곡산능의 지하 궁전에 물이 스며들었다는 이유로 그 곳을 허물어버리고 서민릉 용천옥에 모릉을 다시 지었습니다.

각별한 격조

동릉과 서릉은 모두 청대의 황실능원이지만 서릉의 건축이 아주 각별합니다.

대릉

태희릉은 웅정의 능묘로서 청서릉의 제1릉입니다. 오공교는 대홍문앞의 첫 다리입니다. 그 기세가 웅장해서 마치 흰색의 큰 용처럼 능 앞에 었드려 있으며 동서 양쪽으로 뻗은 마조구는 마치 옷자락이 바람결에 날리는 것 같습니다.

대홍문은 전체 능구의 총문호로 밖에는 석좌의 위엄이 넘치는 비석방이 있는데 이것은 서릉의 가장 독특한 건축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중부에 위치해 남쪽으로 신도를 걸치고 하나는 동서로 널려서 품자형으로 배열되어 북쪽의 대홍문과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형식으로, 아주 넓은 4면으로 둘러싼 사합원이 되었습니다. 형식이 다양하지만 크기는 모두 같습니다. 높이가 12.75미터, 너비가 31.852미터로 문이 5개, 지축이 6개인 11층 층집의 건축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술성

조각예술 방면에서 명나라 황제들의 능과 청조 초기의 능보다 정교합니다. 기둥 위에는 용, 봉황, 화초, 바다의 야수 등이 조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악을 피한다”는 커다란 글자가 걸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주위의 산천도안과 한 쪽의 아름다운 장수와 길상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기둥의 정면에는 용, 봉황, 사자 등 도안이 그려져 있는데 용은 보석을 움켜쥐고 창공을 날고 있으며 기린은 오동나무 아래에서 머리를 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조각품들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만 같이 생동하여 대홍문 앞의 광장은 한결 더 숭엄하고 영험해 보입니다.

태희릉에서 5리 떨어져 있는 신도가 중축선으로 남북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의 주요한 건축은 구복전, 성덕신공비정, 칠공교, 석상생, 용봉문, 삼노삼공교, 신도비정, 신주교, 동서조방, 반방, 용은문, 동서배전, 룡은전, 삼좌문, 이주문, 석오공, 방성명누 및 보성보정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들의 배치를 보면 중심에 있는가 하면 대칭되는 형식으로 좌우로 나뉘어져 있기도 합니다. 건축물들의 크기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봉건등급제도를 지키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이룩한 느낌을 가져다주는 것이 참으로 조화롭고 통일된 미적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서방의 건축문화의 전통을 비교해 볼 때 각별히 산천의 자연형세의 완미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국 고대 능침건축 예술성과에서 아주 뛰어난 특징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힌저명한 과학자는 “황릉은 중국 건축형식에서 아주 중대한 성과로서 전 반 도안에 담겨진 내용은 건축과 예술성이 하나로 결합된 아주 위대한 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태릉건축의 분포를 보면 교묘하게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주변의 천연적인 지리환경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청서릉관리처는 태희릉에서 성대한 왕실제사를 거행했습니다. 위엄이 넘치는 의장대의 인도와 예림군의 보위하에 관료들과 함께 용포를 입은 건륭황제가 장엄하게 부황, 모후의 신비를 향해 절을 하는 장면은 효의 사상을 적절하게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산을 이끌어 나갈려는 정감의 표현을 투철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릉

창릉은 가경황제의 능묘인데 건축체제는 태희릉과 비슷하지만 독특한 풍격을 가진 건축물들도 있습니다. 능전 안에는 “금”을 깔아야 하나 창릉의 룡은전의 바닥은 독특하게도 하남에서 만들어낸 두반석벽을 깔았고 각 한 덩이의 돌은 모두 정방형이며 번두리가 64

미리더, 초로 닭아 바닥이 황색을 띠고 있으며 천연적인 자색 꽃무늬를 사이에 넣었는데 마치 죽순, 분누에, 부여공마냥 찬란한 햇빛 아래에서 보석을 깬 듯이 반짝이고 아름답습니다.

창서릉

창서릉은 가정황제 황후의 능묘로 효화옹황후가 묻혀 있습니다. 건축상에서 화려하지도 사치스럽지도 않지만 청순하고 우아한 건축풍격이 차고 넘칩니다. 게다가 건축 학자들은 소리학원리도 교묘하게 결합시켰다고 합니다. 보정월대 앞에 있는 신도 위의 7번째 돌덩이는 하나의 회음돌입니다. 위에 서서 말을 하면 말소리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보정을 에두르고 있는 나곽벽은 회음벽 이기에 두 사람이 각기 동서 양쪽에 서서 벽을 향해 작은 소리로 말을 해도 그 말소리는 전화기마냥 상대의 귀에 똑똑히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중국 능원의 건축 중에서 전대미문의 독특한 능원입니다.

모릉

모릉은 도광황제의 능묘로서 효목, 효심, 효전 세 분의 황후가 함께 매장되어 있습니다. 도광황제는 일생에 두 곳에 능원을 건축한 적이 있는데 한번은 도광이 황위에 오른 후에 “초목지제”에 의거하여 청동릉에 7년의 시간을 이용하여 산릉을 완성하였고 그 뒤로는 지하궁전에 물이 침투되어 뜬어 버렸습니다. 도광 1831년에 서릉경 내에서 재차 능을 건설하기 시작해 1835년에 완성하였습니다.

규정상, 황제의 능전은 나무구조에 채색을 가하여야 했지만 모릉은 이러한 형식에서 벗어나 룡은전과 동서배전의 천정, 병풍, 창문 등 곳곳에 1318여 마리의 용을 조각해 넣고 배치했으며 문의가 닫아하고 용이 마치 구름 속을 날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나무재료에 채색을 가하지 않으면 화려함을 저버린 것과 다름이 없으나 그 반면에는 청순하고 우아한 미적경지를 자아내었기에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도광황제가 왜 이런 건축을 했을까요? 원인은 처음으로 건설했던 능침실에 물이 침투된 것은 균용들이 동굴에 들어와 물을 뿜었기 때문이라고 여겼기에 만약 용을 하늘로 모시면 용은 하늘에서 물을 구하지 땅으로 물을 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천여 명의 조각가들로 하여금 형태가 각의한 용의 자태를 조각하게 하여 많은 용이 물장난 하는 장면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모퉁 주위의 담벽도 각의한 특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지도 안 묻고 색깔도 떨어지지 않는 벽의 표면이 아주 매끌매끌한 특징이 있습니다. 룡은전 뒤에는 영리하고 투명한 비석으로 유리문을 대치했는데 이것도 여러 능원 중에서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건축공격과 공예상에서 청조 황제들의 능원은 정말로 우아하고 엄숙하고 소박하고 장엄하여 참으로 보기 드문 예술진품입니다.

승릉

승릉은 중국 봉건왕조의 마지막 능원입니다. 광서황제와 룡여황후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승릉은 1909년-1915년 사이에 건설되어 청조와 민국 이 두 시대를 거쳤습니다. 기본상에서 구식을 따른 외에도 중국 고대건축의 정수를 본 받아 독특한 특징을 형성하였습니다. 전우에 사용한 목재는 대부분이 진귀한 동조와 철조로 견고하기 그지없이 “동으로 지은 지붕, 철로 세운 기둥”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승릉 지하궁전은 유일하게 관광객들에게 개방된 지하궁전입니다. 승릉의 동쪽으로 멀지 않는 곳-승릉비원에는 진비와 짐비 두 왕비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기타 능묘

청서릉의 14개 능침 중에 2개의 왕릉과 공주 등 각기 1개의 능원이 있으며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축 종류는 다른 곳에서 보기 드문 것입니다. 이외에도 청서릉에는 두 곳의 대형으로 된 낮은 건축군은 바로 영복사와 행궁입니다. 량격장행궁은 1748년3월에 건설하기 시작하여 8월에 건설되었으며 건륭황제가 옹정황제의 태희릉에 비추어 건설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방산의 황신장행궁, 축주의 반벽집행궁과 래수의 추란행궁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단지 량격장행궁만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청조의 능원건축 중에서 유일한 진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영복사는 라마묘라고도 부르는데 청조 황실의 전용사묘입니다. 량격장행궁의 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이 사묘는 1787년 봄에 건설하기 시작하여 1788년 가을에 준공되었으며 사내에 있는 19좌의 건축물은 산의 지세에 비추어 건설되어 층차가 분명하고 구조가 엄격합니다. 화려하고 금빛 찬란한 하나하나의 궁전과도 같이 건륭성세의 황실품위를 생동감있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서릉의 고송림은 역대 제왕의 능원 중에서 제일 큰 송나무원림입니다. 화초와 묘목에 대한 정밀한 보호와 마루를 파괴하는 자들에 대한 엄격한 단속으로 보존되어 온

16000그루의 소나무의 웅위한 체격에서 의연히 높이 우뚝 솟은 소나무의 왕성한 생명력을 볼 수 있습니다.

청서릉에는 또 고비지에서 량격장행궁의 자회예릉으로 통하는 전용 철로가 있으며 능원의 풍수를 보호해주기 위해 쌓은 담도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면모로 하여 청서릉은 독특한 풍모를 갖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중국 능원제도하에 남겨진 진귀한 건증실물입니다.

청서릉이 황실의 능원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풍수의 기품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와 숭배가 신비함을 더해주었기에 서릉의 경관이 독특한 풍격과 정서를 자아내게 했던 것입니다. 능원에 들어서면 산천과 경치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처에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은 여러 산들에 둘러싸인 좋은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모두 대자연의 신비로운 조화와 인류의 정교한 솜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천인합일의 세계관과 천년이 지나도 뒤떨어지지 않을 중화문명의 가치과 전통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编译: 朴 虹

섭현와황궁

이 건물은 높이가 9미터, 너비가 12미터 되는 비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문에는 “와황궁”이라는 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와황궁은 전국적인 중점문화보호 단위입니다. 4개의 건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면적이 550무가 되며 대체로 옛건축 135건이 있고 역대 전해져 내려온 조각된 비석이 75개, 불상 50여존, 복제석굴 3개, 복제모아각경 6부 등이 있습니다. 와황궁은 옛 건축, 석굴, 비석, 석조상 등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건축규모가 제일 크고 건축 시기가 가장 이른 건축입니다. 그리고 연구가치가 아주 큰 어황성모의 옛 봉사건축군은 중화의 시조이자 하북성 옛 건축의 10대 기묘한 관광지의 하나이며 “화하조묘”, “국지귀보”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와황궁의 제일 큰 광장에 있는 도교의 표식에서 우리는 이 곳이 도교의 신성한 성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이가 9.9미터되는 화강암으로 되는 여와조각상은 제3광장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지고무상한 권위의 상징입니다. 조각상의 기초좌석의 주위에는 4쪽의 홍사암으로 조각된 부각이 있는데 여와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돌을연마하여 보전하며 악룡을 처단하고 만물을 구해내는 전설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4쪽의 부각상은 여와가 인류를 창조하는 감동적인 화폭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명의 찬송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봉선교”라 불리우는 더히며 돌로 쌓은 이 다리는 청나라 가경13년(1808)에 건조되었습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이것은 여와가 보전한 후에 떨어뜨린 하나의 돌맹이로서 이 돌은 영성이 있어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으므로 나쁜 사람이 밟기만 하면 돌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십팔관은 전체 길이가 918미터로 길이 구불구불해서 마치 한 마리의 교룡이 푸르른 송백나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곳을 지나 정상에 오르면 제일 높은 주체건물은 와황궁입니다.

정상의 건축을 보면 제일 중간에는 주체건물인 와황궁이 있고, 모아각경은 모두 6부, 조각의 면적이 165미터, 1187행, 조각된 경문이 모두 137400자에 달합니다. 이것은 와황 옛적지의 정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 현존된 모아각경 중에서도 시대가

제일 빠르고 글자수가 제일 많습니다. 또 우리 나라 불교의 발전 역사에서 특별히 불교의 초기 고전중에서도 아주 진귀한 자료입니다.

석가모니가 암석굴에서 수행하여 부처가 되었기에 불교의 전인들은 산 속에 석굴을 파고 불상을 모셨기에 석굴이 성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진귀한 것은 석굴의 좌우뒤 3면에 모두 경문이 조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암광동굴 안에는 암광할머니의 조각상이 있는데 바로 불교 중에 나오는 보살 가엽입니다. 암광할머니는 눈을 고쳐주는 신선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눈병이 있는 사람은 암광할머니의 눈을 한번 만지고 다시 자신의 눈을 만지면 눈병이 다 완치된다고 합니다. 실내의 네 벽에는 모두 불경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잠고동굴안에 있는 잠고할머니의 조각상은 천하의 잠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누에가 육층으로부터 누에로 되고 다시 나비로 변하여 알을 낳고 하는 하나의 완벽한 생명의 조작과정은 모두 그가 세밀히 배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루는 명14년(1586)에 건축되었는데 바로 맞은 کن의 종루입니다. 종, 고루는 남북으로 대칭되어 있기에 화를 당하거나 3월에 묘회가 있을 때 문을 활짝 열고 종고를 울리면 산 속에서 은은한 메아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장루라고 하는데 와황성모가 몸단장하는 곳입니다. 1층에 있는 “송자관음”은 채색비단을 쓰고 있으며 영아를 안은 채 용상에 앉아 있습니다. 2층에 있는 와황성모가 분장하고 있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큰 침대가 있으며 침대 위의 선녀는 여와의 좋은 시중군입니다.

공덕사는 1901년에 건축되었는데 조각된 사람은 이관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관은 아주 청렴하고 정직하며 민정을 잘 살피고 엄하게 간사한 상인들을 다스렸으며 석현의 나쁜 상업풍기를 바로 잡은 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함풍2년, 와황궁에 불이 나서 산 위와 산 아래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관은 직접 와황궁의 재건축에 힘을 다했으며 와황궁을 보호하는 10조의 보호정책을 세워서 많은 백성들의 인심을 얻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백성들은 그를 기념하기 위하여 비를 세우고 건사하고 조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황의 옛건축군중에서 와황각은 대표적인 건축으로 음미와 풍채가 넘쳐 흐릅니다. 여기에는 옛 건축의 정수가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1층은 청허각으로 벽에는 불교의 설교 중에 아주 적합한 인과보응의 설법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여와의 애증이 분명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층은 조화각으로 여와의 원형은 우리 나라 모계시족사회의 부족연맹의 수령입니다. 그는 백성을 이끌고 용감하게 홍수, 짐승과 격투하여 인력으로 자연을 지배하였습니다.

이것은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와가 사람을 창조했다기보다 여와가 인류를 구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후세의 사람들이 여와를 영웅으로 신격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층은 보천각으로 여와는 손에 오색석을 들고 어떻게 인류를 도와 어려운 고비를 넘길가를 사색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여와는 전부의 정력을 소모해서 49개의 전야를 거쳐 하늘에 난 구멍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는 여와문화의 핵심적인 함의의 체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와는 중화 민족의 시조로서 과감히 하늘과 싸우고 용감하게 자연을 바꾸며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장악하기에 노력하는 보귀한 정신을 지닌 인물입니다.

매년 음력 3월15일에는 규모가 아주 큰 “와황묘회”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각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성심을 다해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곳에 아주 신비로운 색채를 더해 줍니다. 희망컨대 여러분들도 3월 묘회기간에 꼭 한 번 좁은 와황고적의 장엄한 경관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编译: 朴 虹

향당산석굴

향당산석굴은 우리 나라 석굴예술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과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름있는 석굴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아주 높은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세계에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급문화유산보호단위로 되고 있습니다.

향당산의 주봉 해발고는 891미터입니다. 산의 지세가 가파르고 식물의 종류가 다양하기에 석굴, 절당, 고탑 등 명승고적들이 산 속에 으능히 있습니다. 향당산의 석굴은 남북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5킬로미터 상거하고 있으며 복제 시기에 건설되었습니다.

향당산석굴은 고산의 중턱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동굴이 심하게 깊어서 굴 속에서 웃거나 이야기하면 마치 북이나 팽이를 두드리는 것마냥 소리가 울립니다. 그래서 이 석굴을 “향당산석굴”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존된 석굴은 17개, 모아조각상 450여존, 대소조각상 6000여존, 그리고 아주 많은 경문비각들이 있습니다. 보존되어 있는 이 17개의 석굴 중에서도 복제 시기의 석굴만해도 벌써 11개가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복제 시기에 조각해낸 아주 집중된 석굴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당산석굴은 하북성 경내에서 규모가 제일 방대하고 역사가 오래된 석굴입니다. 중원일대를 거쳐 전국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영향과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조각상의 예술성, 건축장식기술 및 모아각경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불교, 고대 건축, 조각, 미술, 서법을 연구하는데 진귀하고 실질적인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규모가 방대한 석굴군을 눈 앞에 두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석굴이 왜 이 곳에 만들어졌으며 또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고 싶지요?

복제 시기의 왕실들은 불교를 아주 숭상했을 뿐더러 나아가 국교로 정했습니다. 당시 엽성 일대의 절간만 해도 4000여 개에 달했고 스님은 80000여명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복제 시기는 동방의 불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복제 왕조가 건립된 후, 엽성을 상도, 진양을 하도로 정하였기에 엽성과 진양은 복제 왕조의 정치, 군사적 중심지로 되었습니다. 황제는 여름에는 진양에서 거주하고 가을이 되면 엽성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실귀족들은 빈번히 이 두 곳을 드나들었습니다. 고양황제는 또한 이 두 곳을 왕복하면서 여기에서 피서와 오락, 휴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불교를 더한층 선전하기 위하여 관료들을 농락하고 백성들을 설득시켜 두 도성 연도

와 요도에서 경치가 아름답고 석질이 양호한 곳을 찾아 사당을 짓고 행궁을 건설했습니다. 이 “불교문화대”는 우리가 동위, 북제시기의 불교 문화예술을 연구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예술 보물고입니다.

북향당산석굴은 고산중턱에 자리잡고 있는데 면적이 2409평방킬로미터입니다. 관광구는 산 아래, 산 중턱, 산 기슭 등 3부분으로 나뉩니다. 산 아래에는 상락사유적과 송대 백담이 있으며 산 중턱의 빨간 장방형 절벽에는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못 하는 북향당산석굴이 자리자보 있습니다.

면적이 7000평방미터나 되는 상락사는 당조 시기 북방 지구에서 중요한 불교 활동의 중심입니다. 절간 앞에는 “보통담”이 있는데 벽돌로 쌓아 올린 9층 탑이며 높이가 30미터나 됩니다. 송나라 시기는 이것을 “백담”이라 부르기도 했으며 주야로 생기가 차 넘침으로써 백리 밖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산 중턱에 오르면 눈앞에 웅장한 석굴군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북향당산석굴입니다.

북향당산석굴은 동위말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해 북제 시기에 와서야 동굴건설이 완성되었습니다. 현재 크고 작은 석굴 9개, 불상3000여존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9개의 석굴은 남, 중, 북 3지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지구마다 하나의 북제석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석굴마다 독특한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불동은 규모가 가장 크기에 대불동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대불동은 향당산 석굴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장식이 가장 화려하며 조각이 가장 정미로운 석굴입니다. 석굴의 높이가 12.5미터, 너비가 13미터, 깊이가 13.3미터입니다. 석굴의 입구를 마주해서 앉아 있는 불상이 바로 석가모니상입니다. 앉은 상 높이가 3.5미터이고 연꽃 좌석의 높이가 5미터나 됩니다. 석가모니상은 석굴군중에서도 가장 큰 조각상입니다.

향당산석굴 중에 탑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석굴은 참으로 독특했습니다. 석굴의 네 벽에는 16줄의 제사자리가 배열되어 있는데 네모난 이 자리도 최대한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대불동 안에 있는 대불의 전체적인 배치, 장식, 조각은 북제 시기 예술의 전형적 대표이며 조각상의 생동감있는 형상에서 민족예술의 새로운 풍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가동은 석굴 내에 석가모니조각상을 모시고 있기에 석가동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석굴군의 중부에 위치하여 있기에 중당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석굴의 길이는 8.6미터, 너비가 33미터, 중심의 깊이가 4미터입니다. 석굴 밖의 양측에는 금방망이를 손에 들고 우뚝 서있는 천왕상이 있는가 하면 문어귀의 양측에는 크고 높은 보살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향당산석굴은 불상에 대한 조각이 정미로울 뿐만 아니라 성문을 조각하는 방법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남쪽에 자리잡고 있는 각경동은 석굴내의 벽이 전부 복제 시기의 불경이 적혀져 있어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일명 남동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가경동은 내실과 외실로 나뉘는데 내실의 깊이는 7.3미터, 너비가 4.33미터, 높이가 4.25미터 됩니다. 3면의 벽에 모두 하나의 큰 제사 자리가 조각되어 있으며 안쪽에는 7존의 조각상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의 높이가 2미터이고 주위에는 모두 천불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실내에는 온통 빨간색, 노란색, 까만 색을 위주로 했기에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남향당산석굴 관광지는 산과 정자와 옛 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간을 세운 역사가 벌써 1400년이 넘습니다.

절간 밖에 세워진 6각7층 되는 빨간 벽들로 쌓아 올린 탑이 바로 “홍탑”입니다. 마당에는 두 그루의 기이한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루가 바로 “이름이 없는 나무” 라고 합니다.

남향당산석굴 중에서 현재의 7개의 석굴은 모두 복제 시기에 개조, 완성된 것입니다. 석굴군은 위, 아래 두 층으로 나뉘며 규모가 가장 큰 화엄동은 석굴내에 화엄경이 적혀 있어서 얻어진 이름입니다. 깊이가 7.1미터, 너비가 6.4미터, 높이가 4.5미터이며 석굴 내에 있는 조각상만 해도 1228존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예술의 외래적 영향과 중원의 한족 문화를 결합한 독특하고 유명한 향당산석굴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编译: 朴 虹

오교서커스대세계

잡기예술의 요람

오교는 하북동남부의 한 작은 평원현으로 27만의 인구에 600평방킬로미터도 안 되는 면적을 갖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커스의 고향이며 세계적인 서커스 예술의 요람입니다. 오교의 서커스는 역사가 유구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의 기록에서 보면, 오교의 서커스는 5000년전의 용산문화시기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민요에서 나오듯이 “위로는 99세, 아래로는 방금 걸음을 떤 아기에 이르기까지 오교에서는 사람마다 서커스 능수이다.” 는 말입니다. 다양한 서커스는 풍부한 문화와 역사의 깊은 기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교 서커스의 큰 세계는 화북지구의 규모가 가장 큰 관광휴가경관구입니다. 오교현정부와 홍콩 국제여행사에서 함께 자금을 모아서 지은 것입니다. 1억 인민폐를 투자한 이 관광지는 면적이 600헥타르이며 8곳의 관광구를 건설하였고 200여 명의 주식을 제공하는 서커스호텔도 있습니다. 호텔은 1993년11월에 영업을 시작한 후 대량의 중외 여행자들을 접대하였습니다. 8대 관광지에서 가장 저명한 곳은 강호문화성, 서커스기관공과 마술미환궁입니다. 이 관광지 건축의 대외개방은 고전 전통인 서커스문화의 추진과 오교의 경제발전에 적극적인 추진작용을 일으켰으며 세인들에게 서커스고향의 농후한 서커스문화의 풍채를 과시했습니다.

려조묘

려조묘는 중국에서 널리 알려진 팔선 중의 한 사람이자 서커스의 시조인 려동빈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설한 사원입니다. 부지면적이 5500평방미터나 되는 200만원을 투자해서 건설한 이 사원에는 정전과 동서배전이 있습니다. 채전의 조각상은 려동빈과 그의 두 제자 철팔리, 란채합 등 기타 8명의 신선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생동하고 형태가 각이합니다. 정전 주위의 벽에는 팔선의 출세와 신선이 되어 사해를

돌아다니며 사람을 구하고 나라를 구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동서측전에는 조각의 형식으로 당시의 강호예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장면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화폭은 우리에게 려동빈이 제자를 받아들이고 제자를 지내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오교의 예술가들은 려동빈에게 제를 드리는걸까요? 여기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나라 시기, 장원시험을 보려는 두 수제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기효당이고 다른 한 사람은 유주청이었습니다. 관장의 암흑으로 인해 이 두 사람은 낙방되어 자살하려던 참에 려동빈이 구해줬던 것입니다. 려동빈은 그들을 제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일종의 서커스와 마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어느날, 려동빈은 그 두 사람에게 “너희들은 배울 것을 다 배웠으니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구나. 산을 내려가서 서커스를 기업으로 천하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배워 주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거라. 그러나 관리와 지주들과는 사귀지 말아라. 배반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테다.” 라고 했습니다.

두 제자는 신에서 떠난 뒤 스승의 말씀대로 배운 서커스들을 민간의 백성들에게 전수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서커스예술인들은 려동빈을 시조로 공봉했으며 제자를 삼거나 스승을 모시거나 의출하여 연출할 때를 막론하고 성심성의로 려조에게 제를 드려서 평안을 도모했다고 합니다.

강호문화성

오교의 서커스는 몇 천 년의 역사를 거쳐 명청 시대에 이르러서는 오교민간에서 광범한 보급과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문화성을 다니노라면 각양각색의 표현을 볼 수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단독으로 무대에 올라 연기하거나 쥐를 다스리기, 책 속의 이야기를 노래하면서 말하기, 칼 위를 걷기, 칼을 삼키기, 총으로 목구멍을 뚫기 등등이 있습니다. 오교의 예술인들은 청나라의 복장을 입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용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를 예술인들의 집으로 삼고 생계를 개척해 나가는 정경들을 눈 앞에 다시 재현하고 있습니다.

라양편은 또 서양경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나라 북방 기로일대의 옛 문화입니다. 영화와 텔레비전이 발명되기 전에는 이런 형식으로 했으며 연출자의 말과 노래를 통하여 밖의 사회생활을 깨칠 수 있습니다. 이런 서커스는 실전된 헛수가 오래되었는데 서커스의 큰 세계가 건설된 후에 민간에서 다시 살려냈다고 합니다. 흰 쥐를 다스리는 것은 일종의 낡은 민간예술로서 북경 천교팔대괴의 하나로 되었습니다. 이 절목은

집합하여 줄을 서는 것인데 기차 물기와 풍차 밟기입니다. 또 어떤 절목은 고대전설에 근거하여 개편한 것으로 무송이 쇠사슬을 얹기, 백원이 복숭아를 훔치기 등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무대에 올라 연출하는 것을 변단역 혹은 인형극이라고도 합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당조의 민간 초년에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인이 두 손으로 인형을 조종하여 연출하는 것으로 가사를 읽고 말을 하며 반주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사람이 완성합니다. 인형극은 형상이 다변화하는데 하북의 방자, 경극, 평극 등 다종극도 모두 여실히 표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왕보합절목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이름있는 서커스 절목입니다. 서커스 가정에서 태어난 왕보합은 3살 때부터 서커스를 배워 5살에 북경 천교에서 연출하여 조국의 남북에 발자취를 남겼으며 일본, 싱가포르, 조선 등의 나라에도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는 자체로 아주 많은 마술 절목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마술, 곤두박질, 자물쇠 열기, 사람 변하기 등이 유명합니다. 여기에서 관광객들은 또 5분 마술 학교에 가서 마술 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마술사가 직접 연출하면서 배워줍니다.

서커스대공연

서커스 천막은 전에 오교서커스단체가 유동하면서 연출하기 위해 발명한 시설입니다.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 절목으로는 불을 먹고 불을 뿜기, 자전거기술, 쇠사슬 위에서 걷기 기술, 어리광대 등입니다.

중심광장에서는 기공연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오교예인들이 타향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연출해야만 했던 위험한 절목이었습니다. 이 절목으로는 주요하게 칼 위를 오르기, 기공으로 쇠사슬을 끊기, 쇠사슬로 목을 베기, 철구를 삼키기, 칼을 삼키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연출을 통해 우리는 옛날 오교예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려움과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강한 의지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무대위의 연출자들이 모두 전문가들이 아니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만이 갖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료선생의 이호, 한선생과 장선생의 세납은 명사들의 지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연출한 “기공세납”의 절목은 국내에서도 유일한 것입니다. 400여근의 돌을 복부에 올려 놓았으나 두 사람은 의연히 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8살인 꼬마 연출가 료봉은 음이 맞는 경극을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손으로 붓글씨를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탄복하게 하였고 해외 여러 방송국에서도 그를 찾아 녹화를 했다고 합니다. 왕복정, 서풍각과 양서명선생들은 경동대교와 서하대교에서 여

러 차례 상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전문 서커스의 고향입니다. 주인공 풍연화는 “풍차”를 즐겨 연출했고 그의 부인은 “우산 기술”과 평형 기교를 즐겨 연출했으며 그의 아들도 아주 많은 유명한 연출을 했습니다. 더구나 딸 풍진은 “마술조화”를 제일 잘 했습니다. 3조의 조명 등으로 밑을 바친 3각 결상 위에서 책상 아래에 있는 꽃을 입으로 무는 동시에 두 손으로 접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10살 밖에 안되는 어린 꼬마지만 그는 벌써 6년이 넘는 예술경력이 있었고 여러 차례 중앙 및 성급 방송국에서 연출한 적이 있습니다.

“마술”은 당조시기에 기원하여 청조말년에 이르러 유행하였습니다. 연출인은 오랜 시간의 훈련을 거쳐 달리는 말의 등 위에서 거꾸로 서거나 도립하거나 양 옆 등 여러 가지 동작을 할수 있는데 참으로 아찔한 연출 절목입니다. “발로 큰 단지를 돌리기”는 오교의 전통적인 보류 절목입니다. 이것은 세차게 발로 돌리는 기술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연출자는 두 다리로 400여근이 되는 큰 단지를 추겨서 쉽게 돌립니다.

이 농가장원은 서커스 예인 최수혜 일가가 도맡은 공연천지입니다. 그들의 연출은 오교의 전통적인 민간서커스입니다. 도구로는 숫가락, 사발, 젓가락과 호미, 광주리 등이 있습니다. 여기의 절목은 주요하게 평형기교를 위주른 오교서커스의 민간성, 보급성과 균중의 기초를 충분히 재현하였습니다.

스타의 길

강호문화성을 나와서 관광객들이 밟은 이 길은 “스타의 길”입니다. 또는 “보행시공대로”라고도 합니다. 이 길의 복선은 16개의 한백옥으로 된 생명의 도톱기둥이 있는데 형상적으로 서커스 예술의 생명력과 후세 사람들의 선진 철리에 대한 숭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면의 동조각은 서커스세계의 대표적 건축으로 일명 “서커스의 영혼”으로 불리웁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저명한 체육 조각가 담운선생이 설계한 것입니다. 하나의 소 머리와 거꾸로 선 3명의 어린이로 구성되었는데 그 소는 눈이 3개 있어서 어느 방향에서 봐도 완전한 형상입니다. 이는 서커스의 민간 기원의 상징이며 일반인들의 노동생활의 기원입니다. 두 궁의 문앞에는 정밀한 청동벽화가 있습니다. 길이가 56미터, 높이가 6미터인데다가 5000년의 서커스 문명역사가 포괄되어 있습니다. 벽화의 중앙에는 집단 차 기술의 조합형상이 있는데 한 마리의 아름다운 새처럼 깃을 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위의 좌우에는 각각 달과 태양이 있는데 오교는 달과 태양처럼 빛이 난다는 것을 상징하며 27만 오교인민들이 마음을 열어 팔방 손님들을 영접한다는 뜻의 상징입니다.

서커스기관공

여기에 들어서면 “황제와 치우와의 전쟁”이라는 경관이 한 눈에 들어오는데 5000년 전에 기주 일대에서 황제와 치우가 싸우는 정경의 재현입니다. 치우는 남방 구리부족의 두령으로 81명의 형제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화중의 그들은 온몸에 긴 털이 있고 짐승의 몸집에 사람의 언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머리는 동마냥 견고하고 이마는 강철마냥 굳세며 귀는 마치 짐갈고 머리 위에 각이 있어 사람을 찌를 수 있으며 모래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치우는 남방에서 중부지역으로 들어왔는데 염제족을 타락까지 몰아냈습니다. 염제족은 황제족과 연합하여 타락에서 치우와 큰 전쟁을 벌이고, 피를 백 리 넘게까지 흘리면서 끝내 치우를 이겼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전투의 비장한 장면을 모방하여 새로운 예술 형식인 “뿌리 치우기”를 형성하였습니다.

역사적 여행

산 속의 오솔길을 따라 우리는 각가지 짐승들이 난무하는 두번째 경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고대 노동 인민들이 수확을 경축하는 정경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수확을 경축하는 한편, 돌맹이를 들고 절주에 맞추어 춤을 한들한들 추기도 합니다. 훈련을 받은 소나 말이나 양들도 힘있는 절주 속에서 꼬리와 머리를 흔들면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돌을 두드리며 사람과 짐승이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후의 모든 극의 원천으로 되었습니다.

종유암동을 지나 전국시기의 궁전에 이르러 고대의 전설과 생활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전하는데 의하면 기원전 298년, 제나라 맹장군은 진나라에 감금되었는데 진조왕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조왕이 사랑하고 아끼는 왕비가 밍크코트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맹장군은 하인을 시켜 깊은 밤을 빌어 진나라 궁전에서 그 밍크코트를 훔쳐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밍크코트를 다시 왕비에게 선사해서 왕비의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진왕을 권하여 맹장군을 놓아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맹장군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진왕은 후회하여 사람을 보내어 뒤쫓아 갔으나 그가 함곡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그 곳의 규정에 따르면 닭이 울어야 문을 열어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긴급한 시각에 그의 수하 중에 입 채주가 아주 좋은 문객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더러 닭 우는 소리를 모방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닭”이 울자 관병들은 날이 밝았는가 하여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맹장군 일행은 진나라에서 도망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닭이 울자 개가 훔친다”는 이야기로서 후에 구기예술의 원천으로 되었습니다.

산골을 나오면 진나라의 위엄스런 황실궁전이 보이는데 대전의 중앙에는 진2세 호해가 앉아 있고 양측에는 궁녀며 왕비들과 문무백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노래, 춤과 서커스가 융합된 절목을 구경하고 있는데 바로 “백역”입니다.

양측에서 연출하고 있는 ‘뿌리 치우기’는 궁전 유희 중의 한 가지로 되었습니다. 첫 정경은 위진시기, 낙양경명사에서 옥불활동의 화면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4월 초 여드레는 불교의 시조 석가모니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매년 이 날에 불당에서는 모두 아주 성대한 경축활동을 거행하여 이 선조를 기념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축 활동에는 석가모니의 성상을 드는 활동이 포괄되었는가 하면 걸어가는 유행 대오중에서 서커스 활동이 진행됩니다.

추호

불교의 사당을 나와서 우리는 추호변에 이르렀습니다. 떠들석한 옥불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들려오고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의 소리도 귓전에 울립니다. 이것은 “물레방아역”입니다. 평온한 호수 위의 한 가운데에 정교로운 무대를 세워 물레방아 소리에 맞추어 수많은 나무 인형들이 춤을 추면서 저들의 장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조시기 마균이라고 하는 장수가 발명한 것으로 이 시기 우리 나라 서커스 예술이 또 하나의 새로운 단계에 올랐음을 전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왕과 예술가

당나라는 우리 나라 봉건사회의 전성시기입니다. 정치, 경제적 발전으로 문화예술 상에 전대미문의 번영 국면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서커스는 다른 영역과의 교류와의 융합을 거쳐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었고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당조시기의 서커스 예술은 기술이 높고 통덕이 어려웠으며 절목이 다채롭고 종류가 다양한데다가 형식도 새로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서커스는 기술이 높은 핵심적인 대형 종합예술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제가 연회를 차릴 때면 꼭 서커스가 있었습니다. 백여 종의 서커스가 연회에서 연출되며 감상하는 관중들도 수 천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장엄하고 규모가 큰 서커스는 “말을 다스리기”입니다. 당현종이

말을 감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00여마리의 형태가 크고 날쌔준마들이 음악의 리듬을 타고 즐겁게 춤을 추며 일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서커스 기술변화

여기에 전시되고 있는 장면은 송나라 시대의 것입니다. 송나라 시기에 이르러 대규모적인 서커스연출이 줄어들면서 대부분 서커스 예술인들은 민간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기와집”, “임시적인 집” 등 오락장소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락장소에서 기술상의 경쟁은 서커스 기술이 더 높은 단계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송나라 시기에는 예인들이 너무 많아서 “임시적인 집”에는 기술이 좋고 기이한 능력을 가진 예인들만이 남을 수 있었기에 수많은 예인들은 그냥 마을의 한 구석이나 길가에서 연출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간단한 연출 형식은 서커스 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켰습니다.

멋진 장면은 바로 남원묘회입니다. 명, 청 두 시기에 궁정에는 대규모적인 서커스 조직이 없었기에 대부분 예인들은 도처에 유랑하면서 연출을 했던 것입니다. 명나라 시기의 작고 영활한 절목들은 대부분이 근대의 서커스 연출의 주류로 되었습니다. 청나라 시기에 묘회의 연출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전문적인 예인들 이외에 서커스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으며 일부 팔기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형지>의 기록에 의하면 현성 남쪽에는 나무들이 우거진 남원이 있고 제풍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곳은 역대 민간에서 서커스 연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교의 민간 서커스 기술의 높은 기술과 능한 연출 및 서커스의 번영한 경관을 이 곳에서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묘회는 음력 8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 진행됩니다. 묘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임시적인 무대를 만들어 연출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스승을 뵈고 친구를 사귀기도 합니다. 묘회가 끝나면 예인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연출을 합니다. 이 곳은 종합성적으로 참여하는 연출장소입니다. 관광객들은 이 곳에서 종합성무대의 서커스 연출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커스 예인의 도움 하에 현장의 간단한 서커스 도구로 그 낙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마술미환궁

마술미환궁의 건축면적은 4432평방미터입니다. 62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한 이 궁전은 선진적인 소리, 빛, 전기기술을 응용하여 역사적인 신화와 민간의 전기를 사람

이 직접 연출하는 수법으로 관광객들에게 전시됩니다.

제1정경: 려조가 봄을 제축하는 정경입니다. 려동빈은 서커스의 시조입니다. 그는神通하고 능력이 광대하여 바람과 비를 다스릴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계절의 변화도 다스린다고 합니다. 려동빈이 옷자락을 한 번 휘들으면 산천이 흐르고 꽃이 만발하며 공작새가 날개를 펼침으로 관광객들의 방문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북경 이화원의 무대를 세운 곳에서는 용차위에 자희태후가 앉아 있고 그 옆에는 채감 이런영이 서 있습니다. 이런영은 아침을 잘 합니다. 자희태후에게 잘 보이기 위해 생신을 축하드리는 의미로 오교예인들을 불러 마술절목을 연출하게 했습니다. “채색 공을 공교롭게 변화시키기” 이 절목을 보면 연출자의 손에 있던 아름다운 채색 공들이 깜짝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은은한 불빛 아래에서 관광객들이 감상하게 되는 것은 “공중에서 나는 사람” 이라는 절목입니다. 연출자가 우선 계단으로 공중에 오른 다음 계단을 거두어들이는테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은 연출자가 아무런 지탱할데도 없이 공중에 동동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연출자의 발 아래와 등 뒤에 보호물이나 지점이 있다고 의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술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놓칠 수 없는 것은 화려한 동해용궁입니다. 대전에 앉아 있는 동해의 용왕 옆에는 새우 병사와 게 장군들이 있습니다. 동해의 용왕도 오교 마술의 유혹을 못이겨 마술사들을 불러서 연출을 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흰뱀 동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민간의 전통 이야기인 이런 정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서생 허선은 경서를 열심히 공부하는 마음이 착한 사람입니다. 어느날, 그는 곧 죽어가고 있는 흰 뱀 한 마리를 살려 주었습니다. 몇 해가 지난 후, 흰 뱀은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갚기 위하여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하여 민간에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여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정경은 “당명황이 월궁을 구경하기” 입니다. 여기에서는 종합적인 마술절목이 전시되는데 8월15일 추석에 당명황은 귀비와 같이 술을 마시며 달을 구경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가마를 열었으나 귀비가 없었습니다. 궁녀들은 하나도 놀란 기색이 없이 천천히 가마를 두 번 돌리고 다시 가마를 열었더니 기적처럼 귀비가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마술 절목 중의 하나인 “빈 가마에서 귀비 변화기” 입니다. 이어 귀비는 황제를 위해 붉은 비단 춤을 올리게 됩니다. 다음은 당명황이 귀비와 술을 같이 마시려고 궁녀들로 하여금 귀비에게 술을 붓게 했지만 이상하게도 술이 부어지지가 않았습니. 귀비가 술주전자를 받아 안을 보았더니 술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때, 당명황이 살짝 주전자를 잡았다가 놓았는데 궁녀가 다시 술을 부으니 술은 잔을 채웠습니다. 이 마술은 “빈 주전자에서 술을 얻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들은 “귀신의 문”을 용감하게 체험해 보아도 좋습니다. 수천 개의 예리한 칼날이 나란히 세워져 있는데 이는 사람의 담력과 지혜를 훈련하는 곳입니다.

编译: 朴 虹

引言

京畿重地——河北

河北省地处华北，北依燕山，南望黄河，西靠太行，东临渤海，总面积 18.8 万平方公里，人口 6744 万，省会石家庄市。

悠久的历史，灿烂的文化，壮丽的河山，使河北成为全国重要的旅游资源大省。目前，河北拥有世界文化遗产 3 处，占全国的 1/9；国家级文物保护单位 88 处，居全国第三；省级以上文物保护单位 680 处，居全国第一；此外，还有国家级历史文化名城 5 座，中国优秀旅游城市 6 座，全国十大风景名胜区 2 处，国家级风景名胜区 7 处，国家级森林公园 11 处，国家级自然保护区 7 处，国家 4A 旅游景区数量逐年增加。2007 年，秦皇岛市山海关景区、保定市安新白洋淀景区、承德避暑山庄及周围寺庙景区，又由全国旅游景区质量等级评定委员会评定为国家 5A 级风景区。

河北也是全国唯一兼有海滨、平原、湖泊、丘陵、山地、高原的省份，属温带大陆性季风气候。种类齐全的地形地貌，随季节变化的气候条件造就了河北千姿百态、独特秀美的自然风光。天高云阔、风吹草低见牛羊的坝上草原，峰谷参差、巍峨壮美的太行风光、燕山峻岭，白雪皑皑、银装素裹的山地林海雪原，一望无垠、辽阔无边的平畴沃野，沙软潮平、海天相映的渤海海滨，沟壑纵横、蒲绿荷红的淀塘湖泊，都已成为游客回归自然、休闲度假的好去处。

河北是中华民族的重要发祥地之一。早在 5000 年前，中华民族三大始祖黄帝、炎帝和蚩尤“战于涿鹿之野，邑于涿鹿之阿”，开创了中华文明史。春秋战国时期，河北地属燕国和赵国，荣辱兴衰数百年，演绎了无数慷慨悲歌的故事，史有“燕赵”之称。千古一帝秦始皇生于邯郸，故于邢台，曾多次到沧州和秦皇岛沿海寻找长生不老之药，大半生在河北度过。魏晋南北朝时期，河北是各诸侯国逐鹿中原的主要战场。“刘、关、张”结义于涿州桃园，三分天下，成就霸业；曹操雄踞邺城，贤才备至，诗人兴会，以建安文学尽播邺下风流。北齐尚佛，高洋皇帝在响堂山凿窟建寺，成就规模宏大的石窟艺术。唐、宋两朝，河北禅学驰名天下，玄奘曾在柏林寺、谛音寺修行多年，后西天取经。元、明、清三朝定都北京，河北成为拱卫京师的畿辅之地。

“自古燕赵多名士”，同时也多慷慨悲歌之士。首创望、闻、问、切四大诊法的战国名医扁鹊；主张“人定胜天”的荀子；“风萧萧兮易水寒，壮士一去兮不复还”的燕国刺客荆轲；提出“罢黜百家，独尊儒术”的西汉哲学家董仲舒；对圆周率计算做出卓越贡献的南朝数学家祖冲之；闻鸡起舞，率军北伐收复中原的祖逖；唐朝著名的苦吟诗人贾岛；元代伟大的天文学家郭守敬；大戏曲家关汉卿；清朝不朽名

著《红楼梦》的作者曹雪芹；现代史上从容赴死的革命先驱李大钊；舍生取义的狼牙山五壮士；为国捐躯的英雄董存瑞……一代又一代的燕赵儿女、英雄才俊在广袤的河北沃野谱写了一曲曲英雄的颂歌，写就了一篇篇感动世界的史诗华章。

悠久的历史也孕育了河北绚丽多彩的民俗文化和民间艺术。定窑、邢窑、磁州窑和唐山陶瓷是中国历史上北方陶瓷艺术的典型代表；蔚县剪纸、武强年画、廊坊景泰蓝、曲阳石雕、衡水内画鼻烟壶、易水古砚名扬中外；河北梆子、保定老调、唐山皮影、井陘拉花风韵独特；沧州武术、吴桥杂技、永年太极、保定健康长寿之道魅力远播；所有这些都成为河北不可或缺的重要旅游资源。

围绕进一步加快旅游业的发展，河北省面向国际国内两个市场深入挖掘旅游资源，推出了八条独具特色的旅游路线。

第一条：冀东海滨度假旅游线。从北京沿京沈高速公路东行，途经遵化市、玉田县、唐山市、卢龙县、抚宁县，到达秦皇岛，行程 280 公里。

遵化市清东陵是清王朝的两大陵寝群之一，建筑精美，规模庞大，气势恢弘，共葬有 5 帝 15 后 136 嫔妃，康熙、乾隆和慈禧等清朝有名的帝、后均安葬在这里。

唐山，在震后的废墟上建起的一座新城，至今仍保留有多处 1976 年大地震遗址供游人参观和纪念。唐山还是著名的“北方瓷都”，一年一度的陶瓷博览会吸引了众多海内外游客。

秦皇岛，是中外闻名的海滨旅游城市，有“夏都”之誉。这里有万里长城入海处山海关老龙头，有著名的旅游避暑胜地北戴河、南戴河、昌黎黄金海岸。

第二条：承德皇家风情旅游线。从北京出发，沿京承旅游公路向东北行，途经怀柔、密云和滦平县，到达历史文化名城承德，全程 230 公里。这条线曾经是清朝皇帝塞外巡游的路线，主要景观有承德的避暑山庄和外八庙及北部围场县森林草原。

承德避暑山庄是现存世界上最大的古典皇家园林，它博采众家之长，兼具南秀北雄之美，素有“集天下景物于一园”的美誉。山庄周围的外八庙是全国最大的皇家寺庙建筑群，整个建筑群金碧辉煌，雄伟壮观，以众星捧月之势拱卫着避暑山庄，融合蒙、藏、维、汉、满等不同民族的建筑风格，荟萃了中国古代建筑艺术之精华，堪称各民族文化艺术的结晶，是中华民族团结统一的历史见证。

围场森林草原是清朝皇帝演兵和狩猎的场所，几百年的政治、军事活动，留下了众多的文物古迹。风景独特的山川，辽阔壮观的森林草原，丰富的野生动植物资源，是人们寻求自然、返璞归真、休闲度假的好地方。

第三条：京北草原风光旅游线。从北京出发，沿高等级公路北行，途经怀柔区，到达丰宁县，全程 190 公里。

丰宁京北第一草原，是距北京最近的天然大草原。这里，蓝天、白云、绿地、清水，草原广阔，禽鸟飞鸣。被称为“京北旅游明珠”。

第四条：塞北旅游线。从北京出发，沿京张高速公路北行，途经昌平区和延庆、宣化，到达塞外名城张家口，行程 200 公里。

长城、草原和始祖文化构成了独具特色的张家口旅游。特别是涿鹿县的黄帝城是中国最早的都城，

史书早有“千古文明开涿鹿”之说。至今这里仍保存有黄帝城、炎帝城、蚩尤寨等众多文物古迹。而新兴的温泉沐浴、探险漂流、观光农业和山地滑雪，更使张家口成为京西北休闲度假的理想之地。

第五条：京郊太行风光旅游线。距北京仅90公里的涞水县野三坡和涞源县白石山均为享誉中外的风景名胜，堪称太行风光之胜。百里峡、拒马河、佛洞塔、龙门峡、金华山、百草畔等众多景区景点，千姿百态，内涵深厚。多年来深受京津游客青睐，成为京津居民休闲疗养、避暑度假的最佳去处。

第六条：燕赵文化旅游线。从北京出发，沿京广铁路和京深高速公路南行，依次经过保定、石家庄、邢台、邯郸四个中心城市，行程450公里。

这四市西依太行山脉，东接华北平原，文化积淀深厚，文物古迹众多。涿州是《三国演义》的开篇之地，清西陵是清王朝两大陵寝群之一，满城汉墓是“金缕玉衣”的故乡，保定直隶总督署是现存全国唯一的一座清代省级总督署衙，白洋淀是华北最大的淡水湖泊，冉庄地道战纪念馆记载了中国人民威武不屈、抗击日寇的悲壮历史，正定隆兴寺被称为“京南第一名刹”，赵县赵州桥是世界桥梁的鼻祖，平山西柏坡是中国革命最后的一个农村指挥所，邯郸是战国时期赵国的都城和著名的成语典故之乡，至今仍保存有响堂山石窟、娲皇宫、武灵丛台和黄粱梦、吕仙祠等众多文物古迹。

灵寿五岳寨、平山天桂山、赞皇嶂石岩、井陉苍岩山、临城崆山白云洞、涉县娲皇宫等太行山胜景，以其秀美的自然风光吸引着海内外游客。

第七条：冀东南民俗风情旅游线。从北京出发，沿京津塘高速公路、京沪高速公路东南行，途经香河县、廊坊市、天津市、沧州市、吴桥县，到达衡水市，全程410公里。

香河县的第一城，外仿明清时期古城北京之风貌，内集华夏古今文化之异彩，是迄今为止全国规模最大的人造景观之一。廊坊、衡水是全省的旅游商品生产基地，这里生产的蒙镶、景泰蓝和鼻烟壶等产品，品种繁多、工艺精湛。沧州吴桥是世界闻名的杂技之乡，“上至九十九，下至刚会走，吴桥耍杂技，人人有一手”。

第八条：长城旅游线。长城是中国旅游的象征，更是河北旅游的主打产品。举世闻名的万里长城横穿河北全境，长达2000多公里，使河北成为长城途经距离最长、保存最完好、建筑风格最具代表性的省份。万里长城之首老龙头、天下第一关山海关、倒挂山崖的角山长城、跨越山涧的九门口长城、潜入水下的潘家口长城。蜿蜒曲折的金山岭长城、长城要塞大境门、根据长城历史传说而建的孟姜女庙等，均在这条线路上。

编译：李英善

避暑山庄

避暑山庄

避暑山庄位于承德市中心北部，被誉为中国现存最大的古典皇家园林，占地 564 公顷，为颐和园的两倍，北海公园的八倍。十公里的宫墙宛若万里长城一般穿行在高山和平原之间。

避暑山庄，依山就势，合理布局，以塞北群山的浑厚雄奇，江南水乡的清新秀美，展示着中华几千年造园艺术的风范。而其中 120 多组建筑，随山依水就势，高低错落有致，宛如自然天成，恰似一幅山水画卷，映衬出造园者的聪明与才智。在山庄著名的七十二景中，凡四字为名的是康熙所题，三字为名的是乾隆所书。这些匾额有的来自名言，有的出自警句，清新古朴，道出了每一景观的诗情画意，给山庄增添了浓重的文学色彩。

承德——帝王的后花园

清朝早期，承德只是一个名为“热河上营”的小村落，但逐渐发展为清朝统治者的后花园，发展成为为贵族云集的城市，成为清朝的第二个政治中心。嘉庆在位期间（1723-1735），取承受先帝恩泽之意，改名为承德。

为了统一多民族的国家并维护边疆的稳定，康熙频繁北巡，于是在距京师 350 公里蒙古族游牧的地方建立了木兰围场，开始了大规模的围猎习武活动，史称“秋猕大典”。每次皇帝北巡或木兰秋猕，都会在长城以北逗留三到五个月，每岁围猎活动都需解决沿路的吃、住、休息及物资运输等问题，同时也需要一处休息避暑的处所和处理朝政的别苑，因此，沿途陆续建立了二十多座行宫。康熙皇帝经过多次视察和认真比较，他认为承德是修建别苑的理想处所，因为承德风景秀美、气候宜人、地处要塞，盛夏平均气温只有 24℃，道近北京，骑马不过两天，又直达清王朝的发祥地——北方，还可俯视关内，外控蒙古各部。

营建远郊别墅是满族人的习俗，兼具北雄南秀及满族故土自然美的承德恰似满人的故乡。承德不仅是一个休闲和处理朝政的好地方，也是满人避暑和避天花的好处所。因此，康熙皇帝决定在滦河之畔修建行宫，并亲笔题名“避暑山庄”四个大字，这里很快成了清王朝在北京之外的处理军政、民族要务的指挥枢纽。正如西方人所说的“罗马已不再是罗马，我身处之地就是罗马”，避暑山庄就是清朝的第二个政治中心。

避暑山庄的修建

热河行宫始建于康熙四十二年(1703),康熙五十年(1711)即已初具规模,由于热河行宫是众行宫的中枢,作用也远远超出普通的行宫,故康熙皇帝为之题名“避暑山庄”,从此避暑山庄也就应运而生。到了乾隆朝,他根据其祖父康熙帝“同心治理再精求”精神,对山庄进行了扩建,直到乾隆五十七年(1792)山庄工程才最后得竣,历时89年。避暑山庄是仅次于紫禁城的第二个政治中心,是中国四大园林之一,也是世界保存最完整的皇家园林,另外它也是“康乾盛世”的标志,1994年避暑山庄及其周围寺庙被联合国教科文组织列为世界文化遗产。

避暑山庄的风景和景点

山庄之内根据其功能分为宫殿区、苑景区两大区域。宫殿区位于山庄的南部,由正宫、松鹤斋、万壑松风和东宫四组建筑组成,是清朝皇帝、后妃日常起居、理朝论政、举行庆典、宴飨娱乐的地方。遗憾的是东宫已然被烧毁。

由蓝砖灰瓦组成的宫殿儒雅澹泊,严守封建礼制规整庄严的格局。苑景区分为湖区、平原和山区,地形复杂,西北部峰峦叠嶂,林木繁盛。东南部湖沼区域使人联想起我国江南水乡的优美景色。在山峦与湖沼之间,是一片开阔的平原,恰似北国茫茫草原的风光。整个苑景区的布局,正是清朝版图的一个缩影。

避暑山庄的宫殿区,建于康熙五十二年,乾隆十九年重新修缮、改建,占地1万平方米。根据中国传统的阴阳学说,古代的中国人认为偶数属阴,奇数属阳。阴是女性的,阴暗的和消极的;阳是男性的,明亮的和积极的。而数字九是奇数中最大的,所以大部分皇帝使用的宫殿都是由九进院落组成的,九是皇帝的数字,古代天子“身居九重”。正宫中轴线上坐落的建筑包括有澹泊敬诚殿、四知书屋、烟波致爽殿和烟雨楼。正宫由前朝和后寝组成,是皇帝居住、处理国家大事和举办庆祝仪式和典礼的地方。其他的建筑都对称地分布在中轴线的两侧以显示皇室权力的庄严。

丽正门是避暑山庄的正门,也是正宫区的第一道门。丽正门面阔三楹,上下两层。下层辟有三个方形的门洞,上有城台和阙楼。中间门洞的上方有石匾一块,上面是乾隆帝用满、汉、蒙、藏、维五种文字题写的“丽正门”。“丽正”源出于《易经》,《易·离卦》里说:“日月丽乎天,百谷草木丽乎土,重明以丽乎正,乃化成天下。”丽,是附着的意思;丽正,是方位正则光明的意思;丽正门,象征着多民族统一的国家将永远兴盛发展下去。

避暑山庄包括大宫门、二宫门。康熙亲笔所书“避暑山庄”四字的镏金铜匾就高悬在二宫门内,故称“避暑山庄门”。细心的游客常会发现匾上的“避”字多写了一横,让人觉得文武双全的康熙皇帝,怎么会写错字呢?其实清代的“辟”字两种并存,无论哪一种写法都是正确的,再说到书法,为了字体美观大方,当然是多一横的“避”字更妙了。

宫殿区位于规模宏大的皇家园林的南部,占地10万平方米,采用四合院建筑风格,朴素典雅。正

宫的主殿——澹泊敬诚殿，其作用相当于北京紫禁城的太和殿，是清帝举行重大庆典、百官朝见、接见少数民族首领和外国使节并处理朝政的地方。这也就是为什么六世班禅喇嘛带 2000 名随从，行 1 万公里路，艰苦跋涉 500 个日夜，来到承德拜见皇帝的原由。

澹泊敬诚殿原建于康熙年间，乾隆时用楠木进行改建，所以俗称“楠木殿”。它由楠木、青砖灰瓦和本色柱子组成，淡雅庄重，简朴适度，这种建筑风格和故宫的黄瓦红墙，描金彩绘，堂皇耀目建筑风格形成强烈的对比。乾隆帝曾经提到“自从汉、唐代以来，为了满足帝王的需要在首都以外大兴土木导致资源浪费，甚至毁灭一个国家。我们应避免重蹈覆辙。”从历史中吸取教训，因此他所建的宫殿风格多以质朴见长，这个大殿是皇帝思想的一个具体体现。

澹泊敬诚殿耗银 7.2 万两，用工 19 万人次。殿中大理石铺地，梁柱、隔扇、天花板都为楠木所做，质地坚实，色泽古朴，清香淡淡。天花、隔扇上雕有精美的寿桃、蝙蝠、卷草等纹饰，呈“五福捧寿”和“万福万寿”图案。《古今图书集成》一部被收藏在北部的书架上。皇帝宝座两旁饰有仙鹤，后面是檀香木屏风，上面刻有 163 个栩栩如生，形态各异的人物的《耕织图》，它映射出皇帝对众生的关怀。三块金木黑字匾悬挂于澹泊敬诚殿的前檐下，上面有乾隆皇帝退隐“林下”后题写的三首咏志抒怀之作，诗中流露出古稀天子的喜怒哀乐，反映了当时皇帝的心情。

四知书屋是皇帝接见近臣和休息的地方，它也是皇帝接见重要客人的地方，在举行盛大典礼之前，皇帝一般在此更衣。例如，皇帝曾在此接见过班禅喇嘛及英国使臣乔治·马戛尔尼。当时乾隆皇帝用茶和水果款待班禅喇嘛，在盛宴后，乾隆皇帝再一次打破宫规，亲自邀请班禅喇嘛到后宫参观自己的寝宫。

烟波致爽殿是清帝的寝宫，也是嘉庆和咸丰皇帝病逝的地方。“四围秀岭，十里澄湖，致有爽气”，康熙皇帝因此命名该宫殿为“烟波致爽”。1860 年，英法联军攻打北京之后，咸丰帝携其母后及众嫔妃曾逃难至此。

咸丰帝曾在此批阅奏章，并批准他的弟弟恭亲王与英法两国签订了《北京条约》，与俄国签订了《璦琿条约》。这些条约不但丧权辱国，还使中国大量割地赔偿。乾隆帝用儒雅的格律诗，优美的书法作品，在承德留下了大量的匾额，碑文和优美的石刻作品，但他并没有预料到他的子孙后代也用同样优美的文字签订割让香港的《北京条约》。

西暖阁是咸丰帝的妃子也就是后来著名的慈禧太后的居所。房间内现陈列着一些慈禧太后日常生活用品，“慈禧”是咸丰帝的赐名，意为“圣母”，1861 年，咸丰帝驾崩后，慈禧夺取了政权，开始了晚清时期对中国的统治，历时 48 年。

山庄的苑景区的面积是北京颐和园的 6 倍，它分为湖区、平原区和山区。湖区位于山庄的东南部，共有九湖十岛，湖区中优美如画的景色多是仿中国的南方园林而建，山庄之湖统称塞湖，在湖区游客可欣赏到的绝佳的景色有：青莲岛、如意洲岛、月色江声岛和环碧岛等。湖面上，绿柳倒垂，水波涟漪，清风习来，带来阵阵荷香，如此佳景，使人宛若置身于南方园林那诗画般的景色之中。

湖区

山庄因山而得名，却因水而闻名。漫步湖区，首先映入眼帘的便是水心榭，它位于一座石桥之上，有三处亭阁。水心榭处，长堤相连，长堤可引你通往环碧岛、青莲岛和月色江声岛。登高下视，长堤“形若芝英，若云朵，复若如意。”这连接三岛的长堤康熙皇帝命名为“芝径云堤”，为康熙所题三十六景的第二景。早在康熙年间，逢农历七月十五日中元节时焚香，常在环碧岛举行盂兰盆会。青莲岛主殿曾为皇帝学习之所。月色江声采用典型的四合院建筑，是王室成员夜晚赏月及观看歌舞表演之处。青莲岛上的主体建筑是烟雨楼，此楼面宽五楹，上、下两层，楼上均有围廊。此楼乃效仿浙江嘉兴的烟雨楼而建，是欣赏雨态烟容之处，建于1780年乾隆四十五年，每当下雨之时，烟雨楼内就会有薄烟升起，轻似薄纱，轻柔缥缈，使游客感觉如腾云驾雾一般。举目远望，在假山林立的小岛之上隐约可见一座高耸的塔楼，那便是金山亭。在镇江有一座雄伟壮丽的七层古刹，名为金山寺，因乾隆帝酷爱观赏此寺，因而在山庄依寺建亭，名为金山亭。金山亭分上中下三层，与不远处的武烈河、热河泉相映成辉，这也恰好符合了金山寺的建筑艺术构思。此亭的顶层为皇穹宇，清朝皇帝常携众嫔妃来此祭拜，以求国泰民安、繁荣昌盛。站在塔顶，山庄全景便可一览无余。

热泉位于山庄的东北角，它的水温常年恒定，从不冻结，热河泉贯穿整个山庄，它全长仅为14.7千米，是世界上最短的河流。

平原区

继续北行，我们便来到了平原区。平原区位于湖区的北方，占地53公顷，主要包括万树园、试马场、永佑寺、六合塔等著名景点。平原景色朴素、宁静、祥和，令人心旷神怡。平原区的西部是一片开阔的平原，碧草茵茵，林木茂盛，恰似一望无际的内蒙古大草原风光，游客们可在此策马奔驰。

万树园中遍植参天古木，东部地区有28架蒙古包，其中最大的御幄蒙古包，直径达七丈二尺，最小的备差蒙古包，直径二丈二尺，放眼望去，一派蒙古草原的自然风光。清代的皇帝经常在这一望无际的草原上接见并宴赏蒙古等少数民族的王公贵族及外国使节。在接见赐宴的同时，封爵颁赏，并和他们一起观火戏、立马技、杂技等。乾隆皇帝就曾在此接待杜尔伯特、厄鲁特蒙古部落的首长以及英国使者乔治·马夏尔尼的朝觐，当时灯火辉煌，歌舞升平，勇士们在茫茫的草原上载歌载舞。

文津阁是当时中国北方四大藏书楼之一。文津之名有两层含义：文，意为知识；津，则代表摆渡、传播；故而“文津”之意为传播知识。在清朝，有四个著名的皇家藏书楼，它和北京紫禁城内的文渊阁、圆明园的文源阁、沈阳故宫的文溯阁合称“内廷四阁”。文津阁内收藏大量的子、史、经、集等著作，其中包括《四库全书》，此书由500名学者共同编写，含79070卷。文津阁始建于1774年，于1982年竣工，仿浙江宁波天一阁而建。外观重檐二层，内部结构三层，在上下楼层中建夹层，这种设计可使阁内的藏书免受因阳光直射，造成损耗。园内环绕的假山，形态各异，恰是承德十大名山的缩影。东面的一座假山之上有个洞孔，形似一弯新月，当你站在塘边正对小孔的

位置时，就会在水面上看到一弯新月，因为阳光穿过小孔照射到水面上便形成了新月的形状，这就是著名的“日月同辉”。

山 区

避暑山庄的山区内主要的山谷从北到南依次为：松云峡、梨树峪、松林峪和榛子峪。最高山峰为四面云山，海拔 510 米，比平原高出 180 米，云海环绕。在避暑山庄内，仅康熙、乾隆两位皇帝就在山区中建造了 40 多处楼阁、亭台、庙宇，它们或悬谷安亭，或山怀建轩，或绝壁座堂，或沉谷架舍，巧借自然之势，施以人工之美，异态纷呈。山区的山势雄浑，山峦绵延，植被茂盛，清溪潺潺，四时之景各异。

避暑山庄是皇家园林中规模宏大，独一无二的杰作，也是中国古代建筑史上的宝贵遗产，回归自然是山庄设计者的建筑构想主题，而建造者也恰恰运用了高超的建筑技艺，使设计者的构想达到了最高境界。整个避暑山庄取自然山水之本色，蕴江南塞北之风光，成为中国皇家园林艺术荟萃的典范，极大地丰富了我国建筑学的艺术形式。

编译：李英善

普陀宗乘

普陀宗乘

普陀宗乘之庙建于1767年，建成于1770年，它占地面积为22万平方米，是外八庙中最大的一座，也曾是举行重大宗教典礼和接见官员及少数民族贵族之所。“普陀宗乘”是藏语“布达拉”的意译，这座寺庙是仿照西藏拉萨的布达拉宫修建的。布达拉宫当时是五世达赖喇嘛的居所，也是西藏政治和宗教权力的象征。

历史

1770年是乾隆皇帝的六十大寿，第二年是其母后的八十大寿，当时，内外蒙古、青海、新疆等地的各少数民族首领来到承德为皇帝及其母后祝寿，并送皇帝一千尊长寿佛。为了犒赏来宾和加强中央与各少数民族的关系，同时也为了显示国力强盛以及皇帝对他们宗教信仰的尊重，皇帝决定仿照西藏拉萨的布达拉宫修建这座寺庙。因此，承德的普陀宗乘之庙也被称之为小“布达拉”宫。此庙是外八庙最大的一处，占地面积约22万平方米。

寺庙建筑及风格

普陀宗乘之庙是藏式建筑的风格，但在部分建筑上又融汇了汉式建筑的手法，寺庙在采用了藏式窗户、塔和大红台的同时，也采用了汉式的中轴线和对称建筑手法，皇帝认为这种折中的建筑手法将取悦于他的子民。这种建筑手法代表着中国各族人民的大团结和他们建筑艺术和手法的文化融合。

站在全景图前，游客可以看到小布达拉宫以及它高耸的红色建筑，建筑的下部都有盲窗，上部为梯形藏式窗户。采用这种设计特色有几大原因：第一，西藏地处高原，平均海拔在4000米以上，天气变化无常，且多风沙，因此为了阻止风沙吹入建筑物，建筑物下面不设真窗户，只是用盲窗作为装饰的图案；第二，当喇嘛颂经或祈福时，他们还希望宫内的宁静不被外面的世界打扰；另外，佛殿中有众多佛像，阳光从上面的窗户照进来，令佛像熠熠生辉，预示着普天都是黑暗的，只有佛才能带来光明。

普陀宗乘的庙门宛如古代城门一般高耸宏大。走过山门，我们来到碑亭，亭里面矗立着三块石碑，上面刻有四种文字，正面为满文，因为皇族为满族，背面是汉文，左面是藏文，右面为蒙古文。中间的

石碑上刻有乾隆皇帝撰写的《普陀宗乘之庙碑记》，记述了建庙的缘由，左右两块石碑分别是《土尔扈特全部归顺记》和《优恤土尔扈特部众记》，碑文记述了中国蒙古族土尔扈特部落在远离祖国大家庭的一个半世纪以后，重归祖国的历史和清政府对回归后的土尔扈特部落的优抚安置。

土尔扈特

土尔扈特是居住在今天新疆维吾尔自治区的蒙古部落。在17世纪初，部落首领和其他部落首领产生冲突，于崇禎三年（1630）率领他的人民，携带着牧群艰苦跋涉到了伏尔加河畔。不久以后，沙俄政府开始向土尔扈特族人征收繁重的税并将他们的年轻人应征入伍，土尔扈特部不能忍受如此的欺辱和压迫，在首领渥巴锡率领下，于1758年举部十七八万人，行程五千公里，历时八个月，付出了十万人的生命，最终东归故土。当他们抵达伊犁时，他们向清政府呈上明朝永东皇帝赏赐的玉印来表达归顺之心。19世纪英国学者托马德·德·昆西在《鞑靼人的反抗》一书中写道：“即便在最早在历史记录中，人们也不曾发现有任何壮举可以超越上个世纪后叶鞑靼种族背负着民族精神的重托穿越广阔的亚洲草原事迹。”鞑靼种族指的就是土尔扈特部族。

《优恤土尔扈特部众记》，记述了清政府遣派官员为土尔扈特部落送二十万两白银以及牛羊、谷物、衣服和帐篷，并选择合适土地优抚安置部众的过程，另外，回归后的部众有权在整个伊犁河盆地放牧。

五塔门

走过碑亭，我们来到了五塔门。门上的每个塔代表藏传佛教的一个流派，红塔代表红教（宁玛派），绿塔代表花教（萨迦派），白塔代表白教（噶举派），黑塔代表黑教（噶当派），黄塔置于中间，表示以黄教（格鲁派）为中心。五塔也象征着五祖佛。关于这个门，还有一个传说：多数藏民虔诚信佛，在朝圣的路上都五体投地，一寸一寸地前行。皇帝也要向佛行礼，但不想用头触佛足，“顶礼佛足”或两肘、两膝和头部触地“五体投地”，因此，他采用了门上供佛的方式，皇帝从中门下走过，表示对黄教——喇嘛教的尊崇，也就是向佛礼拜。

佛教和喇嘛教

佛教是公元前6世纪印度的释迦牟尼创建的。释迦牟尼圆寂后，他的弟子多次集会来宣扬佛教的教义和戒律，以后佛教分成两大支派，大乘佛教和小乘佛教。

大约在1世纪大乘佛教流传到中国汉族人的聚居地。始建于公元68年东汉明帝年间的洛阳的白马寺是中国最早的佛教寺庙。到了隋朝和唐朝大乘佛教广为流传。小乘佛教于公元9世纪传到了中国云南等南方边境城市。大乘和小乘的主要区别在于：

大乘佛教认为佛无处不在，任何人都可以成佛；小乘佛教认为释迦牟尼是唯一的佛，并宣扬众生平等；大乘佛教悲悯众生并普度众生成佛或菩萨，最终达到涅槃；小乘佛教恰好相反，追求个人的圆满并成为罗汉。

喇嘛教是大乘佛教中密宗和西藏的苯教相结合而衍生的宗教，又称藏传佛教，其实西藏的各派喇嘛教都自称为密宗，喇嘛教则是外人加给西藏密宗的名称。现在主要流行的喇嘛教被称为黄教。宁玛派于十一二世纪形成，是最古老的藏传佛教，僧人穿红衣戴红帽，因而又称“红教”，“宁玛”在藏语中是“古老”的含义，目前在中国的西藏、四川、青海，以及不丹、尼泊尔、美国和欧洲等地均有寺庙及信徒的分布。“萨迦”藏文原意为“灰土”，萨迦派寺庙墙上画有红白蓝三条条纹，又称“花教”。噶举派僧人身穿白衣，故又称“白派”。宗喀巴于1409年创立了格鲁派，强调戒律及专心传教，严禁僧人结婚及从事农业生产工作。为了有别于其他，僧人身穿黄衣，即俗称的“黄教”。格鲁派在宗教与政治领域占有重要地位。

当宗喀巴年轻时，红教在西藏非常盛行，红教高僧可以结婚并且地位可以世袭。他学习圆满，即改戴黄帽，黄帽原是持律者所戴，因此形成黄帽派。宗喀巴更改253条戒律包括禁止僧人结婚和世袭，故此，黄教赢得了众多追随者并得到了明朝政府的支持，黄教快速发展并广为流行。

每个教派都有一个活佛来掌管着自己的教派。格鲁派的活佛是达赖喇嘛和班禅额尔德尼，他们是宗喀巴的两个最著名的徒弟。“达赖”在蒙古语中是“大海”的意思，“喇嘛”在藏语中指的是上师，“班禅”在藏语中指的是“主持或上师”。

五塔门前卧着一对石象，象在佛教中代表大乘派，是和平的象征。过了五塔门，我们来到琉璃牌坊前。琉璃牌坊属汉式建筑风格，是乾隆时期盛行的“三间四柱七楼”式样，在琉璃牌坊中门的上方有一块匾额，上面刻有四种文字，从右到左依次为满文、藏文、汉文和蒙古文，汉文为“普门应现”，意思是普度众生之门，到此可见观世音菩萨。另有一种说法，如在门前许下一个愿，参观完寺庙，所许之愿能够实现。在琉璃牌坊后面的匾额上刻有“莲界庄严”四个大字，意为观世音菩萨居住之处非常庄严。在清代，进入此门有着严格的等级规定，只有皇帝才能从中门走过，两边的门为高僧、文武大臣以及少数民族的首领、王公贵族们所走的门，台吉和五品以下官职人员须等在下面，不得入内。在琉璃牌坊的前面，有一对栩栩如生的石狮子。右边石狮子的前爪踩在一只球上，左边石狮子的前爪抚摸着一只幼狮。在中国古代，狮子是看门兽，是皇权和威严的象征，放在皇家宫殿和皇家寺庙前，增加庄重、威严的气氛。

主体建筑

大红台是一座暗红色的方形建筑，高高耸立在17米高的白色台基之上，映衬在周围白色楼宇之中。建筑材料主要是砖和花岗岩。大红台的中部从上到下饰有六个佛龛，里面镶嵌着六尊无量寿佛，每尊佛像代表十年，六尊佛像代表着乾隆皇帝的六十大寿。围绕大红台顶端的外沿，有八十个小佛龛，里面镶嵌着八十尊无量寿佛，代表着乾隆母亲的八十大寿。

大红台的内部是由三组不同类型的建筑组成：主体建筑万法归一殿、回廊形群楼、以及回廊形群楼顶部的亭殿。

万法归一殿在大红台中部，重檐四角攒尖镏金瓦顶，是举行重大的宗教仪式或清帝接见重要的少数民族部落首领及王公大臣们的场所。乾隆皇帝曾在此殿庆祝七十寿辰，同年也在新落成的普陀宗乘之庙接待了回归的蒙古族土尔扈特部首领渥巴锡一行。万法归一殿顶部覆盖着镏金铜瓦，在阳光下熠熠生辉，本寺庙仅黄金就用了三万两。万法归一殿的四个屋脊都有铜镏金的吻兽，是一种装饰性建筑构件，也起到加固建筑的作用。在封建社会中，官式建筑殿宇屋顶上的正脊和垂脊上，各有不同形状和名称的吻兽，以其形状之大小和数目之多少，代表殿宇等级之高低。檐角最前面的是“骑凤仙人”，也叫“仙人骑鸡”，它的作用是固定垂脊下端第一块瓦件。关于“骑凤仙人”，有一个传说故事：“战国时，齐国和邻国打仗，齐国大败，齐湣王大败而逃，突然一条波浪翻滚的大河拦住去路，后面追兵逼近，齐湣王仰天大叫我命休矣，在这万分紧急的关头，飞来一只大鸟落到齐湣王的面前，齐湣王情急之中骑上大鸟飞至大河对岸，逢凶化吉”。它也表达了人们的祝愿：“走投无路，逢凶化吉”。只有皇家寺庙可以采用九个吻兽。九是最高的等级，皇帝自诩为真龙天子，真龙可以飞入九重天。

万法归一殿内有一宝座，是乾隆皇帝为八世达赖强白嘉措虚设的，普陀宗乘之庙落成时，八世达赖年仅13岁，不能前来朝觐。乾隆皇帝虚位以待，以示皇帝尊崇藏传佛教的诚意。

吉祥天母

二楼的权衡三界亭内供奉着铜镏金吉祥天母像，吉祥天母也称吉祥天女。关于吉祥天女，有许多的故事和传说。传说中，吉祥天女是一个小龙女，年轻时非常漂亮，但行为放荡，有许多情夫，她的父亲非常气愤，把她抓了起来，用铁链子锁着。母亲心疼女儿，偷偷为她松了绑，并送给她一匹骡子，催她赶快跑。于是，她赶紧逃跑。她的父亲发觉后，骑上马紧追不舍，终没追上。后来，她嫁给了一个恶魔罗刹。因为她听说东海遭到了一个贪得无厌恶魔罗刹的蹂躏，她想拯救那一方生灵，自动诱惑恶魔并与之结婚。后来，吉祥天女还生了两个兽面人身的孩子。做了母亲的她有了怜悯之心，在佛的感召下，吉祥天女决心改邪归正。经过了很长时间的酝酿和准备，在一次盛大的宴会上，她把恶魔罗刹灌得酩酊大醉后，借助佛的帮助，把太阳吞入肚中，在黑暗中和罗刹进行了殊死的搏斗，终于杀死了罗刹和众妖。由于吉祥天女杀死了所有的妖魔鬼怪，后来再也没有出现魔鬼妖怪残害百姓的事情，老百姓又重新回到家园，过上了安宁、太平的日子。当地的百姓把她奉为镇妖除害的女神，并称她为吉祥天女。她在西藏有着极高的声望，每逢节日，她的塑像会被喇嘛抬到街上供人们来敬拜。

编译：李国福

普宁寺

外八庙

在避暑山庄的东北部，环绕着避暑山庄有一组金碧辉煌的藏传寺庙建筑群，这就是人们常说的承德外八庙。当年清帝在承德共建有 12 座寺庙，只因当时在承德只有八座寺庙住有喇嘛，这些喇嘛又统归清廷理藩院喇嘛印务处管辖，而且这些寺庙又在京城之外，所以当时把承德的寺庙称为“外八庙”。现仅存七座。这些寺庙建于康熙五十二年（1713）至乾隆四十五年（1780）期间。这组当今中国最大的古建筑群，面向避暑山庄，呈半圆形分布，如众星捧月，象征着当时宗教、政策和皇权至高无上的政治意识形态，外八庙也象征着国家和民族的统一。

承德的外八庙，在建筑风格上，与古朴淡雅的避暑山庄迥然不同，它们金碧辉煌、气势磅礴，如众星捧月，与避暑山庄融为一体。他们的建造和清王朝在“康乾盛世”建立多民族的统一国家，“合内外之心，成巩固之业”的思想是相统一的。

普宁寺

普宁寺的主殿供奉着一尊身高 22.28 米的千手千眼观世音菩萨，当地人称之为大佛寺。是乾隆皇帝在承德建造的第一座寺院，也是现在承德外八庙中唯一住有喇嘛、开展宗教活动的寺庙。普宁寺仿西藏桑耶寺庙而建，表达出希望“普天安宁”的意愿。根据佛教教义，它的中心象征着须弥山——世界的中心。

周围的四座寺庙象征着佛教世界的四大部洲，寺庙体现了满、藏、汉、维、蒙多民族的传统文化和艺术。

山门殿又称三门殿，指寺庙三个半圆形的大门。代表着三解脱：无相、无作和涅槃。大家请看左右的这两位威武的神像，他们就是人们常说的“哼哈”二将。

“哼哈”二将出自《封神演义》。《封神演义》中有个叫郑伦的，本是商纣王的大将，碰到敌人，鼻子一哼便响若洪钟，并喷出两道白光，吸人魂魄，被人称作“哼将”。在商纣王的大将中，还有个叫陈奇的，也有异人传授秘术，练就腹内一道黄气，张嘴一哈，黄气喷涌，对手魂魄自散，被人称作“哈将”。周灭商后，姜子牙归国封神，特封郑伦、陈奇二将镇守佛寺山门，这便有了这两位一个闭着嘴，一个张着口的“哼哈二将”。

普宁寺始建于乾隆二十年也就是公历1755年，它占地面积3.3万平方米。是一座典型的汉藏合一的寺庙建筑。这座寺庙以巍峨的四十二级台阶和金刚墙为界，分为前后两部分。寺院的前半部分是典型的汉式佛教寺院“伽蓝七堂”式的建筑格局。所谓“伽蓝”是梵文音译，意思是“园庭”，本意是指僧众团体居住的地方，一般泛指寺院。“七堂”是指寺院中的七组建筑。汉式建筑一般都讲究中轴对称，寺院也不例外。大家请看，以中轴线为基准，普宁寺从前往后依次建有山门殿、天王殿和大雄宝殿。在中轴线的两侧，又有钟楼、鼓楼和东西配殿。这山门殿、天王殿、大雄宝殿、东配殿、西配殿和钟楼、鼓楼就成为典型的汉式佛教寺院“伽蓝七堂”的建筑格局。普宁寺的后半部，则根据佛教理念采用曼荼罗的建筑格局，本寺庙充分体现了汉藏文化的交流和融合，也体现多元文化的中国的团结和统一。

走进寺庙我们可见普宁寺碑亭。这三块石碑，上面分别刻有乾隆皇帝用满、蒙、汉、藏四种文字撰写的碑文。正中是乾隆二十年（1755）撰写的《普宁寺碑记》，碑文记述了建寺的政治目的和历史意义。东边这座《平定准噶尔勒铭伊犁之碑》也是乾隆二十年撰写的，记述了平定达瓦齐叛乱的经过和意义。西面的这座碑是乾隆二十三年撰写的《平定准噶尔后勒铭伊犁之碑》，记述了平定阿睦尔撒纳叛乱的情况。乾隆二十年，清政府出兵讨伐天山脚下的厄鲁特蒙古准噶尔部达瓦齐的叛乱，清军直接攻到达瓦齐据守的伊犁，达瓦齐逃到天山之南，被维吾尔族首领霍集斯擒获，解交清军大营。乾隆皇帝为纪念这次平叛的胜利，在承德避暑山庄为厄鲁特蒙古四部的上层贵族分别加封头衔。因为他们信奉喇嘛教，于是乾隆皇帝效仿当年康熙帝评定喀尔喀蒙古叛乱后，在多伦诺尔建造汇宗寺的做法，仿西藏最早的喇嘛庙桑耶寺修建了普宁寺，表达出希望“普天安宁”的意愿。

这是鼓楼，它的对面是钟楼，两个建筑的外形是一样的。鼓楼上有一面高2.5米，直径1.6米的大鼓。钟楼内有雍正年造的铜钟一口。“晨钟暮鼓”，历来是佛教文化神秘而独特的象征。早上敲钟，僧人会打出“紧十八，慢十八，不紧不慢又十八”的合为五十四下钟声，晚上击鼓，僧人会用同样方式击出五十四下，早晚的钟鼓声合计为一百零八下。因为佛教认为众生有一百零八种烦恼和痛苦。故此，“晨钟暮鼓”击一百零八下，能杀烦恼，清佛心，所以佛家有“闻钟声，烦恼清”的说法。优美的钟声伴着悠远的回音传向四面八方，它净化了我们人生的欲望，唤醒了我们虚无的美梦，它是唤醒众生精神的佛音。在庙中，钟是可以随意敲的。而鼓却不可以随意的击打，因为在寺院中，平日敲钟代表祈福，而击鼓则是寺庙有难，集合僧众。晚上击鼓，僧人就要上殿做晚课了。

四大天王殿

现在我们来到天王殿。这殿中供奉的是大肚弥勒，殿的两侧是脚踏八怪、高大威严、各保护一方的四大天王。四大天王原是印度四兄弟，后来成为了人们崇拜的掌管四方之神。他们各自手持不同的法器：宝剑、琵琶、蛇和伞。宝剑锋利，琵琶要调弦，宝伞可以遮雨，蛇是小龙，龙只可顺捋，因此四大天王又寓意“风调雨顺，国泰民安”。南方增长天王手持宝剑掌管南方，宝剑可卷起乌云并形成数千支矛杀恶魔于无形；东方持国天王手持琵琶掌管东方，弹动琵琶可使恶魔和邪恶力量静止；北方多闻天王手持一伞，伞可以令战场地动山摇；西方广目天王手持一条蛇，可吞杀恶魔。这四大天王以保护佛教律法而著名。

大肚弥勒佛

袒胸露乳、面门而坐、笑容满面，他就是著名的“大肚弥勒”，亦称大肚佛或者笑面佛。“弥勒”是梵文的音译，意思是“慈氏”。这是他的姓，名叫阿逸多。按佛教的说法，他还是个菩萨，将来必定成佛，它是释迦牟尼的既定接班人，因此把他称为未来佛。弥勒佛屏风后是护法神韦驮，佛教把他作为驱除邪魔，保护佛法的天神。韦驮通常面向大雄宝殿，手持法器金刚杵。据说韦驮持金刚杵的姿势不同，有着不同的寓意。我们现在看到的，是金刚杵朝上直立，寓意为此为皇家寺院，不接待游方僧人。若金刚杵朝下杵地，这表示是民间寺庙，可接待游方僧人食宿。

西配殿中供奉三大菩萨；中间骑“朝天吼”的是观世音菩萨；左边骑青狮的是文殊菩萨；右边骑白象的是普贤菩萨。三尊菩萨超度幽魂并祈求太平以期完成佛祖释迦牟尼普度的大业。普度就好比一只巨大的船，运载众生从生死此岸到涅槃彼岸，成就佛果。

大雄宝殿

大雄宝殿是寺庙前半部最宏伟的建筑，殿内主供三世佛，是三佛同殿。在佛教寺院中，三佛同殿时分纵三世和横三世。中间是现世佛释迦牟尼，左边是过去佛迦叶，右边为未来佛弥勒。三尊佛像体态饱满，衣着流畅，神态庄严而又慈祥。佛前的油漆木桌上分别摆放五供和八宝。大殿两侧有十八尊罗汉坐像，罗汉是释迦牟尼的弟子，受了佛的嘱托，不入涅槃，留在人间宣传佛法。他们代表各种各样超自然力量。这里的“大雄”是释迦牟尼的尊称，大勇士的意思。两侧墙壁上还绘有佛国源流图，讲述度母、罗汉和胜乐天女等的故事。大雄宝殿面阔七间，进深五间，高一层，重檐。此殿是举行佛教典礼和喇嘛讲经说法之处。

大乘之阁

六层高的大乘之阁是普宁寺后部的主体建筑，也是本寺庙最雄伟的建筑，俗称大佛殿。大乘之阁通高36.75米，屋顶为圆形镀金顶，正面是六层檐，两侧是五层檐。它的北面却是四层檐。据说六层寓意为佛教的“空”，对称“六合”；五层，佛教意思为“五大”（地、水、火、风、空）；四层意思为“四曼”，就是四处“曼荼罗”。据史料记载，此处建筑是依照西藏最早的寺院建筑桑耶寺的风格，也是根据佛教宇宙观来布局的。据佛经讲：世界中心须弥山为茫茫的“咸海”环绕，大乘之阁处于建筑的中心位置，巍然而立，象征着宇宙的中心须弥山。大阁两侧有日殿、月殿。东西南北各有殿宇东胜神洲、西牛贺洲、南瞻部洲和北俱卢洲，分别表示四大部洲。四大部洲采用红、绿、黑、白四种颜色，并饰有不同佛教法器。四大部洲左右各有两个白色矩形建筑，象征八小部洲。此外，与阁的四角对应的有四座喇嘛塔，表示佛的“四智”，即大圆镜智，平等性智，妙观察智，成所作智。另一种说法，这四塔表示佛出生，转法轮，成道和涅槃。大乘之阁的配殿曾经是皇帝休息和听高僧讲经说法之所。

观世音菩萨

进入大乘之阁，首先映入眼帘的就是一尊大佛，她就是千手千眼观世音菩萨。佛像身高22.28米，腰围15米，重110吨，仅头部就有5.4吨，用杉、柏、榆、松、榿五种木材雕制而成，用木材120立方米。佛像端坐在2.22米高的莲花宝座上。这尊大佛除双手合十的两手外，身体两侧各有二十只手臂，每只手掌中又生出一只眼睛。佛教认为，他的每只手、眼表示二十五种因果报应。这样二十五乘四十各数为一千，所以称为千手千眼观世音菩萨。大佛面部长有三眼，代表大佛洞悉过去、现代和将来的一切事务。据佛经说：观世音受佛祖之命，发下宏大誓愿，以大慈大悲救度众生，众生没有普度之前，自己不能成佛。无奈众生太多又愚钝，观世音感到自己的法力难以承担这个重任。此念一产生，身体顿时断成40段。观世音的老师无量光佛及时赶到，将碎段归拢，用手抚摸且劝慰说：“救度众生岂能畏难而生疑惑之心？只要志坚，以佛的智慧和法力一定能如愿。”话音刚落，分裂的身体立时合为一体，而且身躯变大，同时长出40只手臂。大佛头顶上还有一尊佛像，高1.53米，就是人们常说的阿弥陀佛，梵文音译无量光佛、无量寿佛。观世音把他顶在头上表示对老师的尊重。

大佛的两侧有两尊佛像，左边是善财，右边是龙女。据佛经上说：“善财是福城长者的小儿子，他出生时各种财宝从屋内地下送来，但他天生不爱财，认定万物皆空，发誓要修行佛。在他长途旅行求法的过程中，一共参见了比丘、国王、长者、商人、船师、仙人等五十三位名师，历经了千辛万苦，用一颗赤诚之心和不屈不挠的行动经受了考验，最后感动了普贤菩萨，实现了成佛的愿望。现大乘之阁中的善财，已经不是童子的模样，俨然一个老者的形象，一看便知饱经了许多风霜。善财的行动是一种象征，一种教化，说明成佛是一种艰苦的事，必须有恒心，不屈不挠，才能成正果。龙女是婆竭罗龙王的女儿，聪明过人，八岁时经释迦佛指点化，快速成佛。善财和龙女，一个说明成佛的艰苦修行，一个表明人不分性别和老幼均可以成佛。殿内的山墙上布满了小佛龛，共10090个，每个佛龛内设一尊藏泥贴金佛，所以称为万佛龛。这尊大佛是中国最大的木制佛，佛像三目含慈，容貌端庄，永佑这方福地。

编译：李英善

赵州桥

赵州桥历史

赵州桥公园以赵州桥为中心。在公园的正门口，门楣上有块“瞻奇仰异”横匾，是清朝顺治年间赵州知事孔兴训所书，此匾题字已被《中华名匾》一书所收录。

这块影壁正面上选刻有我国已故著名桥梁专家茅以升先生的《中国石拱桥》的文章。茅老的这篇文章最早发表在1962年3月4日的《人民日报》上，原文较长，以下节录的这段主要总结了赵州桥的情况。

茅老在文章中说：“我国的石拱桥几乎到处都有。这些桥大小不一，形式多样，有许多是惊人的杰作。其中最著名的当推河北省赵县的赵州桥”。茅老对赵州桥的高度评价，科学、准确地概括了赵州桥的几个特点，阐述了赵州桥的科学价值、历史价值、艺术价值以及它在世界桥梁建筑史上的突出贡献和重要地位。

这条道路在历史上就有，过去老百姓一直把它叫做“皇道”。在隋朝时经由赵州桥的这条南北大道，向南可直达东都洛阳，向北则贯穿涿郡，通入现在的北京，相当于现在的107国道。乾隆皇帝下江南时，三次所走的陆路，都是从赵州桥上经过而南下的。

一直到1984年建公园以前，赵州桥仍作为一个正常的交通运输桥梁发挥着作用。所以说，赵州桥不但保持了一千多年，而且一直使用了一千多年，这在全世界都是非常罕见的。

矗立在这里的硅青铜塑像就是赵州桥的设计建造者——李春。这尊铜像是由中央美术学院钱绍武教授设计督造的。历史上有关李春的记载很少，但有一句话却是非常确凿有力的，即唐玄宗开元年间的中书令张嘉贞曾在《唐文粹》一书中写道：“赵郡洺河石桥，隋匠李春之迹也”。这一锤定音地指明了赵州桥的建造者就是隋朝的李春。

赵州桥全长50.82米，始建于隋朝，距今已有1400年的悠久历史，是现存于世最古老的一座石拱桥典范，是首批公布的国家级重点文物保护单位，也是省级爱国主义教育基地，已列入世界文化遗产后备名录，并且是世界上第12处国际土木工程历史古迹。

古代工程的成就

这块铜质的标志牌是赵州桥在国际上占有重要地位的标志之一。下面的落款为“美国土木工程师学会敬立”。学会代表国际性土木工程的权威组织，它一直在全世界范围内精选历史土木工程上的杰作载

入史册，并颁发铜质纪念牌作纪念。我们现在看到的这块牌子是复制品，原件已经珍藏入库。

1991年9月4日下午，在“热烈欢迎美国贵宾”的标语下和仪仗队的鼓乐声中，该学会名誉主席本·格威克教授一行三人亲临现场，进行了颁发仪式。当时红底白字会标上的中英文写的是“国际土木工程历史古迹纪念碑揭幕仪式”。国际上与之并列的还有法国的埃菲尔铁塔、埃及的金字塔、英国的伦敦塔桥以及苏伊士运河等。这块纪念牌成为当时世界上第12块国际土木工程历史古迹纪念铜牌，也是中国唯一的一块。

当地老百姓都把赵州桥叫做“神桥”，传说只要一走上它，就能感应到上天和神的灵验，一切都会吉祥如意。赵州桥桥面的宽度约10米，相当于现在国家二级公路标准。当年桥上也是人来人往，车水马龙；桥下百舸争流，千帆竞渡，一派繁华景象。滚滚东流的汶河水，带着百姓的欢声笑语，汇入大海。

“安济桥”是赵州桥的正式名字。它是北宋时哲宗皇帝北巡时，途经这里所赐的名称，所以赵州桥的正名叫安济桥。“大石桥”是当地老百姓对赵州桥的俗称，算是它的小名吧，所以该桥所处的村落也称“大石桥村”。站在这里可以仔细观赏到赵州桥的神韵，感觉到赵州桥的宏伟与博大。赵州桥单孔跨度为37.02米，当时在世界上占第一位，在石拱桥的单孔跨度上达到了极限。

为什么世界上许多的古代建筑大都坍塌损坏了，而唯独赵州桥历经千年风雨沧桑，仍能巍然屹立呢？

长寿建筑的秘密

首先要归功于赵州桥独特的建造方法。查看桥拱的背面，我们可以发现，顺着桥的纵向延伸方向，是一道又一道拱圈，就像我们人的手指一样并在一起，这叫做纵向并列砌筑法。

1933年11月，我国杰出的建筑学专家梁思成先生（梁启超之子）曾到赵州桥进行过实地考察，当他看到这种造桥方法时深感意外。因为从古至今，人们大都采用横向并列法建造桥拱，李春为什么会采用纵向法造桥呢？

这是因为纵向造拱，可以化整为零，节省人力、物力。先由一道拱圈砌起，砌完后这道拱圈就可独立站稳，依次再砌下一道，直至全部完工。由于每道拱圈都独立存在，所以假如有一道拱圈发生损坏时，对其他拱圈和整体桥身没有直接影响，便于单独对它进行维修。也就是说这种造桥法，当初建造时就方便实用，今后维修时也很方便。

为了加强石料之间的横向联系，古代匠师们还创造性地采用了腰铁、勾石、铁拉杆等一系列科学措施和技术，起到了与现代建材钢筋、水泥等相同的作用。

千百年来，赵州桥经受住了十多次规模较大的地震的严峻考验，包括1966年3月发生在邢台的7.2级大地震。当时震中距离赵州桥还不到40公里，而赵州桥却安然无恙。赵州桥还躲过了多次大洪水的侵袭，在1963年和1996年8月的特大洪水冲击下，赵州桥经受了考验而丝毫未损。

也许有朋友要问：赵州桥为什么能有如此牢固的抗震力呢？这就要从它的下部基础说起了。千百年来，关于赵州桥的基础如何一直是个谜，并存在种种假设性的说法。1979年，中国社会科学院自然科

学史研究小组对赵州桥桥台基础进行了钻探勘察，其发现结果令人大吃一惊。赵州桥桥台之短，地基之浅，出人意料。桥台仅由五层排石垒成，高 1.549 米，长约 5 米，桥台面积约为 100 平方米。桥台下的土质由第四纪冲积层的亚黏土和轻亚黏土构成，和我们脚下的土质没什么两样。

根据化验分析，这种土层稳定性强，土质均匀，基本承载力为 34 吨/平方米，并且黏土层压缩性小，地震时不会产生砂土液化，属良好天然地基。

由于科学利用了土壤结构，进行了合理设计，所以桥基两侧受力均衡，遇震时能克服不均匀沉降，因此地震和洪灾对赵州桥的整体稳定性不构成影响。在这样的天然地基和这样小的桥台上，却能建造出这样大跨度的石拱桥，这在中外建桥史上确是十分罕见的。

总结起来，我们了解了赵州桥千年不坠的两个重要原因，那就是赵州桥独特的建造方法和对天然地基的科学测算和利用。

然而，赵州桥千年不坠的最重要原因当是李春划时代的创举——即敞肩圆弧拱式桥型（简称敞肩拱）的发明及运用。所谓敞肩圆弧拱式桥型就是指以赵州桥为代表首创的这种桥型，即在中央主拱两侧的桥肩上分别挖开了两两对称的四个小拱，做成“空撞券”。它到底有什么优越性呢？首先是加大了排泄量，四个小拱可增大过水面积达 16.5%，减轻了水流对桥的水平冲击力，增强了保护桥身的作用；其次，空撞券的建筑形式敞开了肩部，又节省了石料，不但大大节省了人力物力，更重要的是减轻了桥身自重，分散了桥身对桥台地基的垂直压力，所以赵州桥的桥台才可以造得那么轻巧实用，并且能直接坐落在天然地基之上。

再看李春的这种设计，在敞肩的四个小拱拱石外围，还铺设了一层 16~30 毫米拱顶薄填石，恰好符合了材料力学弹性拱的原理。大家知道，弹性拱原理是 19 世纪才形成于文字的理论，在世界上只有不到 200 年的历史，但在 1400 年之前，中国的李春已经成功地将这一原理运用到实践中去了，这不能不说是一个世界奇迹。通俗地讲，运用材料力学的弹性拱原理造桥，这种结构就可以将受力点的力分散到桥的每一个横截面上，赵州桥之所以千年不坠，正是缘于李春这种敞肩拱式桥型设计的高度科学性和合理性，也是赵州桥学派在世界桥梁建筑史上最重要的贡献。

我们完全可以说，赵州桥首开了敞肩拱式桥型的先河。而西方第一次出现这种桥型是在 1883 年，当时法国在亚哥河上建造了安顿尼特铁路石拱桥，但它至少已经比赵州桥晚了 1200 多年。难怪英国的李约瑟博士总结说：“李春以及他所创造的敞肩式拱桥比欧洲同种类型桥的出现，确实优先达千年以上。”我国著名桥梁专家茅以升先生曾指出：“赵州桥是一座单孔石拱桥。中国石拱桥的出现虽早于隋代，但赵州桥却具有创新特点和重大技术成就。它以石块砌筑，弓形的拱圈拼法也有特殊，更为巧妙的是在主拱圈之上加设小拱，不愧是‘敞肩’式结构的先驱。一千多年来的使用实践证明，赵州桥的建筑传统，不但为中外石拱桥普遍继承，也为现代的钢筋混凝土拱桥所广泛应用，并出现了各种新的发展。”

确实，敞肩拱的应用，不但使桥形变得更加优美，最重要的是它有节省材料、减轻自重、简化桥基、排泄洪水的几个作用和功能。它的设计和建筑结构科学合理、稳定性强。千百年来，赵州桥的结构技巧、艺术风格被广泛地借鉴运用，对世界桥梁建筑有着不可磨灭的突出贡献，是当之无愧的桥梁之祖！

赵州桥

赵州桥是我国古代劳动人民留下的珍贵文化遗产。它见证了中华民族的聪明智慧，也见证了世界文明古国历史文化的灿烂辉煌，同时还见证了整个人类的文明和力量。

多少年来，它一直受到全世界的尊重和称颂，今天，它更应该激励着我们去充分发挥自己的聪明才智，为建设富强昌盛的祖国贡献自己的力量！

编译：李英善

孟姜女庙

姜女苑

姜女苑是为了丰富孟姜女庙的景观，在1992年仿造江南园林而修建的，向我们形象展现了孟姜女哭长城的故事。

公元前221年，秦始皇统一六国后，为了防止外侵，决定修建连接六国的长城，下令强抓50万人，开始了万里长城的修筑。这时有人向秦始皇举荐说有一书生名叫范杞良，此人一人力气抵万人，就是说把杞良抓来就相当于抓了一万个壮丁。秦始皇听后就下令捉拿杞良。

杞良只是一介书生，哪有抵万人的力气呢？官兵一路追赶，杞良东躲西藏。一日被逼无奈，跳进孟家花园。这里就是孟姜女和范杞良初次相会的地方，一个是温文尔雅，一个是羞羞答答，两人是一见钟情。

杞良向孟姜女讲述了自己的遭遇，孟姜女同情杞良，就去说服父亲把杞良暂时留在了家中。时间一长，孟员外见杞良是一知书善理之人，又见两人情投意和，就有意把女儿许配给杞良。

就在他们新婚之夜，杞良被官府抓走了。自杞良被抓走后，孟姜女对杞良是时时牵挂，日思夜想。时间转眼过了三年，一夜孟姜女梦到杞良在严寒的冬天穿着单衣在监工的鞭打下修建长城。梦醒后的孟姜女心疼丈夫，再也无法忍受思念的煎熬，连夜为丈夫赶制寒衣，眼睛熬得红肿却浑然不觉。寒衣做好后，姜女就要踏上千里寻夫的漫漫征程了，去为丈夫送寒衣。

孟姜女来到长城脚下，她不停地打听丈夫的下落，正好一老乡告诉她，杞良早在半年前就已经累死了。姜女一听，立刻昏厥了过去。醒来后的孟姜女号啕大哭，整整哭了三天三夜，突然“轰隆隆”一阵巨响，长城连倒800里，倒过之处露出的是累累白骨。

秦始皇一听有人竟然哭倒了他的800里长城，很是震惊，就要把此人抓来亲自定罪。秦始皇一见孟姜女再一次震惊了：世间竟有如此美貌的女子？我有三宫六院七十二嫔妃三千宫娥，谁又比得上孟姜女的美呢？秦始皇就对孟姜女说：“你哭倒了我800里长城费我黄金万两，民夫上千，论罪当斩。但如果你答应我一个条件，我不但可免你一死，还包你享受荣华富贵！”我们都应该知道这条件呢就是要孟姜女答应做他的妃子。也许你会觉得孟姜女又会断然拒绝了，但事实上不是这样。孟姜女转念一想，自己丈夫的尸骨还未安葬，反抗是没有用的，不如先稳住他再说。孟姜女就对秦始皇说：“要我答应做你的妃子可以，你得先答应我三个条件。”秦始皇一听这事有戏，别说三个条件，一百个条件也没问题呀，就爽快地说：“你提。”“这第一个条件是：我生活在内陆，没看过大海，你为我修一条十里长十里宽的大桥直通大海。”秦始

皇想我万里长城都修了，一个大桥算什么，“答应！”“这第二个条件是你为我的丈夫祀良修一座豪华的坟墓。”这条件在秦始皇听来有些过分，但为了得到孟姜女，又答应了。“这第三个条件是要你和你的文武百官一起披麻戴孝，厚葬我的丈夫。”秦始皇答应了孟姜女的三个条件。

埋葬了自己的丈夫，孟姜女奔到十里长桥的尽头，纵身跳入大海。一时间，电闪雷鸣，波涛汹涌，风平浪静之后，海面升起两块石头，高的为碑，矮的为坟。

姜女庙

全国共有孟姜女庙 20 多座，而我们山海关的孟姜女庙因为坐落在凤凰山上的望夫石村，而且在孟姜女庙东南约 5 公里的渤海中，有两块突出海面的被称作“姜女坟”的礁石，所以被推崇为正宗。《孟姜女》被称为我国著名的“四大爱情故事”之一，在民间广泛流传。下面就让我们一同去拜谒孟姜女的芳魂，去聆听那千古流传的爱情故事吧。

108 级台阶

庙门前有 108 级台阶。传说孟姜女当年千里寻夫，历尽了许许多多的磨难，修建 108 级台阶，是让游客朋友们象征性的体验一下姜女寻夫的千辛万苦。

前殿

进入殿内，我们眼前这个身着素衣，面带愁容的女子就是孟姜女了，在两旁的是守护她的童男童女。塑像后面这幅图叫《姜女雁阵》，我们看到在海中有两块石头，高的为碑，矮的为坟，这里就是传说中的姜女坟。前殿的右边为“天下第一关”的石匾。

望夫石

展现在我们面前的这块石头就是“望夫石”了。相传当年孟姜女千里寻夫走到长城脚下，天色已晚，无法过关，她就爬上这块石头，登高望远，希望能看到自己的丈夫。焦急的孟姜女在石头上走来走去，一夜之间竟踏出了这些石窝窝。“望夫石”三个大字为山海关通判白辉所题。如今的望夫石已经成为了忠贞爱情的象征，朋友们可以在此留影，让望夫石来。

编译：李英善

丛台公园

丛台公园是1953年以赵文化遗址武灵丛台为中心开辟而成的一座公园。是一处融古迹游览、花卉欣赏、动物展出、儿童游乐为一体的综合性休闲娱乐场所。

这座门楼，是丛台公园的正门。它是1997年在原址翻建而成的。两侧是牡丹园、月季园和盆景园。

武灵丛台是古城邯郸的象征，是省级重点文物保护单位。丛台始建于公元前325年至公元前299年的战国时代，修筑丛台的目的是观看歌舞和军事操演。丛台分上中下三层，结构奇特，装缀美妙，规模宏大，一直是中原地区的一处胜景。

武灵丛台第一层南北各开一门，北门高阶上的大石碑是清朝乾隆皇帝游江南路过邯郸上丛台时，亲笔书写的诗。

第二层台面距地表7米，东西59米，南北80米。台北有五间大屋，名“武灵旧馆”，是纪念武灵王的建筑。室前的小亭建于1931年。

丛台的最上一层，门额上题有“武灵丛台”四个大字，顶台呈圆形，直径19米，距地表13.5米，是赵武灵王观看歌舞的地方。

七贤祠是为纪念赵国的七位贤人而建的。祠中供奉着七尊彩塑，使人追忆起这些古赵忠臣良将的赫赫文治武功。

碑林，位于七贤祠西侧，于1987年开始筹建，1991年正式对外开放。占地2767平方米，共藏碑44块。建碑林的目的主要是搜集、保存邯郸的碑志和石雕，使后人对邯郸的过去有更多的了解。

编译：李英善

崇礼滑雪

雪是大自然赋予人类的礼物，冬季滑雪，是人们度假和健身的理想方式。华北冬季有许多滑雪场，其中崇礼滑雪是最为著名的。

崇礼县有5万公顷森林公园，大面积原始森林，有5个景点已被开放，游客可以去那里打猎、钓鱼、摘野果或者野餐。这种大面积植被形成了崇礼宜人的气候，造就了崇礼滑雪的独特环境。崇礼的雪季大概持续3个月。近几年，同期年累计积雪厚度可达1米以上，这在同样纬度的华北的其他地方几乎是不可想象的事情。现在，由于有了人工降雪设备，崇礼的滑雪季节可以从11月到3月共5个月。先进的设备、适当的操作使人工降雪和自然降雪在滑雪场毫无差别，甚至经过处理的人工降雪比自然降雪更好。

滑雪，在西方人称“绅士运动”，在欧洲，每年有2亿人从事这项运动。在中国，每年也有200万人进行这项活动。据史料记载，滑雪起源于北欧的挪威，也有史料称它的发源地在我国与俄罗斯接壤的阿尔泰地区，据今已有约4000年的历史。古代人们借助于滑雪板、滑雪杖在林海雪原中任意驰骋，追逐猎物。随着时间的推移，滑雪演变成了竞技和旅游运动项目。

崇礼滑雪旅游资源的开发，起始于1997年。经过几年的建设，几个大滑雪场建成并开放：即翠云山滑雪场、塞北滑雪场、长城岭滑雪场和万龙滑雪场。

翠云山滑雪度假村

投入大量资金建设而成的翠云山滑雪场是张家口最高级别的度假村。度假村坐落在崇礼县城东北11.6公里处的全省最大的森林公园内，占地4000公顷，森林为其提供了得天独厚的滑雪环境。在公园里，杨、桦、枣树等茂盛生长，林区间有乔木13种之多、灌木有20余种。这里年平均气温5℃。夏季最高气温不超过20℃；冬季最低气温不超过-25℃，存雪期达150天。

翠云山滑雪度假村有拖牵道3条3000多米，雪道总长度达8000米。引进最新高级雪具2000副。山顶服务中心、康乐宫设有多处雪具租用店，同时还提供滑雪指导。

翠云山景区由20余座山峰组成，主峰海拔1800米。这里是华北地区最小的风区，冬季平均风速仅二级。除滑雪外，游客还可以登高览胜，踏雪寻幽。

塞北滑雪场

距崇礼县城13.5公里，是华北最大滑雪场之一。始建于1996年，现已初步建成初、中、高三级水

平的雪道近 7000 米，可供初学者、中等水平者以及滑雪能手使用。这里拥有千余套进口雪具和器材。雪季从每年的 11 月下旬到次年的 3 月下旬，有效滑雪期可达 120 天。

长城岭滑雪场

长城岭滑雪场也在和平森林公园内，距县城 18 公里，占地 15 公顷，2000 米的雪道已建成，有 1000 多套雪具可供使用。游客可以滑雪、开雪地摩托或者坐马拉雪橇。

万龙崇礼滑雪场

万龙滑雪场位于崇礼县红花梁，距张家口市 50 公里，距北京市 249 公里。总面积约 30 平方公里，是崇礼大滑雪场之一。年降雪期持续 130 天，滑雪最高点海拔 2110.3 米。9 条不同水平的雪道可供初、中、高级滑雪者使用，雪道全长 10000 米。雪道包括金龙雪道、银龙雪道、玉龙雪道等。滑雪场引进了 1600 套最新滑雪器具，其中 200 套是高标准的。配置双人吊椅式索道 3 条。

中国崇礼国际滑雪节每年在万龙滑雪场举行。这里同时也是日本、韩国国际滑雪队和中国青年滑雪队的训练地。

编译：李英善

木兰围场

狩猎的天堂

木兰围场是清朝皇家猎苑——清帝狩猎绥武之地。木兰皇家猎苑坐落在今天的承德市围场满族蒙古族自治县。围场气候属北寒带——中温带，半湿润、半干旱、大陆季风高原山地气候，气候类型比较复杂，年平均气温为-4℃~5℃之间，年降雨量为450毫米左右，全年无霜期89天。围场气候独特，这里“三庚无暑，六月生风”，盛夏最高气温不超过25℃，空气清新，各种野花在弥漫着烧烤羊肉香味的草原上争妍斗奇、千姿百态、竞相开放；八月金秋，红叶满山，霜林叠翠，远山披金；冬季，冰雪世界，银装素裹，为人们提供了远离城市的人群和喧嚣的滑雪场所。

围场自古以来就是一处水草丰沛、禽兽繁集的天然名苑，历史上“千里松林”，曾是辽帝狩猎之地，木兰围场又是清帝秋天狩猎的皇家猎苑，今天的围场依旧保持着这种自然、简洁和质朴的美。如果没有这方广阔的草原，像鲜卑、山戎、东胡和契丹等许多少数民族就不可能幸存于无数的战争。

哨鹿军训

有人说，中国古代的历史，就是游牧民族与农耕民族争夺生存空间的战争史。居住在中国北部以狩猎为生的清朝统治者，他们通过狩猎来演练行军和作战。哨鹿围猎是中国北方的众多少数民族相沿已久的一种传统狩猎方式。清军跨过长城，占据中原以后，清朝的统治者依旧不忘围猎骑射之风。

康熙皇帝（1662-1723）沿习传统，于热河建立皇家猎苑，热河包括今天的河北省、辽宁省以及内蒙古的一部分地区。清帝在这里可以“北控蒙古，南制天下。”清乾隆帝（1736-1796）颁旨告诫众文武官员要领悟以狩猎的方式演练军队和体能训练的重大意义。

“木兰秋狝”是一个大规模的军事演习。每年清帝都都要北巡到这里，皇家骑兵和八旗军于阴历七八月以狩猎的方式在这里演练军队，行军狩猎，炫耀武力，并恩准蒙古各部首领轮流随行，以增进民族亲情。

民族大团结

1690年，清帝康熙指挥清军于木兰围场，打败了勾结沙俄作乱的蒙古分裂势力准噶尔部噶尔

丹。第二年，蒙古各部云集多伦诺尔草原（蒙古语的含义为“七星湖”），他们尊康熙为共同的皇帝和救星，一句“蒙古与天朝永不再战”的誓言响彻云天。建木兰围场的目的在于“合内外之心，成巩固之业”。

围场简介

围场县位于河北省最北部，南距承德 153 公里，距北京 350 公里，全县总面积 9219.7 平方公里，是河北省面积最大的县。它东邻赤峰，北接内蒙古。木兰围场坐落在承德的围场县，占地面积 2324 平方公里，其中著名的塞罕坝占去了 1685 平方公里，森林覆盖率达到 75.2%。这里有 81 科、312 属、659 种高原植物，有 27 科、88 种鸟类和 11 科 25 种动物。全县总人口 50 万人，人口密度为 53 人/平方公里，包括回、藏、朝鲜、满和蒙古族在内的少数民族占 30 万人，其中，满族、蒙古族占 24.5 万人。清王朝一年一度大规模军事演习和政治盛会，有力地维系起民族团结，也促进了各民族习俗和文化的交融。中国于 1950 年建立县制之后，围场成为热河特别行政区的一部分。目前它隶属河北省，名为围场满族蒙古族自治县。

景点

许多景点散落在去木兰围场的古御道上。我们依然可以从这条古御道和古石碑上浏览到当年皇家狩猎的盛况，依然可以在这场蒙古首领曾磕头 110 次并跪迎“圣驾”的巨石上，领略到一个王朝曾经的强大和辉煌。《木兰记》碑记述了一代天子对木兰围场的赞誉，并详细地介绍了“木兰秋狝”的过程和对乾隆皇父的敬畏之情。在皇室眼中，因为设立了木兰围场，因为在这里肄武绥藩，才使得国家的统一得以实现。

庙宫是古御道上最著名的风景之一。它包括前庙和后宫，清帝曾在这里休闲并接见少数民族的首领。遗憾的是大部分的省宫建筑已被毁坏。另一个风景是建于 19 世纪 60 年代早期的庙宫水库，它不仅起到了防洪作用，也对下游的隆化县农业生产上起到了重要的作用。

四合永镇是围场县最大的集镇。传说在清代末年，从山海关里来了四户人家，合办“四合永”货栈，取其四家合力永兴之意，四合永镇得名于此。未进入围场县城，首先你看到的是葱郁的东山，这就是围场十大景之一“凤凰岭上卧麒麟”。围场县城四面环山，凤凰岭的白沙世代为害，如今却成了一宝。当地人不仅发运原砂，也将白沙制成了各种工艺品出售。起伏的山路，热情的村民，广阔的草原和古神树构成了一幅美丽的风景。

“木兰”含义

木兰既不是人们错误理解的花名，亦和古代的英雄花木兰没有任何联系。“木兰”是满语“哨鹿”

的意思，哨鹿——早期的一种狩猎方式。鹿哨子是用树皮做的一种诱捕鹿的工具。所以“木兰围场”汉译为“哨鹿设围狩猎场”。

历史背景

自古以来，这里林木葱郁，湖泊星罗，水草丰沛，气候湿润，良好的生态环境令动植物繁集。1702年，康熙皇帝乔装北巡，信步走进滦河岸边的一个茶舍，闲谈中，康熙了解到在热河上营附近有一片蒙古草原，那里人烟稀少，没有蚊蝇等害虫。康熙皇帝上马逆河北上，但见怪石林立，万壑松鸣，清泉流淌，白鹤成群，野鹿奔驰的美丽天堂。当年，康熙皇帝从这片肥沃的土地上划定了面积1.4万多平方公里的木兰围场，并划分出七十二个小围场。岁岁举行木兰秋狝。从康熙二十年至嘉庆二十五年的140多年里，康熙、乾隆、嘉庆来围场举行木兰秋狝105次。为了更好地保护生态平衡，皇帝狩猎每岁更换，以滋养生灵，且行围之时，遇幼鹿母兽例行放生，皇帝每年在不同的围中狩猎。他们亦不猎杀幼兽和母兽。自然天成的草原孕育着无数的野兽和珍稀植被。

适宜狩猎的地貌

木兰围场坐落在塞罕高原上，俗称塞罕坝，蒙古语意为“美丽的高原”。地处围场县北部，海拔1200多米。高原的东北部和大兴安岭接壤，西部延伸入燕山山脉。

塞罕坝似一道天然的屏障，挡住了冬天来自北方的寒流亦聚集了夏天来自海洋的湿气，形成了丰富的雨水，故此坝上坝下自然风光迥然不同。

北部高原区水草丰沛，禽兽肥硕，是纵马弯弓的天然猎场，中南部是海拔500米左右的燕山大地。

乐园的得与失

这片美丽的土地是300年前蒙古贵族为皇族狩猎敬献给皇帝的。自从木兰围场从1677年正式固定以来，在以后漫长的岁月中，围场境内一直禁止百姓狩猎、伐木。直到嘉庆年间才允许百姓垦田种地。不幸的是，木兰围场禁令的解除就是自然生态遭到破坏之时，黄沙慢慢地侵占了这片沃土，新中国建立之初，这里仅存100万亩森林，围场将成为辽阔的沙漠。

20世纪60年代初，林业工人种植了100多万顷人工林，昔日的森林才重新生根、发芽、蔽日。这茫茫林海又成了珍稀野兽的栖息地，鹿、孢子、鹤、鹫等稀有动物重返故土，目前亦有3000多头藏牦牛在当地政府不断帮助之下，适应了新的海拔，生活在这方宁静而美丽的自然保护区，这茫茫林海又重新成为首都涵养水源，防风固沙的北屏障。

水之源

“伊逊”，蒙语“九曲”的意思，也就是弯弯曲曲的小河。它是滦河的分支，辽河和滦河之水流经木兰围场并形成支流，因此，木兰围场被美誉为“水的源头，云的故乡，花的世界，林的海洋，珍禽异兽的天堂”。

如果说，北京的人们面对清风的畅通，面对风沙不再的天空会想到木兰围场，那么饮滦河之水的天津人民则更应该感谢这方土地的人们。

棋盘山

棋盘山是围场十景之一，因其山顶平如棋盘，相传康熙在秋猕时曾在山上和大臣下过棋而得名。棋盘山绵延百里，与塞罕坝相连，清帝令人在山前修建寺庙——大阁。大阁由前后五层大殿和一座三层木阁、两座两层石亭构成。现木阁已经被拆除，大殿年久失修，现仅存比较完整的石亭两幢。如今，这里家家户户养牛，棋盘山镇已成为“中国北方最大的牲畜交易市场”，它是内蒙草原的大牲畜南运的必经之途，也是外地客商北上贩牛的“华北第一集”。

塞罕坝的肥沃土地也吸引了投资者。美国辛普劳公司将这里视为生产供应中国及东南亚地区快餐薯片的最佳选择。这里就是中美合资，年产3亿元的承德辛普劳种薯有限公司的生产基地，这里生产的土豆可以让全国人口每人每年吃上一斤，成为了中国北方最大的种薯基地和美国麦当劳快餐炸薯条的最佳选种。

翠花宫

翠花宫和一个民间传说有关。翠花公主随父皇康熙来围场狩猎，在“门图阿鲁”行宫外的山上，遇到了一只猛虎，翠花公主几射不中，眼看性命难保，蒙古王公之子挺身相救，二人由此产生了爱情。后来翠花公主害相思病死去。康熙遂把“门图阿鲁”行宫命名为“翠花宫”。

围场景点和娱乐

目前木兰围场不仅保留着庙宫、石刻、石碑等几处清代皇帝行围狩猎和北巡围场的文物古迹，亦拥有一点将台、塞罕塔将军、十二座连营等古战遗址和月亮湖、泰丰湖、十里画廊等自然风光。将军泡子是最著名的风景点，“泡子”在蒙古语中意思为湖泊，这里是古战场遗址。因其独特的地理位置，木兰围场是夏季观风景，秋季赏红叶，冬季狩猎滑雪的理想场所，也是骑马、散步、攀登和度假的理想场所。

编译：李国福

隆兴寺

隆兴寺历史

举世闻名的隆兴寺位于石家庄市正定县城内，占地面积为82500平方米，这是一座中国规模较大、年代较早的佛教建筑群，是一座建筑规整、形式多样的寺院。

隆兴寺始建于隋开皇六年（586），据现在寺内保存的龙藏寺碑记载，隆兴寺初创时是募款建成的。当时建在后燕皇帝慕容熙的龙藤苑旧址上，所以当时定名为“龙藏寺”。

到宋代，建筑群逐步建了起来，元、明、清各代对隆兴寺都有增建和修善，康熙和乾隆年间曾两次重修，并在寺院的两侧建起了帝王行宫。康熙四十八年（1709）重修后，改名为“隆兴寺”。隆兴寺主要建筑保留了宋代建筑风格和特点，按照中国传统建筑的规制，使这些建筑自南向北排列在了一条中轴线上。

照壁

这座照壁全称是“二龙戏珠琉璃照壁”，按照中国的传统，在寺院和有身份地位的人家一般都设置可以遮挡大门的照壁。这照壁也是按照传统设置的。这座高大的照壁中心装饰着琉璃砖雕“二龙戏珠”图案，表现了龙腾欲飞的气势。这幅图案雕工精细，设计合理，达到了结构和装饰的完美统一，确是我国劳动人民创造的优秀作品。

北面有石桥分为三路，单孔，它小巧玲珑，同后面的建筑很和谐统一，给人以美感。据传，宋朝皇帝赵匡胤曾多次走过这小桥到隆兴寺游览。

天王殿

天王殿是进深三间，面阔三间的单檐歇山顶北宋建筑，在清朝时有一次大修。上书“天王殿”三个金字和横额上的五个大字“敕建隆兴寺”，这都是清朝康熙皇帝的手书。

天王殿是隆兴寺的山门，门殿合为一体。也许大家会问为什么隆兴寺没有山门呢？通常一般的寺院是有山门的，过了山门才是殿阁，可这座寺院却没有设山门，为什么？传说唐太宗李世民派尉迟敬德监修隆兴寺，工程快要结束时，唐朝武将秦琼犯罪，李世民要斩秦琼，尉迟敬德和秦琼是好朋友，心里很

着急，急忙赶回河南开封。那些修建隆兴寺的工匠们不知道山门建到哪里，赶快去追尉迟敬德，一直追到河南，问他山门修到哪里，心里着急的尉迟敬德，用马鞭一指，不假思索地说就修到这里，结果把山门修到了河南，所以正定民间传说“寺大山门远，山门在河南”。其实历史上尉迟敬德从来也没有来过正定，唐太宗也没有杀过秦琼。天王殿代替山门也不只是隆兴寺一处。

大殿正中这尊佛像是弥勒佛，这是一尊木雕像，属金代作品。根据佛经上讲，弥勒是他的姓，出生于印度婆罗门家庭，是显赫贵族。他手中的布袋叫做乾坤袋，这是一种法器，据说能装下大千世界，又能够送子，真是佛法无边。

弥勒佛

现在我们看到的这尊大腹便便、笑脸相迎的弥勒佛形象是中国化了的弥勒，这种造型传说是按照五代时的僧人契此的形象塑造的。契此是浙江奉化人，他出家后，时常持杖挑一布袋，到处行走，而且语无伦次、随意坐卧、形如疯癫，在后梁时去世。传说他曾念偈语说“弥勒真弥勒，分身千百亿，时时照世人，世人自不识”。当时正掀起弥勒教农民起义，所以他的话很有影响力，人们认为他是弥勒的化身，并且按照他的形象塑造了弥勒。这尊笑容可掬的大肚弥勒佛，受到人们的尊敬和欢迎，有的寺院还在佛的两旁写了对联“大肚能容容天下难容之事，开口便笑笑天下可笑之人”，形象地概括了弥勒佛的性格特点。

四大天王

四大天王分立两侧。这四尊天王像表情刻画细腻，表现了天王力拔山、气盖世的无敌气概。据说四大天王是古印度神话中的四位战神，他们的出现早于佛教的形成，后来佛教产生了，就把他们作为佛教的战神，让他们护卫佛法，分别镇守东、西、南、北四大部洲。

这边的这位身穿白衣甲冑的是多罗陀，叫东方持国天王，他手持法器琵琶，“持国”的意思是慈悲，表示要用音乐来感化众生，使他们皈依佛门。

穿青衣甲冑的叫毗琉璃，手持宝剑，叫做南方增长天王。“增长”意思是让众生增长善根，拿宝剑的意思是保护佛法不受侵犯。

西边的这位叫广目天王，名为毗留博叉，身穿红衣甲冑，手缠一龙，“广目”就是能用净天眼观察世界，护持众生，手缠蛇，也就是龙，有绳索的意思，对不信佛的人用绳绑来让他们皈依佛法。

这绿色塑像叫毗沙门，是北方多闻天王，他右手持宝伞，左手握银鼠，意思是用这两件宝器制伏魔众，他能保护众生财富。“多闻”是指他的福德名闻四方。

四天王在印度时手里拿的是刀、杵、戟、槊，佛教传到中国后，受到传统文化的影响，他们手里的法器也有了变化，变成了这个样子，正好解释为风、调、雨、顺。这符合中国的民俗心理，也容易被人们接受。

大觉六师殿

从天王殿出来，游客看到的这片空地是大觉六师殿遗址。这遗址上原来有规模最大的佛殿，据测量，大殿面阔53米，进深35米，建筑高18.3米，里面有五彩悬山和金身塑像，非常华丽壮观。这座殿的始建年代也是宋朝，到元、明、清时都修缮过，只是到民国时，由于战乱管理不善才倒塌的。

大觉六师殿的“大觉”是什么意思呢？依佛经讲，佛陀是“觉者”，凡能“自觉”、“觉他”、“觉行圆满”的人都能成佛，这叫大觉。那么“六师”指的是什么？小乘佛教认为是释迦牟尼佛之前的六位祖师。

摩尼殿

摩尼殿是我国目前最古老的砖木结构建筑，此殿也是建在了寺院的中轴线上。宋仁宗皇祐四年（1052）开始建造，建筑面宽、进深都是七间，总面积为1400平方米。

大殿结构奇特，殿身中央是重檐歇山顶。仔细观看，这水平柱子两头高中间低，而垂直的柱子下边粗上边细，这样的建筑结构与宋代《营造法式》是相符的，是唐宋时期常见的造殿方式。到明、清时期这种造殿方法失传，这座摩尼殿成了我国古建筑中的孤品。

殿内塑像，佛坛正中是释迦牟尼像，左右两侧是迦叶和阿难。释迦牟尼是佛教创始人，大约生活于公元前565—前485年，与我国孔子是同时代人。

释迦牟尼旁边站着俩胁侍塑像是他的两大弟子，右侧两手抱拳，老成持重的是迦叶；左侧双手合十的是阿难，相传他出家跟随释迦牟尼20多年，记忆力特别强，智力超群，所以称作“多闻第一”，在第一次结集时，由他来复述经藏，背诵佛法，佛经书上第一句话就是“如是我闻”，意思是“这是由阿难亲耳听的佛说后记忆背诵下来的”。当迦叶涅槃后，他继续领导佛众传教，中国称他为“二祖”。

这两尊塑像都是宋代的作品，是极其珍贵的文物。这是文殊菩萨和普贤菩萨，是明代成化年间补塑的。文殊是梵文“文殊利萨”的简称，意思是“妙吉祥”，是大乘佛教的菩萨之一，以智慧第一而闻名，塑像多骑狮子，民间传说她的显圣地在五台山。普贤菩萨以“行愿第一”著称，据说她有延命之德，普贤的坐骑通常是六牙白象，传说她在我国的道场是四川峨眉山。

这些壁画，是明代成化年间绘制的，题材主要是佛教故事，壁画线条流畅，色彩鲜艳，是我国绘画精品。原画面积为528平方米，现存422平方米。这些壁画绘的是佛教“二十四尊天”。这些殿檐墙内壁，画满了佛教故事，叫做《释氏源流画》，上面生动地描绘了佛祖释迦牟尼降生、出家、苦行、成道、涅槃的过程。其中还画了天上、人间、世俗、佛门、宫廷、市井、山林、宫苑等各阶层人物。这些壁画色泽鲜艳，布局合理，体现了明代画工的精湛技艺。

在摩尼殿中，还有隆兴寺的艺术瑰宝——五彩悬塑。这是一座玲珑典雅的悬山，峰峦千重，祥云缭绕，内容极其丰富：有罗汉护法、天神巡山，那是喷水兽和吸水兽，可使海水源源不断而来，象征佛教后继有人。

观世音菩萨

正中塑像是观世音菩萨，高3.4米，她头戴宝冠，项饰璎珞，披巾从肩上垂下，绕两臂向下飘起；头微右侧，身略前倾，左脚踏一枝莲花，表示出污泥而不染；右腿屈起，表示吉祥如意；双手抱膝，右手搭于左腕上；双眼智慧有神，可以洞察一切；整体形象给人一种闲适自若，端庄恬静的感觉。她两眼俯视能同你有感情交流，使人觉得她美丽不俗，表现了温馨亲切的人性精神。根据寺内碑文记载，这悬山塑像在明代嘉靖年间重塑，艺术价值极高。鲁迅先生非常欣赏这一艺术珍品，视为佛教美学佳作，把它的照片陈放在自己的书案上。

戒坛

戒坛是一个平面为正方形的四角攒尖式建筑，建于清朝乾隆年间（1736~1795年），是僧徒受佛教戒律的坛场。这个戒坛是北方三大受戒地方之一，即北京的雍和宫、山西五台山的清凉寺和正定隆兴寺。只有这三地才有权行戒，有的还要举行“烧枷”仪式，表示受戒僧“愿以肉身作香，点燃敬佛”，说明受戒者虔诚。

戒坛里供奉的是明弘治六年（1493）铸造的双面铜佛，像身相连，相背而坐，两侧是西方极乐教主阿弥陀佛和东方净琉璃世界教主药师佛。这三佛构成了空间上的“横三世佛”，他们代表了中、东、西三方不同世界的佛，其中阿弥陀佛在中国的影响较大，“弥陀”的意思是“无量光”、“无量寿”，说他能接引念佛人往西方极乐净土，所以也叫他“接引佛”。世人只要念阿弥陀佛的名号，就会修成正果，到西方极乐世界。东方药师佛可以医治疾病痛苦，为众生消灾延寿。

这是中国最古老、最大的转轮藏。这座建筑平面为正方形，面阔三间，进深三间，是单檐歇山顶二层楼阁。这座殿阁建于北宋，同山西的晋祠大殿十分相似，属宋代建筑风格。1956年国家拨款进行了复原性重修。

大殿里安放着直径7米的八角形木制转轮藏，它是干什么用的呢？这是和尚们作法事推的法轮，“轮”是古印度的一种兵器，形状像轮，在当时是很有威力的兵器，后来把它象征为权力。佛教中的法轮，比喻佛法；转，比喻宣法，弘扬法；因此僧人在念经时一边念诵、一边转轮，表示法轮常转，自强不息。佛经说“手转宝轮，空中无碍；佛转法轮，一切世间、天上及人中无碍无遮”，轮的法力无边，可以去除邪恶、灾害。

这个木制的转轮藏，中间有一个立轴，四周力量十分均衡，因此看起来笨重，实际转起来很灵活。这是经棚，是放佛经的地方，棚上作重檐状，下檐为八角，上檐圆形。这座转轮藏，设计精巧，是我国目前最大的较有研究价值的藏经棚。

慈氏阁

在我们面前矗立的这座建筑就是慈氏阁了。慈氏是弥勒的意译，所以弥勒也叫慈氏。慈氏阁建于北

宋，从外面看同转轮阁相似，均为单檐歇山顶建筑。

梁架结构采用减柱造法，给人以简洁明朗的感觉。檐柱用永定柱造法，就是后边的两根大柱支撑顶部重力，前边的两根低柱支撑二层阁楼的重力，这样就减轻了主柱的承受力。这种建阁方法，在我国现存宋代建筑中仅有一例。

殿内佛像是弥勒佛像，通高7.4米，是用独木雕刻而成，据传木料来自山西五台山原始古木，叫做“灵验树”。民间传说建造慈氏阁和宋太祖有关，当年赵匡胤围攻太原久攻不下，因此先驻兵正定。得知西城有一个大悲寺，就去拜佛，目的是鼓舞士气，当他来到寺里一看，却是破烂不堪，也没有想象的那么大，铜佛也只有五六尺高，而且早年还被契丹人烧毁了上身，到周世宗时，又把下半身铸了铜钱。寺院的僧人听说赵匡胤要来访，也想利用这次机会振兴一下寺院，就在佛的莲花座下刻写了八个字，“遇显则毁，遇宋则兴”，显是指周世宗的年号显德，宋就是赵匡胤了。宋太祖看了后十分高兴，认为有了佛的保佑，他的事业一定会成功的，于是答应，等胜利以后一定帮助建设寺院，“借一还十，加倍偿还”。后来赵匡胤果然打了胜仗，并且做了皇帝，为了还愿，准备兴修隆兴寺。这一年正巧滹沱河发大水，从五台山冲下许多树木，其中最大的一棵冲到正定城南，宋太祖认为是文殊菩萨帮助他建大佛寺来了，于是就下决心，修建隆兴寺了。

康熙御碑亭

在隆兴寺内，康熙御亭碑的建筑风格与其他建筑不同，这个亭的顶上的瓦是黄色的，这就是帝王特有的标志了。碑亭是清代的建筑，平面呈正方形，亭顶为重檐歇山顶。亭内的这通石碑是康熙五十二年（1713）所立，叫御制隆兴寺碑，西边的那一座是乾隆四十五年（1780）立的，叫做重修正定隆兴寺碑，碑文是乾隆手书。碑下像乌龟一样的神物叫赑屃，传说是龙王的九太子。他力大无穷，能驮重物。

龙藏寺碑

现在大家看到的石碑是隋代龙藏寺碑。这碑是隋开皇六年（586）刻立的，碑首为半圆形，上面刻的六条盘龙交织在一起，碑高1.64米，正面阴刻楷书1447字。上面记述了隋朝恒州刺史王孝儒“奉敕劝奖州内士庶壹万人等”修建龙藏寺的情况。碑背面左侧刻有恒州各县官名和僧名。这块石碑是中国名碑，它是隋朝保留下来仅有的三块最完整的石碑，所以称为“隋碑第一”。

碑文书法很有艺术价值，它书体方正，结构严谨，朴拙不失清秀，庄重而不呆板，字体是由隶书向楷书过渡的典范。1986年中国著名书法家、佛教协会会长赵朴初看后说，这是东南亚“不可多得的瑰宝”，可惜这碑是谁写的至今不知。

对面的这座高大建筑是隆兴寺的主体建筑大悲阁。大悲阁从外观上看属五檐三层建筑，通高33米，它位于中轴线的后半部。据记载阁殿始建于宋开宝年间（968-976），原来与东西两侧的御书楼和集庆阁相连，并与前面东西对峙的转轮阁和慈氏阁互相映衬，形成一座宏伟的建筑群。1944年重修时，把两侧阁楼拆除，使大悲阁的面积缩小了三分之一。

大悲阁

这阁为什么叫大悲阁呢？这是由于阁内供奉观音菩萨而得名，她的梵文名字全称是“大慈大悲救苦救难观世音菩萨”，“观音”是她的汉语名字。她被认为是慈悲的化身，按佛经讲，给予众生欢乐为“慈”，怜悯众生为“悲”，就是说大慈与一切众生乐，大悲可拔除一切众生苦。这就是大乘佛教同小乘佛教中的主要不同点，普度众生是大乘佛教的主要理论。

千手千眼观音

石质须弥座上矗立着的这尊铜铸大菩萨，就是大悲菩萨，也叫千手千眼观音，铸像高 21.3 米，共有 42 臂，这尊大菩萨被誉为是“河北四宝”之一，是我国年代最早、最高的铜铸菩萨，她比西藏日喀则扎什布伦布寺的世界第一高大铜佛——如来佛仅少 40 厘米，可是在铸造年代上却早了几百年。这尊菩萨是奉宋太祖赵匡胤敕令铸造的。殿里的观音因为高大，游客必须把头仰得很高才能看到她的容颜，确实给人一种庄严肃穆的感觉。大悲菩萨身躯高大、比例适度、宽额大耳，十分慈祥。她共有 42 臂，其中两手当胸合十，其余各手分别执日、月、净瓶、宝镜、宝剑、金刚杵等法器。这些宝器表示菩萨的功德和解救一切苦难众生的威力。

大家可能不明白，这尊菩萨只有 42 臂怎么会叫做千手千眼菩萨呢？这尊观音除中间的合十两手外，左右各有 20 只手，手中各有一眼，成为 40 手 40 眼，每一眼和手各配“25 有”，25 有是什么？就是佛教三界的四州、四恶趣、六天欲等有情存在的环境。二十五有乘四十就有了千手千眼。千手观音的每一手都有专门的法力，比如手下伸掌向上，施无畏手，表示救一切众生时无畏；持锡杖手，是维护一切众生；拿盾牌的手，能避一切恶兽；握宝剑的手，降伏一切鬼神；合掌手，令一切众生敬爱；托宝钵的手，让身体安稳；金刚轮手，表示追求成佛，决不后退，等等。

那么有的朋友会问，千手千眼佛是如何形成的呢？关于这一问题民间有传说：传说是妙庄王的女儿妙善出家来到正定百草寺，妙庄王不同意她出家，知道后十分生气，就派人一把火烧了百草寺，就在火烧之际，突然从火中跃出猛虎把妙善驮到了井陘苍岩山寺院。妙善得救了，可百草寺的僧人死了不少，他们就去阴间告状，阎王就动用刑罚来折磨妙庄王，使妙庄王身体溃烂，久治不好。妙庄王请了医生，医生说，只有用亲生女儿献出的手和眼作药引子才能治好，妙庄王就让大女儿、二女儿献，她们不肯，最后只有三女儿妙善献了出来。妙庄王问三女儿有什么要求，妙善说，普度众生是佛门根本，我只要求父王理好政，救庶民，还我的全手全眼就行了。糊涂的庄王听错了女儿的要求，记成了千手千眼，所以妙善最后修成了千手千眼菩萨。

观音头上的两手还捧有一尊小佛，这小佛是谁呢？据说那是观音的师傅“无量光佛”，意思是佛总是在她之上，观音曾发誓，众生普度不完，自己就永不成佛。

如此巨大的铜佛是如何铸成的呢？关于大菩萨的铸造，我们是有据可查的，隆兴寺保存了宋代景祐年间的石碑，在碑中有详细记载。它的铸造工序相当复杂，这里就不详细介绍了，大致是先铸好基

础，然后分七节铸造，第一节铸下部莲花座；第二节铸到膝盖；第三节铸到脐部；第四节铸到胸部；第五节铸到腋下；第六节到肩部；第七节铸头部；最后铸42臂。现在大家看到的左右40臂是木制的，为什么不是铜铸的呢？有人推测，可能当时铸好后发现，上部太重佛像站不稳，为了保护大佛就换成了木手臂了，这种推测，倒也合情合理。

这须弥座上的精美浮雕，也是宋代工匠的作品，上面雕刻了雄壮的力士，赤膊袒胸、肌肉突出、双目圆睁，看起来威风凛凛；再看那些空中的飞天，身绕飘带，身体轻盈，潇洒自如；那些乐伎手执琵琶、箜篌、笙、笛等乐器正在合奏。这些人物刻画表情细腻，布局合理，的确是我国研究隋唐文化的珍贵史料，也是难得的艺术珍品。

弥陀殿

弥陀殿始建于明正德五年（1510），这座大殿的建筑特点与宋代建筑不同，它是宋代到清代建筑转换过程中的中间环节，既有宋代建筑高大疏朗，不重彩绘的特点，也有清代色彩华丽、小巧玲珑的风格。

阿弥陀佛

进殿首先看到的是五彩泥塑大佛，这是西方极乐世界的教主阿弥陀佛。前边我们讲过阿弥陀佛就是竖三世佛中的“未来佛”。佛经上讲，阿弥陀佛曾发过誓：“只要有人念我十声名号，我就要接他来极乐世界的”。所以许多信佛的人都念“阿弥陀佛”，意思是说，我拜阿弥陀佛为师，处处学习阿弥陀佛的样子，求他度我们。请大家看佛下边坐的莲花座，这莲花座有一千个莲瓣，它象征着西方极乐世界，表示大千世界有人来统治，意喻佛法高于一切。据说每个念佛的人能使莲花增长，每念一句，莲花根就多长一条，念得越多工夫越深，那莲花就长得越鲜艳。这样日积月累，功德圆满了，那观音菩萨、大势至菩萨就来接人了。

在这座殿里原来塑有十八罗汉，由于战乱而毁坏，现在不存。请大家欣赏这方刻石，也许会给你增添一些雅兴。这“契矩”两字相传是隋代书法家智永禅师所书。智永和尚，俗姓王，是东晋大书法家王羲之的七世孙，曾在浙江绍兴永欣寺修行，他精于书法，行草兼备，笔法刚劲有力，名誉大江南北。由于找他题字的人很多，把门槛都踢破了，后来他在自家的门槛上包上了铁皮，所以他得了个雅号叫“铁门槛”。

韦驮菩萨

在北墙矗立着一尊韦驮菩萨铜像，高一米，他是寺庙的护法神，佛经上讲，他是佛教天神，以善走如飞而著名。佛主涅槃后，有“邪魔”把释迦牟尼的舍利偷走了，韦驮知道后，奋起直追，夺回了佛骨舍利，驱除了邪魔保护了佛法。请看，他年轻英俊，威风凛凛，身着盔甲，手持金刚杵，表明他有护佛

法的赤胆忠心。不知大家注意到没有韦驮手里金刚杵的拿法，这决定寺院是否接待外来僧人，如果金刚杵横在手臂上，说明本寺院愿意接待客人；如果金刚杵是垂直向下，表明不接待来客，隆兴寺这里是否接待来客，大家一看就明白了。

毗卢殿

毗卢殿位于隆兴寺的北端，此殿原来不是本寺院的，它是1959年从正定北门崇因寺迁来的。在唐代崇因寺是个小寺庙，到明万历年间，无疑法师做住持，四处化缘，改变了小寺的面貌，修起了无梁殿和毗卢殿。无梁殿，顾名思义就是所盖的大殿无梁，目的是为讨皇帝封“无梁”（没有粮食的意思）而免税。

相传明万历皇帝确实到过毗卢寺礼佛，并且真的免了小寺的税。请看这是一座重檐歇山顶建筑，平面近于正方形，始建于明万历年间。毗卢梵文全称“毗卢遮那”，意为“光明普照”、“遍照一切处”。有的称“大日如来”。其实他也是释迦牟尼的另一尊号。

这尊佛像是铜铸的，高6.27米。从铸造水平来看，铜佛是不可多得的艺术精品，塑像比例合适，设计精巧，造型独特，是目前我国少有的宝佛。大家请看佛像自下向上逐渐收小，好像一座宝塔，整体分三层而铸，三层共计有一千个莲瓣，象征大千世界，每个莲花瓣上有一个小佛，但是每个小佛面目都不相同，这个莲佛座，象征大千世界都由佛来统治。所以这样的造型叫做“千佛绕毗卢”。

除了这三层小佛外，每层又有四面大佛，共三层，每尊佛又各戴“五佛冠”，这样在佛墩上共有1072尊佛像。四面表示佛力可达四面八方；五佛冠，象征权力，是佛教授予的最高职位的标志。毗卢佛手作“智拳印”，表明他是掌印佛。刚才讲到佛墩是明代的艺术精品，内容极其丰富，到底是谁设计的？据传这佛是无疑法师精心设计的，他为了铸好佛像，先后跑了许多名寺经过十八年的潜心学习，十五年呕心沥血的辛劳才设计成了这尊千佛。

琉璃井

关于这八角琉璃井也有一段传说：在隋开皇年间，恒州刺史鄂国公王孝儒建议在这里建寺，得到批准后，发愁没有木料，正没办法时，从远方来了一位和尚，说这井里有木料。王刺史急忙赶到琉璃井旁一看，果然里面有木料，立即派人来打捞，从井里拽上一根来，里面就又有了一根，这样一连捞了98417根木料，王刺史一看，已经堆了好大一堆了，高兴地自言自语说：“够了！”

刚说完话，井里的最后一根木料就再也拽不上来了。传说隆兴寺所用的木头都是五台山普贤菩萨有意帮助的。后来人们分析这个传说，里面也包含着真实情况，实际上隆兴寺的木料主要是从山西五台山砍伐的，通过滹沱河水运输下来，木料自然是从小水里捞上来的，从井里捞木头是不可能的。

编译：李国福

北戴河

北戴河

北戴河海滨在河北省秦皇岛市的西部。这里气候宜人,10公里长、曲折平坦的沙质海滩,沙软潮平,背靠树木葱郁的联峰山,自然环境优美。是我国北方一处理想的避暑胜地。

北戴河海滨避暑区,西起戴河口,东至鹰角亭,东西长约20公里,南北宽约3公里。最近一两年,有从鹰角亭往东北延伸之势。同时,在北戴河西南10多公里的昌黎,有一段美丽的海滩,从1985年起辟为海滨浴场,并计划建为新的海滨避暑区。这样,以北戴河为中心的海滨避暑疗养区将不断扩大范围。北戴河海滩沙质比较好,坡度也比较平缓,是一个优良的天然海水浴场。清光绪年间,有些住在北京的外国人发现了这处避暑胜地,要求在这里建造别墅。清光绪二十四年(1898),清政府正式将北戴河海滨开辟为“各国人士避暑地”,于是帝国主义分子、外籍人士、军阀、官僚、资本家纷纷到这里建筑别墅。到1938年,这里已有别墅700多栋,并建有饭店、酒吧、跳舞厅等娱乐设施,成了一个带有殖民地色彩的避暑佳地。解放后,北戴河又新建了不少休养所、疗养院、饭店、宾馆,规模比过去更大了,成了我国规模较大、设施比较齐全的海滨避暑胜地。现在每年暑假都要接待上百万前来旅游、度假的群众。

北戴河周围的环境也很美。海滩背靠联峰山。联峰山分东西两峰,相距约1.5公里,山上山下松柏成林,郁郁葱葱。东联峰山海拔130米,从山间小路上缓行,约半小时可以到达山顶上的望海亭。在这里俯瞰海滨,翠绿欲滴的丛林,鹅黄色绒毯般的沙滩,碧蓝的大海,使人心旷神怡。北戴河是神州九大观日处之一。北戴河观日处位于北戴河海滨,东北端的鹰角亭为最佳地点。日出时,万籁俱寂,天水相连,色彩变幻;红日涌出时刻,水上水下红日相接,瞬间跃出水面,霞光、阳光洒满山峦沙滩,犹如覆盖上了一层金色的纱幕。倘若随火车行驶观看,则另有一番情趣。

联峰山

在东联峰山山麓,有一座莲花石,园中有大片松林,并有形如莲花的山石,故名莲花石公园。在莲花石公园北面有古雅幽静的观音寺,其东面有墓地建筑富丽豪华的朱家坟。在海滨路旁还有高尔基公园、鲁迅公园。在东头的鹰角石是北戴河一大胜景。这是一座屹立于海边的孤峰,石骨嶙峋,陡峭如削,形如鹰立,故名鹰角石。过去,曾有成群野鸽栖息在石缝之内,故又名鸽子窝。在山峰上建有鹰角亭,登临其上,望沧海,碧波万顷,白浪滔滔,更觉气势磅礴。

鹰角石

东边的鹰角石是北戴河非常著名的景点。这些巨石伸入海中，非常像只展翅欲飞的雄鹰，所以人们又叫它鹰角石。过去成群的鸽子栖息在石缝里，所以这里也叫鸽子窝公园。鹰角石是最佳观日出处。每到旅游旺季，清晨四五点钟，这里便站满了看日出的人们。海上日出是相当漂亮、壮观的，当一轮新日从海面喷薄而出，给世界披上彩妆时，观者的心情也随之变得万分激动，新生的太阳总是带给人们新的希望。

鸽子窝大潮坪

公园北侧就是著名的鸽子窝大潮坪，一天一次的涨潮、落潮是这里千百年来不变的风光。同时这里也是国家保护湿地，贝类、鱼、虾、螃蟹等海洋生物极为丰富，这也为鸟类提供了丰富的食物。

燕山

秦皇岛北侧有燕山，东南侧是渤海，山和海尤其利于鸟儿辨识方向，以上几点原因就使这里成为鸟类迁徙的中途栖息地。每年春秋季节，国内外许多鸟类专家和鸟类爱好者都来这里观鸟，北戴河也有了“世界观鸟的麦加”之美誉。

毛泽东观海塑像

毛主席观海塑像是1992年为纪念毛主席诞辰一百周年而敬立的。如果一个地方只有风景，没有文化，那么这个地方未免显得有些单薄，而鸽子窝公园却注定和两首诗结缘，这就是公园的亮点之三。这第一首诗呢，便是毛主席的《浪淘沙·北戴河》。毛主席是在1954年4月第一次来到了北戴河，也是他一生中第一次真正见到大海，在7月份的时候主席第二次来北戴河，在这一年的8月份某一天，秦皇岛一带天降大雨，主席触景生情，挥笔写下了著名的诗词《浪淘沙·北戴河》，这也是主席送给我们北戴河人民的一份厚礼，因为它使北戴河再次扬名。诗词就镌刻在另一侧的大理石上，让我们一起过去看一看。另一首是魏武帝曹操看到茫茫大海写下的流传千古的四言古诗《观沧海》。

望海长廊

在望海长廊里你可以观赏到北戴河的全景。长廊内彩绘了北戴河二十四景、民间故事传说以及花鸟虫鱼等传统壁画。方毅副总理为望海长廊题写了牌匾。如果天气不错，还可以看见巍巍燕山支脉。长廊

尽头是浴日亭。长廊右侧建有书阁、碑廊和碑亭，里面抄录了历朝历代描绘、咏颂秦皇岛的诗句。

公园的西侧建有一个人工湖，是1985年修建拦海堤坝时形成的。人工湖被一个小岛分成了两部分，于是湖和岛都有个非常浪漫的名字：鸳鸯湖，情人岛。

鸽子窝公园

夜晚来鸽子窝公园，和亲朋好友来看水幕电影更是一件浪漫的事情。鸽子窝的水幕电影就设立在鸳鸯湖中，高压水泵和特制的水幕发生器将水自下而上高速喷出，雾化成透明的水膜，也就是电影的“银幕”。水幕电影独有的立体感、虚无缥缈变幻，外置音响震撼湖水的环绕声，一定会带给您全新的视听感受。

鸽子窝公园还是我国爱国主义教育基地。1998年，《中日友好条约》缔结二十周年之际，日本株式会社和中国浅野水泥有限公司为鸽子窝公园送来了六百株樱花，公园也立碑一块，以示纪念。愿鸳鸯碧湖畔的樱花开得绚丽多姿，也愿中日两个隔水相望的国家永远和睦，友爱相处。

编译：李国福

涿鹿三祖文化

涿鹿

涿鹿三祖文化旅游区是中华民族和中华文明的发源地。三祖圣地涿鹿以文化三祖炎帝、黄帝、蚩尤而闻名于世。有句话说得好，要了解中国一百年的历史请到上海；要了解中国五百年的历史，请到北京；要了解中国两千年的历史，请到西安；要了解中国五千年的历史，请到我们古都涿鹿来。这里是炎黄子孙瞻仰伟大先祖神灵的圣地，是寻觅中华五千年文明渊源的本根。

中华三祖堂

涿鹿是炎黄子孙的故乡。在五千年前，这里是中国的政治、军事、文化的中心。在当时，最大的部落领袖都居住在这里，在这里劳作，在这里创造，在这里埋葬。三祖堂是新加坡著名华裔学者周疑南1994年捐资一百万修建的，1998年建成。每年数万来自港台的同胞到这里寻根问祖，表达他们对始祖的无限尊崇，对故园的无限眷恋。

三祖堂坐落于黄帝城之东，占地3.5平方公里，建筑雄伟壮观古朴，具有鲜明的唐代风格，整个大殿不用一钉，全部由榫卯咬合，既古朴又精巧。大殿正门的巨匾上书“中华三祖堂”五个镏金大字。

黄帝

大殿内三尊始祖塑像仪态威严，神情端庄。大殿正中为轩辕黄帝塑像。传说中，黄帝是中华民族的共同祖先，相传黄帝是少典的儿子，由于他拥有黄色大地的美德而得名。因为他居住在姬水之滨，因此黄帝为姬姓。黄帝部落首先发明了战车，这种车有轩（即车围子）有辕，所以黄帝又称为轩辕氏。据记载，公元前2697年~公元前2599年他生活在黄河流域，是部落联盟首领，通过一系列战争武力征服了其他的北方部落，建立了中国最早的国家。

作为一个伟大的发明者，他做出了许多有益的改革与创造，因此世人称他为人类文明祖先。据称，黄帝发明了历法、文字、兵法、养蚕、建筑、造船、造战车、机器以及农业。最后被奉为中华民族的始祖，所有华人都自称炎黄子孙。黄帝不仅仅被视为国家的创始人，还被尊为中华文明、民族血脉的始祖。

炎 帝

炎帝，中华民族的另一个始祖，他的塑像位于大殿的东面。传说中，在中华民族的发展历史上，炎帝取得了许多非凡的成就。据说炎帝的母亲任姒在前往华山的途中见神龙而孕，返回的路上生下炎帝。因为炎帝在姜水边长大，因此他和他的部落以姜为姓。炎帝重视农业发展，亲自发明了耒、耜等农具，教民耕作，被人们尊称为神农氏。相传他曾亲口品尝百草的性味，以辨明它们的功效，发明治疗伤病的草药，为人类献身。炎帝不仅仅被奉为农神，太阳神，还和黄帝一起被尊为华夏祖先。

蚩 尤

大殿西侧的塑像为中华民族另一始祖蚩尤。蚩尤为当时一个强悍部落九黎族的首领。据说他们发现了铜矿，会制造刀戟弓弩。蚩尤勇猛非凡，每当交战，总是身披斑斓虎皮，头戴双角铜盔，手执铜刀，冲锋陷阵。蚩尤作战英勇，被尊奉为我国古代的战神。

部落历史

中华三祖堂内的墙壁上，绘有史籍所载重大事件的壁画长卷，主要有“涿鹿之战”、“阪泉之战”、“部落联盟”、“播种五谷”、“发明医药”等故事，总计长达80多米。这些壁画生动形象地表现了黄帝、炎帝、蚩尤在涿鹿大地共同生息战斗的情景。黄帝部落原居住于中国西北，因黄河泛滥，黄帝就带领部众逐渐东迁，来到涿鹿一带定居下来。炎帝部落也相继东迁。炎帝部落沿着渭水而下，到达黄河一带。蚩尤部落，即九黎，居住在中国东部，即现在的山东省、河南省境内。在几个部落常年的交流中，发生了几次大规模的战争。

炎帝部落沿着渭水而下，顺黄河南岸向东行进，到达今山东一带，这样就与蚩尤部落发生了冲突。炎帝抵挡不住，逃到涿鹿来求黄帝帮助。黄帝接受了炎帝的请求，联合其他部落，在涿鹿之野与蚩尤展开了一场旷日持久的大战，最后蚩尤战败，被黄帝部落杀死。这场战争史称“涿鹿之战”。战后，黄帝设法安抚蚩尤部落，蚩尤旧部听说蚩尤被杀的消息，也加入了黄帝部落，尊黄帝为帝，从此，黄帝在涿鹿建都。

壁画中的阪泉之战，描述的是涿鹿之战前为了争夺霸权，炎帝部落向黄帝部落发动了一场大规模战争。战争地点在阪泉，因此称为“阪泉之战”。最终，炎帝战败，归服于黄帝部落。后来，他们的子孙从河北向南迁徙到黄河流域，定居在中原。经过长期的交流融合，成为中原的早期居民，从而有了华夏民族的悠久历史。

黄帝城

黄帝城是华夏的第一座城池，长方形，但并不够规整，南墙长510米，比北墙长30米，东墙长500

米，比西墙多 50 米。虽经过五千年的风雨，黄泥城墙还完整地环绕着，只有东城墙豁了个缺口。黄帝城面积约 20 公顷。城内按八卦阵法建街巷，内四阵名“龙虎鸟蛇”，外四阵名“天地风云”。当年传说城内原有 300 户人家，到了清道光年间还有四户，十几间房屋。5000 年前，我们的祖先在这里垒土建城，在这片土地上种植庄稼，在这座城中他们创造文字、建舟造船、发明乐器、喂养桑蚕。这里曾是中华文明的源头，如今只剩下先人的遗迹。

在这座古老的城池中，曾出土过许多文物。1957 年第一次出土一批石刀、石斧、陶盆等生活用具。1987 年，村民又挖出过两把青铜剑和两把青铜戈，两方青铜石屯，数枚石棋子。还挖出过一具陶棺。

黄帝泉

黄帝泉，又称“濯龙池”、“阪泉”、“黑龙池”。传说泉水是轩辕黄帝的宝马刨出来的，黄帝去世后，该马回到泉中，并经常在泉中显灵。黄帝泉水温常年保持在 12℃~13.4℃ 之间，终年不结冰。泉水晶莹清澈，含对身体有益的锶质、重碳酸、钙镁。

黄帝陵

距黄帝城 20 公里桥山顶的黄帝陵是埋葬轩辕黄帝肉身的地方，是人们最早祭祀轩辕黄帝的地方。山上除轩辕黄帝冢，还有黄帝祠和帝尧、帝舜庙。当地史志记载，公元 1333 年间发生了一次大地震，古祠庙毁损无存，只留下一片废墟。人称“大祀”或“祀上”。据史书记载，五个朝代七个皇帝曾十多次登桥山祭黄帝陵。

时代变迁，但是先祖的遗存深深植入这方土中，炎帝、黄帝、蚩尤三位始祖的伟业光耀千秋。

编译：李国福

武强年画博物馆

各位朋友：大家好，欢迎您前来参观武强年画博物馆。

武强年画博物馆是国家 2A 级景点，是 1985 年建立的全国第一家以年画为题材的专业博物馆。它坐落在华北平原沧石路畔的武强县城，馆舍古朴典雅，富有传统民族特色，既展现年画之乡的特征，又是展示、研究传统艺术和民俗文化的艺术殿堂。是河北省命名的青少年爱国主义教育基地。1993 年被文化部命名为“中国木版年画之乡”。“中国民间木版年画出版研究会”会址就设在这里。

武强年画博物馆是目前我国年画专业规模最大、藏品最丰富，而且陈列形式最受欢迎的博物馆。占地总面积 25100 平方米，陈列面积 3500 平方米，共有 8 个展厅，还有传统工艺复原展示车间和民间工艺品服务部。馆藏自明清以来历代年画精品 3738 件。陈列分五部分，下面请随我观看：

这里是第一部分，主要讲述的是武强年画的历史源流与产生的环境。在这里您会了解到，为什么在贫瘠的武强会诞生这种高雅艺术的答案。

第二部分是历史上武强年画的辉煌成就；在这里您会看到“年画”的博大精深，从图中解读“东方圣经”的深刻内涵。

第三部分是具有革命传统的近、现代年画。在这里您可以看到身居偏远农村的艺人们，是怎样用年画这种形式，去表现他们对美好生活的追求和向往，展示他们对国家命运的关心及对丑恶现象的鞭笞。

第四部分是改革开放以来武强年画业发展新格局。在这里您可以看到，武强年画与其他艺术形式一样，是怎样与时代的脉搏相吻合，与时代的发展共命运的。

第五部分是异彩纷呈的各地民间年画，在这里展示了全国各地的年画以及世界上一些国家和地区的年画。从这里您可以更深切了解武强年画在民间艺术中的地位和画风。

陈列充分运用馆藏的优势，集知识性、思想性、参与性和趣味性于一身，受到了社会各界的好评。

作为中国四大年画之一的武强年画，是我国宝贵的文化遗产，爱国主义思想内涵极其丰富——其中反帝反封建、抗战救国、翻身解放、建立政权等爱国主义题材的作品，是其他年画产地所不能企及的特殊优势。这些丰富、翔实艺术品，系统、生动、形象、直观地再现了中华民族一百多年来自强不息、不屈不挠、御辱图强的爱国激情和革命斗争史。尤其是抗日战争、解放战争期间，武强艺人同华北联大的革命师生、版画家们，如江丰、古元、吴劳、莫朴、彦涵、冯真等相结合，在辛集创建了“冀中年画研究社”，创作了大量的反映现实生活和战争场面的富有时代气息和战斗性的新年画，有力地配合了当时的革命战争和政治斗争，被周扬誉为“美术运动史上的创举”。

这些珍贵的民间艺术瑰宝，不仅为促进国内外文化交流发挥了积极作用，更是广大青少年了解历史、认识今天、激发爱国热情、培育发奋图强精神的生动教材。

建馆以来，年画艺人们在弘扬民族文化，促进两个文明建设方面做出了突出贡献。几年来，先后接待日、美、加、法、英、德及东南亚四十多个国家的专家学者和国内外观众 38 万余人次，有 60 多家报刊和电视台对它进行了报道。每年到此参观的游客，络绎不绝，把小小的武强县城变得车水马龙，热闹非凡。

1994 年 27 个国家的 36 名大使馆官员专程来馆参观考察。1995 年应邀进故宫进行展出，老将军李德生出席开幕式并剪彩。1997 年赴日本参加民间艺术研讨会并举办展览，2002 年 1 月~3 月赴西班牙、新加坡、中国台湾展览。日本出版的《中国博物馆》特辑一书，介绍了中国 56 家博物馆，年画专业仅武强年画博物馆一家人围。很多专家学者看到了陈列后感慨地说“到武强年画博物馆参观，不亚于去敦煌朝圣”。一些西方学者参观后把武强年画比作“东方圣经图解”。曾五次来馆参观考察的日本民间艺术家三山陵女士评价说：“武强年画是中国年俗、民俗文化的代表，是中国传统文化瑰宝，也是世界宝贵的文化遗产。”

博物馆重视民间藏品的收集整理，几年来，他们从民间和国内外收集年画古板近千件。2003 年 10 月，他们又在该县旧城村成功抢救了 155 块画板，进一步丰富了年画的馆藏。武强县被文化部列为首批全国文化遗产抢救试点单位。

热爱年画的朋友，走出博物馆展示大厅，如果您还感到意犹未尽，那么，请往右转，大院西边那几间平房是传统工艺复原展示车间和民间工艺品服务部，当地的年画艺人正在按传统工艺进行年画制作。你可以亲自动手操练，也可以选几张喜欢的年画带回家，一来作个纪念，二来也好抽空细细品味武强年画艺术的无穷魅力。

编译：李国福

衡水三绝

各位游客，你知道“衡水三绝”是什么吗？20世纪90年代初，中宣部与河北省委宣传部以“衡水三绝”为题将“内画鼻烟壶”、“侯店毛笔”和“徐氏宫廷金鱼”拍成对外宣传片，在海外广为传播，从此“衡水三绝”就成为“内画鼻烟壶”、“侯店毛笔”和“徐氏宫廷金鱼”的代称。下面，我们就分别到衡水中国内画艺术之乡展览馆、衡水侯店毛笔厂和衡水来顺宫廷金鱼养殖场去亲眼看一看这“衡水三绝”到底有多“绝”。

中国内画艺术之乡展览馆

各位朋友：现在我们参观的就是衡水中国内画艺术之乡展览馆。

现在，除了上年岁的人以外，恐怕知道鼻烟和鼻烟壶功能的人已经为数不多了。鼻烟是以高级富含油分且香味较好的晒烟叶，加入必要的名贵药材，磨成粉末，装入密封的容器，经过一定时间的陈化后，用手指粘上烟末，通过鼻孔轻轻吸入体内的烟草制品。鼻烟具有提神、通窍的功效。鼻烟壶就是用来盛鼻烟的容器。最初流行于我国古代的满、蒙、藏等游牧民族，因身份和财富的不同，其材质分为银、铜、瓷质几种。明朝以后，随着鼻烟传入内地，鼻烟壶品种逐渐增多。到清朝乾隆年间，已经出现了玉石、翡翠、水晶、宝石、玛瑙、玳瑁等多种材质和雕花、内画等多种装潢形式的鼻烟壶。内画鼻烟壶由于其造型别致，受到各个阶层烟民的青睐。清朝嘉庆年间之后，内画艺术发展迅速，逐渐形成了颇具影响和各具风格的内画艺术代表人物，他们中有咸丰时期的周乐园，清末民初的叶仲三，民国时期的马少宣等。

内画鼻烟壶选用玛瑙、水晶、琥珀等材质。艺人们根据壶的形状，用特制的弯笔，凭借自己的想象和技巧，绘制出栩栩如生、巧夺天工的花鸟鱼虫、人物肖像和气势磅礴的山水风景。后来，随着卷烟的传入，鼻烟逐渐衰落，鼻烟壶的艺术价值凸显出来，远远超出了它的使用价值，越来越成为人们收藏和馈赠的珍品。

如今，中国的内画界分为四大派系，即京派、冀派、鲁派和粤派。四大派系中，数冀派发展迅速，成果最为显著。目前，衡水内画界拥有国家工艺美术大师2名（含联合国科教文卫组织授予的工艺美术大师1名），省级工艺美术家12名，内画精品年产量2000余件，畅销美国、英国、法国、丹麦、瑞士、伊拉克、我国香港等几十个国家和地区，在国际市场享有盛誉。一般画品多达数十万件。

衡水的内画鼻烟壶之所以出名，源自冀派内画创始人、全国工艺美术大师王习三。他早年拜师著名艺人叶仲三的三子叶晓峰和四子叶奉祺，在北京工艺美术研究所学习内画艺术。由于他天资聪慧，又勤奋好

学，内画技艺提高很快。1958年王习三参加了北京市工艺品展览会的汇报表演，朱德委员长观看了他的作品后倍加赞赏，勉励他“戒骄戒躁，要学习学习再学习，做到青出于蓝而胜于蓝”。为了不辜负朱德委员长的教诲，他将自己的名字王瑞成改为王习三，意为立志学习师祖叶仲三。1977年落户衡水后，他潜心研究内画艺术，立志继承前辈的画风，创出自己的流派。他远取宋元画意，近取名家画技，博采众长，终于形成了意境高雅、气韵生动、浑厚质朴、构思奇特、布局严谨的画风，被国际鼻烟壶界誉为“冀派”。

“冀派”内画以山水、花鸟、动物、草虫、人物肖像见长，尤以人物肖像著称。他们的作品惟妙惟肖，不仅形似，而且追求神似，王习三及其弟子的作品屡屡在国际国内获大奖，许多产品成为“国宝”。王习三的作品则被称为“罕有之宝贝”、“难得之佳作”。他创作的美国40届总统肖像系列鼻烟壶，获中国工艺美术百花奖“金杯珍品奖”，他为APEC上海会议创作的6国领导人肖像鼻烟壶，作为国家礼品赠送给了国际友人。

为了发扬光大内画艺术，王习三还策划成立了习三画院，办起了内画艺术中等专业学校，几年来，共培养出内画艺术人才1200余人，使内画艺术后继有人。为了扩大内画的影响，他们还自筹资金600余万元，在衡水市中心建起了世界上第一座以内画为专题的专业展览馆——中国内画艺术之乡展览馆，成为衡水市区一个集研究、观赏、品评、购物于一身的内画艺术景点。在这里收藏有自明清至今的内画艺术珍品，您可以在这里了解内画艺术的发展历史，欣赏巧夺天工的内画艺术珍品，观看艺人们精彩的作画表演。

面对市场经济的大潮，内画艺人们不断创新，内画艺术已经走出鼻烟壶这种单一的载体，向着装饰领域渗透。目前，冀派的内画艺术产品已经有：内画水晶球、内画花瓶、内画酒具、内画笔筒、内画屏风、内画挂件、内画摆件等，可谓琳琅满目，交相争辉。

朋友，如果您钟情于内画艺术，或是爱好收藏，来衡水旅游时，一定不要忘记带一张“全家福”照片或个人的标准照，请这里的艺术大师们将其绘入您喜欢的形式中，作为永久的珍藏。

衡水侯店毛笔厂

各位朋友：现在我们参观的是侯店毛笔厂。

汉字和毛笔都是中华民族的发明创造。汉字使用毛笔书写，相传始于秦朝的蒙恬，据文献记载：“秦朝蒙恬始以兔毫竹管为笔”，至今已经2000多年了。在侯店村一带，家家户户都在堂屋供奉着毛笔始祖——蒙恬画像，每逢农历三月初三，这里的艺人们像过节一样，包饺子、摆宴席、放鞭炮、搭戏台，纪念这位毛笔始祖，这种风俗延续了数百年。

毛笔的出现，改变了汉字用刀刻的习惯，加快了汉文化的传播速度，为汉字的发展做出了不可磨灭的贡献，同时培育了许许多多著名的书法家。他们的墨宝，成为中华民族传统文化的重要组成部分。毛笔出现后，汉字经历了篆书、汉隶、魏碑、楷书、行书、草书及宋体的诸多演变，作为书写工具的毛笔，也随之发生了众多变化，形成了相对集中的生产基地，素有“南羊北狼”的称谓。“南羊”是指浙江湖州市的善琚，以生产“羊毫笔”为主；“北狼”是指位于华北腹地的衡水市侯店村，以生产“狼毫笔”为主。

侯店村的制笔业始于明朝永乐二年（1404年），兴盛于清代，据《衡水地名志》记载：清朝初期，该地毛笔就以制作精良而著称于世。康熙年间，衡水知县把该村毛笔作为贡品，入贡皇廷。康熙皇帝当场挥毫，毛笔得心应手，软硬适度，倍加赞赏。由此衡水毛笔名声大振。光绪年间，侯店村的制笔工匠李文魁在北京开设笔庄，一个爱好书法的太监经常光顾，经他举荐，侯店毛笔得到光绪皇帝的青睐，封为“宫廷御笔”。李文魁死后，光绪帝敕建蟠龙碑以志纪念。（那通盘龙碑有六七米高，矗立在万里无垠的平原上，直指蓝天，甚是威武雄壮，只可惜在1958年被毁。）侯店的毛笔制造业从此得到迅速发展，侯店村被誉为“毛笔圣地”、“毛笔之乡”。新中国成立前，全村几乎家家都有制笔作坊，毛笔行銷北方各省，经久不衰。北京、天津的许多笔店、笔作坊，多是聘请侯店村的工匠。在侯店村工匠艺人的影响带动下，附近许多村庄，也相继建起了毛笔作坊。新中国成立后，制笔工匠们走上合作化的道路，成立了侯店毛笔厂，1983年改为衡水市毛笔厂，成为衡水毛笔制造业的龙头。

侯店毛笔的原材料，分为笔杆料和笔头料。笔杆料主要有：兽角、兽骨、象牙、竹竿、红木、有机玻璃和不锈钢管等，笔头料主要有：黄狼尾、香狸尾、马毛、山羊胡、猪鬃、山兔毛、牛耳毛、胎发等。毛笔的制作需要经过水盆、干作、零活、刻字、包装等300多道工序，经过工匠艺人的精心制作，形成不同规格、不同形状、不同用途的毛笔。

侯店毛笔以“侯店”（原为“古锋”）为注册商标，多年来经久不衰，是因为它具有坚韧适度，刚柔相济，含墨量多而不滴，行笔流畅而不滞，品种丰富、造型美观等特点，深受广大书法爱好者的喜爱。为了不断满足市场的需求，他们在保持传统工艺的同时，不断创新，努力开发新品，在装潢上更加考究，包装上更加精美，使其在具有使用价值的同时，强化了收藏价值和馈赠价值。目前，该厂生产的毛笔已经由最初的几十种，发展到270余种，有大到单支重35千克的“巨锋”，有小到几十克的胎发笔，最高年产量达到350万支左右，出口120万支，畅销日本、东南亚、西欧等11个国家和地区，自1985年始一直是天津口岸的免检商品，每年为国家创汇60万美元左右。

侯店毛笔的发展受到国家领导人关注和国内著名书画家的青睐。国家领导人李先念、方毅、王任重、姬鹏飞等先后到该厂视察，并试笔题词。2001年11月江泽民视察衡水时，曾用该厂的毛笔为邓庄农业科技示范园区和衡水迎宾馆题名。著名书画家孙墨佛、启功、沈鹏、萧劳、范曾、刘炳森、大康、徐之谦、许行、溥杰等都曾为该厂泼墨。

侯店毛笔厂位于106国道和根治海河工程——滏阳新河交汇处，距衡水市区7公里、衡水湖国家湿地自然保护区1.5公里，是由市区到衡水湖的必经之地。您若到衡水来，一定要到毛笔厂看看，在这里您不仅可以了解毛笔的发展史以及毛笔对汉字的贡献史，还可以领略工匠艺人是如何使用传统工艺制造出这美妙绝伦的书写工具的。如果您或您的朋友爱好书法或收藏，不妨在这里选上几支上乘的毛笔。如果您有一定的书画技艺，还可以在現場挥毫泼墨，一展才华。

来顺宫廷金鱼养殖场

各位朋友：这就是来顺宫廷金鱼养殖场。

“宫廷”金鱼是我国的国宝之一。金鱼又称“金鳞仙子”、“水中牡丹”、“东方圣鱼”，被视为美的化身，它以晶莹鲜艳、五彩缤纷、飘逸潇洒、典雅大方的姿态闻名于世，是世界著名的观赏鱼类。

金鱼的祖先是野生的鲫鱼，经过 1700 多年的演变和培育，目前已有 162 个品种，主要分为四大类：即草种、文种、龙种和蛋种。金鱼的饲养始于南宋的杭州，到明正德年间，北京皇宫也开始饲养，清代进入兴盛时期。乾隆年间，乾隆皇帝南巡归来，一心想在北京建一座江南园林，圆明园就是按照乾隆皇帝的旨意修建的。建好后，乾隆皇帝到此巡视，见湖中仅有十几条金鱼，很是扫兴，便问身边的太监：“朕南巡之时，曾于江南见到红鱼，体美色艳，惹人喜爱，何不遣来？”皇帝之言，正中随行太监下怀，马上跪地启奏：“回万岁爷的话，济南府尽出养鱼的能手。奴才有一姨亲姓徐，是济南府饲养金鱼第一好手，人送雅号‘金鱼徐’。万岁爷若是喜欢，奴才去把他传来，专为皇上饲养金鱼。”太监的建议获得乾隆皇帝的恩准，从此北京多了一种专司养鱼的行当。

由于徐家积累了丰富的养殖经验，他们饲养的金鱼都是鲜艳多姿；有的头顶大红“官帽”，似新科状元威风八面；有的头顶如双球跳动，相映成趣；有的翅如薄纱，娇柔多姿；……乾隆看后，龙心大悦，亲赐“金鱼徐”雅号，成为名噪京城的金鱼世家，久传而不衰。

“金鱼徐”第十代传人徐立才从小与金鱼结下了不解之缘。1982 年徐立才受聘在衡水建立来顺宫廷金鱼养殖场。他继承和发扬先人养殖经验，潜心培育金鱼新品。他遵循祖辈积累的“公出头，母出尾”的杂交原理，从不同品系中筛选优良品种，经过多代杂交形成优良鱼种，在稳定遗传基因后，培育出新一代更具观赏价值的新品。十几年来，他饲养的金鱼已经多达 60 多个品种，经他培育的新品 10 余个。其中，最为名贵的有“红头望天”、“虎头水泡眼”、“喜鹊花龙睛球”、“十二红龙睛”、“玛瑙眼”、“白玉冠”、“鹤顶红”、“王字虎头”、“朱砂水泡眼”、“橘瓣狮子头”、“赤兔眼虎头”等。这些名品在 1986 年 10 月深圳海上世界游乐中心举办的“中国花卉展览会”上展出后，被国内外专家、学者称赞为“绝代佳品”，国内外金鱼爱好者争相抢购。1997 年 4 月，在“上海第四届中国花卉博览会暨首届中国花卉交易会”上，衡水徐氏宫廷金鱼获 4 项国家大奖。在同年 10 月举办的河北省农业博览会上，又获 8 项荣誉。

衡水来顺宫廷金鱼养殖场建立以来，规模逐步扩大，现建有温室一座，养殖水面达 100 多平方米，年生产能力 20 余万尾。自 1986 年以后，金鱼作为“友好使者”先后销往中国香港、印度尼西亚、新加坡、美国等国家和地区。并接待了来自美国、日本、加拿大、法国、印度尼西亚等国家的参观团体。党和国家领导人李先念、王任重、刘澜涛等曾到这里参观，并给予高度的评价。

编译：李国福

直隶总督署

唯一的衙署

在河北省保定市有一座我国唯一保存最为完整的清代省级衙署——直隶总督署。

直隶总督署始建于清代雍正七年（1729），至今已有 270 余年的历史了，虽历经沧桑，但依然保存了原始古朴的历史风貌。

直隶总督署是清代直隶省最高军政长官的办公衙署，现存的直隶总督衙署与雍正初年建成时的总体面积、布局基本相同，分东、中、西三路，东西广约 130 米，南北深 220 余米，总面积约 3 万平方米。

正门内外

总督府正门中央悬一竖匾，白底黑字，写有“直隶总督部院”。总督为正二品。

大门外原来还有一组建筑，即东西班房、东西辕门、照壁、旗杆和钟楼、鼓楼，它们构成了一重封闭的院落。现在保定市裕华路中央威严矗立的这两座高大建筑物，叫大旗杆，是现在古城保定的象征。原为木质，高约 20 米，民国初年，曹锟任直鲁豫巡阅使时，将木质旗杆换用钢筋水泥制作，旗杆加高到 33.6 米，为全国旗杆高度之最。1994 年 10 月，按曹锟年代的旗杆高度、位置、式样进行了复建。

进入大门之后，往北是仪门，取“有仪可象”之意，是主人迎送宾客的地方。《明会典·官员礼》里说：“新官到任之日……至仪门前下马。”封建时代不同品位的官员相见，有其繁杂的礼仪程式，一般与总督品位相当的文武官员来署，宾主从仪门而入，共进大堂。品位低下的官员来见总督，只能走仪门两侧的东西便门，文官走东门，武官走西门。

两边的明柱上有清代李鸿章任总督时题写的楹联：

昔为畿辅，今控严疆，观政得余闲，一壑一丘亲布置；
近接太行，远临渤海，豪情留胜概，亦趋亦步许追随。

进入仪门后，大家看到的这些枝繁叶茂，挺拔秀美的柏树，距今已有 400 多年的历史了，给这座总督衙署增添了森严肃穆的感觉。每逢冬季，成群的猫头鹰时常出没在院内的古树上，多时达 200 余只，最为奇怪的是，这些猫头鹰有一个特点，除了总督署大院外，别的地方一概不落。“古柏群鹰”这一奇

特景观，不仅使大批的中外游客游兴大增，而且还引起了生物学家及新闻界的极大兴趣。

仪门前的这座戒石坊，又称“公生明”牌坊，为木质四柱三顶结构。牌坊南向刻有北宋书法家黄庭坚书写的“公生明”三个大字，红底金字。“公生明”作为官场箴规，意思是公正方能明察事之秋毫，即所谓“公生明，偏生暗”。北面亦刻黄庭坚手书“尔俸尔禄，民膏民脂，下民易虐，上天难欺”十六字。每当职官升堂，面对此坊，戒铭时时在目，似告诫如徇私枉法，天理难容。

大堂南侧的建筑称为科房，东西各九间，为吏、户、礼、兵、刑、工六科书吏办公之所。每科三间，西科房南侧五间房为承发司房，承发司房是收转外地来文及下发署内文告等诸事宜的办事机构。

大堂

是总督署的主体建筑。直隶总督署大堂是以同治末年李鸿章任总督时为背景复原的。内有屏风一座，屏风中间绘有丹顶鹤、海潮和初升的太阳，象征当朝一品，只有一品职衔才有资格配此类图案。屏风前面有一方形木质地坪，距地约一尺高。地坪上摆放有太师椅和公案桌，公案桌右侧，放一木质诰封架，上面摆放皇帝圣旨和用黄绸布包着的关防盒，象征着权力的所在。总督关防，为银质，长三寸二分，宽二寸。

大堂正中屏风上方悬一匾额，上书“恪恭首牧”四个大字，意思是谨慎恭顺，忠于职守的地方最高长官，这是雍正九年雍正帝为署理直隶总督唐执玉亲笔手书，用来赞誉这位克勤克俭、带病供职的总督。此后，历任总督都把此匾悬挂在大堂正中。靠北墙还放有总督的职衔牌。职衔牌为长方形木牌，红底黑字，每衔一牌，总督出巡时排列在轿前，以显赫扬名。

作为州县基层政权的大堂，是审理民、刑案件的地方，但作为地方最高政权的总督衙门的大堂，因一般不直接受理基层案件，只是在此堂举行重大庆典、迎接圣旨或逢祀日拜牌活动的地方，平时闲置不用，非公莫入。直隶总督署在近代史的风云变幻中也饱经沧桑，遭受过列强的践踏，光绪二十六年（1900），八国联军入侵北京，曾有英、法、德、意四国联军来到保定，将当时的直隶总督廷雍以私通义和团罪名押至大堂之上公开审理，并且枭首示众。而廷雍本人则成为八国联军在中国土地上杀害的一位职衔最高的清廷封疆大吏。

二堂

由大堂东西侧绕便门北进即二堂院，由元代“宣化堂”演变而来，至今木架还保留不少宋元古风。二堂是总督接见外地官员或复审案件的地方。据曾国藩在同治八年任总督时的日记中记载：在署内处理公务每五天（逢五排十）会审一次，均在二堂进行。二堂内上悬“政肃风清”匾额，座屏两侧各雕有一只团鹤，以表示文职官衔，总督因既管军事又管民政，可文武官衔并用。座屏前地坪上摆放有公案桌太师椅等，公案桌上放有文房四宝等办案工具。公案桌两侧各摆放三把座椅，以供藩、臬二司及有关府道官员坐用。二堂内东侧室是议事厅，是总督上堂前与幕僚议事的场所，也是总督上堂前更衣或休息的场所。

所。二堂内西侧室是启事厅，是署内幕友和书吏为总督办案时查找或整理案卷的场所，也是为总督平日处理一般公务代笔行文的地方。

三 堂

穿过二堂至内宅门。内宅门是进入衙署内宅的分界线，有三堂和上房两进院落。三堂，又称官邸，分为书房和内签押房，东侧屋为内签押房，是总督平时批阅来文及处理公务的地方；西侧屋两间，是总督的书房，平时这里是总督习经写字、著书立说、修身养性或是教子读书的地方。总督书房一般都有斋名，雍正九年唐执玉署理总督时，他把这座书房称作“濯漱斋”。

四 堂

又称上房，是总督夫人及其子女等眷属活动的地方，花木扶疏，生活气息浓厚，平时外人是不会随意入内的。四堂院西北角有一便门，穿过更道与后花园相通，是总督及其眷属活动的地方，面积虽然不大，但亭树齐全，花木争荣，鸟语花香，更有翠竹扶疏，使人赏心悦目。

清代总督分为两种：一是专管某种重要事务之总督，如河道总督、漕运总督；二是统管地方军政之总督，如直隶总督。总督职掌，据《清朝通典》记：“综治军民，统辖文武，考核官吏，修饬封疆”。可知总督对所辖省份之一切军民政务无不综理。概括起来，总督有以下八种权力：题奏咨请权，省例定制权，文武官员之任免权，文武官员监督权，军队节制权，岁计审核权，诉讼审判权，外交处理权。

直隶设总督一人，无佐贰官员。全称为“总督直隶等处地方，提督军务、粮饷、管理河道兼巡抚事”，咸丰以后，随兼衔增加其名称亦相应增加，如光绪朝李鸿章任直督时，全称为“总督直隶等处地方，提督军务、粮饷、管理河道兼管长芦盐政，兼任北洋三口通商大臣，兼巡抚事”。

军事作用

直隶省的军事组织机构仍受总督节制，兵员均为汉兵，因执绿色旗故称绿营兵。绿营兵的营制沿系明朝，分省建置，以护卫京畿和省府。

直隶总督自雍正二年设立到清朝灭亡，先后有 74 人、99 人次在此任职，历经 187 年的历史。直隶总督在清代各省区的总督中占首席地位，特别是晚清直隶总督李鸿章等人兼北洋大臣之后，成为清政府内政、外交、兴办洋务及推行新政中举足轻重的人物。直隶总督署是清代直隶兴替发展乃至清朝兴衰的历史见证。“一座总督衙署，半部清史写照”，是对这座衙署最好的概括。

清帝逊位后，省会迁津。1916 年以原直隶总督署为直隶督军署。1920 年 8 月改为直鲁豫巡阅使署，这里变成直系军阀曹锟的大本营。直皖战争和第一次直奉战争亦策划于此。1933 年初，改为保定行营，此署成为镇压平、津、河北革命运动的首脑机关。1935 年 6 月，省会由津返保。河北省政府仍驻此。

1939年，日伪河北省政府由津迁保亦驻此。1945年8月，日本投降后，国民党军第十一战区区长官司令部驻此。1946年6月，国民党省政府驻此署。1947年11月，河北省政府迁往北平后，国民党军保定警备司令部驻此署，直到1948年11月保定解放。

大事记

1949年8月，建立河北省人民政府亦驻此署。1958年，省会迁津。其它重大活动如下：

1968年8月，保定市革委生产指挥部迁此。

1970年改驻保定市革委会。

1979年，此处为中共保定市委机关驻地。

1990年11月，市委机关迁出，辟为博物馆，正式对外开放。

1988年1月，由国务院核准，公布为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

1999年，被河北省政府授予省级爱国主义教育基地。

2003年，被国家旅游局评为国家3A级旅游景区（点）。

建馆以来，已先后接待海内外游客200万人次，获得了社会效益、经济效益双丰收。党和国家领导人胡锦涛、李长春、刘云山、李鹏、乔石、尉健行、吴邦国、王丙乾、杨成武、钱其琛等都曾先后来馆参观视察并指导工作，给予了高度评价，直隶总督署的美名也传向了世界各个角落。

编译：金顺花

天下第一关

东罗城

我们现在进入的这个城门是东罗城的城门。很多人都知道孟姜女哭长城的故事，知道孟姜女所哭的是秦始皇修建的长城，所以我们想到长城难免会想到秦始皇，那么我们今天看到的长城是不是秦始皇修的长城呢？可以明确地告诉大家，这段长城跟秦始皇一点关系都没有，这段长城是明长城，是明王朝的开创者朱元璋为了抵御外侵，派大将军徐达于洪武十四年（1381）开始修筑的长城。

大家看我们左手边的城墙，千疮百孔、比较残旧的部分是明长城的原貌，比较新的部分是在1984年为了响应邓小平同志“爱我中华，修我长城”的口号而修葺的。我们现在所在的是东罗城，“罗”是罗列的意思，“罗城”是城套城的意思。

瓮城

这个城门是瓮城城门，此门又叫“鬼门关”。1932年日本政府挟持溥仪建立伪满洲国，人口和出口都有日本人把守，当地老百姓进出都非常困难，他们对日本人痛恨至极，就把此门形象地称为“鬼门关”。走过“鬼门关”，我们就进入了瓮城。这是一个小小的方城，却有极为重要的作用。

一关城门

这就是天下第一关的东门，它高7.5米，宽5.8米。不过“闯关东”是从东往西闯，而我们现在是从西往东走，也就是说我们正从关外走向关里。

此处北倚燕山南临渤海，这段长城依山势而建，城墙自然是北高南低。后来在城墙之上所建的城楼其实是水平的，但因为城墙是歪的，所以会给我们一种视觉误差，觉得城楼也是歪的。

城楼上悬挂着“天下第一关”的匾额。这块匾长5.9米，宽1.55米。这块匾最大的特点就是后面不书年月不留姓名。据《临榆县志》记载，因为书法家没有留下自己的名字，所以关于这块匾有许多不同的说法，据史料记载此匾为明成化八年（1472）的进士、我们山海关当地人萧显所写。在这个楼上共有三块“天下第一关”的匾额，我们现在看到的并不是萧显所写的原匾，而是1920年临榆县附生杨宝清勾摹另刻的。悬于城楼内二层的为王治于清光绪五年（1879）勾摹重刻的。

马道

我们现在所走的道为马道，是古代守城的士兵骑马上阵和巡视关内外所走的道路。大家往前看会看到城楼上一个个红底、白环、黑靶心的窗户，叫做“箭窗”，箭窗可开可闭，为作战射箭之用。天下第一关城楼又因在东南北三面共有 68 孔箭窗被称作箭楼。

城楼内

在我们眼前的就是萧显所写的原匾。匾下方的这幅图，叫“山海关古建复原图”，它描绘的是山海关古城的原貌。这幅图与我们平常看到的地图不同，平常地图的地理坐标是上北下南，左西右东，而这幅图是上东下西，左北右南。在东方是广袤的东北大平原，西方是宽阔的华北大平原，北边是连绵起伏的燕山山脉，南边是滔滔的渤海。燕山和渤海之间相隔 8 公里，长城横亘全境，中间只有一个天下第一关，这里有山有海有关，故而得名山海关！燕山和渤海就像两扇厚重的大门把东北大平原和华北大平原分割开来，天下第一关就像一把巨大的铁锁，牢牢把它们锁住，所以这里自古就有“两京锁钥无双地，万里长城第一关”的美誉。

明代万里长城众多的险要关隘中，山海关，居庸关，嘉峪关被称为三大名关，居众关之首。我们在外边已经看到了天下第一关城楼，也许有人会说它并不像居庸关、嘉峪关那么雄伟，但天下第一关却是一个完整的军事防御体系，它包括四门八城：四门为东西南北四个门，东叫“镇东门”，是我们现在所处的位置。明朝末年，对明王朝的威胁主要来自东边，人们希望依靠东门能镇守江山，因而得名“镇东门”；西叫“迎恩门”，皇帝的赏赐来自北京，北京在山海关的正西，人们把这种赏赐叫“皇恩浩荡”，因而称作“迎恩门”；渤海在山海关以南，所以南叫“望洋门”；北叫“威远门”，长城北侧是古老的战场，将士们盼望山海关威名远扬，就把它叫做“威远门”。我们再来看八城，中间这个像个“田”字的部分就是山海关的中心——山海关关城，这是八城当中最大的一个城；在山海关城下这个小小的城叫瓮城，瓮城外较大的城为东罗城，这两个城都是我们刚刚经过的。与东罗城相呼应，西边的这个城叫西罗城，在关城的南北方向有两个翼城，分别叫做南翼城、北翼城。我们继续往南看，在长城尽头的这个城是宁海城，这就是我们的老龙头景区。大家看东城东约 1 公里的这个城叫威远城，这里就是吴三桂跪拜多尔衮，剃发称臣，引清兵入关的地方。在长城重要的位置上从南向北依次有五个敌楼，分别叫做靖边楼、牧营楼、镇东门、临闾楼、威远堂，人称“五虎镇东”。

在复原图下陈列的这把大刀叫青龙偃月刀，净重 83 公斤。据说在古代考武状元时的第一项就是看考生能不能舞动这把大刀，过了这一关，才有资格继续下面的考试。在两侧陈列的是明清时代的兵器和满族的八旗服饰，请大家自由参观。

大 炮

在镇东楼的南北两边各有一尊铸造于崇祯十六年（1643），长2.7米，重2500公斤的大炮。它在当时的威力可以说是非常大的，士兵们十分爱戴它，就给它系上红绸，取名：神威大将军。

编译：全顺花

清东陵

清东陵

清东陵位于遵化县境内，是清朝皇帝、后、妃的陵寝。它是中国现存最大的皇家陵寝。2000年列入联合国世界文化遗产名录。

清朝是中国最后一个封建王朝。满族1644年入关后，到1911年灭亡，共统治中国268年。清东陵的15座陵寝分布在昌瑞山东西48平方公里内，这里共葬有5位皇帝、15位皇后（包括清朝开国皇后和统治中国长达48年的慈禧太后）、136位妃子、3位阿哥、2位公主，共计161人。

风水宝地

清王朝统治时期，陵区南北长125公里，东西宽20公里，占地2500平方公里。当年，陵寝由朝廷派兵驻守，防火防汛。据说，当年顺治皇帝在一次狩猎过程中偶然来到此地，看到这里风光秀丽，环境幽雅，前水后山，风水极佳，便钦定为自己的陵址，这里也就成了清帝的万年吉壤。自大红门向西两边用20公里的“风水墙”将陵墓围拢起来。有“前圆”和“后龙”之说。

陵寝区

陵寝区苍松翠柏，古木参天。建筑风格为红墙绿瓦，雕梁画柱。其中，乾隆皇帝裕陵的圆柱石雕极其精美，堪称石雕之最。慈禧太后陵的镂空以其凤在上、龙在下的图案独具特色。近年来，对游客开放的区域已扩大到19万平方米。其中，包括8个陵寝、4个宫殿、3个博物馆和1座寺庙。新开发的旅游项目包括参观乾隆皇帝的裕陵和地宫，慈禧太后陵寝和宫殿以及乾隆皇帝妃嫔陵。陵墓群的中央是顺治帝陵，坐落于昌瑞山主峰之下。

从最南端的石门到宝顶，有长5600米、宽12米的神道，用砖石铺成，其中有三条青石小道，规定“左君、右臣，中间走神”。神道依次有大红门、更衣殿、正门及18对形态各异的石像，其中12对为石兽，文臣、武将各6对。此外还有龙凤门、一孔桥、七孔桥和五孔桥，形似长虹。另外还有下马碑、碑亭、东西朝房、两柱门、明楼及其他建筑。桥楼是整座现存宫殿中最高的建筑。每座陵寝内均有石碑，用满、蒙、汉三种文字刻有皇帝的名字、谥号。明楼后的宝顶为巨大的封闭墓丘。

乾隆皇帝的陵寝

乾隆皇帝是清朝入关后的第四位皇帝，25岁即位，在位60年，其子继位后，他又做了三年的太上皇，享年89岁，是中国历史上寿命最长的皇帝。裕陵自乾隆八年开始兴建，历时57年，又值大清鼎盛时期，所以裕陵的修建极其奢华。裕陵地宫以其精美绝伦的地下佛堂堪称中国绝无仅有的“石雕艺术宝库”。除地上建筑外，地宫石门及四周石壁上布满佛教雕刻。其中有八大菩萨、四大天王、八宝、藏文和梵文经咒。这些雕刻线条清晰流畅，形象逼真，错落有致，无与伦比，堪称中国之最。

慈禧太后东陵

慈禧太后东陵以其独特的地面建筑设计和高水平的建筑工艺与众不同。慈禧和慈安太后陵合称东陵，两座陵寝于1873年同时开工兴建，1879年同时完工。在各皇后陵中均属上乘，但慈禧尚不满足，东太后慈安驾崩后，西太后慈禧大权独揽，下令拆除大殿重修。三座重修的殿堂，规模工艺奢华惊人，不仅超越了清代祖陵，就连紫禁城也比不过，梁枋架木，门窗隔扇，全部采用名贵的木材构制，内外彩画共有2400条金龙。圆柱上雕刻着龙绕凤图案，凤在上，龙在下，这种图案极为罕见。由此也就不难看出，慈禧的权力欲和其生活的奢华程度了。

编译：金顺花

满城汉墓

各位朋友：

大家好！首先欢迎各位到满城汉墓来参观，衷心地希望各位的这次游览能够高兴而来，满意而归。

首先，我简要地介绍一下它的基本情况。西汉中山靖王刘胜的墓是1968年5月，解放军某部在满城县的陵山上进行国防工程建设时偶然发现的。发现后电告中央，由周总理亲自批示发掘，我国著名的历史学家郭沫若老先生亲临考证，根据汉代的丧葬制度，又考察发掘出了刘胜墓北边其妻窦绡的墓穴。

刘胜是西汉景帝刘启的第八个儿子，因是庶出，在公元前154年被封为中山国的第一代国王。他在位42年，死于公元前113年，死后葬于陵山，谥号靖，故被称为中山靖王。其墓穴是山崖殿堂形式，规模宏大，总容积量2700立方米。西汉时没有炸药，如此规模的崖墓，按当时的生产力水平，如果每年不少于1万名劳工开凿，需要30多年才能完工！保留至今，堪称古人的血汗结晶了。所以在1988年，两座墓同时被列为国家级重点文物保护单位。刘胜墓内出土的主要文物有金缕玉衣，错金博山炉等。

刘胜墓总长51.7米，宽37.5米，最高处6.8米，由墓道、甬道、南北耳室、中室，后室这几部分组成。

南北耳室

南耳室是墓穴内象征性的车马库，因其所陪葬的都是真车真马，1968年出土时，就只剩下了车的铜件构件和马的残骨，南耳室最前端顶部那个部位，就是刘胜墓最初的发现地，巧合的是炸开的部位正好是南耳室南端上空擦边的位置，既发现了刘胜墓，又没有破坏其墓穴的完整性。

北耳室是墓内储存粮食和酒器和地方。司马迁曾在《史记》当中有“胜为人乐酒好内，有子枝属百二十人”，果不其然，在这里发现了十六口方形的大缸，每口缸可以盛放美酒300斤左右，数量非常可观，但遗憾的是发现时，酒缸内只能看到酒挥发后留下的痕迹了。

大家请随我顺着台阶往下走，中间的这口井是墓内的渗水井，主要是为了解决雨季时由山顶渗到墓内的大量雨水的问题。大家可以环顾一下四周，当时修挖的排水沟道清晰可见，足以证明二千多年前的人们对墓穴防潮排水的问题已经非常重视了。

我们现在所处的中室是刘胜墓最高的地方，高6.8米，是墓主人用来宴请宾客的厅堂。

在厅内所陪葬的物品大部分是餐饮具和炊具。各位请看那件做工精细的小铜鼎，它的鼎盖上有四只对称的小兽，两边各有一个扣子卡在小兽的前端，使用时鼎与盖紧密结合，蒸煮食物的速度就非常快。说到这里，大家可能会发现，它与我们现在的高压锅十分相似，可见我们现在的许多东西都离不开古人的经验。看到我们的先人在两千多年前就已经制造出了如此先进的炊具，大家的自豪感一定会

油然而生吧。

参观完中厅之后，请各位随我从右边走到后面去看一看刘胜墓的后室。后室是墓主人的寝室，用来停放棺槨。发现时棺槨已经腐烂，但金缕玉衣仍完好无损。刘胜的金缕玉衣长 1.88 米，共用了玉片 2498 片，金丝 1100 克，玉片与玉片之间的缝隙非常紧密，整件玉衣做工十分精湛。据推算，西汉时做一件完整的玉衣需要一名玉工花费十多年的时间，真可谓劳民伤财！因为汉代流传着“金玉在九窍则死人不朽”的说法，所以帝侯贵族死后都用玉衣作为葬服，以求尸身不腐。然而我们在这件金缕玉衣里却没有看到刘胜的尸身，仅找到两枚残齿。可见玉衣防腐的说法是无稽之谈。

正前边展出的这件铁铠甲是西汉时期的卫体武器，它分为甲身、双袖和垂缘三个部分。总共用了 2859 片铁片编制而成，重达 16.85 公斤，我们可以想象，穿这么重的铠甲打仗真非易事，但是在当时的条件下，穿上这件铁铠甲就可以防止刀剑砍伤身体起到保护作用的。所以它的出土，为我们研究西汉的军事防御装备，提供了非常珍贵的资料。

这件是著名的错金博山炉，出土于这间象征浴室和卫生间的小屋。它是一件香炉，高 26 厘米，因形状似博山，所以得名。大家可以看到，此香炉造型美观做工精湛，山峦起伏处为炉盖，炉盖山峦间刻有猎人打猎，虎豹出没，小猴玩耍的图案。图案处用金丝镶嵌，有的金丝细如毫发，显得十分生气盎然。下端炉身呈蛟龙腾出海面状，寓意着海内仙山。错金博山炉既实用，又可欣赏，可谓一举两得。

后室周围是一圈回廊，用于防潮排水，保护后室的干燥，是刘胜墓内排水系统中的一部分。

好了，我们走出回廊之后，刘胜墓就参观完了。接下来请大家随我一起去参观刘胜的妻子窦绾的墓。据考证，因为当时的丧葬制度规定夫妻死后应同墓地而不同穴，所以他们夫妻二人没有合葬。

刘胜墓和窦绾墓相隔 120 米，走过来的途中，大家应该发现陵山并不算高，海拔才 235.8 米，它由三个山峰连接而成，整体就像一把坐西朝东的太师椅，墓穴坐落在主峰上，两个小山峰分别很规整地排列在主峰两侧，状如椅的扶手，刘胜夫妇的墓穴恰好位于天然形成的椅背上。山前是一望无际的冀中平原，视野开阔，紫气东来，把世间所有尽收眼底；山后是连绵起伏的太行山脉，不仅是此山的屏障，也是一条龙脉，象征着子孙后代连绵不绝。

请大家向东俯望，看到的就是满城县城。满城县总面积 734 平方公里，人口 38 万。西汉时称北平县，后来之所以叫满城，还有一个小传说：相传当年刘胜外出巡游时，路过北平县，北平的大小官员紧随其后，大谈当地民风淳朴，人民安居乐业，歌颂国王功德，恩泽四方百姓。刘胜被吹捧得心花怒放，便问道：“此地有何姓氏啊？”地方官员回答有张姓、王姓、李姓、赵姓，刘胜一听没姓刘的，便一脸不悦地问“那姓刘的呢？”官员一愣，满脸赔笑道：“有啊，遍地都是姓刘的。”这样“张、王、李、赵遍地刘”的说法就传开了。刘胜一听说姓刘的还真不少，又高兴起来，便问道：“北平城里有多少和我同姓的？我要免除他们的租税”。地方官本来没准备，为了讨中山王的欢心，急中生智地说：“现在呀，满城都姓刘，都是您忠实的子民。”刘胜一听十分高兴，哈哈大笑说：“好哇，满城都姓刘，刘姓满城啊。”这一下，北平就改叫满城了。

好了，窦绾墓到了，各位请随我到里面详细参观一下吧。窦绾墓和刘胜墓的结构大同小异，只是她放棺槨的后室靠向南边刘胜墓主室的方向。据考证窦绾比刘胜晚死 10 年左右，但她的墓比刘胜墓还大，

总容积量达 3000 立方米，这种现象在古代墓葬中是很少见的。

顺着墓道往下走，大家发现了吗？窦绾墓的南北耳室所存放物品的位置和刘胜墓穴的正好相反，其目的主要是为了对称。在 1968 年清理她的仓库时，发现里面所陪葬的酒缸竟然比刘胜墓还多一口，想必当年他们夫妇喝起酒来，也是巾帼不让须眉吧。

窦绾的金缕玉衣从后室出土时保存得也非常完整，为了方便观看，我们把它停放到了墓穴的大厅中央，请大家随我过来参观一下。窦绾的玉衣长 1.72 米，玉片共用了 2160 片，金丝 700 克，清理玉衣时发现，玉衣内保留有 8 枚残齿和一些盆骨、肋骨的骨骼，虽然窦绾的尸骨保留下的多些，可他们二人终究还是“天虽长，地虽久，金玉满堂意难守，骨朽香消人何在？几枚残齿寄风流。”正因为满城汉墓同时出土了两套保存完整的金缕玉衣，所以我们满城不仅有草莓的故乡之称，还被人们称为“金缕玉衣的故乡”。

另外窦绾墓内还出土了一件非常珍贵的文物，就是长信宫灯。它是在后室出土的，各位请从这边走，让我们来参观一下。这盏灯高 48 厘米，铜质鎏金，呈宫女跪坐手持灯盘状。因其下垂的袖子上面有“长信宫”等铭文，所以被称为“长信宫灯”。这盏灯的艺术价值和科学价值都非常高。它整体线条流畅，宫女右臂高举，袖筒下垂，左手托着一个圆形底座，底座上安装着附带短柄的圆形灯盘。拿着短柄，灯可以来回转动，灯盘中心有蜡扦突出，周围设有凹槽，凹槽内部安插两片弧形屏板。使用时，把蜡烛插在蜡扦之上，开合两侧弧形板，烛火亮度的大小和照射方向可随意调节变化。宫女右臂形成烟道，袖口下垂自然形成灯罩，宫女体内中空，使用时冒出的烟尘随宫女右臂排入人体腔内。使用一段时间以后，宫女的头、身体、灯罩、灯盘等各个部分可以随意拆卸，清扫干净后，再重新组合，继续使用。长信宫灯作为珍贵文物曾多次漂洋过海展出，据说，当长信宫灯到美国展出时，美国总统尼克松看后称赞中国在两千多年前就解决了环境污染问题。听到这里，您不得不为我国古代劳动人民的聪明和智慧而感叹！

参观完长信宫灯，我们在走出这座墓的过程中，细心的朋友不难发现，这两座墓虽然都是开凿于山岩之间，但是墓穴的室壁却非常光滑，没有一点凿过的痕迹，是什么原因？您能猜出来吗？考古学家根据墓内留下来的大量草灰、碎石片和室壁上的黑色迹象考证，开凿时是根据岩石的性质，利用了热胀冷缩的原理，用火烧岩壁，高温冷却后，石壁爆裂，这样室壁不仅规整，同时，还减少了凿墓的震动。通过这两座墓的开凿方法，古人的血汗和智慧结晶可以完全体现无疑了。

满城汉墓是距今发掘的崖墓中距山顶最近，规模最大的墓穴，出土文物多达 10633 件。如果我没猜错的话，好多朋友参观的名胜古迹虽然很多，但是像这样规模宏大的岩石墓穴，可能还是第一次。

好了，满城汉墓到此就参观完了，非常感谢各位对我工作的支持，欢迎各位有机会再来满城汉墓参观，祝各位一路顺风，万事如意，再见。

编译：金顺花

崆山白云洞

崆山白云洞因处在白云山南端的崆山上而得名，距临城镇6公里远，是我国北方大型的喀斯特溶洞。大约五亿年前，这里曾是一片温暖的浅海环境，在海底沉积了石灰岩地层，由于地下水对石灰岩的溶蚀作用，才造就了北方这个罕见的溶洞。它以洞体深幽、景观密集、造型奇特、精巧玲珑而被专家称为“北方奇观”、“地下岩溶博物馆”。

崆山白云洞是1988年7月当地村民在开山采石时偶然发现的。目前对游人开放的有5个洞厅，总面积4000多平方米，游线总长2公里，主要景观有150多处，罕见的绝景有6处。洞内常年恒温17℃。根据景观造型特点，专家们把五个洞厅分别起名为“人间”、“天堂”、“迷宫”、“地府”和“龙宫”。

第一洞“小西湖”又名“人间洞厅”，因洞内比较宽敞明亮，又有“小西湖”、“万家灯火”等美景，所以我们叫它“人间洞厅”。洞厅南北长70米、宽35米、高18米。千百年前，这里处在地下潜水面以下，含有二氧化碳的地下水，沿着我们头顶上这个断裂破碎带溶蚀，天长日久，溶蚀成这么大的“空间”。地壳抬升，地下水下降，就露出了洞厅。

这叫石笋，上面下垂的叫石钟乳。上面的石钟乳与下边的石笋对应生长，联成一体，就叫石柱。你看那个石笋很像古代打仗用的鞭。请大家向上看，那些像丝瓜瓤一样的毛针状的沉淀物，地质学上叫“网状卷曲石”，在我国其他溶洞中非常罕见，是崆山白云洞的第一绝，今天我们才有幸一睹芳容。

这一簇簇像菜花一样的“石花”，大一点的叫“石疙瘩”，小一点的叫“石珍珠”、“石葡萄”。这种石花在洞中随处可见，它们已开放了成千上万年。

我们现在到了第一洞厅的中央。这里有白云洞中最大的石柱，它顶天立地，高8.5米，周长4.3米，据地质学家考证，这样的石柱500年也长不了1毫米。在“西湖断桥”下有一个水池，那边相依偎的一对石笋，有人说是许仙和白娘子在相会。

这是一对石钟乳和石笋，相接成石柱，而这一对下边的石笋可能由于地震，基座发生过位移，形成了这个违背常规的奇特景观，专家取名叫“阴差阳错”。这一错，就把我们带到了另一个世界——第二洞厅，也叫“天堂”。

第二洞“天堂”，这里比较潮湿，洞壁的滴水多，在特定条件下，形成了各种各样的钙化造型，人们给了它们非常形象的命名如“三叉神箭”、“天蓬元帅”、“擎天玉柱”、“仙鹤欲飞”、“五腿神鹿”和“梳妆镜”。

这里是天堂大厅中发育的一个小型洞厅，又有几个造型逼真的石笋，加上比较幽静，故叫“极乐世界”。如果用手指轻轻扣击，就会发出悦耳的响声，因此，又叫“石琴”。这是白云洞特有的景色，比

较罕见。

第三洞是“天堂”洞厅的最高点，站在这里，整个大厅的美景一览无余。看那边，好一挂飞天瀑布，它高8.5米，宽6米，是整个溶洞中最大的石瀑布。这个景观叫“玉簪对净瓶”，这是我们白云洞的第三绝景。请看这里，有一水池，水清如镜，常年不枯，水面上盛开着朵朵洁白的莲花，人们说那是天堂中的“莲花池”。池边还有一群小怪兽，似海狮、海豹刚游完水上岸。

前边有两条路可走，一条是仙人之路，一条是人间之路。不管走哪条路，我们都能看到“横天一枝”的景观：在石钟乳上横向长出一个形似树枝的卷曲石，这在其他溶洞目前尚未发现。它到底是如何形成的，至今还是个谜。

天堂洞厅的最低处“迷宫洞”是著名的“朝天一炷香”。它是一种线型“石管”。别看它那么细，还是空心的呢！原来这个石管是从顶壁上长下来的，与下面石面相接。有人不小心把石管上半截碰断了，留下了下半截，成为“朝天一炷香”。迷宫洞的特点一是洞道比较狭窄；二是比较潮湿；三是道路曲折回环，好像迷魂阵。

走过“福禄关”，穿过“月宫玉柱”，通过“多彩石幔”和“星象图”，我们来到了迷宫洞的最大洞厅“珍珠宫”。你瞧，四壁上、宫顶上到处布满了大小不一的石珍珠，一簇簇、一片片琳琅满目，晶莹剔透。走过前边的“仙人径”，我们可以看到一只硕大无比的万年神龟。这只神龟已修成正果，二洞中那只翘首神龟正在偷听如来佛讲经布道，精心修炼呢。

第四个洞厅“地府”，这个洞厅面积小，洞体比较干燥，有许多奇怪的石头。它们色彩灰暗，格调低沉，气氛阴森可怖，因此我们为其命名为“地府”。那个怪石——“阎罗王”——骑在“独眼怪兽”上。右面那个奇石造型好像是“判官”，手中拿着笔。

对面那个石塔叫“森罗塔”，据说在人间干了好事可以升天成仙，干了坏事就要压在此塔下永世不得转生。那个小石笋，好像地府中的“鬼灯”，那一个像“秃鹫”，那是“招魂旗”。地府洞厅阴森可怕，不是久留之地。

第五洞“龙宫”，这里是崆山白云洞五个洞厅中最新、最奇、最险、最幽的洞厅。龙宫游程约500米，上下落差50米，洞道曲折多变，如一条游龙。洞底还有多处水池，比较潮湿。这里已命名的景观有50余处。

瞧，映入我们眼帘的是一座“海底仙山”，是些酷似海珊瑚的景观。那只像只大海螺，取名为“海螺王”；那个像造型优美的“大金鱼”，因害羞，只露出了个大尾巴。

这里是一处典型的石瀑布。石瀑布洁白无瑕，灯光一照，如亭台楼阁。请向后上方看，这个石柱，如冰似玉，光洁透明，堪称龙宫一宝。

这组景观叫“玉龙潜卧”，看这一簇簇不同于周围颜色的石针、石花沿着岩壁裂隙丛生伸延，宛如一条白龙潜卧于洞中。各位游客我们来到龙宫最低处，请注意安全，小心路滑。

请看，这对怪石很像一对海龟在谈情说爱，所以叫“二龟对吻”。这个巨石上圆形的空洞，在地质学上叫“海眼”，这类洞穴穿通了岩石，叫穿洞。这组景观叫“海底森林”。这是海底峡谷，陡峭狭窄，幽深难测。

请看这边，又是龙宫中精美艺术珍品之一，好像是龙女刺绣花盘，我们取名为“龙女刺绣”。

这里是龙宫最大的洞厅，我们叫它“群龙聚会”。仔细看，你会看到老龙王、土龙、玉龙，还有黄龙、苍龙、变色龙等各种造型。

仙山琼阁，登上第二道天梯，我们走到了龙宫的绝佳境地——仙山琼阁。这里集人间、天堂、地府景观之大成，是溶洞之精华。这里景观密集，满目是景。请看，这里的石花、石笋、石管、石钟乳、石帷幕、石瀑布、彩色石幔等应有尽有，其丰度、密度、变化度最具典型性和代表性，被专家们称为我国北方难得的岩溶造型博物馆和地下迷宫。

你再看这满壁的针状石花，这种石花在其他溶洞比较罕见。这边有“竹林屏障”。看那边，宛如仙人掌一般，我们称其为“千年仙掌”。

编译：金顺花

香河第一城

香河第一城的历史

第一城位于香河县安平经济技术开发区，是集观光、娱乐、美食、度假、休闲、会议于一身的中国首屈一指的大型现代化综合旅游会展场所，国家4A级景区。香河第一城的历史可追溯到明朝（1368-1644），明太祖朱元璋推翻了元朝后，逃到大草原以北的元兵时常犯界。于是，朱元璋封四太子朱棣为燕王，挂帅扫北，并派军师刘伯温随军出征。很快，燕王就平定了元兵。这时，燕王蓄意自立为君主，便派刘伯温寻地建都。一天，燕王带人来到香河淑阳镇，时值六月，淑阳四面小河环绕，水中荷花盛开，景色秀丽，香气袭人。燕王赞不绝口：“此处真乃香河也！”刘伯温一见燕王有意在此建都，便勘测制图。动工时，因缺砖少木，只好大圈小建，变成一座小城，东西南北四面都是一里，比北京小了10倍。城的四门仍与北京城一样，直出直入，没有回鹓墙，也没建接官亭。因此，香河城有小北京之称。从明朝到清朝，香河县都属朝廷直管，无论多大官来，香河知县一律不接不送，所以称直隶香河。第一城是由中信国安集团投资开发的，始建于1992年10月18日，总占地面积3600亩，已投资34亿元人民币。

这是一个融历史与现实为一体、融古典与现代为一体、融宫廷与民间为一体、融教益与游乐为一体、融会展、餐饮等多功能为一体的中国首屈一指的大型现代化综合旅游会展场所。第一城以明清时期老北京城为蓝本而建，城墙和城楼的高度和宽度是1比1。大家都知道明清时期的北京城是世界上公认的历史名城，是中国都城的代表作，昔日固若金汤、威震四夷的古都城，随着风雨的变迁和岁月的磨砺，而今早已面目全非了。这是历史的遗憾，中信国安第一城将承古城之遗风，再起十里城墙，其长度是在缩短了老北京城墙的基础上按其原貌恢复的。

现代香河第一城纵览

1998年4月28日第一城一期项目已正式敞开大门，迎接八方宾客。一期开放的主要有城前广场、外城城墙城楼和外城的前门商业街景区、东部圆明园景区、西部古城景区三大景区。

北面是外城的7座城楼，分别是永定门、右安门、左安门、广渠门、广安门、东便门、西便门，严合了老北京城内九外七之数。再加上两座角楼和一座箭楼，10座城楼与按原比例恢复的城墙组成一道风景线。老北京仿佛得到重生，中信国安第一城既再现了历史又跨越了历史。每天上午九点钟，第一城都有隆重的开城仪式，皇帝和众位大臣将恭迎各位游客的光临，此仪式再现了清朝康乾盛世时迎接贵宾的

整个过程。游客随着皇帝的仪仗队走过金水桥、穿过威武雄奇的永定门进入第一城。

第一城的外城

首先映入眼帘的是前门商业街区。前门商业街区以老北京市井文化为主，这里有鳞次栉比的老店铺、京味十足的商贩吆喝、精彩纷呈的天桥杂耍，让人不禁想去寻找那在心底沉淀已久、逝去已远的古都之梦。现在已是鼓乐齐鸣，民间舞蹈队和高跷队马上就要为大家演出，请诸位欣赏，有兴趣的朋友可以加入到队伍中尽情歌舞。

圆明园景区

圆明园遗址坐落在北京西北角海淀区北，曾经是北京地区风景最优美的地方。第一个修建圆明园的是康熙皇帝，后经雍正、乾隆、嘉庆、道光、咸丰等五个皇帝，历时150多年，役使成千上万的能工巧匠，花费数以万计的银钱才建成世界上罕见的宏伟壮观的宫苑。它是我国劳动人民血汗和智慧的结晶，当年到过圆明园的外人称它为“天上之园”、“万园之园”等，对它的美丽赞不绝口，说只要进入圆明园，就像到了人间仙境一般，令人不由自主就深深地爱上了它。但是，在咸丰十年（1860）和光绪二十六年（1900），圆明园遭到了英法联军、八国联军的劫掠、焚毁，竟化为一片废墟。如今的圆明园被国务院定为遗址公园，不能在原址恢复重建了，只能作为一个爱国主义的基地。第一城恢复并重建了圆明园的几组最著名、最具代表性的几组景点。

这组建筑是“正大光明”。是由正大光明殿、东西配殿、出入贤良门、东耳房、西耳房组成。正大光明殿曾经是圆明园的正殿，是清帝居园时举行朝会和大典等重大活动的地方，类似故宫的太和殿。每逢皇帝过生日时，都要在这里接受百官的朝贺。新年宴请王公大臣，正月十五的宴会都是在这里举行，这里还是举行殿试的地方。

1860年10月，正大光明殿成为英法联军侵略者的指挥部。当侵略军撤离时也将正大光明殿点燃，庄严华贵的殿堂在罪恶的大火中化为云烟。中信国安第一城重建了正大光明殿，为了显示它的雄伟庄严和富丽堂皇，将它原来的青砖素瓦改为了黄琉璃瓦屋顶，再加上金龙和高贵的和玺彩画，比原来的正大光明更显得金碧辉煌。您至此不仅能感受到它当年的庄重、气派，同时还可以欣赏和参与中信国安第一城为您准备的皇帝上朝、百官朝拜、大婚典礼、宫廷乐舞等活动，喜欢新奇的朋友可以尝试一下当年皇帝的威严。

东侧的“万方安和”景区

这组建筑就是“万方安和”。清朝经过顺治、康熙、雍正三代帝王到乾隆时，全国统一，一派太平盛

世的景象。圆明园中的“万方安和”就是以国家统一、天下太平为意境的一组景点。它是一座“卍”字形的大型殿宇，是我国建筑史的特例。它以条石做地基，由33间房组成，每间房大面积开窗，且建在水中，冬日阳光充足，夏季清风掠水徐徐而来，因而冬暖夏凉，四季皆宜。中信国安第一城将这里建成敞开式造型奇特的“卍”字形游廊，因它建在湖中，故从水面吹来的清凉、潮湿的风，为游人在炎热的夏季带来了些许的凉意。

“上下天光”景区

与万方安和相连的这组建筑就是“上下天光”。它是由临水的两层楼阁和建在曲桥上造型奇巧的“奇赏”和“饮和”两亭组成。“上下天光”是当年乾隆帝取范仲淹《岳阳楼记》中“上下天光，一碧万顷”之意而建造的。在楼上赏景，各景点历历在目。第一城在二楼为您准备了中国茶道表演，各位可以在此一边品茶，一边欣赏表演。

大水法、远瀛观景区

展现在大家面前的就是“大水法”、“远瀛观”，是圆明园这个极具中国传统特色的园林中的一组西洋建筑。

前面的“大水法”，是当年西洋楼三组大喷泉中最壮丽的一组，由意大利传教士郎世宁和法国传教士蒋友仁设计，中国工匠历时14年修建而成。前面的海棠式喷水池中有“十犬逐鹿”的喷泉，两侧的13级方形喷水塔亦可同时喷水，牌坊前圆形七级水盘也可层层喷水。据说当年这里所有喷泉都喷水时，水声之大，几里路之外都听得见，两人在一起谈话都听不清，需打手势才可。现在，中信国安第一城利用声、光、电等高科技手段，使之更加壮观、美丽。

后边的“远瀛观”，建筑风格是欧洲18世纪中叶盛行的巴洛克风格宫殿式样，但在屋脊上施用中国的鱼、鸟、宝瓶等花饰，屋顶则采用中国传统的琉璃瓦顶，可以说是中西合璧的完美构造。“远瀛观”是当年香妃的寝宫。香妃是乾隆众多妃嫔中唯一的新疆维吾尔族女子，信奉伊斯兰教。传说她头上爱戴沙枣花，身上有一股浓郁的沙枣花香，所以被人称为“香妃”。她于乾隆二十五年（1760），由喀什千里迢迢来到北京，在宫中生活了28年，深得乾隆的宠爱，其风俗习惯也受到皇帝的尊重。香妃在宫中长期穿维族服装，直到乾隆三十三年六月封为妃时，才为她缝制了满族朝服、朝冠、吉服。关于电视剧里对香妃的描述，纯属后来文人的艺术加工。

“万花阵”景点

人们俗称“迷宫”的“万花阵”，是仿欧洲皇家花园中的迷宫而建的。所谓迷宫就是用绿篱矮树为

墙，划隔出无数往来复回的夹道，使进入的游人循着曲折的路前进，绕进绕退，有时走进死胡同而返，有时迎面撞着急寻出口的人，有时绕来绕去又走回原处。万花阵构图特点，阵方亭圆，寓意人生通过曲折的道路，方能到达天堂的中心亭。乾隆时期，每到中秋之夜，妃嫔宫娥手持黄绸做的莲花灯，花心上点上蜡烛，分别从四个门进入迷宫，寻径在迷阵中往来穿梭。皇帝在阵中央八角亭中，居高临下，据说谁先到达中央，谁就可得到皇帝的赏赐。

但这座饶有兴趣的迷宫在第二次鸦片战争中被焚毁了。参照原样恢复了阵墙和阵中圆亭，再现当年迷宫的迷人景象。它是目前我国唯一仿欧式的迷宫。各位不妨进入迷宫一游，它会带给你一种独特的乐趣。我在出口等各位，希望大家进出顺利。

“平湖秋月”景区

平湖秋月是圆明园中仿杭州西湖的一处景观。第一城的平湖秋月景区由平湖秋月、流水音、夏隐亭、深秋月皎和福海波光组成。由于它原来是一处皇帝休息的场所，所以，现在将其辟为三幢高级别墅，内部设施高档、典雅、齐全，且环境优美，有栈桥曲廊与水面相连，比之圆明园远离水面的平湖秋月，景色更胜一筹。

“九洲清晏”景区

圆明园景区的最后一组建筑——九洲清晏，它由圆明园殿、九洲清晏殿、天地一家春和承恩堂组成，是圆明园中规模最大、最具内涵的一组建筑，象征九州大地河清海宴，天下太平，并且深含“普天之下莫非王土”的帝王思想和政治愿望。“天地一家春”曾是慈禧为贵妃时的寝宫，也是她发迹的地方。正是在“天地一家春”，她讨得了皇帝的欢心。因此，英法联军火烧圆明园后，她仍念念不忘“天地一家春”，她曾下令恢复圆明园，但由于经费紧张，未能如愿。

九洲清晏不仅风景幽美恬静，而且里面储藏十分丰富。当年英法联军抢劫圆明园时，对这里的陈设惊叹不已，恨不能生出三头六臂来抢劫。这些强盗盗走了能拿动的东西，对于拿不走的九洲清晏仙宫玉阙般的美景，则用罪恶的大火将之变成了瓦砾。

如今，第一城恢复了“九洲清晏”的圆明园殿、九洲清晏殿、天地一家春和承恩堂，并且沿其旧用，在里面为游人准备了宫廷仿膳和清宫乐舞。各位中午用餐时，就可以到这儿来品尝一下宫廷的膳食美味。圆明园景区到此就结束了。

穿过前门商业街去参观位于外城西部的古城景区，之所以叫古城景区，主要是所有的建筑都是仿古建筑，如代表老北京特色的四合院、王府、茶艺馆以及古代帝王宫殿等。在这儿不仅可以感受老北京文化氛围而且还可以体验具有现代特色的地下迪厅和大型的音乐喷泉。

大安寺、郡王府景区

大安寺是一座雄伟的寺庙。相传唐太宗李世民曾经在此兴修大安寺，保佑百姓安居乐业和世间太平，香火十分旺盛，距今已有 1000 多年的历史了。现在天下第一城重新修建大安寺，由河南佛教会长释永寿大师常年主持寺内事务。您可以在这儿烧香拜佛，还可以去那边的中国佛教文化艺术博物馆瞻仰价值连城的佛教艺术品。

大安寺西侧的这个仿古别墅叫郡王府，又叫风清水苑，格调幽雅，环境清新优美，里面有淮扬菜餐厅、会议室和 16 间高档客房，可以容纳 26 人在此住宿和用餐以及开会。大家可以进去体验一下水清花香的王府情调。

永安宫和大安宫景区

这组比较奇特的建筑叫永安宫，又叫空中四合院，共有三层，其中第三层是一套严格意义上的两跨院的四合院，所以称空中四合院就名副其实了。每一层布置风格迥异，可作为商务、住宿、会议等多功能区。

紧挨着永安宫的这组建筑叫大安宫，它的建筑形式取自宋代一部建筑画册集《营造法式》，以宋代“水宫”为蓝本设计而成。因其三面环水，水里种满荷花，整个建筑由荷花池围合而成，所以又叫“荷宫水殿”。大安宫建筑格局巧妙合理，外型高贵典雅，内部设施选材现代，装饰陈设却古香古色，给人以金碧辉煌中不失庄重典雅之感，是西区代表性的建筑，共有五层，由休闲厅、餐厅、多功能厅、客房和高级客房组成。大安宫前广场上的这组大型的音乐喷泉，可随着音乐，变换各种喷水造型，而且在通往大安宫入口处的甬道两旁，还有分别从左右两侧向中间喷水的灯光喷泉。大家可以看到，现在白天不打灯光时好似水帘洞，在阳光照耀下，像很多条彩虹，这里是拍照的好地方；等到晚上打开七彩灯光后，就像彩虹门一样，客人从中穿水而过进入大堂，真是妙趣横生。

亲王府景区

这组建筑叫亲王府，是仿照明清时期的亲王府邸建筑格局而建，布局错落有致，分为府邸和花园两部分。整体构筑物有六种格局，由十八座建筑组成，因此又叫十八王府。王府的建造采用了多种造园艺术。大家可以看到园中既有叠石假山、曲廊亭榭、荷花池塘，还有设备先进的会议室和多功能厅、淮阳特色的餐厅厨房。亲王府共有 28 套客房，可以容纳 45 人左右，功能设施齐全，是一处幽静的休闲度假和会议场所。

和合茶坊景区

在亲王府南面的这组建筑叫和合茶坊，又叫茶宫。该名称取自《尧典》，意为中日和合。由九脊四坡的歇山顶游廊、鱼池围合而成。在茶坊的走廊内设有大型热带鱼缸，鱼缸内喂养着各种珍奇鱼类，而茶坊的中间和外围的水池内也都喂养着各种鱼类。茶坊的整体设计合理，另外还有各种中式茶艺和日本的茶道表演。游客可以在此品茶并能享受到垂钓的乐趣。

很幸运选择了7月来游览我们第一城，因为现在正是荷花盛开的时节。这片荷花池塘位于和合茶坊和瀛洲之间，拥有150多个品种，大部分来自中国南方和欧洲。看到这出淤泥而不染、亭亭玉立的连片荷花，您是不是会情不自禁地吟诵“接天莲叶无穷碧，映日荷花别样红……”您还是用相机来记忆这难忘的美景吧！

瀛洲景区

瀛洲又叫御船苑和地下迪厅，是一座造型美观、别致的石舫型建筑。地下建筑是一个能容纳200人的地下迪厅；地上部分是一座龙船形状的四层建筑，一层是厨房和接待大厅，二层为容纳240人的大型淮扬菜系餐厅，三层、四层是10多套高级客房。大船由12条小船相伴，每条或为一个餐厅或为一间客房。另有船道码头九曲走廊，水中央还有五角厅舞台，船周围都注满水，水中又有荷花相映衬。尤其到了晚上，所有灯光打开，更是别有一番意境。

四合院景区

这组四合院是仿照明清时期标准的北京民居而建，按其大小、功能不同分为南北两种格局，南北各四套，每套四合院可容纳12个人住宿，而且每套四合院还配备了餐厅、厨房和小型会议室。四合院环境幽雅，功能齐全，是休闲、度假的最佳选择。如今北京很难再看到四合院和老北京胡同了，尤其难能可贵的是，在老北京胡同里我们种满了葫芦，夏天，在胡同里漫步的时候，看着一个又一个葫芦，那份闲适与幽雅便可想而知了。

内城是不对外开放的，第一城的内城包括9座城门（即安定门、德胜门、西直门、阜成门、宣武门、正阳门、崇文门、朝阳门、东直门）、阳光长廊、正安宫大酒店、高尔夫球场、安定门酒店等建筑。

阳光长廊位于外城与内城交界的东便门与西便门之间的城墙段内，全长1000米，北面全部用玻璃做墙体，采光性极佳。其内部设有国际会议中心、康体健身中心、佛教艺术博物馆、中国玉器珍藏馆、戏水养生中心等。

正安宫大酒店是超五星大酒店，仿照台湾香格里拉大酒店风格兴建的，共有十二层，其中一层是由中国佛教艺术博物馆、中国国务礼品博物馆、中国玉器珍藏馆等组成，十一层是观台，九层、十层是一

套总统套房。除此之外，正安宫里面还有康乐中心、游泳池、鲁粤等菜系的餐厅。

在第一城内城和城外有大片绿地，是由环城 18 洞和内城 9 洞灯光球场组成的花园式高尔夫球场，由澳大利亚国际顶级大师设计，具备国际锦标赛级标准，是世界高尔夫的一株奇葩。古老的城墙、城楼与高标准的现代化球场交相辉映，形成独具韵味的休闲运动场所。

安定门酒店由标准客房、高尔夫复式公寓、安定门川菜餐厅、德胜门会所及餐厅组成，是一座四星的现代大型的综合酒店。

编译：金顺花

金山岭长城

一个不朽的标志

一代伟人毛主席曾经说过：“不到长城非好汉”，现在中国又有了另外一种流行的说法，“不爱长城非好汉”。

雄伟壮观举世闻名的万里长城是人类历史上的伟大奇迹之一。万里长城是中华民族的光荣，也是整个中国的象征。它显示了中国人民的伟大精神、辉煌灿烂的文化、以及中国文明的悠久历史。它首建于公元前7世纪，自此，长城便伴随着中国两千年的历史不断地重建、修筑、延伸。总长度达5000多公里，横亘在中国北部的土地上，它是伟大中国的象征，是中国人民聪明才智和辉煌成就的象征。

长城的历史

万里长城是古代建筑中一项伟大的防御工程，早在公元前7世纪，即春秋战国时期就开始修建。在东周时期统治下的北部地区的各个诸侯国，都修建城墙用来防御自己的领土，然后各地区开始大肆修筑土长城，被称为“先秦长城”。秦朝统一中国后，秦始皇联合秦、燕、赵三国的围墙来抵御匈奴的入侵，巩固国家，联合起来的围墙便成为了众人所知的长城。而后，从汉（公元前206年到公元前220年）到明（1368~1644）的各个朝代都继续修筑和改善长城，并延伸1000多公里，达到了今天的规模，就是我们今天所提到的万里长城。

万里长城西起中国西部甘肃省的嘉峪关，东到中国东北辽宁省的鸭绿江边，全长6700公里。它像一条巨龙蜿蜒穿过沙漠、草原、山川、河流。穿过辽宁、河北、天津、北京、陕西、内蒙古、宁夏和甘肃省的自治市、自治区。1987年万里长城被联合国教科文组织列入世界文化遗产名录。

金山岭

金山岭长城是万里长城的精华，它位于河北省滦平县境内，东起望京楼，西至历史上著名的关隘龙峪口，全长十余公里，占地面积32平方公里。它距离北京136公里，距离承德91公里。它修筑在燕山第一峰——雾灵峰与古北口卧虎岭之间的大、小金山之上，故得此名。一千年以前，古代著名地理学家郦道元遍游祖国大好河山，他深深地陶醉在雾灵山的飞瀑、清泉、秀岭和夏日飘雪的美景中，对雾灵山

的风景叹为观止。

关于“金山”一名，还有这样一段传说：修建这段长城的人是当年随抗倭英雄戚继光北上的江南士兵，由于思念家乡，所以借用镇江大小金山岛的名字来命名这两座山，以寄托对故土的眷恋之情。1988年，金山岭长城被批准为国家第三批重点文物保护单位。1991年，金山岭长城被评为国家级风景区和A级旅游景点。现在的金山岭长城是国家重点历史文化保护区，它以防御体系功能奇特和优美的自然景观而著称于世。

金山岭的历史

据记载，15世纪中叶，明王朝国力从强盛转入衰退，北方蒙古族、土蛮等各部多次向南侵犯，给明王朝统治者造成严重的威胁。为了加强北方的防御，著名明朝将领徐达从1368-1389年修建了金山岭长城。隆庆元年（1567年），明统治者把抗倭名将戚继光、谭纶从南方调到北方，令他们在大将徐达所建长城的基础上续建和改建金山岭长城。戚继光到任之后，请求朝廷同意，对所辖600多公里长的原有长城，进行了大规模的修筑：加高加宽城墙，并在要塞地段修筑双墙防御体系，极大地提高了长城的防御能力。因此，金山岭长城成了万里长城中敌楼密集、结构最复杂的一段。

金山岭长城的构造、功能和遗迹

在20余公里的金山岭长城上筑有67多座敌楼，设有大小关隘5个，烽火台2个，要塞、瞭望塔和用来贮存粮食、武器、传递军情的独楼诸多。不同的塔楼有不同的构造，不同的外观。敌楼和敌楼之间的间隔从50米至150米不等，随地形而修筑，其密集的程度在我国万里长城上是罕见的，成为金山岭长城的一个突出的特点。由于金山岭上堡垒密集，军情警报可以通过鼓、锣、军号、信号旗或者是烽火等方式传递。

修筑长城通常是就地取材，材料多为土和石头。这段长城的修筑，采用块石和砖块代替以往修筑长城时使用的粗石和黏土。长城底部采用石条奠基，上部用青砖包砌，中间用土、石、沙填方。城墙大约7.8米高，底部宽5.6米，不平衡的建筑分布使金山岭长城形成了完美的防御体系。通向敌楼高坡地段建有多个高3米左右的障墙，它的作用是保卫敌楼。障墙上设有高度不同的3-4个瞭望孔，可供士兵以立、跪、卧三种姿势打击来犯的敌人，专家认为，这样的障墙，在我国万里长城上极为罕见，是金山岭长城又一独到之处，也是八达岭所不具有的。

作战指挥部的堡垒，通常大量地分布在深深的沟壑里，它们的旁边总是有附属建筑物，如：仓库、住所、围墙和堡垒。瞭望塔都建在要塞，其形状各异，通常有两层，底层用于居住和防御，而上面的那层是平台。墙上有排水孔和射击孔，便于排水和射击，最大的瞭望塔用于储存粮食、干草、武器，还可容纳70人居住。其他建筑包括夜间瞭望塔和库房。

许多著名的长城专家和文物专家包括罗哲文和朱希元，都曾于1980年登上金山岭长城，一致认为

金山岭长城地处要塞，气势宏伟，造型优美，堪称我国万里长城的精粹。

金山岭长城包括五个部分：桃春口、砖垛口、沙岭口、后川口和古北口等重要关口。古北口，又名“虎北口”，是西部通向内陆的唯一通道，同时也是连接北京和内蒙古草原的重要通道。古往今来，此处是士兵誓死捍卫之要塞，兵家必争之军事要地。著名的亚洲飞人柯受良于1992年11月11号骑摩托车飞跃了这段长城。

从金山岭长城的许多地方，我们都可以看到一个直插云天的塔楼，巍然屹立在金山岭长城东端的老虎山顶峰，和燕山山脉第一峰雾灵山遥遥相望，这座敌楼就是望京楼。望京楼是一座砖石结构的双层敌楼，上层为砖砌小铺房，下层楼内用石条砌成一条大拱道，每个石条一吨多重。长城的文字墙告诉我们，望京楼的上层主要用途是观察远方的敌情，一旦发现敌情，就通过施放烟火或击鼓鸣锣来传递信号，令守城士兵立即投入战斗；底层用来储存粮食、饲料、军事装备、火药等，同样也是站岗放哨的士兵的住所。据说登上望京楼，在黄昏时华灯初上的夜晚，能望到北京城的大概轮廓，此楼因此而得名“望京楼”。它是北京郊区最高的景观，海拔986米。但要登上望京楼，必须要闯过“登天梯”、“瘦驴脊”、“老虎嘴”等一道道险关。登上望京楼，举目四望，纵横千里的奇观美景，一下子尽收眼底，令人心旷神怡。

“登天梯”是到仙女楼和望京楼的必经之处。它建在两边都有100多米悬崖的山脊上；台阶不到1米宽，即使对于经常登山运动员来说都很窄且危险。

“障墙”离登天梯不远，在金山岭长城东端的老虎山脊背上，有大约50多米长，用来防御敌军。墙上边设置有瞭望孔，墙体设有密集的射击孔，供守城士兵以各种姿势射击。

在金山岭长城的众多敌楼中，建筑最美的是“仙女楼”。楼门石柱上，雕刻着两朵并蒂莲花捧着一个鲜桃，该楼处处给人以精巧、细腻、秀丽之感，不似敌楼，而似仙境的楼阁。

当我们登上金山岭长城，就能看见不远处两个双层敌楼。远远望去，这两座敌楼的顶部好像狐狸头，因此而得名大狐顶楼和小狐顶楼。据考证，这两座敌楼均建于明万历六年（1578），距今已有400多年的历史，保存基本完好。

细心的游客可以在万里长城上发现许多文字墙，上面有砌砖人的题字。过去，在万里长城发现有极少数带有文字的青砖，然而，在金山岭长城大狐顶楼一带，却有500多米长的长城，几乎完全是由带有文字的青砖砌的。因此该段长城被叫做“文字墙”，并吸引了许多专家的关注。从许多文字和碑文的记载中，可以看出：金山岭长城确系戚继光主持修建的，同时得到地方官吏的大力支持，动用了各地调来的兵将；也可以看出，戚继光修筑金山岭长城以后的数十年里，明王朝又不断调兵遣将加以维修。

金山岭长城脚下有一温泉湖，温泉湖中有一个温泉和一个冷水泉。滴水成冰的冬天，湖面上依然雾气缭绕，水波荡漾，清澈见底。

金山岭长城的敌楼，形式多样，别具一格。从外形看，有方形楼、扁形楼、长方形楼、圆形楼、拐角楼；有两眼楼、三眼楼、四眼楼、五眼楼、六眼楼；有单层的，也有双层的。从敌楼内看，有平顶的、穹隆顶的、船篷顶的，也有四角钻天和八角藻井顶的。从用途看，有作战楼、库房楼、铺房楼等。敌楼射击孔两个到五个数目不等。有些塔内还有水井用来蓄水，还有些塔，用砖砌塔顶以防恶劣的

天气。塔的规模也有不同，大的可容纳 100 多名士兵，小的仅能容纳 10 名。金山岭长城是明长城中结构最复杂、保存最完好、最具有代表性的地段，无论是建筑艺术、建筑风格还是建筑质量都有其独到之处。它保留着明代的原始风格，充分反映了一个时代的精神风貌。故此，美国尼克松总统曾评价道：“只有一个伟大的民族，才能造得出这样一座伟大的长城，拥有着如此伟大长城的伟大民族，一定会有一个伟大的未来。”

编译：朴虹

清西陵

梦想的领域

驰名中外的清代皇家陵寝建筑群清西陵，位于河北省易县永宁山下，古老的易水河从这里向东缓缓流去，它东北距北京 120 公里。清西陵自雍正八年（1730）开始营建泰陵，到 1915 年崇陵建成，历时 185 年。这里建有帝陵 4 座，后陵 3 座，妃园寝、王爷、公主、阿哥园寝等陵墓建筑共 14 座。雍正、嘉庆、道光、光绪 4 位皇帝和其他 80 位皇室宗亲长眠在这青山绿水之中。整个陵区总面积 800 平方公里，建筑面积 50 万平方米，共有各类建筑 432 座。它们雕刻精细，气势恢弘，具有丰富的历史、建筑、生态文化内涵。

朝代优先权

陵墓的修建，从某种意义上讲，是为了通过这样的方式求得先祖对于后世的荫护。因此，历代皇帝对于陵址的选择都极为重视。清王朝为少数民族入主中原，为了更好地统治庞大的中原，他们努力学习、接受汉文化。在陵寝制度和建筑形制上也极力尊崇历代传统，而且，汉文化中的风水学说也强烈地影响着他们陵寝的选址与营建。按照清王朝以孝治天下的规矩，雍正皇帝曾经在清东陵九凤朝阳山选过陵址，以求子随父葬。

而经堪舆学家再三相度，雍正皇帝将九凤朝阳山废掉，派十三弟允祥和风水大师高其倬另觅吉壤，终于在易县境内天平峪发现了上吉之地。这里北面有连绵的永宁山，如巨龙横卧中原，俨如一道屏障，南面有形态端庄的元宝山，东西两面则有九龙山、九凤山护卫左右，为天造地设的自然门户。稍远一点的东、西华盖山，山腰云雾缭绕，山峰高耸，北易水河从陵区蜿蜒流过。这样的自然环境非常符合天人合一的理念，正是历代帝王梦寐以求的完美佳境。

为了自己江山永固、殷泽子孙的梦想，雍正帝的儿子乾隆也不肯随父栖身西陵，而是在清东陵的胜水峪为自己选定风水宝地，不过，乾隆并不希望后世子孙各自择选吉地。所以，他专门下诏，要求后代子孙在东、西两陵隔代理葬。于是他归宿清东陵的裕陵与爷爷康熙相守，嗣子嘉庆奉安于西陵与祖父雍正为伴。这样一来，出现了清东陵、清西陵并存的格局。然而，乾隆皇帝的旨意并未被后世子孙所遵循，道光皇帝就把清东陵宝华峪山陵因浸水的地宫拆除，而迁至西陵龙泉峪重建了慕陵。

别致的格调

东陵与西陵同为一脉的清代皇家陵寝，然而，西陵的建筑颇为别致。

泰陵

泰陵是雍正的陵墓，也是清西陵中第一陵。五孔桥是大红门前第一座拱桥，它气势宏阔，像白色的巨龙镇卧陵前，向东西两边延伸的马槽沟，弯如飘带。

大红门是整个陵区的总门户，在它外面，有三座巍峨高大的石碑坊，这是西陵最具特色的建筑之一。它们一座居中面南横跨神道，两座各列东西，呈品字形排列，与北面的大红门构成中国最古老的建筑形式——一个宽敞的四合院。三座牌坊形式相同，尺寸一样，高12.75米、宽31.85米，构成五门六柱十一楼的建筑形式。

艺术性

在雕刻艺术方面，清西陵比明帝陵与清初诸帝陵牌坊精巧而又繁复，在牌坊的梁柱上，雕有龙、凤、花草、海兽等纹饰；夹柱石上，“夔夔”昂首怒目横卧于顶端，与其周围的山川图案构成一种“寿与山齐”的吉祥氛围。夹柱石正面，雕有龙、凤、狮子等图案，行龙抓握宝珠翱翔天际，麒麟在梧桐树下引颈鸣嘶。这些雕刻栩栩如生，充满了动感，使大红门前的广场庄重肃穆之中洋溢出灵动与轻盈。

在泰陵，2.5公里的神道作为中轴线贯穿南北，其间主要建筑有具服殿、圣德神功碑亭、七孔桥、石像生、龙凤门、三路三孔桥、神道碑亭、神厨库、东西朝房、班房、隆恩门、东西配殿、隆恩殿、三座门、二柱门、石五供、方城明楼及宝城宝顶。这些建筑有的居中，有的以对称的形式分列左右，这些建筑无论大小尊卑，都严格遵循了封建等级制度，这种布局给人以稳重、平衡的感觉，产生出和谐、统一的美学效应。

比较中西方建筑文化传统，刻意追求山川自然形势的完美，是中国古代陵寝建筑艺术成就最突出的一个特点。英国著名科学家李约瑟说过“皇陵在中国建筑形制上是一个重大成就，它整个图案的内容也许就是整个建筑部分与风景艺术相结合最伟大的例子”。泰陵建筑布局就是巧妙地利用自然环境，把建筑物与周围天然的地理环境有机地结合起来的典范。

近年来，清西陵管理处在泰陵举办了大型皇家祭祀表演，在威武的仪仗队的引导下，在御林军的护卫下，在臣僚的陪伴下，身着龙袍的乾隆皇帝端庄肃穆，向着父皇、母后的神牌三拜九叩，一种展孝思，溯源笃本，承统守业的情感抒发得淋漓尽致。

昌 陵

昌陵是嘉庆皇帝的陵墓，他的陵寝建筑体制形同泰陵，但有些建筑却独具风貌。按惯例，在殿宇内埽地需铺“金砖”，而昌陵隆恩殿地面却一反常规，改用产自河南的豆瓣石砌埽，每块石料呈正方形，边长62厘米，磨光烫蜡、不滑不涩，石面呈黄色，天然的紫色花纹图案相间其中，其状如竹笋，似春蚕，若芙蓉，像绒球，在阳光照耀下，如同满堂宝石，五彩斑斓。

昌西陵

昌西陵是嘉庆皇帝的皇后陵，埋葬着孝和睿皇后。这座陵寝在建筑上既不宏伟富丽，亦不豪华奢侈，在充满清幽典雅的建筑风格中，建筑学家把声学原理巧妙地运用于此陵寝的建筑之中。在宝顶月台前面的神道上，第七块石板是一处回音石，站在上面说话，无论声音大小，都可以听到洪亮回音。环绕宝顶的罗锅墙是回音壁，如果两人分别站在东西两旁，而壁低声细语，声音会像打电话一样清晰地传到对方的耳朵里。这在中国陵寝建筑中是绝无仅有的一例。

慕 陵

慕陵是道光皇帝的陵墓，附葬着孝穆、孝慎、孝全三位皇后。道光一生建过两次陵墓，第一次是他登基后按“昭穆之制”在清东陵花费七年时间完成了山陵大工，后来因地宫浸水而被拆除。又于1831年在西陵境内第二次建陵，1835年陵寝工程竣工。

按规制，帝王陵寝殿宇木结构均施以彩绘。而慕陵却一改常规，其隆恩殿和东、西配殿均为金丝楠木结构，在天花板、隔扇、门窗等处，雕刻安装了1318条蟠龙和行龙，龙身云纹采取浅浮雕手法。所有木构不施彩绘，以蜡涂烫，虽无富贵之气，其清明素雅，美轮美奂，异彩纷呈，是其他陵寝无法相比的。

道光皇帝为什么建筑这样的陵墓呢？原因是，第一次营建的陵寝地宫浸水，道光认为是群龙钻穴，龙口吐水所致，如果把龙请到天上来，龙就会在天上争水而不往地宫吐水了。在这种思想指导下，他命令千余个能工巧匠用金丝楠木雕刻了许许多多形态各异的龙，布满天花藻井，造成了多龙争水的场面。

另外，慕陵围墙也别具特色，不挂灰、不涂红、磨砖对缝、墙身光滑整齐。在隆恩殿后面，有一座玲珑剔透的石牌坊替代了琉璃花门，在诸帝陵中，也是特殊的一例。就其建筑风格和工艺而言，典雅肃穆、朴实、凝重，是清代帝王陵寝中难得一见的艺术珍品。

崇 陵

崇陵是中国封建王朝最后一座帝王陵墓，埋葬着光绪皇帝和隆裕皇后。崇陵建造于1909~1915年

间，经历了清朝和民国两个时代。除基本遵循旧制外，又吸取了中国古代建筑的精华，形成了其独有的特色。其殿宇所用木料均为异常珍贵的铜藻和铁藻，质地坚硬无比所以被冠之“铜梁铁柱”。

崇陵地宫是整个陵区内唯一打开并对游人开放的地宫。崇陵东面不远处的崇陵妃园寝中埋葬着广为人知的珍妃和瑾妃。

其他陵墓

在清西陵 14 座陵寝中，有两座王爷园寝、一处阿哥园寝和一处公主园寝，而且多数保存完好，这些建筑种类在其他地方已经不存在了。另外清西陵还有两处大型的配属古建筑群体——永福寺和行宫。梁格庄行宫，始建于 1748 年 3 月，完工于同年 8 月，是乾隆皇帝为拜谒其父雍正的泰陵而修建的，与其同时修建的还有房山的黄新庄行宫，涿州的半壁店行宫和涞水的秋澜行宫。目前，其他三处行宫已荡然无存，只有梁格庄行宫比较完好地保存下来，也是清代陵寝建筑中绝无仅有的孤品。

永福寺俗称喇嘛庙，是清朝皇家御用寺庙，位于梁格庄行宫西侧，建于 1787 年春，完工于 1788 年秋。寺内 19 座建筑，依山势而建，层次分明，结构严谨，座座殿宇典雅富丽，金碧辉煌，生动展示了乾隆盛世的皇家气派。

清西陵古松林是历代帝王陵寝中最大的古松林。经过对这些树木的精心保护和对破坏树木者的严厉的惩罚，保存下来的 16000 株古松巨柏，依然高耸挺拔，生机勃勃。

清西陵还有从高碑店到梁格庄行宫的慈禧谒陵专用铁路，还有环护陵区的风水墙。这些独特的面貌造就了清西陵的与众不同。同时，也为中国陵寝制度留下了许多珍贵的实物见证。

清西陵之所以为皇家寝地，最重要的是在于它的风水地气，而这些堪舆学家所推崇的神秘所在，却孕育了整个西陵景观的别样风情。步入陵区，顿觉山川秀丽，景色怡人。峻岭崇岗，巍峨耸拔的群山，环护着这块万年吉地。

登高远眺，人们会看到松林柏海掩映下的金顶玉柱，碧瓦红墙。所有这一切，是大自然的神奇造化，是人类的巧夺天工，其体现了中国天人合一的世界观，还有中华文明千年不坠的价值与传统。

编译：朴虹

涉县娲皇宫

这是一座高9米、宽12米的石碑坊，上书“娲皇宫”三个镏金大字。娲皇宫属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由四组建筑组成，占地面积550亩，计有古建筑135间，历代碑刻75通，佛像50余尊，北齐石窟3个，北齐摩崖刻经6部。集古建、石窟、石刻、石造像于一身，是我国建筑规模最大、肇建时间最早且最具研究价值的奉祀中华始祖娲皇圣母的古代建筑群，为河北省古建筑十大奇观之一，被誉为“华夏祖庙”、“国之瑰宝”。

来到娲皇宫最大的广场，从它道教的标志上我们可以了解到这里是一处道教圣地。高9.9米的花岗岩女娲雕像供奉在第三广场，象征至高无上的权威。雕像基座的四周有四幅红砂岩的浮雕，描绘了女娲抟土造人、炼石补天、怒斩恶龙、拯救苍生的传说故事。这四幅浮雕反映了女娲繁衍人类的动人画卷，是一曲缔造生命的赞歌。

这座石砌小桥叫“凤仙桥”，始建于清嘉庆十三年（1808），相传它是女娲补天后丢下的一块石头，有灵性，能辨别好坏人，是坏人踏上去石桥就晃动。

十八盘全长918米，逶迤曲折，像一条蛟龙盘曲在古中皇山的苍松翠柏中。经过十八盘将到达山顶，也是最高的主体建筑——娲皇宫。

山上的建筑以主体建筑娲皇阁居中，摩崖刻经共有6部，刻经面积165平方米，刻石1187行，共刻经文13.74多万字，为娲皇古迹之精髓，是我国现有摩崖刻经中时代最早、字数最多的一处，也是我国佛教发展史上、特别是佛教早期典籍中弥足珍贵的资料。

因为释迦牟尼是在岩窟中修行成佛的，所以佛教的传人们在山间开凿石窟供奉佛像，营造石窟之风随之兴起。最珍贵的是在石窟左右后三面均刻有经文。

眼光洞里刻有眼光奶奶雕像，也就是佛教中的菩萨迦叶。眼光奶奶是医治眼疾的神圣。据说，患有眼病的人，只要用手摸一下眼光奶奶的眼睛，再摸摸自己的眼睛，眼病就会痊愈。室内四壁刻满了佛经。

蚕姑洞里刻有蚕姑奶奶雕像，她掌管着天下的养蚕业，每条蚕虫，从幼虫到蚕蛹，直到变蛾、产卵，整个生命和作工过程，都是她细致安排的。

鼓楼建于明万历十四年（1586），对面那座为钟楼。钟、鼓二楼南北对称，若遇火警或逢三月庙会，庙门敞开，钟鼓齐鸣，回荡山谷，数里皆闻。

这是梳妆楼，是娲皇圣母梳妆打扮用的。大家可以看到一楼大门内是“送子观音”，身披彩衣，怀抱婴儿，端坐龙椅之上；二楼有娲皇圣母梳妆塑像，右面放一张床，床上的仙女是女娲的得力助手。

功德祠始建于1901年，里面塑的是李官。传说他为官清正，善于体恤民情、严惩奸商。扭转了涉县行商的风气，使百姓无不称颂。咸丰二年（1852），娲皇宫失火，山上山下几乎片瓦不留，

火后李官亲自主持恢复，并制定了十条保护娲皇宫的章程，深得民心，他死后群众为纪念他，为他立碑、建祠、塑像。

在娲皇古建群中，主体建筑娲皇阁为代表建筑，其最具韵味和风采，汇集了古建之精华，请跟我上三阁楼。

第一层叫清虚阁，阁楼墙上的壁画非常符合佛教道教中因果报应的说法，也说明了女娲的性格——爱憎分明。

二层叫造化阁，女娲的原型是我国母系氏族社会的一位部落联盟首领，她带领着子民勇敢地抗击洪水猛兽，靠人力战胜了自然，印证了人定胜天的道理。与其说是女娲创造了人类，不如说女娲拯救了人类，以至于后来人们把女娲这位大英雄进一步神化也就不足为奇了！

三层叫补天阁，女娲手持五色石，正在精心筹谋如何帮助人类渡过难关。传说当年女娲耗尽所有精力，历时七七四十九天补好了天上的窟窿。故事体现出了女娲文化的核心内涵，那就是“精神”二字，女娲作为中华民族的始祖，体现出了敢与天斗、勇于改造自然、善于掌握自身命运的宝贵精神。

每年农历三月十五日，是规模盛大的“娲皇庙会”。庙会期间，四方香客总要簇拥在“娲皇宫”虔诚地祈念和祷告，使这娲皇古庙增添了扑朔迷离、神秘古朴的色彩。希望各位在三月庙会期间一定要来此领略一番娲皇古迹的壮观景象。

编译：朴 虹

响堂山石窟

响堂山石窟是一座在我国石窟艺术史上有着重要影响和地位的著名石窟，因其悠久的历史 and 极高的文化价值而名扬海内外，被列为国家级文物保护单位。

响堂山主峰海拔 891 米，山势陡峭，植被丰茂，石窟、寺院、古塔等胜迹掩映其间。响堂山石窟分南北两处，两处石窟相距 15 公里，始建于北齐（550~577）。

响堂山石窟位于鼓山腰部，因这些窟石洞幽深，在洞中谈笑拂袖能发出铿锵的锣鼓之声，故称“响堂山石窟”。现存石窟 17 座，摩崖造像 450 余尊，大小造像 6000 余尊，还有大量经文碑刻等。在现存的 17 座石窟中，以北齐石窟为主体，共有 11 座，它是我国北齐时代造像最集中的石窟群。

响堂山石窟是河北省境内最大、历史最久的石窟，在中原一带乃至全国都有重要的影响及地位，它的雕刻造像艺术、建筑装饰技术及它的摩崖刻经都有极其重要的价值，它是研究我国佛教、古代建筑、雕刻、美术、书法的珍贵实物资料。

面对这样两组规模宏大的石窟群，您一定想知道，石窟为什么建在这里，又是由谁修建的呢？

北齐王朝把佛教捧得很高，奉为国教。当时，仅鄆城一带的寺院就有 4000 余座，僧尼达 8 万多人，成为当时东方的佛教中心。北齐王朝建立后，便将鄆城定为上都，晋阳为下都，因此鄆城与晋阳是北齐王朝两大政治、军事中心。皇帝夏居晋阳，秋返鄆城，王侯将相亦因此而频频往返于两都之间。高洋皇帝为了往来途中避暑游玩、停顿休息，同时也为了进一步宣扬佛教，笼络臣僚，麻醉百姓，在两都之间的沿途要道上，选择风景优美、石质良好的地方，凿窟建寺，营建宫苑。这一“佛教文化带”也是我们研究东魏、北齐时代佛教文化艺术不可多得的艺术宝库。

北响堂石窟位于鼓山中部，占地面积 2409 公顷，景区分山下、山腰、山顶三部分。山下有常乐寺遗址和宋代白塔，位于山腰的红色长方形壁围内，坐落着大家仰慕已久的北响堂山石窟。

常乐寺占地面积 7000 平方米。在唐代曾是北方重要的佛教活动中心。寺前的“普同塔”，为九层砖塔，高约 30 米，宋代俗称“白塔”，白天夜间皆熠熠生辉，百里之外都能看到。

进入山腰，展现在眼前的这个宽阔的院落中的这一组宏伟的石窟群，就是驰名中外的北响堂石窟。

北响堂山石窟始建于东魏末年，主要洞窟完成于北齐时期，现有大小石窟 9 座，大小佛像 3000 余尊。9 个石窟分为南、中、北三区，每区都有 1 个北齐大窟，且每个窟都有其独特的艺术价值。

大佛洞，因其规模最大而得名，它是整个响堂山石窟中规模最大、装饰最华丽、雕刻最精美的一座。窟高 12.5 米，宽 13 米，进深 13.3 米。面对窟门正面龛内的这尊坐佛为释迦牟尼佛，坐像高 3.5 米，莲座通高 5 米，为窟群中最大的造像。其装饰艺术的精巧华丽也是他处无可比拟的。

响堂山石窟中塔形窟的雕刻别具一格。窟的四壁共有十六列龛，这十六列龛装饰极为华丽。大佛洞

内大佛的整体布局、装饰与雕刻均为北齐高超艺术的代表，窟内的雕像形态生动，孕育着民族艺术的新风格。

释迦洞因窟内正面供奉了一尊释迦牟尼坐像而得名，又因其位于窟群中部，故也称中堂。这个洞长8.6米，宽33米，中心方柱高4米。窟外两侧各有手持金刚杵的天王像。窟口两侧各造一尊高大的菩萨。

响堂山石窟不仅佛像雕刻精美，刻经书法也是举世闻名的。位于窟群南区的就是刻经洞，这里因洞内外壁满刻北齐佛经而得名，又名南洞。

刻经洞分内外二室，内室进深7.3米，宽4.33米，高4.25米，三面壁各雕一大龕，各龕内均造像七尊。正龕主尊高2米，龕外四壁上部刻满千佛。整个内室以红、黄、黑三色为主，美不胜收。

南响堂石窟景区由石窟、靠山阁、殿宇、古塔组成，建寺历史已有1400多年了。

矗立于寺外的六角七层红砖塔，俗称“红塔”。院内有两棵奇树，其中一棵是“无名树”。

寺边山崖上即南响堂石窟群，现有的7座石窟均为北齐时开凿完成。石窟群分上下两层，规模最大的华严洞因洞中刻有华严经而得名，进深7.1米，宽6.4米，高4.5米，窟内的造像共有1228尊。充分显示了把佛教艺术的外来影响同中原汉族文化相结合所形成的响堂风格的独有特色。

千佛洞最具特色的是洞顶莲花及飞天浮雕。莲花外有8个飞天伎伎分4组布于洞顶四边。

编译：朴虹

吴桥杂技大世界

杂技艺术的摇篮

吴桥是河北东南部的一个平原小县，虽然只有 27 万人口，面积不足 600 平方公里，但它却是举世闻名的杂技之乡，是世界杂技艺术的摇篮。吴桥杂技历史悠久，据司马迁《史记》记载，吴桥杂技可以追溯到 5000 年前的龙山文化时期。正如民谣所言，“上至 99，下至刚会走，吴桥耍杂技，人人有一手”，绚烂多元的吴桥杂技显示出了其丰富的文化和历史底蕴。

吴桥杂技大世界是华北地区规模最大的旅游度假景区，是由吴桥县政府与香港国旅合资兴建的。它投资 1 亿元人民币，占地 600 亩，建有八大景点及可容纳 200 人住宿就餐的杂技宾馆。宾馆自 1993 年 11 月开业以来，接待了大批中外游客。八大景点中最著名的是江湖文化城、杂技奇观宫和魔术迷幻宫。该景点的建成开放，不仅对进一步弘扬古老传统的杂技文化和促进吴桥经济的腾飞起到了积极的促进作用，同时也向世人充分展示了杂技之乡浓郁醇厚的杂技文化风采。

吕祖庙

吕祖庙是为纪念中国家喻户晓的八仙传说中的八仙之一，杂技始祖——吕洞宾而建的。它占地 5500 平方米，投资 200 万元，设有正殿和东西配殿。彩殿中的雕塑是吕洞宾和他的两弟子、以及铁拐李、蓝采合等其他八仙。这些塑像惟妙惟肖，神色各异。正殿四周的墙壁上绘制的画面讲述了八仙出世、成仙、云游四海、济世救人的生动故事。东西侧殿则以塑像形式再现当时的江湖艺人谋生的一些生活场景。这幅画向我们展示的是收徒仪式和祭拜杂技始祖吕洞宾的仪式。为什么吴桥艺人要祭拜吕洞宾呢？这其中还有一个美丽的故事呢。相传宋代有两个进京赶考的举子，一个叫纪晓堂，一个叫柳树青，由于官场黑暗，二人落榜，欲寻短见，却正好被云游四海的吕洞宾搭救，不仅收他们为徒弟，还教会了他们一些杂技和魔术。年复一年，一天吕洞宾对他俩说：“你们已功成学满，可以下山了，再以技艺为业并将它传给天下穷人，使他们得到温饱，但不可以与官府财主交往。如有违者，我必严惩不贷。”

两个徒弟下山以后依师傅所嘱，将这种技艺传给了民间百姓。从此，杂技艺人便把吕洞宾奉为始祖，无论是收徒、拜师，还是出外演出前都要虔诚地拜吕祖，以求平安吉祥。

江湖文化城

吴桥杂技经过几千年的跋涉，到明清时代，在吴桥民间得到了广泛普及和发展。漫步城中，各种各样的表演使我们目不暇接：独台戏、驯鼠、说书唱戏、上刀山、吞宝剑、钢枪刺喉等，应有尽有。吴桥艺人身着清代服装，说着当年卖艺求生的语言，把过去吴桥艺人四海为家，闯荡江湖的情景再现得淋漓尽致。

拉洋片又称西洋景，是我国北方冀鲁一带的古文化。在电影电视没有发明之前，人们就是通过它的观景口，边看边听艺人的说唱来了解外面的社会。这种技艺已失传多年，直到杂技大世界建成后，它才在民间被重新挖掘出来。驯白鼠是另一种古老的民间艺术，被列为北京天桥八大怪之一。这个节目是集合排队，这是开火车，这是蹬风车。还有一些节目是根据古代传说改编的，像刘全进瓜、白猿偷桃、李三娘打水、武松扛枷等。

独台戏又称扁担戏，木偶戏。相传起源于唐朝，民间初年形成规模。它是由一个艺人双手操作木偶进行表演，唱词、道白、伴奏都由一个人完成，木偶形象多变。河北梆子、京剧，评剧等多种剧目，都能被淋漓尽致地表现出来。

王保合节目也是不能不提的著名杂技节目。出身于杂技世家的王保合，3岁学艺，5岁在北京天桥演出，足迹遍及祖国大江南北和日本、新加坡、朝鲜等国。他自创的魔术节目很多，像马术、跟头、卸锁、大变活人等。在这里，旅游者还可以到5分钟魔术学校去学两手，让魔术师亲自表演授课。

杂技大汇演

杂技大棚是过去吴桥杂技团体为便于流动演出而发明的设施，相传有近500年的历史。这里的主要节目有吃火吐火、车技、钢丝蹬技、滑稽等。

现在中心广场上进行的是气功表演，这是旧时吴桥艺人外出谋生不得不演出的一种惊险绝活。这里的主要节目还有：上刀山、油锤顶、气断钢丝、钢筋缠脖、吞钢球、吃宝剑等。从这些惊心动魄的表演中，我们可以体验到旧时吴桥艺人闯荡江湖的艰辛和他们苦练技艺的惊人毅力。

戏台上这些演员虽说都是业余民间选手，可他们却有各自的绝活和拿手好戏。廖老师的二胡，韩老师、张老师的唢呐，都是经过名师指点的。他们表演的“气功唢呐”的绝活，在国内独一无二。将400余斤的大磨盘压在腹部，再加上两个人，他们仍然能吹奏出优美动听的曲子。8岁小演员廖朋不仅能唱一口字正腔圆的京剧，而且还能双手书画，令人叫绝，海内外多家电视台都给他录过像。王福贞、徐凤阁和梁书玲老师的京东大鼓和西河大鼓曾多次在省内获奖。

这里是一个典型的杂技之家，男主人彭彦华擅长演“飞叉”；他的妻子擅长演“伞技”、平衡技巧；儿子立新演的“舞钹”、“水流星”也很出名；而女儿彭真真的绝活是“魔术叼花”，是在用3只灯泡垫起的3条腿的板凳上叼起桌子下面的花，同时两手还要分别转着碟子。别看她只有10岁，却有6年的艺龄了，并曾多次在中央及省市地方电视台录制过节目。

这种表演形式叫“马术”，起源于唐朝，兴盛于清朝末年。演员经长时间的训练，能在飞跑的马上表演倒立、站立、横侧等多种动作，扣人心弦。“蹬大缸”是吴桥传统的保留节目，以重蹬技而闻名于世。这位表演者双腿所蹬，足有400多斤，但她仍能旋转自如。

这座农家场院是杂技艺人崔秀海一家两口承包的表演天地。他们表演的是典型的吴桥传统民间杂技，表演用的道具是铲子、勺子、碗、筷和农民打场用的杈、耙、筐子。这里的节目以平衡技巧为主，充分体现了吴桥杂技的民间性、普及性和广泛的群众基础。

明星大道

走出江湖文化城，游客们脚下所踏的是“明星大道”，亦称“步行时空大道”。道北边是16根汉白玉生命图腾柱，形象生动地表现了杂技艺术的生命力和后人对先哲的崇拜。正前方的铜雕是杂技大世界的标志性建筑，取名“杂技魂”，是由我国著名体育雕塑家谭云先生设计的。它是由一个牛头和三个拿倒立的小孩组成。这只牛有三只眼睛，所以无论从哪个方向看都是一个完整的造型。它象征着杂技起源于民间，起源于普通民众的劳动生活。两宫门前是精美的青铜壁画。它长56米，高6米，囊括了5000年的杂技文明史。壁画中央是一个集体车技的造型，像一只美丽的孔雀开屏，左上方和右上方分别是月亮和光芒四射的太阳，象征吴桥与日月同辉。两边的飘舞彩带，象征27万吴桥人民，张开双臂迎接八方贵宾。

杂技奇观宫

进入杂技奇观宫，映入游客眼帘的第一个场景便是“皇帝战蚩尤”，它再现了5000年前冀州一带的皇帝与蚩尤大战的场景。相传蚩尤是南方九黎部落的首领，兄弟81人，神话中描述他们全身是毛，兽身人言，铜头铁额，耳硬如剑，头有角能触人，吃沙石而生。蚩尤由南方进入中部地区，驱逐炎帝族，直到涿鹿。炎帝族联合黄帝族在涿鹿同蚩尤大战，流血百里，终于战败蚩尤。后人模仿其战斗的悲壮场面，后变成了一种新的艺术表现形式——“角抵”。

历史之旅

顺着山间小路，游客们来到了百兽率舞的第二场景中。这里展示的是古代劳动人民庆祝丰收的场景。丰收之余，人们聚集在一起，拿着石块，敲打着节拍，翩翩起舞。被驯养的牛、马、羊也在这铿锵的乐声中摇头摆尾，形成了“击石附石，百兽率舞”的场景，这便是后期“百戏”的源头。

穿过五彩斑斓的钟乳岩洞，我们来到了战国时期的宫殿，来了解古代的故事和生活。相传公元前298年，齐国孟尝君被秦昭王软禁在秦国，昭王准备杀掉他。得知昭王宠姬喜爱白裘，孟尝君派手下

能人，黑夜深入秦宫偷回了白裘，献给秦爱姬。后来宠姬劝说秦王，秦王果然把孟尝君放了。事后秦王反悔，于是派人追来，孟尝君到了函谷关时已是午夜，当地的规矩是鸡叫才开门，所以无法出关。紧急关头，他手下又有一会口技的门客，这时便学起鸡叫，这一叫关卡上的鸡都跟着齐鸣，守关的士兵以为天快亮了，就打开关门，于是孟尝君一行得以逃脱秦国。这就是“鸡鸣狗盗”的故事，也是后来的口技艺术的源头。

走出山洞，我们进入了威严的秦朝皇宫。坐在大殿正中的是秦二世胡亥，两侧是宫娥、嫔妃和文武百官。他们正在观看的是一种融合了歌舞和杂技的节目，叫“百戏”。

两边所表演的角抵戏，已成为宫廷游戏。第一个场景展现的是魏晋时期，洛阳景明寺浴佛活动画面。每年的四月初八是佛祖释迦牟尼的生日，所以每年在这一天，佛门都要举行盛大的庆祝活动来纪念这位先祖。这些庆祝活动包括高抬佛祖释迦的圣像，并在游行队伍中进行杂技表演，如“舞中幡”等。

秋 湖

告别了佛教寺，游客们来到了秋湖畔。喧闹的浴佛声尚在耳际，潺潺的流水声又入耳廓。这个是“水转百戏”。在碧波荡漾的湖水中的一处精致楼台上，随着潺潺的水车声，数千个木偶人在楼台上起舞献技。这是三国时一个叫马均的能工巧匠发明的，也展示出了那个时期我国的杂技艺术又登上一个新台阶。

帝王与艺者

唐代是我国封建社会的鼎盛时期，由于政治稳定，经济发展使得文化艺术出现了空前繁荣的局面，尤其杂技经过与外域的交流、融合更是瑰丽多姿，异彩纷呈。唐代的杂技艺术不仅技巧高、难度大、节目精，而且品种多、形式新。一句话，它已经发展成为以高难技巧为核心的综合艺术。每当皇帝设宴，必有杂技。百戏演出，观者数千万众。而最为壮观的则是规模盛大的“舞马”。这里展现的就是唐玄宗观马。100匹形体高大矫健、身饰绣花珠玉的骏马，踏着音乐的节奏欢腾舞蹈，步伐整齐。

时代在变，杂技也在变

这里展现的场景是宋代。到了宋代，大规模的杂技汇演少了，大部分杂技艺人都活动在民间，从而“勾栏”、“瓦舍”等游乐场所便出现了。游乐场所的技艺竞争，大大刺激了杂技向更高阶段发展。由于宋代艺人很多，“瓦舍”只能容纳那些技艺高超，出奇制胜之人，而众多的艺人只能在村头、路边演出。这种简单的表演形式极大地促进了杂技技艺的发展。

不得不提的精彩场景还有南园庙会。明清两代，宫廷中已没有大规模的杂技组织，杂技艺人大多四

处流浪卖艺。明代一些短小灵活的节目形式，成为近代杂技表演的主流。清代参加庙会表演的，除专业艺人外，还有很多业余爱好者及部分八旗子弟。据《县志》记载，县城南有一南园，苍松翠柏，设有祭风台，是历代民间杂技串演的场所。吴桥民间杂技高超的技艺和娴熟的表演，以及杂技繁荣兴盛的景观都在这里淋漓尽致地表现出来。庙会表演从农历八月十五持续到九月十五。在庙会上，有的插班搭棚演出，有的拜师会友。庙会完了，各路艺人便奔向全国各地演出。这是一个综合性参与演出厅，游人可在这里欣赏一场综合性舞台杂技演出，而且还可在杂技艺人的帮助下，运用现场的一些简单杂技道具来感受一下杂技表演的乐趣。

魔术迷幻宫

魔术迷幻宫建筑面积4432平方米，投资620万元，它运用先进的声、光、电技术，将历史神话和民间传奇故事用真人表演的手法向游人展现出来。

第一场景：吕祖催春。吕洞宾是杂技始祖，他神通广大，不但能呼风唤雨，还能让四季变化。大家请往这看：吕洞宾拂尘一甩，就见山泉奔涌、万花攒动、孔雀开屏，来欢迎游客们的到来。

在北京颐和园的大戏楼中，龙榻上端坐着的是慈禧老佛爷，旁边是太监李莲英。李莲英善于奉承，为讨好老佛爷，特在她祝寿之时请来吴桥艺人为她表演魔术节目。像这个节目，“巧变彩球”表演者手中的彩球就这样地从有到无了。

在柔和的灯光中，游客们将欣赏“空中悬人”表演。小姐先由梯子上去，然后梯子被撤下来了。难以置信的是，小姐仍悬在空中。你可能怀疑小姐脚下或身后有支撑物，下面用这个铁圈检验一下，什么都没有！魔术真是太神奇了！

不能错过的还有富丽堂皇的东海龙宫。大殿之中端坐的是东海龙王，两边是他的虾兵蟹将。就连东海龙王也禁不住吴桥魔术的诱惑，特请来吴桥的魔术师为他表演魔术。

另一个非常美丽的故事发生在白蛇洞。这个场景描述的是一个民间传统故事：书生许仙苦读诗书，心地善良。一日，他救下一条即将丧命的白蛇。数年后，白蛇为报答救命之恩，变为一美女下凡，二人喜结良缘，过上了幸福的生活。

下一个场景是“唐明皇游月宫”。这里将展现给来宾朋友们的是一个综合性的魔术舞蹈节目。八月十五中秋节，唐明皇命两名宫娥请贵妃一起饮酒赏月。轿子打开了，却不见贵妃身影，宫娥不慌不忙将轿子转动两圈，再次打开帘帏，贵妃却奇迹般地姗姗而来。这是第一个魔术节目“空轿变贵妃”。接着贵妃要为皇上和来宾舞上一段红绸舞，然后唐明皇令宫娥满酒与贵妃对饮，可是当宫娥拿酒壶倒酒，却怎么也倒不出来。贵妃亲自接过酒壶一看，原来酒壶无酒。这时唐明皇轻轻一指，然后宫娥再倒酒，酒就溢满了酒杯，这个魔术叫“空壶取酒”。对酒欢乐一毕，唐明皇又飞上月宫去和月宫仙子嫦娥相会去了。

最后，游客们将勇闯一下这“鬼门关”。数千把利刃排成了两道剑排阵来考验一下人们的胆量和智慧。

编译：朴虹

后 记

《河北经典旅游景点韩国语导游词》由河北旅游职业学院刘启亮教授、赵非副教授任主编，共同负责对中文内容的编纂。河北旅游职业学院韩国语教研室主任李英善老师任主译，河北外国语职业学院韩国籍教师申惠娟女士主审。参加编译的教师有金顺花、朴红、李国福等。

申蕙娟简介



한국 이화여자여자대학교에서 교육심리와 영어교육을 복수전공했다. 그녀는 세계를 넓고 큰 시야로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외국을 돌아다니며 시간 속에 생각과 마음이 익어가는 자연스러움을 사랑한다. 현재 중국 진황도 외국어전공대학교에서 한국어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申蕙娟，毕业于韩国梨花女子大学，获得教育心理学、英语教育学双学位。曾在多个国家生活学习，喜欢用开放的视野看世界，体验不同文化背景下各个国家的生活习惯。现任河北外国语职业学院韩国语外教。